

취약·위기가정 양육역량 지원 방안 연구(II)

: 청소년부모 양육역량 지원 방안

조숙인·배윤진·이정아·송경희·김희수



취약·위기가정 양육역량 지원 방안 연구(Ⅱ)

: 청소년부모 양육역량 지원 방안

저 자

조숙인, 배윤진, 이정아, 송경희, 김희수

연구진

연구책임자 조 숙 인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공동연구원 배 윤 진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공동연구원 이 정 아 (더관계연구소 소장)

공동연구원 송 경 희 (대구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공동연구원 김 희 수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원)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연구보고 2023-21

취약·위기가정 양육역량 지원 방안 연구(II)
: 청소년부모 양육역량 지원 방안

발행일 2023년 12월
발행인 박상희
발행처 육아정책연구소
주소 04535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70 9층
전화 02) 398-7700
팩스 02) 398-7798
홈페이지 <http://www.kicce.re.kr>
인쇄처 (주)승림디자인 02) 2271-2581

보고서 내용의 무단 복제를 금함.
ISBN 979-11-6865-070-1 [94330]
979-11-6865-069-5 [94330] (세트)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머리말

청소년부모는 24세 이하의 비교적 어린 나이에 임신과 출산을 경험한 후 자녀 양육과 더불어 자신의 학업이나 취업을 동시에 해나가야 하는 여러 가지 과업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 사회의 부정적인 시각과 주변 지지체계의 부족 등으로 경제적,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정부는 2021년 관계부처 합동으로 ‘청소년 부모·한부모 양육 및 자립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하였으며, 청소년부모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고 개인의 성장을 지원하고자 여러 사업들을 시작하였다.

육아정책연구소에서는 청소년부모와 같이 자녀 돌봄에 있어 취약·위기 상황을 경험할 수 있는 가정에 대한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총 5개년도의 가정 내 양육역량 지원 방안 연구를 기획하였다. 올해는 그 두 번째 연구과제로 ‘청소년 부모의 양육역량 지원 방안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설문조사, 심층면담, 육아지침서 개발, 토론회 개최 등 다양한 연구 활동을 통해 이들을 위한 실제적인 정책제언을 마련하고자 노력하였다. 특히 연구에서 양육역량을 넓은 범위로 정의하여 청소년으로서의 측면과 부모로서의 측면을 모두 고려하고자 하였던 점, 상호작용 중심의 청소년부모를 위한 육아지침서를 만들었다는 데에 다른 연구와 차별성이 있다.

청소년부모의 실태와 이들을 위한 양육역량 강화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언한 공동 연구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연구 과정에 도움을 주신 청소년부모 지원 단체 및 현장 전문가와 실제 연구에 참여한 청소년부모님들께도 깊이 감사드린다. 본 연구의 결과물이 청소년부모의 양육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는 초석이 되길 바란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이며 육아정책연구소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밝혀둔다.

2023년 12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박 상 희



목차

요약	1
I. 서론	1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3
2. 연구내용	15
3. 연구방법	16
4. 연구범위	24
II. 청소년부모 특성과 지원 정책	27
1. 청소년부모 현황	29
2. 청소년부모 특성	35
3. 청소년부모 대상 지원 정책	42
III. 청소년부모 양육 실태와 요구	51
1. 조사참여자 특성	53
2. 청소년부모 자녀 양육 실태	57
3. 청소년부모 지원 요구	124
4. 소결	155
IV. 청소년부모 대상 육아지침서 개발	167
1. 제작개요	169
2. 결과물 요약	172
V. 청소년부모 양육역량 강화 지원 방안	177
1. 기본 방향	179
2. 세부 지원 방안	184
3. 육아지침서 활용 방안	219

참고문헌	223
------	-----

Abstract	229
----------	-----

부록	233
----	-----

1. 설문조사 질문지	233
2. 심층면담지	251
3. 청소년부모 육아지침서 ‘청소년부모 힘 키우기’ 표지	254



표 목차

〈표 Ⅰ-1- 1〉 취약·위기가정 양육역량 지원 연구 5개년 개요	15
〈표 Ⅰ-3- 1〉 설문조사 연령별, 특성별 최종 참여자수	17
〈표 Ⅰ-3- 2〉 설문조사 내용	18
〈표 Ⅰ-3- 3〉 심층면담 대상자 개요	20
〈표 Ⅰ-3- 4〉 심층면담 조사내용 개요	21
〈표 Ⅰ-3- 5〉 현장전문가 간담회 추진	21
〈표 Ⅰ-3- 6〉 전문가 자문회의 추진	22
〈표 Ⅰ-3- 7〉 지식공유 동료멘토링 추진	23
〈표 Ⅰ-3- 8〉 정책연구실무협의회 추진	23
〈표 Ⅱ-1- 1〉 청소년 연령별 혼인 현황 (2021년)	30
〈표 Ⅱ-1- 2〉 청소년부모 총 가구수와 부모 연령별 분포(2021년)	31
〈표 Ⅱ-1- 3〉 청소년 미혼모, 미혼부 현황(2021년)	32
〈표 Ⅱ-1- 4〉 청소년한부모 총 가구수와 부모 연령별 분포(2021년)	33
〈표 Ⅱ-1- 5〉 청소년한부모 가족 수급가구 현황(2021년)	35
〈표 Ⅱ-3- 1〉 「청소년복지 지원법」의 [제5장의2 청소년부모 지원]	43
〈표 Ⅱ-3- 2〉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청소년한부모 지원	44
〈표 Ⅱ-3- 3〉 청소년부모 지원 정책-임신·출산, 양육	47
〈표 Ⅱ-3- 4〉 청소년부모 지원 정책-주거, 생계, 근로, 가족역량강화	48
〈표 Ⅱ-3- 5〉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49
〈표 Ⅱ-3- 6〉 청소년한부모 복지 급여	50
〈표 Ⅱ-3- 7〉 청소년한부모 등 자립지원패키지	50
〈표 Ⅲ-1- 1〉 응답자 특성(전체)	54
〈표 Ⅲ-1- 2〉 응답자 특성(청소년부부/청소년한부모)	55
〈표 Ⅲ-1- 3〉 면담참여자 특성(청소년부부)	56
〈표 Ⅲ-1- 4〉 면담참여자 특성(청소년한부모)	57
〈표 Ⅲ-2- 1〉 첫 자녀가 태어났을 시, 어머니 연령	58
〈표 Ⅲ-2- 2〉 첫 자녀가 태어났을 시, 아버지 연령	59
〈표 Ⅲ-2- 3〉 첫째 자녀 친부/친모와 함께 거주 여부	60
〈표 Ⅲ-2- 4〉 첫 자녀 임신으로 인한 부담감	60

〈표 Ⅲ-2- 5〉 첫 자녀 출산 시 가장 도움을 많이 준 사람	65
〈표 Ⅲ-2- 6〉 첫 자녀 출산 시, 병원비, 생활비 등의 경제적 영역에 가장 도움 준 사람	67
〈표 Ⅲ-2- 7〉 첫 자녀 출산 시, 의논, 위로, 푸념 상대 등 정서적 영역에 가장 도움을 준 사람	68
〈표 Ⅲ-2- 8〉 첫 자녀 출산 시, 간병, 육아, 가사 등 생활 영역에 가장 도움을 준 사람	69
〈표 Ⅲ-2- 9〉 첫 자녀 출산 시, 출산, 돌봄 관련 정보 제공에 가장 도움을 준 사람	70
〈표 Ⅲ-2-10〉 미혼모자 가족복지시설 입소 경험(여성 응답자)	72
〈표 Ⅲ-2-11〉 산후조리원 이용 경험(여성 응답자)	74
〈표 Ⅲ-2-12〉 출산 후 산후우울감 느껴본 경험(여성 응답자)	75
〈표 Ⅲ-2-13〉 우울(평균)	76
〈표 Ⅲ-2-14〉 현재 건강상태	77
〈표 Ⅲ-2-15〉 부모가 된 이후, 심리적 어려움으로 의료기관 또는 전문상담센터에서 진단을 받거나 전문 상담을 받아 본 경험	79
〈표 Ⅲ-2-16〉 현재 첫째 자녀의 주 양육자	80
〈표 Ⅲ-2-17〉 응답자와 배우자/파트너가 직접 자녀를 돌보기 어려울 때, 자녀를 돌보는 사람(또는 기관)(중복응답)	81
〈표 Ⅲ-2-18〉 첫째 자녀와 함께 지내는 시간(최근, 1일 기준)	82
〈표 Ⅲ-2-19〉 지난 한주 동안 귀하와 배우자의 자녀 돌봄 분담 비율	83
〈표 Ⅲ-2-20〉 자녀 양육 시 겪은 부담(첫째 자녀 기준)	85
〈표 Ⅲ-2-21〉 배우자 이외의 다른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받은 도움 정도	86
〈표 Ⅲ-2-22〉 현재 자녀 양육 시, 가장 도움을 주는 사람/기관	88
〈표 Ⅲ-2-23〉 현재 자녀 양육 시, 용돈, 생활비 등 경제적 영역에서 가장 도움을 준 사람 기관	89
〈표 Ⅲ-2-24〉 현재 자녀 양육 시, 의논, 위로, 푸념 상대 등 정서적 영역에서 가장 도움을 준 사람 기관	90
〈표 Ⅲ-2-25〉 현재 자녀 양육 시, 가사, 육아, 간병 등 생활 영역에서 가장 도움을 준 사람 기관	91
〈표 Ⅲ-2-26〉 현재 자녀 양육 시, 자녀 양육, 교육 등에 관한 정보제공에서 가장 도움을 준 사람 기관	92

〈표 Ⅲ-2-27〉 자녀 양육 정보 습득 경로	93
〈표 Ⅲ-2-28〉 여러 경로를 통해 얻은 양육정보가 실제 자녀 양육 도움 정도	95
〈표 Ⅲ-2-29〉 자녀 애착	96
〈표 Ⅲ-2-30〉 양육역량(평균)	98
〈표 Ⅲ-2-31〉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 양육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영역	99
〈표 Ⅲ-2-32〉 현재 ‘나 자신을 위한 삶’과 ‘자녀를 위한 삶’ 중 집중 정도 ..	104
〈표 Ⅲ-2-33〉 응답자 부모와 거주 여부	105
〈표 Ⅲ-2-34〉 응답자 부모와 연락 여부	106
〈표 Ⅲ-2-35〉 응답자 부모와 연락 빈도	107
〈표 Ⅲ-2-36〉 가족관계 만족도(자녀, 부모, 배우자/파트너)	110
〈표 Ⅲ-2-37〉 거주지역	112
〈표 Ⅲ-2-38〉 총 가구원 수(본인, 자녀 포함)	113
〈표 Ⅲ-2-39〉 최종학력	115
〈표 Ⅲ-2-40〉 현재 학업 여부	116
〈표 Ⅲ-2-41〉 학업 중단 경험 여부	117
〈표 Ⅲ-2-42〉 현재 경제활동 여부	118
〈표 Ⅲ-2-43〉 고용형태	119
〈표 Ⅲ-2-44〉 향후 경제활동 계획 여부	120
〈표 Ⅲ-2-45〉 월평균 가구소득과 수혜 정부지원금액	121
〈표 Ⅲ-2-46〉 소비지출 영역 중 가장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부문	123
〈표 Ⅲ-3- 1〉 정부/지자체의 지원을 받은 경험(종합)	125
〈표 Ⅲ-3- 2〉 정부/지자체의 지원을 받은 경험: 임신출산지원	125
〈표 Ⅲ-3- 3〉 정부/지자체의 지원을 받은 경험: 부모 학업 지원	126
〈표 Ⅲ-3- 4〉 정부/지자체의 지원을 받은 경험: 부모 취업 지원	128
〈표 Ⅲ-3- 5〉 정부/지자체의 지원을 받은 경험: 가족 주거 지원	129
〈표 Ⅲ-3- 6〉 정부/지자체의 지원을 받은 경험: 부모 양육역량 강화 지원 ..	130
〈표 Ⅲ-3- 7〉 가장 필요한 지원	138
〈표 Ⅲ-3- 8〉 임신·출산 관련 지원 중 가장 필요한 지원	140
〈표 Ⅲ-3- 9〉 부모 학업 관련 지원 중 가장 필요한 지원	141
〈표 Ⅲ-3-10〉 부모 취업 관련 지원 중 가장 필요한 지원	142
〈표 Ⅲ-3-11〉 자녀 양육 관련 지원 중 가장 필요한 지원	143

〈표 Ⅲ-3-12〉 가족 주거 관련 지원 중 가장 필요한 지원	144
〈표 Ⅲ-3-13〉 부모 양육역량 강화 관련 지원 중 가장 필요한 지원	145
〈표 Ⅲ-3-14〉 청소년부모가 자립하여 자녀를 잘 양육하기 위한 지원 필요 정도	146
〈표 Ⅲ-3-15〉 청소년부모 지원센터/서비스 인지도 및 이용 경험(종합)	150
〈표 Ⅲ-3-16〉 청소년부모 지원센터/서비스 인지도 및 이용 경험: 가족센터	150
〈표 Ⅲ-3-17〉 청소년부모 지원센터/서비스 인지도 및 이용 경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151
〈표 Ⅲ-3-18〉 청소년부모 지원센터/서비스 인지도 및 이용 경험: 보건복지상담센터	152
〈표 Ⅲ-3-19〉 청소년부모 지원센터/서비스 인지도 및 이용 경험: 위(Wee)센터	153
〈표 Ⅲ-3-20〉 청소년부모 지원센터/서비스 인지도 및 이용 경험: 육아종합지원센터	154
〈표 Ⅲ-3-21〉 청소년부모 지원센터/서비스 인지도 및 이용 경험: 아이돌봄서비스	155
〈표 V-2- 1〉 청소년부모 영역별 지원 경험과 요구	185
〈표 V-2- 2〉 청소년부모 지원의 고려사항: 생애주기, 발달과업	187
〈표 V-2- 3〉 청소년부모 영역별 지원 전략 요약	188
〈표 V-2- 4〉 청소년부부(부모 모두 24세 이하, 한 명만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 연구 결과 비교표	200
〈표 V-2- 5〉 청소년부모 배우자 유무, 연령조건에 따른 지원 제안	202
〈표 V-2- 6〉 응답자 연령별(19세 미만, 19~24세 이하) 연구 결과 비교표	203
〈표 V-2- 7〉 청소년부모 현재/출산 시 연령에 따른 지원 제안	205
〈표 V-2- 8〉 경제활동 상태별(경제활동 함, 안함) 연구 결과 비교표	206
〈표 V-2- 9〉 수도권, 비수도권 연구 결과 비교표	207
〈표 V-2-10〉 청소년부모 현재/출산 시 연령에 따른 지원 제안	208
〈표 V-2-11〉 지원센터/서비스 인지도 및 이용 경험	208
〈표 V-2-12〉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자격 여부 기준 변경안	209
〈표 V-2-13〉 영역별 지원 주체 제안	213



그림 목차

[그림 Ⅰ-3-1] 정책세미나 일정 및 내용	24
[그림 Ⅰ-4-1] 본 연구의 청소년부모 범위	24
[그림 Ⅰ-4-2] 연구개요	26
[그림 Ⅱ-1-1] 자녀 연령별 청소년부모 가구 분포(2021년)	32
[그림 Ⅱ-1-2] 자녀 연령별 청소년한부모 가구 분포(2021년)	34
[그림 Ⅱ-3-1] 청소년(한)부모 양육 및 자립지원 강화방안	46
[그림 Ⅲ-2-1] 첫 자녀 임신으로 인한 부담감	62
[그림 Ⅲ-2-2] 첫 자녀 출산 시 가장 도움을 많이 준 사람	66
[그림 Ⅲ-2-3] 자녀 양육 시 겪은 부담(첫째 자녀 기준)	85
[그림 Ⅲ-2-4] 배우자 이외의 다른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받은 도움 정도(본 연구, 아동종합실태조사)	87
[그림 Ⅲ-2-5] 현재 자녀 양육 시, 가장 도움을 주는 사람/기관	88
[그림 Ⅲ-2-6] 자녀 양육 관련 정보 얻고자 할 때 선호하는 방식	96
[그림 Ⅲ-2-7] 소비지출 영역 중 가장 많이 소비하는 부문	122
[그림 Ⅲ-2-8] 소비지출 영역 중 가장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부문	124
[그림 Ⅲ-3-1] 청소년(한)부모 지원 사업에 대한 정보 습득 방법	149
[그림 Ⅳ-1-1] 육아지침서 제작 과정	172
[그림 Ⅳ-2-1] 육아지침서 기본 틀	174
[그림 Ⅳ-2-2] 육아지침서 표지	174
[그림 Ⅳ-2-3] 육아지침서 목차	175
[그림 Ⅴ-1-1] 청소년부모 정책의 기본 방향	180
[그림 Ⅴ-2-1] 가족센터 사업운영 및 사업영역 확대 제안	214
[그림 Ⅴ-2-2] 가족상담전화 운영 범위 확대 제안	215
[그림 Ⅴ-2-3] 청소년부모 대상 서비스 전달체계 모델 제안	216
[그림 Ⅴ-2-4] 가족센터/드림스타트 단독형 모델 운영 방식	217
[그림 Ⅴ-2-5] 가족센터+드림스타트 복합형 모델 운영 방식	218
[그림 Ⅴ-2-6] 가족센터/드림스타트의 청소년부모 대상 사례관리사 역할 제안	219
[그림 Ⅴ-3-1] 청소년부모 육아지침서 배포 경로	220



요약

1. 서론

가.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본 연구는 총 5개년에 걸친 취약·위기가정 양육역량 지원 연구 중 두 번째 시리즈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청소년부와 청소년한부모를 포함하는 청소년 부모를 연구 대상으로 함.
- 본 연구의 목적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상황에 놓여있는 청소년부모의 양육역량 강화를 촉진하고자 양육 지원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이들을 위한 육아지침서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임.

나. 연구내용

- 청소년부모 현황과 관련 지원제도 정리, 청소년부모의 자녀 양육 실태 및 요구 파악, 청소년부모 대상 육아지침서 개발, 청소년부모의 양육역량 강화를 위한 종합지원 방안 제안

다. 연구방법

□ 문헌연구

□ 설문조사

- 대상: 영유아 자녀를 양육 중인 청소년부부(부 또는 모) 160명(부모 모두 24세 이하 108명, 부모 중 한 명만 24세 이하 52명), 청소년한부모(부 또는 모) 125명, 총 285명
- 조사 내용: 인구학적 특성, 출산 경험, 건강, 자녀 양육/돌봄 및 역량, 가족관계, 지출, 지원 사업 수혜 경험 및 요구

□ 심층면담

- 대상: 영유아를 양육 중인 청소년부부(부 또는 모) 7명, 청소년한부모(부 또는 모) 8명

- 조사 내용: 임신·출산, 자녀 양육 경험과 지원 요구, 자녀와 나 자신에 대한 생각, 부모, 배우자/파트너와의 관계
- ☐ 현장전문가 간담회: 청소년부모 지원 기관 현장 전문가 대상 2회 실시
- ☐ 전문가 자문회의, 정책실무협의회
- ☐ 육아지침서 개발
- ☐ 정책세미나 개최

라. 연구범위

- ☐ 청소년부모, 청소년부부, 청소년한부모: 본 연구의 ‘청소년부모’는 ‘청소년부부’와 ‘청소년한부모’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24세 이하이면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청소년모와 청소년부를 의미함.
- ☐ 양육역량: 자녀를 양육하는데 필요한 부모의 내적 특성과 외적 환경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함.
- ☐ 자녀 연령: 영유아 자녀를 양육하는 청소년부모에 초점을 둠.

2. 청소년부모 특성과 지원 정책

가. 청소년부모 현황

- ☐ 청소년부부: 혼인한 청소년부부는 2021년 기준 총 3,184가구, 부모 모두 24세 이하인 청소년부부가구는 총 2,954가구임. 자녀 연령은 0세가 44.6%로 가장 많음.
- ☐ 청소년한부모: 2021년 기준 24세 이하의 청소년한부모 가구는 총 3,024가구, 모자가구 2,592가구, 부자가구 432가구임. 자녀 연령은 2세가 18.6%, 3세 17.0%, 1세 16.4% 순임. 차상위 및 한부모 가족 지원을 받는 청소년한부모 가구는 2,408가구로 집계됨.

나. 청소년부모 특성

- ☐ 임신·출산 경험, 부모됨의 과정, 양육 어려움과 지원 요구에 관한 선행연구에

의하면, 갑작스러운 변화에 따른 불안정함이 존재함.

- 청소년부모를 이해하기 위해 학업·취업 및 경제적 상황, 주거, 심리적 건강, 사회적 관계를 고려해야 함.

다. 청소년부모 대상 지원 정책

- 「청소년복지 지원법」의 [제5장2 청소년부모 지원]과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청소년한부모 지원을 따름.
- 청소년부모 지원 대책: 2021년 11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청소년부모·한부모 양육 및 자립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
- 청소년부모 지원 정책: 청소년부모 지원 정책은 청소년부모를 특정하기 위한 정책이 아니라 모든 부모를 대상으로 한 정책임. 주거 생계 지원 미흡. 청소년한부모 대상 지원 정책이 상대적으로 더 다양함.

3. 청소년부모 양육 실태와 요구

가. 임신 출산 경험

- 출산 시 상황: 첫 자녀 출생 시, 평균 연령 어머니 19.3세, 아버지 21.8세, 친부/친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95.0%임.
- 임신·출산으로 인한 부담: 경제적 부담 > 정서적 부담/사회적 고립 > 신체적 부담/가족관계 어려움 순으로 보고됨.
- 출산 시 도움: 첫 자녀 출산 시 가장 도움을 많이 준 사람은 자신의 가족이었으며, 도움을 받는 곳이 없는 비율이 10.2~18.6% 정도로 보고됨. 청소년한부모, 미성년, 경제활동 하지 않는 경우, 소득 낮은 경우 도움이 없는 비율 높음.
- 임신·출산 정보 습득 경로: 온라인 인터넷 검색, 미혼모지원기관과 시설
- 미혼모자 시설 입소 경험 및 산후조리원 이용 경험: 미혼모자 시설 유경험 비율은 27.9%로 청소년한부모가 청소년부부보다 이용경험 많음. 반면, 산후조리원 유경험 비율은 52.9%이며, 청소년부부가 청소년한부모보다 이용경험 많음.

나. 건강

- 산후우울 경험 비율은 84.4%이며, 상담을 받은 경험이 있는 청소년부모는 25.3%, 한부모와 저소득가구가 상담 경험 상대적으로 많음.

다. 자녀 양육/돌봄 및 역량

- 자녀 양육/돌봄 현황
 - 대부분 어머니가 양육하며, 직접 양육 불가시 조부모 도움을 많이 받음. 미성년인 경우 돌봐주는 사람 없는 비율 높음.
 -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잠자는 시간 제외): 주중 10시간, 주말 14시간 24분, 미성년부모가 자녀와 함께 하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긴 편임.
- 자녀 양육 부담: 경제적 부담 > 신체적 부담/정서적 부담 > 사회적 고립 > 가족관계의 어려움 순으로 보고됨.
- 자녀 양육 도움: 청소년한부모,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소득이 낮은 경우 자녀 양육에 도움을 주는 사람이나 기관이 없는 비율이 높음.
- 자녀 양육 정보 습득 경로: 인터넷 블로그/사이트, 가족, 친지 의존도 높음.
- 자녀 애착 및 양육역량
 - 자녀와의 애착관계 긍정적으로 평가(4점 만점 기준 평균 3.8점)
 - 양육역량 보통 이상 수준으로 보고함(상호작용 역량 4.3점, 인지적 역량 4.1점, 양육효능감 3.5점, 정서적 역량 3.5점). 청소년한부모, 소득 낮은 경우 상호작용 역량과 양육효능감이 낮음.
 -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양육역량 1순위는 상호작용 역량으로 보고됨.
 - 나 자신보다는 자녀를 위한 삶에 집중하는 비율이 높음.

라. 가족관계

- 원가정과의 관계
 - 원가정 부모와 함께 사는 경우 22.5%이며, 청소년한부모가 청소년부부보다 원가정 부모와 함께 사는 비율 높음.

- 함께 살지 않지만 원가정 부모와 연락하는 경우는 80.5%로 청소년부부가 청소년한부모보다 연락하는 비율 높음.
- 가족관계 만족도(5점 만점 기준): 자녀와의 만족도(4.5점)가 부모와의 관계만족도(3.7점), 배우자/파트너와의 관계만족도(3.9점)보다 높음.

마. 가정환경

- 거주 상황: 수도권 42.5%, 그 외 지역 57.5%로 보고됨.
- 학업·취업 상황
 - 학업: 고등학교 졸업 비율 70.9%이며, 학업중단 경험은 19세 이전 출산 시 증가하는 경향 보임. 현재 학업중인 경우는 10.9%이며, 청소년한부모,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에 학업중인 비율 높음.
 - 취업: 경제활동 중인 경우는 30.9%이며(1명 이상 경제활동 하는 가구 178가구, 경제활동을 아예 하지 않는 가구 107가구), 청소년부가 경제활동 하는 비율이 더 높고, 이들 중 정규직이 43.2%로 보고됨. 향후 경제활동 계획 의지는 청소년부부보다 청소년한부모에게 높게 나타남.
- 가구소득 및 소비
 - 월평균 가구소득(정부지원금 제외)은 약 152만원으로 청소년한부모(약 61만원)보다 청소년부부(약 224만원)의 가구소득이 높음.
 - 월평균 정부지원금은 약 80만원으로 청소년부부(약 60만원)보다 청소년한부모(약 106만원)의 정부지원금이 높음.
 - 소비: 식비 > 아이 식료품, 기저귀 구입비 > 주거 및 관리비 순으로 보고됨.

바. 청소년부모 지원 요구

□ 영역별 지원 요구

영역	1순위 (1+2순위)	연구 결과 종합
자녀 양육 지원 (예: 아동수당, 가정양육수당, 청소년 아동양육비, 아이돌봄서비스)	1 (1)	이용경험 92.6%, 만족도 3.4점
		양육비 지원 희망 56.5%
		가정 방문형 자녀 돌봄 서비스 지원 15.4%
임신·출산 지원 (예: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첫만남 이용권)	2 (4)	이용경험 91.6%, 만족도 3.5점
		병원비 지원 확대 29.1%
		출산 후 산후조리 관련 지원 확대 26.7%

영역	1순위 (1+2순위)	연구 결과 종합
가족 주거 지원 (예: LH임대지원, 공공주택지원)	3 (2)	이용경험 37.9%, 만족도 3.8점 주거비 지원 확대 49.1% 임대주택 공급 확대 36.5%
부모 취업 지원 (예: 국민 취업 제도, 국민내일배움카드)	4 (3)	이용경험 28.8%, 만족도 3.6점 안정적인 일자리 보장 42.1% 취업/근무 중 자녀 돌봄 서비스 지원 30.2%
부모 양육역량 강화 지원 (예: 심리상담, 부모교육)	5 (5)	이용경험 17.5%, 만족도 3.7점 다양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지원 27.0% 청소년부모 심리적 지원 강화 22.5%
부모 학업 지원 (예: 검정고시 학습지원)	5 (6)	이용경험 18.9%, 만족도 3.6점 등록금 등 학업 비용 지원 41.1% 학업 중 자녀 돌봄 서비스 지원 27.4%

□ 제도 지원 전달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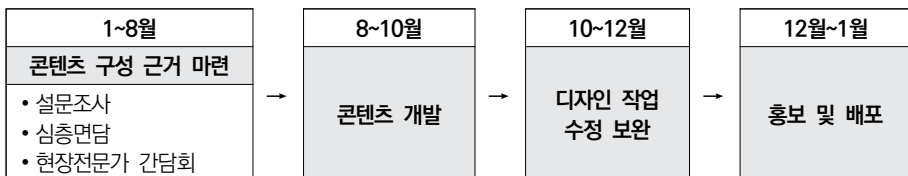
지원센터/서비스	인지도	이용경험	특성
아이돌봄서비스	79.6%	31.2%	청소년한부모: 이용 ↑
육아종합지원센터	55.1%	22.5%	소득 높을수록: 인지도 ↑, 경제활동 하는 경우: 이용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53.3%	14.0%	청소년한부모, 출산 시 미성년: 이용 ↑
보건복지상담센터	48.8%	12.6%	비수도권: 인지도 ↑
위(Wee)센터	48.1%	15.8%	비수도권: 인지도 ↑, 출산 시 미성년: 이용 ↑
가족센터	39.6%	18.9%	청소년한부모: 이용 ↑

4. 청소년부모 대상 육아지침서 개발

가. 제작개요

- 목적: 육아지침서는 청소년부모가 자신의 정서를 관리하는 기술을 익히고, 자녀, 배우자, 원가정 부모와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건강한 ‘상호작용’ 방법을 연습하는 것에 초점이 두고 있음.

□ 제작 과정



다. 결과물 요약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청소년부모 힘 키우기		
1장. 나 돌보기	2장. 아이 돌보기	3장. 관계 돌보기
1. 청소년부모의 어려움 2. 나 이해하기 3. 내 강점 찾기 4. 내 마음 관리하기 5. 미래 설계하기	1. 부모인 나 1) 부모의 역할 2) 이런 부모 안돼요! 3) 이런 부모가 되어보아요! 감정코치형 부모 2. 지지·훈육하는 부모 1) 기질을 이해하기 2) 애착 관계 형성하기 3) 경청과 공감하기 4) 칭찬하기 5) 한계와 규칙 정하기 6) 훈육하기 7) 연습해 봅시다 3. 상호작용하는 부모 1) 놀이 시간 2) 책 읽기 시간 3) 디지털 미디어 이용 시간 4) 식사 시간	1. 연결하는 대화 1) 비난하지 않기 2) 방어하지 않기 3) 경멸하지 않기 4) 담쌓지 않기 2. 사랑의 언어

5. 청소년부모 양육역량 강화 지원 방안

가. 기본 방향

청소년부모의 다양성을 고려하는 유연하고 포용적인 정책		
부모로서의 지원 : 임신기, 자녀 생후 초기 지원 강화	청소년으로서의 지원 : 자립 촉진	전달체계 : 통합사례관리를 위한 지속가능한 전달체계 구축
• 청소년부모의 임신 및 출산 과 관련된 초기 지원 강화	• 청소년부모의 학업 및 진로 지원 • 자립을 촉진하는 ‘인센티브’ 강화 • 긍정적 경험 제공	• 단계별 구조적 맞춤형 지원 • 인적 지원 중심의 통합사례 관리 • 지속가능하고 실효성 있는 전달체계 구축

나. 세부 지원 방안

□ 종합: 인적 지원 최우선, 청소년부모의 생애주기와 발달과업 고려하여 지원

□ 영역별 지원 전략

영역	세부 지원 전략
자녀 양육 지원	• 보편적 양육비 지급이 줄어드는 시기에 청소년부모 양육비 지원을 확대 • 가정 방문형 자녀 돌봄 서비스 강화: 아이돌봄서비스 우선 이용권 부여
임신·출산 지원	• 생애초기 건강관리 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 + α • 임신 초기에 출산과 양육에 대한 정보를 집중적으로 제공 • 임신기 청소년부부 출산 시설 마련
가족 주거 지원	• 청소년부부를 독립적 가족 주체로 인정 • 임신기에 주거 지원 가능하도록 지원: 임대주택 보증금 확대 지원 • 청소년부모를 위한 다양한 주거 형태 확대 • 청년·신혼부부 계층 임대정책과 연결지어 주거 지원 확대
부모 취업 지원	• 안정적인 일자리 지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확장판 '청소년부모일자리도약장려금' 마련 • 취업 준비 중, 근무 중 자녀 돌봄 강화: 아이돌봄서비스 우선 이용권 부여
부모 양육역량 강화 지원	• 구조화된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 • 부모 양육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내용: 자녀 연령별 발달 정보, 올바른 상호작용 방법과 더불어 아동 인권 교육, 아동 학대 방임 예방교육 포함 • 통합사례관리, 방문형 서비스 제공 • 정서지원 강화
부모 학업 지원	• 미성년 청소년부모가 임신 중에도 학교를 지속해서 다닐 수 있도록 지원 • 고등학교 사이버이스 가능하도록 확대 • 학업 중 자녀 돌봄 강화: 아이돌봄서비스 우선 이용권 부여 • 청소년부모 대학 입학 시 인센티브 지급 • 멘토 지원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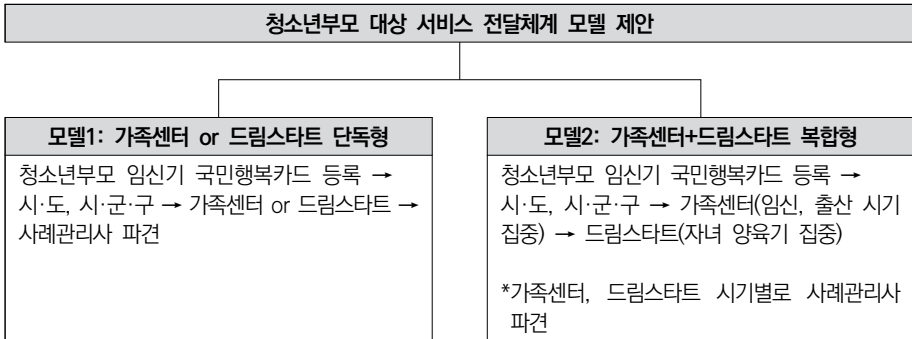
□ 특성별 지원 전략

- 단계별 구조적 맞춤형 지원, 특히 인적 지원 중심의 통합사례관리를 위해서는 청소년부모의 여러 가지 특성에 따른 상황과 환경의 차이를 세심히 살펴보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
- 청소년부부와 청소년한부모, 부모 연령별(현재, 출산 당시 미성년, 성인), 경제활동 상태별(경제활동을 한 명이라도 하는 가구, 전혀 하지 않는 가구), 거주 지역별 차이에 따른 지원 전략 제언함.

□ 지원센터/서비스 접근성 제고 방안

- 아이돌봄서비스: 양육공백가정에 청소년부모 포함, 아이돌보미 우선 지원 요건으로 청소년부모 포함 제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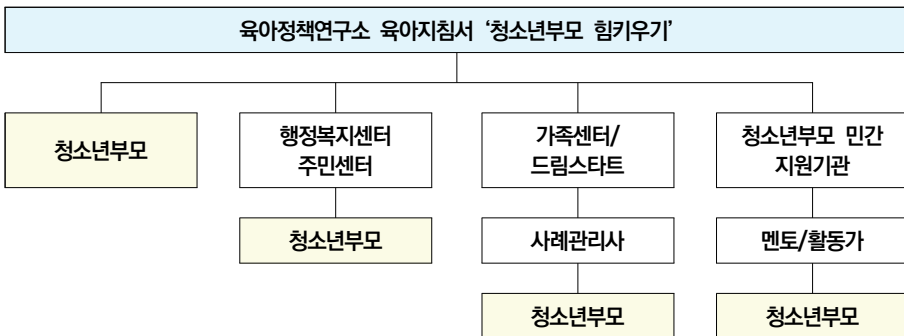
- 육아종합지원센터: 영유아가정 지원 프로그램 청소년부모에게 제공 확대, 찾아가는 서비스 확대 제안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Wee) 센터: 청소년부모 대상 상담 지원 기관 역할 수행 제안
- 보건복지상담센터: 임신·출산 지원 기관 역할 수행 제안
- 청소년부모 대상 서비스 전달체계 모델 및 운영 방식 제안



- 가족센터/드림스타트의 청소년부모 대상 사례관리사 역할 제안: 안전한 의식주 환경 조성, 양육역량 강화 지원, 학업, 취업 시 돌봄서비스 연결

다. 육아지침서 활용 방안

□ 배포경로



□ 배포 방식: 디지털화, 만화 제안

□ 교육 이수 시 이수증 및 인센티브 지급

I

서론

- 0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02 연구내용
- 03 연구방법
- 04 연구범위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들어 청소년부모의 임신, 출산, 육아 경험에 대해 다루는 예능 프로그램이 등장하고, 다양한 드라마(예: ‘우리들의 블루스’, ‘18어게인’)에서도 청소년들이 부모가 되기까지의 고민, 사회적 시선과 어려운 환경 등을 상세히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미디어에서 이른 나이에 임신과 출산을 경험하는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담아내기 시작하면서 청소년부모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제6호에 따르면 청소년부모는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청소년인 사람, 부모 모두 24세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¹⁾ 청소년부모는 청소년기에 임신과 출산을 하고 이어 자녀 양육과 학업, 취업을 동시에 준비하는 과정에서 경제적, 심리적 어려움을 복합적으로 경험한다(관계부처 합동, 2021. 11: 1). 구체적으로 청소년부모의 61%는 학업이나 직업 활동을 하지 않고, 월 평균 가구 수입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가 53%에 이르는 등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하여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은주희, 임고운, 2019: 27-29). 또한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원가정과 분리되거나 사회적 고립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해 아동학대, 방임 및 빈곤의 대물림이 이어질 수 있다는 데 우려가 크다(관계부처 합동, 2021. 11: 1).

정부는 청소년부모가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음을 인식하고 관계부처 통합으로 ‘청소년부모·한부모 양육 및 자립지원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하였다(관계부처 합동, 2021. 11). 이는 양육의지는 높지만 여건의 한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부모의 양육부담을 줄여주고 청소년부모 개인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

1)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n.d).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 2023. 6. 28.] [법률 제19131호, 2022. 12. 27., 일부개정]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20421&lsiSeq=231693#0000> 에서 2023. 2. 17. 인출.

- 여성가족부. (2021. 2. 26). 청소년부모 지원 근거 최초로 마련.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438973>에서 2023. 2. 17. 인출.

대책이다. 2022년 6월에는 중위소득 60% 이하인 청소년부모 가구에 자녀 당 월 20만원을 지원해주는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을 시작하였다(여성가족부, 2022. 6. 21). 그동안 청소년부모는 다양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한부모 지원을 받기에도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처럼 청소년부모를 위한 정책 지원이 확대되는 것은 좋은 변화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관심과 지원 증가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부모의 상황과 조건에 따라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기 부모와 한부모 모두 청소년기에 임신과 출산을 경험하고 비슷한 어려움을 겪지만 적용되는 관련 법에 따라 이들에 대한 지원이 다른 점에 한계가 있다. 구체적으로 청소년부모를 위한 정부 지원은 부모가 모두 만 24세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되므로, 부모 중 한 명이 청소년이 아닌 경우나 임신 중인 청소년부모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의 청소년 부모 지원 대상이 아니다(배보은, 2022: 15-18). 반면 청소년한부모는 한부모가족 지원법의 지원 대상이며, 이들을 위한 지원은 청소년부모 지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원금 수준이 높고 지원 내용이 다양한 경향이 있다(배보은, 2022: 8-14). 청소년부모 대상 지원으로는 주로 학습, 심리정서, 생활, 법률지원이 일반적이고 청소년한부모 대상 지원에 비해 주거와 생계 부분 지원이 미약한 점이 한계로 남아있다(배보은, 2022: 7).

또한 청소년부모에 대한 연구는 계속됐으나 이들의 가정 내 양육역량 강화를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및 양육지원 사업은 상대적으로 미비하다. 청소년부모는 상대적으로 육아에 대한 지식과 육아를 준비하는 기간이 길지 않으므로 육아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고, 청소년부모이기 때문에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에 관한 교육 자료가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으로 자기 성장의 과제를 가지고 있는 청소년부모가 자신을 돌보고 자녀를 건강하게 양육하며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부모가 수혜 받을 수 있는 지원 프로그램을 잘 인지하지 못해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을 줄이고자 현재 시행되고 있거나 앞으로 시행될 지원 사업에 접근성을 높이는 노력도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크게 청소년부모의 자녀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양육환경을 마련하고 사회적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청소년부모의 가정 내 역량을 강화하여 육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

원사업을 제안하고, 청소년부모 가족의 특성(예: 청소년부부, 청소년한부모)에 따른 맞춤형 육아 지원을 위해 지원체계 개선을 포함하는 정책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또한 청소년부모가 직접 사용할 뿐만 아니라 청소년부모를 지원하는 기관에서도 널리 활용할 수 있는 육아지침서를 개발하여 보급하고자 한다.

총 5년에 걸친 연속과제로 기획되고 추진 중인 본 연구는 2년 차 연구로, 청소년부모의 양육역량을 높이기 위한 맞춤형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데 초점이 있다. 특히, 청소년부모는 청소년기만의 발달 특성과 학업 수행 등의 고유한 이슈를 지니고 있어 정책지원 방향이나 요구가 성인들과는 다르므로 성인 부모와는 별도로 다루어져야 한다. 이를 고려하여 청소년한부모의 경우 5년 차(성인 한부모가정 대상) 연구가 아닌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포함하였음을 밝힌다. 따라서 연구 전반에 걸쳐 일관되게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청소년부부’와 ‘청소년한부모’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을 ‘청소년부모’로 사용하였다.

〈표 I-1-1〉 취약·위기가정 양육역량 지원 연구 5개년 개요

차시	연구 주제(대상)
1년차(2022)	위탁가정의 양육역량 지원 방안
2년차(2023)	청소년부모의 양육역량 지원 방안
3년차(2024)	장애가 있는 부모의 양육역량 지원 방안
4년차(2025)	조손가정의 양육역량 지원 방안
5년차(2026)	한부모가정(미혼, 이혼, 사별)의 양육역량 지원 방안

주: 1) 연구주제는 정책 현황이나 연구의 시급한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2) 청소년부모를 연구대상으로 하는 2년차에는 청소년한부모도 포함하며, 5년차에는 2년차 연구대상(청소년)은 제외한(성인기) 미혼, 이혼, 사별로 인한 한부모가정을 연구대상으로 함(한부모 중에서도 부모의 연령대에 따라 육아 환경이나 정책에 대한 요구가 서로 다르므로 구분하여 설계함).

자료: 배운진, 이정림, 김아름, 이혜민, 양성은, 장혜림, 차유림(2022). 취약·위기가정 양육역량 지원 방안 연구(Ⅰ). 위탁가정 양육역량 지원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p.16.

2. 연구내용

본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부모 현황과 관련 지원제도를 정리한다. 구체적으로 통계청의 청소년부모 관련 현황을 정리하고 관련 지원제도 및 법 고찰을 통해 청소년부모 지원의 사각지대를 파악한다.

둘째, 청소년부모의 자녀 양육 실태 및 요구를 파악한다. 청소년부모의 임신 출산 경험, 자녀의 발달, 자녀 양육 특성, 양육환경 등을 살펴보고, 그들의 양육역량을 분석한다. 더불어 청소년부모의 지원제도 이용 경험과 요구사항을 조사한다. 설문조사와 심층면담, 현장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청소년부모의 양육 실태와 요구를 파악하였다.

셋째, 청소년부모의 요구를 바탕으로 청소년부모 대상 육아지침서를 개발한다. 청소년부모 관련 기관, 부모교육 관련 전문가의 참여를 통해 청소년부모의 양육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맞춤형 육아지침서를 제작하고 보급한다.

넷째, 청소년부모의 양육역량 강화를 위한 종합지원 방안을 제안한다. 청소년부모를 위한 양육지원 방안과 지원체계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3. 연구방법

본 연구내용 수행을 위해 문헌연구, 설문조사, 심층면담, 육아지침서 개발을 추진하였으며, 현장전문가 간담회, 전문가 자문회의 및 정책실무협의회, 정책세미나를 개최하였다.

가. 문헌연구

문헌연구를 통해 청소년부모의 현황과 자녀 양육에 관한 자료를 분석하였다. 또한 관련 선행연구를 고찰하고, 청소년부모 정책관련 자료를 정리하였다.

나. 설문조사

본 연구에서는 설문조사를 통해 청소년부모의 임신, 출산, 자녀 양육 관련 현황을 파악하고, 양육 역량 수준, 양육의 어려움과 청소년부모 지원제도 이용 경험 및 요구사항 등을 조사하였다. 최종적으로 영유아 자녀를 양육 중인 청소년부부(부 또는 모) 160명, 청소년한부모(부 또는 모) 125명, 총 285명이 조사에 참여하였다.

본 설문조사에서 ‘청소년부부’는 법률혼, 사실혼, 동거 관계 중인 24세 이하 청

소년부 또는 청소년모를 의미한다. 최대한 다양한 청소년부모 가정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가정 당 부부 중 한 명만 참여하도록 하였다. 부모 중 한 명만 24세 이하인 청소년부모 가정이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선행연구 결과(예: 배보은, 2022)와 청소년부모의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관련 기관 전문가들의 자문의견을 고려하여, 부모 모두 현재 24세 이하 청소년인 가정뿐만 아니라 부모 중 한 명만 24세 이하인 청소년가정도 연구대상에 포함하였다. 정리하면 본 설문조사의 청소년부부 대상자는 응답자인 청소년부모의 연령(24세 이하)을 기준으로 선별하며, 응답자의 배우자 연령이 24세 이하인 가구와 배우자 연령이 25세 이상인 가구를 모두 대상으로 포함하였다. 최종적으로 설문조사에 참여한 160가구 중 부모 모두가 24세 이하이면서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는 108가구, 부모 중 한 명만 24세 이하인 경우가 52가구였다.

본 설문조사에서 ‘청소년한부모’는 배우자/파트너 없이 홀로 자녀를 양육하는 24세 이하 청소년부 또는 청소년모를 말한다. 청소년모에 비해 청소년부의 수가 적기 때문에 청소년부가 표집될 수 있도록 관련 협력 기관의 협조를 얻어 최대한 많은 수가 연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하였다. 최종적으로 125명의 청소년한부모가 참여하였다.

〈표 I-3-1〉 설문조사 연령별, 특성별 최종 참여자수

구분	청소년부부 = 청소년부부 + 청소년한부모 (285명)	
	청소년부부	청소년한부모
범위	법률혼, 사실혼, 동거 관계 중인 24세 이하 청소년부 또는 청소년모 (응답자 연령 기준으로 하며, 배우자/파트너 연령 무관)	배우자/파트너 없는 24세 이하 청소년부 또는 청소년모
규모	160명 (부모 모두 24세 이하 108명 , 부모 중 한 명만 24세 이하 52명)	125명

주: 1) 청소년부부의 경우 부모 중 한 명만 참여함.

2) 응답자의 연령기준으로 연구대상자를 선별하기 때문에 자신이 24세 이하인 청소년부 또는 청소년모가 설문조사에 참여 가능하며, 배우자/파트너의 연령이 24세 이하인 경우와 25세 이상인 경우 모두 연구에 참여했음.

조사내용은 크게 인구학적 특성, 출산 경험, 건강, 자녀 양육/돌봄 및 역량, 가족 관계, 지출, 지원사업 수혜 경험 및 요구로 구분된다. 항목별 구체적인 설문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기존 연속과제가 다양한 가족형태의 양육역량을 지원하는 방향에 일관성을 가지므로, 본 연구에서도 1차년도 과제인 위탁가정 대상 설문 중 청소년 부모와 청소년한부모에게 적용 가능한 설문조사 내용을 일부 동일하게 포함하였다.

설문조사 내용과 절차에 대해 2023년 7월에 IRB 심사를 받았고, 최종 승인²⁾받아 7월 27일부터 9월 3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참여자의 기본정보는 3장 1절에 정리하였다.

〈표 I-3-2〉 설문조사 내용

구분	조사내용
선문	• 배우자/파트너 유무, 혼인신고 여부, 배우자/파트너와 동거 여부, 본인 연령, 배우자/파트너 연령, 자녀 유무, 자녀 동거 여부,
자녀정보	• 자녀수 • 자녀정보, 첫째 자녀 기관 첫 이용 시기
출산 경험	• 첫 자녀 출산 연령 • (청소년부모) 배우자/파트너의 자녀 친부/친모 여부 • 첫 자녀 임신 시기 부담 정도 • 첫 자녀 출산 시 도움 •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이용 경험 • 산후조리원 이용 경험
건강	• (여성) 산후 우울 • 건강 상태 • 일상 우울* • 심리적 어려움 대처
자녀 양육/돌봄 및 역량	• 주 양육자 • 자녀 돌보는 사람/기관 •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 • 자녀 돌봄 부담 정도 • 부모-자녀 상호작용(자녀 애착)* • 부모-자녀 관계 만족도 • 양육 어려움 • 사회적지지* • 양육 시 도움 • 양육역량* • 양육정보 습득 경로 • 양육정보 도움 정도 • 선호하는 전달 방식 • 자녀 양육 역량 강화를 원하는 영역 • 나 자신 vs. 자녀

2) 육아정책연구소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연구승인 번호 KICCEIRB-2023호-제09호

구분	조사내용
가족관계	• 본인 부모 동거 여부 • 본인 부모와 연락 여부, 본인 부모와 연락 정도 • 본인 부모와의 관계 만족도 • (청소년부모) 본인 배우자/파트너와의 관계 만족도
지출	• 최대 소비 영역 • 부족 소비 영역
지원	• 지원사업 수혜 경험, 지원 만족도 • 지원사업 정보 습득 경로 • 청소년부모 지원센터/서비스 인지도 및 이용 경험 • 우선 지원 영역 • 임신·출산 지원에서 필요한 부분 • 부모 학업 지원에서 필요한 부분 • 자녀 양육 지원에서 필요한 부분 • 가족 주거 지원에서 필요한 부분 • 부모 양육 역량 강화 지원에서 필요한 부분 • 선호하는 지원 방향
일반적 특성	• 거주지역 • 월평균소득, 정부지원금 • 출가구원수 • 본인+배우자/파트너 최종학력 • 본인+배우자/파트너 학업 중단 경험 • 본인+배우자/파트너 취업 여부 • 본인+배우자/파트너 취업 계획 • 본인+배우자/파트너 고용형태 • 본인+배우자/파트너 근무 시간대

주: 연속과제의 특성상 1차년도 설문 중 영유아기에 해당하는 내용이 중복됨. 중복되는 문항은 표에서 * 표시함.

다. 심층면담

청소년부모 대상 설문조사 문항 구체화, 육아지침서 콘텐츠 개발 및 사례 탐색을 위해 영유아를 양육 중인 청소년부부(부 또는 모) 7명, 청소년한부모(부 또는 모) 8명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진행하였다. 청소년부부는 (1) 법률혼, 사실혼, 동거 상태, (2) 취업, 학업 상태, (3) 원가정의 지원 상황 등을 고려하여 최대한 다양한 연구대상자가 포함될 수 있도록 선정하였다. 청소년한부모는 (1) 취업, 학업 상태, (2) 원가정의 지원 상황, (3) 시설 이용 경험 등을 고려하여 최대한 다양한 대상자가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표 I-3-3〉 심층면담 대상자 개요

구분	목표 표본	심층면담 대상자 선정 고려사항
청소년부부 (부 또는 모)	7명	• 법률혼, 사실혼, 동거 상태의 청소년부모 • 학업중, 구직중, 취직중인 청소년부모
청소년한부모 (부 또는 모)	8명	• 원가정 도움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부모 • 시설 이용 경험이 있는 청소년한부모

주: 위의 선정조건을 1개 이상 충족시키는 경우 연구대상자로 포함하였음.

청소년부부는 청소년부모 지원단체인 킹메이커 협조를 통해 심층면담 대상자를 모집하였고, 청소년한부모는 한국미혼모가족협회, 미혼모협회인트리, 한국미혼모 지원네트워크의 협조를 바탕으로 심층면담 대상자를 모집하였다. 협력기관이 본 연구의 심층면담 대상자 모집 기준을 고려하여 청소년부부/청소년한부모를 추천하였고, 연구진이 추천받은 청소년부부/청소년한부모에게 연락하여 연구에 대해 설명하고 참여의사를 확인한 뒤 심층면담 일정을 확정하였다.

심층면담 참여자의 선호에 따라 집단면담(집단 별 2명 규모) 또는 개별면담 실시할 수 있도록 했고, 동시에 대면면담 또는 비대면면담(ZOOM 이용)이 모두 가능하도록 지원하였다. 그 결과, 1팀(2인)을 제외하고 모든 참여자들이 개별면담을 희망하였고, 6명은 대면면담, 9명은 비대면면담으로 진행하였다. 개별면담은 평균적으로 30분~1시간, 집단면담은 약 1시간 20분 정도 소요되었다. 심층면담 대상자의 현재 연령이 모두 19세 이상이었기 때문에 본인에게 심층면담 서면 동의 혹은 비대면면담 상 채팅으로 연구 참여 동의를 받았다.

심층면담을 통해 청소년부부와 청소년한부모를 대상으로 임신·출산, 자녀 양육 경험과 지원 요구, 자녀와 나 자신에 대한 생각, 부모, 배우자/파트너와의 관계에 대해 조사하였다. 청소년부부와 청소년한부모는 모두 ‘청소년’이라는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고, 청소년한부모도 파트너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흔하다는 현장 전문가들의 자문의견을 근거로, 두 집단 간 면담 문항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가 답변할 수 있도록 통합적으로 구성하였다. 심층면담의 내용을 바탕으로 질적 분석(주제 분석 및 해석)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3장에 정리하였으며, 심층면담 결과를 청소년부모 육아지침서 콘텐츠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였다.

〈표 I-3-4〉 심층면담 조사내용 개요

구분	조사내용
일반 특성	성별, 배우자/파트너 유무, 출생연도, 가족 구성, 취업/학업 상태, 최종학력, 지역규모, 가구소득, 자녀 정보
임신·출산 경험 및 지원 요구	1. 임신·출산 과정에서의 어려움 2. 임신·출산 관련 정보 출처 3. 임신·출산 관련 지원 요구
자녀 양육 경험 및 지원 요구	4. 주양육자, 조력자 여부, 양육정보 관련 경험과 요구 5. 자녀 양육 관련 정부 지원/지역사회 지원 요구
자녀와 나 자신에 대한 생각	6. 자녀관 7. 부모관 8. 나를 위한 활동
관계	9. 부모님과 관계에서의 어려움 + 자녀와의 관계 10. 배우자/파트너 관계에서의 어려움 + 자녀와의 관계

심층면담의 경우 2023년 5월에 IRB 승인³⁾을 받았으며, 6월에 심층면담 참여자를 모집하여 7~8월에 면담을 실시하였다. 심층면담 참여자의 기본정보는 3장 1절에 정리하였다.

라. 현장전문가 간담회

청소년부모와 청소년한부모의 자립을 지원하는 관련 기관 및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청소년부모와 청소년한부모를 만나고 있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현장 전문가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2023년 10월 11일과 12일, 총 2회 현장전문가 간담회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 결과와 육아지침서 내용을 공유하고, 활용 방안과 현제도의 개선 방향과 구체적 방안을 도출하고자 노력하였다.

〈표 I-3-5〉 현장전문가 간담회 추진

회차	일시	참석자	내용
1차	2023. 10. 11.	• 청소년부모 지원단체 대표 1인 미혼모 지원단체 대표 2인, 국장 1인	• 청소년(한)부모 정책 제도에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 도출을 위한 심층적 논의
2차	2023. 10. 12.	• 난임우울증센터장 대표 1인, 국책연구기관 연구위원 1인, 사회복지학과 교수 1인	• 청소년부모 정책 개선 방안 의견 수렴 (보건, 의료분야)

3) 육아정책연구소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연구승인 번호 KICCEIRB-2023호-제02호

마. 전문가 자문회의 및 정책연구실무협의회

연구 방향, 내용 및 방법, 정책 제언에 대한 자문을 얻고자 관련부처 공무원과 학계 및 현장 전문가를 대상으로 자문회의를 개최하였다. 더불어 원내에 관련 연구를 수행한 연구자를 중심으로 동료멘토링을 실시하였다.

〈표 I-3-6〉 전문가 자문회의 추진

회차	일시	참석자	내용
1차	2023. 3. 10.	• 아동가족학과 교수 1인 • 부모교육 전문가 1인	• 청소년부모 대상 육아지침서 관련 자문
2차	2023. 3. 13.	• 청소년부모 지원단체 대표 1인	• 연구범위, 청소년부모의 현황 관련 자문 • 설문조사 및 심층면담 대상자 섭외 협조
3차	2023. 3. 22.	• 국책연구기관 박사 3인	• 청소년부모 관련 선행연구자 대상 자문 • 연구범위 및 조사내용 자문
4차	2023. 3. 23.	• 국책연구기관 박사 2인	• 청소년부모 관련 선행연구자 대상 자문 • 연구범위 및 조사내용 자문
5차	2023. 3. 27.	• 부모교육 전문가 1인	• 청소년부모 관련 부모교육/육아지침서 컨텐츠 관련 자문
6차	2023. 4. 14.	• 심리학과 교수 1인	• 청소년부모 심층면담 문항 구성 및 면담 방법 관련 자문
7차	2023. 4. 21.	• 청소년부모 지원단체 대표 1인, 실무자 1인	• 청소년부모의 현황 및 핵심이슈 관련 자문 • 심층면담 문항 검토 • 설문조사 및 심층면담 대상자 섭외 협조
8차	2023. 4. 27.	• 미혼모 지원단체 대표 1인, 한부모지원단체 대표 1인	• 청소년한부모 현황 및 핵심이슈 관련 자문 • 심층면담 문항 검토 • 설문조사 및 심층면담 대상자 섭외 협조
9차	2023. 5. 2.	• 미혼모 지원단체 대표 2인	• 청소년한부모 현황 및 핵심이슈 관련 자문 • 심층면담 문항 검토 • 설문조사 및 심층면담 대상자 섭외 협조
10차 (서면)	2023. 6. 14.	• 국책연구기관 박사 3인	• 설문조사 문항 검토
11차	2023. 7. 26.	• 청소년지원단체 대표 1인	• 청소년부모 설문조사 방법 및 조사 협조
12차	2023. 8. 11.	• 한국건강가정지원센터 본부장	• 설문조사 방법 논의 및 조사 협조
13차	2023. 8. 11.	• 미혼모 지원단체 대표 1인	• 청소년한부모 지원 방안 논의 및 설문조사 협조
14차	2023. 8. 14.	• 미혼모 지원단체 대표 1인	• 청소년한부모 지원 방안 논의 및 설문조사 협조
15차 (서면)	2023. 11. 10.	• 국책연구기관 박사 4인	• 정책제언 내용 검토
16차 (서면)	2023. 12. 5.	• 아동가족학과 교수 2인 • 심리학과 교수 1인	• 육아지침서 검토

〈표 I-3-7〉 지식공유 동료멘토링 추진

회차	일시	참석자	내용
1차	2023. 2. 23.	•연구위원 2인	•연구방향 및 연구범위 관련 자문
2차	2023. 6. 26.	•선임연구위원 1인, 연구위원 1인	•설문조사 문항 검토

〈표 I-3-8〉 정책연구실무협의회 추진

회차	일시	참석자	내용
1차	2023. 4. 20.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사무관	•연구방향 및 연구범위 관련 자문

바. 육아지침서 개발

본 연구의 결과를 근거로 청소년부모와 이들을 지원하는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육아지침서를 개발하였다. 청소년미혼모 상담 경험과 부모교육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연구진이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함께 콘텐츠 개발을 진행하였다. 연속과제 중 두 번째로 마련되는 청소년부모 대상 육아지침서에서는 기존 위탁가정 대상 육아지침서와 일부 통일성을 가지면서도 청소년부모와 청소년한부모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맞춤형 양육역량 지원이 가능하도록 내용을 담고자 하였다. 육아지침서의 방향과 취지에 대한 설명은 4장에서 다루었으며 육아지침서는 별책 부록으로 포함하였다.

사. 정책세미나 개최

본 연구의 연구결과 확산, 청소년부모에 대한 인식 전환 및 양육지원 강화를 위해 2023년 11월 28일에 정책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청소년부모 지원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처 관련 공무원 및 학계·현장 전문가, 관련 단체 종사자들이 모여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여 청소년부모·청소년한부모 지원의 향후 방향에 대해 제시하였다.

[그림 I-3-1] 정책세미나 일정 및 내용

2023년
제 11차
K I C C E
정책토론회

청소년부모 양육역량 지원방안

**2023. 11. 28(화)
10:00~12:00**
명동모스트타워 21층 스카이홀

육아정책연구소

P R O G R A M

사 회 배 윤 진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10:00~10:10	개회 및 참석자 소개 환영사 박상희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10:10~11:00	발제 청소년부모 양육 실태 및 정책 지원의 방향 조숙인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청소년부모 힘키우기 이정아 더관계연구소 소장
11:00~11:30	토론 박현선 세종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상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장해림 서울장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11:30~11:50	종합 논의 및 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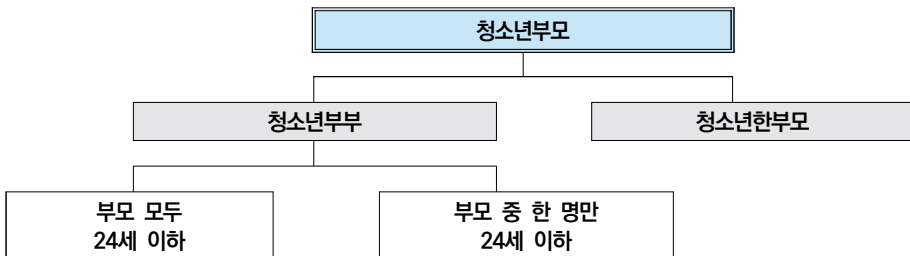
4. 연구범위

본 연구의 연구범위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가. 청소년부모, 청소년부부, 청소년한부모

본 연구의 ‘청소년부모’는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청소년부부’와 ‘청소년한부모’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24세 이하이면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청소년모와 청소년부를 의미한다.

[그림 I-4-1] 본 연구의 청소년부모 범위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부부’를 「청소년복지 지원법」에서 정의하는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청소년인 사람, 부모 모두 24세 이하인 경우’보다는 더 넓은 범위로 규정한다. 부모 중 한 명만 24세 이하인 청소년부모 가정이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선행연구 결과(예: 배보은, 2022)와 청소년부모의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관련 기관 전문가들의 자문 의견을 고려하여,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서는 연구 참여자 자신이 24세 이하이고, 그들의 배우자/파트너가 25세 이상인 가정의 청소년부와 청소년모도 연구대상으로 포함하였다. 정리하면, 본 연구가 청소년부와 청소년한부모를 모두 다루고 있는바, 청소년부와 청소년모 개인의 연령을 기준으로 조사에 참여하는 사람이 24세 이하(청소년)이면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에 모두 연구대상으로 포함되도록 설정하였다([그림 I-4-1] 연구대상 범위 참조).

이는 ‘청소년부모’의 범위를 기존의 제한적인 법적 개념을 그대로 반영하면서 이러한 개념 정의에 누락된 일부 청소년부모의 개념을 추가한 것이다. 즉, 본 연구의 청소년부모는 ‘포괄적인 청소년부모’로 ‘청소년한부모(한부모가족지원법)’, ‘부모 모두 청소년인 청소년부부(청소년복지 지원법)’, ‘부모 중 한 명만 청소년인 청소년부부(법적 보호의 사각지대)’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정리된다.

나. 양육역량

본 연구에서 ‘청소년부모 양육지원’은 양육역량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육아지침서 역시 청소년부모의 양육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측면을 다룬다. 본 연구의 ‘양육역량’은 자녀를 양육하는데 필요한 부모의 **내적 특성**과 **외적 환경**(경제, 주거, 학업, 취업 등 사회적 자원)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폭넓게 정의내리고자 한다. 청소년부모는 청소년으로서의 과업을 아직 해결하지 못하고, 경제적으로 홀로서는데 어려움을 겪는 불안한 상황에 처해있는 경우가 많아, 부모의 내적 특성 즉, 양육에 필요한 정보와 지식, 기술 습득 등의 양육역량 강화만으로 자녀 양육에 집중하고 양질의 양육을 제공하는데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양육역량은 양육 정보와 지식, 기술을 부모의 양육역량 내적 측면으로 보고, 그 외 다양한 환경적인 요인(경제, 주거, 학업, 취업 등) 역시 양육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한 외적 특성으로 보고자 하였음을 밝힌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설문조사와 심층면

답에서는 청소년부모 양육역량의 내적 특성과 외적환경을 모두 고려하였으며, 육아지침서에서는 내적 특성을 강화할 수 있는 내용에 초점을 두었다.

다. 자녀 연령

2021년 기준 여성가족부 제공 자료⁴⁾에서 청소년부부와 청소년한부모의 자녀 연령이 영유아에 밀집되어 있는 점을 근거로 본 연구의 육아지침서는 청소년기에 임신과 출산을 경험하고 현재 영유아(0~5세)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들의 양육역량을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음을 밝힌다.

[그림 I-4-2] 연구개요

연구목적						
• 청소년부모의 양육지원 개선방안 모색 • 청소년부모 대상 육아지침서 개발 및 보급						
연구대상						
청소년부모						
청소년부부			청소년한부모			
부모 모두가 24세 이하인 가구의 청소년부, 청소년모	부모 중 한 명만 24세 이하인 가구의 청소년부, 청소년모		24세 이하 청소년모		24세 이하 청소년부	
연구내용						
• 청소년부모 현황과 관련 지원제도 정리 • 청소년부모 자녀 양육 실태 및 요구 파악 • 청소년부모 대상 육아지침서 개발 • 청소년부모 양육역량 강화를 위한 종합지원 방안 제안						
연구방법						
문헌연구	설문조사	심층면담	현장전문가 간담회	전문가 자문회의 정책실무 협의회	육아지침서 개발	정책세미나 개최

주: 연구대상은 연구에 참여하는 개인의 연령을 기준으로 24세 이하이고 자녀를 양육하는 청소년모와 청소년부를 포함함. 따라서 배우자/파트너의 연령이 24세 이하인 경우와 25세 이상인 경우가 모두 포함됨.

4) 비공개 자료에 따른 출처 생략

II

청소년부모 특성과 지원 정책

- 01 청소년부모 현황
- 02 청소년부모 특성
- 03 청소년부모 대상 지원 정책

II. 청소년부모 특성과 지원 정책

2장에서는 첫째, 통계 결과를 통해 청소년부부와 청소년한부모의 현황을 파악하였다. 둘째, 청소년부모 관련 선행연구 결과를 통해 청소년부모의 특징을 정리하였다. 셋째, 청소년부모와 청소년한부모 지원 근거법과 관련 계획, 지원 정책을 정리하여 현재 상황을 파악하였다.

1. 청소년부모 현황

청소년부모⁵⁾와 청소년한부모 현황을 통계청과 여성가족부 자료(2021년 기준)⁶⁾를 바탕으로 정리하였다. 먼저 청소년부모⁷⁾에 대해서는 혼인상태인 청소년부부의 수, 부모 모두 24세 이하인 청소년부모 가구수, 부모 연령과 자녀 연령에 따른 분포를 제시하였다. 청소년한부모에 대해서는 청소년 미혼모, 미혼부 현황, 24세 이하인 청소년부, 청소년모 가구수, 부모 연령과 자녀 연령에 따른 분포, 청소년한부모 가족 수급가구 현황을 정리하였다.

가. 청소년부모

1) 청소년부부⁸⁾

남편과 아내가 모두 24세 이하인 청소년부부의 수를 파악하기 위해 통계청(2021a) 인구동향조사에서 연령별 혼인 상황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2021년 혼인신고를 한 20~24세 청소년부부(유자녀+무자녀 포괄)는 총 3,184쌍으로 보고되었다. 이 중 부부 모두 20~24세인 경우가 2,663쌍으로 가장 많았고, 여성이

5) 부부 모두 24세 이하이면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임.

6) 비공개 자료에 따른 출처 생략

7) 부부 모두 24세 이하이면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임. 본 연구 결과 정리 부분에서는 이 경우를 '청소년부부'라 칭함.

8) 자녀유무와 상관없이 부부 모두 24세 이하인 경우임. 자녀가 있는 부부와 없는 부부를 모두 포함하고 있음.

15~19세이고 남성이 20~24세인 부부가 305쌍, 부부 모두가 15~19세인 경우가 149쌍, 여성이 20~24세이고 남성이 15~19세인 부부가 67쌍으로 나타났다.⁹⁾ 본 자료에서는 남녀 모두가 24세 이하인 청소년부부의 출산 여부는 함께 조사되지 않았기 때문에 3,184쌍 중 일부만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청소년부모이다. 즉, 혼인 상태인 3,184쌍이 모두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 중인 상황은 아님을 밝힌다.

〈표 II-1-1〉 청소년 연령별 혼인 현황 (2021년)

단위: 명

남편 \ 아내	15~19세	20~24세	계
15~19세	149	67	216
20~24세	305	2,663	2,968
계	454	2,730	3,184

자료: 통계청. (2021a). 「인구동향조사」, 시도/연령(5세)별 혼인.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3A33&conn_path=I2에서 2023. 3. 2. 인출.

2) 부모 모두 24세 이하인 청소년부모 가구¹⁰⁾

가) 총 가구수

여성가족부 제공 자료(2023)¹¹⁾에 따르면, 2021년도 기준 혼인신고를 하고 부모 모두 24세 이하이면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청소년부모 가정은 전국 총 2,954가구로 집계되었다. 앞서 청소년부부 통계(유자녀+무자녀 포괄)와 연결지어보면, 2021년 시점 혼인상태인 3,184가구 중 2,954가구가 자녀를 양육하고 있고, 230가구는 현재 자녀가 없거나 임신 중인 상황으로 이해할 수 있다.

나) 부모 연령별 분포

부모 연령별 청소년부모 가구 분포를 살펴보면, 연령 증가에 따라 가구수가 더 많아지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모가 23세인 가구가 770가구, 부가 24

9) 통계청. (2021a). 「인구동향조사」, 시도/연령(5세)별 혼인.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3A33&conn_path=I2에서 2023. 3. 2. 인출.

10) 부부 모두 24세 이하이면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임.

11) 비공개 자료에 따른 출처 생략

세인 가구가 1,101가구로 청소년부모 중 가장 높은 가구수를 보고하였다. 반대로 모가 18세 이하인 가구는 29가구, 부가 18세 이하인 가구는 11가구로 그 수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또한 청소년부의 연령분포와 청소년모의 연령분포의 흐름을 볼 때, 연령이 낮은 청소년모의 수가 청소년부보다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서 미성년 청소년부모 보다는 성인인 청소년부모가 더 많이 조사에 참여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며, 조사에 참여하는 청소년부의 연령이 청소년모에 비해 높을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표 II-1-2〉 청소년부모¹²⁾ 총 가구수와 부모 연령별 분포(2021년)

단위: 가구

구분	청소년부모	
전국 총계	2,954	
연령*성별	부	모
18세 이하	11	29
19세	44	114
20세	130	241
21세	314	426
22세	539	606
23세	810	770
24세	1,101	7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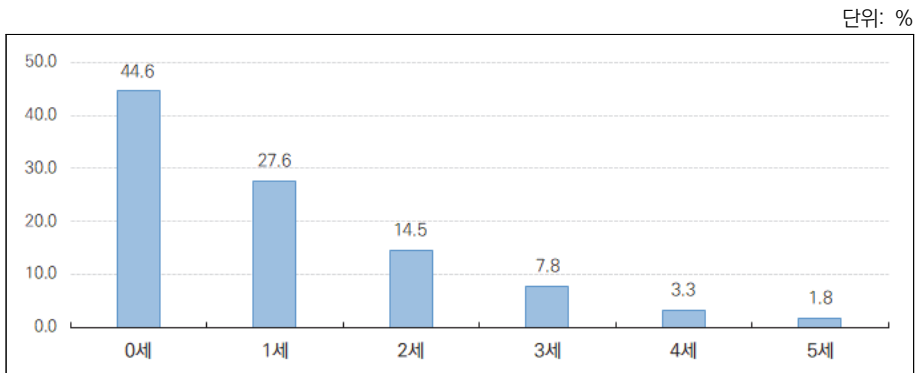
자료: 여성가족부. (2023). 여성가족부 제공 자료(비공개)를 바탕으로 재구성.

다) 자녀 연령별 분포

자녀 연령별 청소년부모 가구 분포를 살펴보면, 0세 자녀를 양육하는 청소년부모 가구는 총 1,314가구, 전체의 약 45%로 가장 높았다. 1세 자녀가 있는 경우는 약 28%(815가구)로 두 번째로 높게 보고되었으며, 뒤이어 2세 자녀를 양육하는 비율이 약 15%(428가구)로 나타났다. 3~5세까지는 그 비율이 약 10% 미만으로 적었다. 이를 통해, 약 90%의 청소년부모 가구에서 0~2세 아동을 주로 양육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를 근거로 본 연구의 육아지침서에는 특히 ‘영아기’ 자녀 양육에 관한 내용을 다루어야 할 것이다.

12) 부부 모두 24세 이하이면서 자녀 양육하고 있는 경우임.

[그림 II-1-1] 자녀 연령별 청소년부모¹³⁾ 가구 분포(2021년)



자료: 여성가족부. (2023). 여성가족부 제공 자료(비공개)를 바탕으로 재구성.

나. 청소년한부모

1) 미혼모, 미혼부

2021년 통계청 인구총조사 자료에 따르면, 24세 이하 청소년 미혼모는 총 1,430명, 미혼부는 3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미혼모 1,254명과 미혼부 31명은 20~24세이며, 미혼모 176명이 20대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¹⁴⁾ 이들은 청소년시기에 출산을 경험하고 현재 한부모 상태로 볼 수 있다. 통계청의 집계로 파악되는 청소년 미혼모, 미혼부의 수보다 드러나지 않은 실제 미혼모와 미혼부 수를 포함했을 때 실제 모수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표 II-1-3〉 청소년 미혼모, 미혼부 현황(2021년)

단위: 명

연도	유형	미혼모	미혼부	계
	20세 미만	176	-	176
	20~24세	1,254	31	1,285
	계	1,430	31	1,461

자료: 통계청. (2021c). 「인구총조사」, 연령별 미혼모, 미혼부 - 시도.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SI1601&conn_path=I2에서 2023. 3. 2. 인출.

13) 부부 모두 24세 이하이면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임.

14) 통계청(2021c). 「인구총조사」, 연령별 미혼모, 미혼부 - 시도.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SI1601&conn_path=I2에서 2023. 3. 2. 인출.

2) 24세 이하의 청소년한부모 가구

가) 총 가구수

여성가족부(2023) 제공 자료¹⁵⁾에 따르면, 2021년도 기준 청소년한부모(모자가구+부자가구)는 전국 총 3,024가구로 나타났다. 이들 중 청소년모자가구는 2,592가구, 청소년부자가구는 432가구로 집계되어, 청소년모자가구의 수가 청소년부자가구 수보다 약 6배 정도 큰 규모인 것으로 파악된다. 본 청소년한부모 통계에는 미혼모, 미혼부, 결혼 후 이혼/사별한 청소년부 또는 모, 청소년부모 중 청소년부가 군복무를 하게 되어 일시적으로 청소년한부모로 분류되는 경우가 포함되어 있다.

나) 부모 연령별 분포

부모 연령별 청소년한부모 가구 분포를 살펴보면, 연령 증가에 따라 청소년한부모 부자가구와 모자가구가 더 많아지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부가 24세인 부자가구(175가구)와 모가 24세인 모자가구(889가구)의 수가 가장 많았다. 부자가구의 경우 18세 이하인 아버지와 자녀로 구성된 가구가 6가구로 가장 적었다. 모자가구 내에서는 19세 어머니와 자녀로 구성된 가구가 91가구로 수가 가장 적었다.

〈표 II-1-4〉 청소년한부모 총 가구수와 부모 연령별 분포(2021년)

단위: 가구

구분	청소년한부모	
전국 총계	3,024	
연령*성별	부자가구	모자가구
총계	432	2,592
18세 이하	6	110
19세	16	91
20세	18	183
21세	33	291
22세	75	406
23세	109	622
24세	175	8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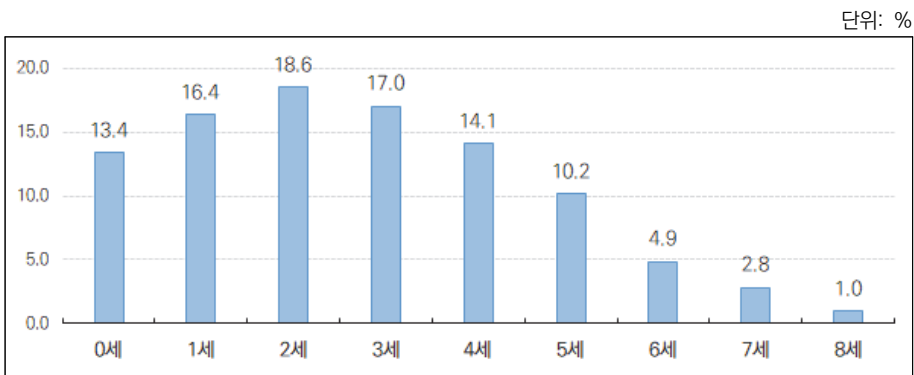
자료: 여성가족부. (2023). 여성가족부 제공 자료(비공개)를 바탕으로 재구성.

15) 비공개 자료에 따른 출처 생략

다) 자녀 연령별 분포

자녀 연령별 청소년한부모 가구 분포를 살펴보면, 2세 자녀를 양육하는 청소년 한부모 가구가 총 562가구, 전체의 약 19%로 가장 높았다. 3세 자녀가 있는 경우는 총 515가구(17.0%)로 두 번째로 높게 보고되었으며, 뒤이어 1세 자녀를 양육하는 청소년한부모 가구가 495가구(약 16%)로 나타났다. 청소년부모의 경우 0세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비율이 월등히 높고 대부분의 자녀 연령이 0~2세 안에 분포되었던 것에 반해, 청소년한부모의 경우 2세 자녀를 양육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자녀 연령대가 영아기 뿐만 아니라 유아기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었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해볼 때, 본 연구의 육아지침서에서 영아뿐만 아니라 유아를 양육하는 부모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림 II-1-2] 자녀 연령별 청소년한부모 가구 분포(2021년)



자료: 여성가족부. (2023). 여성가족부 제공 자료(비공개)를 바탕으로 재구성.

3) 청소년한부모 가족 수급가구

2021년 기준으로 차상위 및 한부모 가족 지원을 받은 청소년모자가구는 2,181가구, 청소년부자가구는 227가구, 총 2,408가구가 집계되었다.¹⁶⁾ 정리하면, 앞서 보고한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 전체 3,024가구 중 중 약 80%가 차상위 및 한부모 가족 수급 대상인 것으로 파악된다.

16) 한국사회보장정보원. (2021). 「차상위및한부모가족수급자현황」, 한부모가족 수급가구 현황 - 가족유형별.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452&tblId=DT_452001_C015&conn_path=I2에서 2023. 3. 2. 인출.

〈표 II-1-5〉 청소년한부모 가족 수급가구 현황(2021년)

단위: 가구

연도 \ 유형	청소년모자가구	청소년부자가구	계
2021년	2,181	227	2,408

자료: 한국사회보장정보원. (2021). 「차상위미혼부모가족수급자현황」, 한부모가족 수급가구 현황 - 가족유형별.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452&tblId=DT_452001_C015&conn_path=I2에서 2023.
 3. 2. 인출.

2. 청소년부모 특성

가. 청소년부모의 양육 특성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청소년부모의 양육 특성을 임신·출산 경험, 부모됨 과정, 양육의 어려움 및 지원 요구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1) 임신·출산 경험

청소년부모 현황 자료(박미진 외, 2022)에 따르면, 청소년부모의 임신 연령은 평균 21.2세이며, 당시 배우자의 연령은 평균 21.3세로 보고되었다(박미진 외, 2022: 157-160). 또한 청소년한부모의 임신 당시 연령은 평균 18.8세, 당시 상대방(비양육부모)의 연령은 평균 21.3세로 나타났다(정가원, 송효진, 선보영, 최진희, 2021: 81-84). 우리나라 모의 평균 출산 연령은 2021년 기준 33.36세, 첫째아인 경우 32.61세인 점(통계청, 2021b)과 비교하면 청소년부모의 임신·출산이 평균 10살 이상 어린 나이에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청소년부모의 임신·출산 경험은 미혼부모를 중심으로 연구되어 왔다. 먼저, 10대 미혼부모의 아기 양육 결정 과정 및 양육 경험에 관한 연구(이현주, 2011)에서는 미혼부와 모가 임신에 대해 서로 다른 반응을 보이지만 공통적으로는 학업을 중단 하게 되며 ‘아기를 위해서’ 다시 학업에 복귀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현주, 2011: 87-88). 한편 이 연구에서는 양육 중인 청소년미혼부모가 미혼인 상태로 남아있는 이유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지 않기 위해서라고 밝히며, 이들에 대한 자립 지원의 중요성을 제안하였다(이현주, 2011: 90).

청소년미혼모를 대상으로 면담을 실시한 이선희, 김수지, 서해인(2021)의 연구

에서도 10대에 갑작스런 임신을 하게 된 연구 참여자들은 임신과 출산으로 인해 모성이데올로기 딜레마와 같은 위기와 변화를 경험한다고 보고하였다(이선희 외, 2021: 237-238). 연구 참여자들은 임신으로 인해 큰 부담을 가졌으며, 자신이 원하는 것을 포기하고 부모의 역할을 받아들여야 하는 어려움을 겪었다(이선희 외, 2021: 237-238).

청소년부모의 임신·출산은 청소년은 물론이고 원가족에게도 준비되지 않은 경험이다. 평소 원가족과 관계가 좋지 않았던 청소년부모는 자녀 출산이나 양육 초기에 원가족과 단절되기도 하였다(이선희 외, 2021: 241). 또한 청소년부모의 출산에 대해 가족들은 배우자와의 결혼을 권유하기도 하지만(61.2%), 알아서 해결하라고 하거나(21.9%), 양육이 아닌 다른 방법을 권유하기도(6.9%) 하였다(박미진 외, 2022: 185). 이영호, 박지윤, 장명선(2020)의 연구에서 10대에 첫 자녀를 출산하여 양육하는 미혼모를 조사한 결과, 출산 당시 함께 한 사람으로 한부모복지시설관계자가 57.8%로 과반수이고, 원가족은 27.4%, 아이 생부는 22.5%의 순으로 나타났다(이영호 외, 2020: 186). 송효진, 배호중, 선보영, 김수진(2020: 73)의 연구에서도 청소년부모가 임신 당시 가출한 상태인 경우 주거가 안정되지 않고 원가족에게 금전적인 도움도 받을 수 없어서 불안정한 환경에서 출산한다고 보고하였다.

2) 부모됨의 과정

남미애, 홍봉선(2011)은 청소년미혼모가 인식하는 부모됨의 시간을 첫째, 책임의 시간이자 자연스러운 발달의 시간이며, 둘째, 치유와 통찰의 시간, 셋째, 임파워먼트와 새로운 목표를 향해 출발하는 시간으로 의미 부여하였다(남미애, 홍봉선, 2011: 165-166).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미혼모의 부모됨이 일반 성인 여성의 부모됨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강조하면서, 청소년미혼모가 출산 및 양육 과정에서 외부와 단절되지 않도록 지지적인 환경을 조성해야 함을 제안하였다(남미애, 홍봉선, 2011: 167). 선행연구에 따르면, 청소년부모는 양육 방법이나 원가족과의 관계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경험함과 동시에 양육을 통해 새로운 부성상과 모성상을 확립해 나가고 있었다(이현주, 2011: 89). 이선희 외(2021)의 연구에서도 청소년미혼모의 양육 과정에 대해 부정적인 측면과 아울러 긍정적인 측면을 함께 보고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미혼모들이 자녀를 양육하면서 부모의 역할에 적응하고 양육효능감도 생겨난다고 밝혔다(이선희 외, 2021: 239).

청소년부모는 자녀의 성장이라는 부모로서의 과제와 더불어 청소년기 발달 과업 이행을 통한 자립이라는 개인의 목표도 가지고 있다(전아름, 2021. 3. 17). 이 두 가지는 경중을 가릴 수 없는 삶의 중요한 과업이므로 부모됨의 과정에서 갈등을 겪기도 하고 그 갈등으로 인해 성장하기도 한다. 청소년미혼모들은 자녀 양육으로 인해 갑자기 바뀐 자신의 모습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서 나 자신만의 시간을 갖거나 청소년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은 갈등을 경험하였다(이선희 외, 2021: 243). 그러다가 자녀와 함께 하는 시간들을 계획하고, 진로에 대해서도 준비하고 결정하는 의지와 태도를 보였다(이선희 외, 2021: 243-244).

3) 양육의 어려움 및 지원 요구

청소년부모는 자녀 출산과 양육에 기쁨을 느끼면서도(청소년부모 현황조사 응답자의 96.3%) 자녀를 잘 키울 수 없을 것 같아 겁이 나거나(32.2%) 자녀 양육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느끼며(57.4%) 자녀를 돌보는 것이 힘에 부치는 등(54.0%) 자녀 양육에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박미진 외, 2022: 123-137). 특히 청소년부모의 79.9%가 자녀 양육비 부담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응답하여서(박미진 외, 2022: 129) 경제적 어려움이 자녀 양육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이러한 양육의 어려움은 청소년한부모에게서 더욱 두드러진다. 아이를 잘 키울 수 없을 것 같아 겁이 난다는 동일한 문항에 청소년한부모는 48.0%가 그러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양육을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을 한다는 문항에는 16.4%가 그러하다고 응답하였다(정가원 외, 2021: 70-71).

미혼모의 양육 및 자립실태조사(김혜영 외, 2010)에 따르면, 미혼모의 연령을 10대, 20대, 30대로 나누어 비교하였을 때 연령이 어릴수록 그리고 비취업 상태인 경우 상대적으로 자녀 양육을 포기하고 싶은 욕구를 자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김혜영 외, 2010: 46-47). 또한 자녀 양육 시 가장 어려운 점으로는 10대 미혼모의 68.7%가 양육비, 교육비 등의 비용부담을 꼽았다(김혜영 외, 2010: 49). 이 외에도 영아기 자녀 양육 시에는 어린 자녀를 맡길 수 있는 돌봄지원서비스의 부족 등을 이야기하였다(김혜영 외, 2010: 50). 이선희 외(2021)의 연구에서는 청소년

미혼모에 대한 주변의 시선이 양육 스트레스를 가중시킨다고 보고하였다(이선희 외, 2021: 239-240). 이영호 외(2020)의 청소년부모 중 미혼 한부모의 초기양육에 관한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부모는 일(54.8%)과 공부(42.5%)를 위해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었다. 이 때 응답자의 다수가 어린이집 이용 시 힘든 점으로 아이의 문제 등으로 보육교사에게 주의를 받은 것이라 응답하여 청소년부모에게 보육교사와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보고하였다(이영호 외, 2020: 187).

한편 청소년부모 생활 실태 조사(2019)에서 현재 양육에 도움이 되는 지원제도를 조사한 결과, 청소년부모들은 생활비 등 경제적 지원 30.5%, 주거비용 지원 20.7%, 자녀 돌봄 지원 19.7%, 심리/정서적 도움 11.3%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은주희, 임고운, 2019: 58-59). 양육에 필요한 지원제도로는 자녀 양육비 30.7%, 생계비 및 의료비 지원 29.4%, 주거 지원 10.9%, 자녀 보육서비스 지원 8.0% 등으로 응답하여서 청소년부모가 자녀 양육을 더 잘 할 수 있는 환경 지원이 요구되고 있다고 해석하였다(은주희, 임고운, 2019: 59-60).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소년부모의 양육에 대해서는 청소년한부모, 특히 미혼모 대상의 연구가 대부분이었으나 청소년기이기에 나타나는 학업 및 경제적 어려움이나 취약한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하면서 맞닥뜨리는 어려움 등은 한부모가 아닌 청소년부모에게도 유사하게 나타날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나. 청소년부모의 어려움

선행연구들에서 밝히는 청소년부모의 생활 속에서 나타난 특징이나 어려움을 학업·취업 및 경제적 상황, 주거, 심리적 건강, 사회적 관계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1) 학업·취업 및 경제적 상황

청소년기 임신과 출산은 학업 중단을 야기하기도 하며, 생계를 위한 취업 현장에 이른 시기에 진입하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청소년부모 현황 연구에서는 중·고등·대학생인 경우 43.2%가 학업 중단 경험이 있다고 보고하였다(박미진 외, 2022: 282). 또한 통계청(2022)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에 따르면, 15~19세는 6.9%, 15~24세는 29.4%가 경제활동에 참가하고 있는 반면 청

소년부모는 57.8%의 취업률을 보여 비슷한 연령대의 청년들보다 높게 나타났다(박미진 외, 2022: 95).

청소년부모 생활실태조사(은주희, 임고운, 2019)에 따르면, 청소년부모(응답자 총 315명)의 최종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이 44.8%, 대학교 졸업 이상은 7.3%이나 고등학교 중퇴 이하의 학력이 31.9%, 대학교 중퇴(휴학 포함)가 11.4%로 학업을 지속하지 못한 비율도 높은 편이었다(은주희, 임고운, 2019: 23-24). 근로 상태에 대한 조사 결과, 휴직이나 휴학을 포함하여 현재 일을 쉬고 있다는 응답이 61.0%이었으며, 종일 근로는 13.0%, 시간제 근로나 아르바이트는 15.6%에 불과하였다(은주희, 임고운, 2019: 27). 현재 일을 쉬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 그 이유로는 응답자의 32.6%가 '자녀를 직접 양육하고 싶어서', 30.6%가 '자녀를 맡길 곳이 없어서'라고 응답하였으며, '마땅한 일을 구하지 못해서', '학업 중에 있어서'라는 응답도 각각 16.6%, 14.5%이었다(은주희, 임고운, 2019: 28).

이러한 청소년부모의 상황은 이상정 외(2022)의 연구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조사 응답자(101명) 중 12.9%는 부부 둘 다 무직인 상태였으며, 외벌이가 78.2%이었다(이상정 외, 2022: 80). 조사 당시 지난 일주일간 근로하였다는 응답자는 22.8%이었으며, 과반수가 비정규직으로, 일반 청년부모 중 13.8%만이 비정규직이었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2021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결과와 차이를 보였다(이상정 외, 2022: 80-81). 또한 시간제 근로를 하는 경우 전일 근로를 하지 않는 이유로 '육아 또는 자녀교육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이상정 외, 2022: 82).

청소년한부모의 경우 경제적 어려움이 더욱 크다고 알려져 있다. 청소년한부모 가족 실태조사(정가원 외, 2021: 164)에 따르면, 청소년한부모의 69.1%가 가장 큰 고민으로 양육비, 생활비, 주거문제 등의 경제적인 고민을 꼽았다. 김지연 외(2013)의 연구에서 청소년한부모의 상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근로소득과 정부지원금 등 월 평균 총수입이 20만원 이하인 청소년한부모가 30.0%로 가장 많았으며 51~100만원 26.6%, 21~50만원 25.5% 등의 순으로 응답하여, 2013년 당시 2인 가구 최저생계비가 974,231원이었음을 감안하였을 때 경제적 상황이 취약함을 알 수 있었다(김지연 외, 2013: 79). 또한 조사에 응답한 청소년한부모의 40.7%가 중졸 이하 학력이었고, 고졸은 41.8%, 대학 재학 이상은 17.5%로 나타

나 중등교육이 보편화된 우리나라에서 청소년부모의 학력이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임을 보고하였다(김지연 외, 2013: 81).

이상의 선행연구의 결과를 통해 청소년부모의 낮은 학력이나 학업을 지속해야 하는 상황이 일자리를 구하는데 어려움을 야기하며, 자녀 양육 등의 이유로 안정적인 근로를 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 주거

청소년부모는 소득이나 종사상 지위가 불안정한 경우가 많아 생계와 근로, 주거 등의 측면에서 취약한 집단이라고 볼 수 있다(이상정 외, 2022: 24). 은주희, 임고운(2019)의 연구에 따르면, 보증금이 있는 월세 형태로 거주하는 경우가 44.4%, 전세 18.7% 등이었으며, 가족(친인척)의 집에서 무상 거주(15.2%)하거나 찜질방, 모텔 등에서 임시 거주(6.3%)한다는 응답도 있었다(은주희, 임고운, 2019: 44-45).

한편 이상정 외(2022)의 연구에서는 주거 관련 지원제도에 대한 청소년부모의 인지도가 높지 않음을 보고하였다. 예를 들어, 공공 분양 주택은 응답자의 75.2%가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나, 주거 급여는 57.4%, 정부 지원 전월세 자금 보충은 36.6%만이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다(이상정 외, 2022: 58). 또한 청소년부모는 일반 청년부모에 비해 주거 상황이 열악하지만 원가족의 지원을 받는 비율은 낮은 편이어서 주거 지원에 대한 요구가 많이 있었다(이상정 외, 2022: 59).

청소년부모의 주거 지원 경험에 관한 연구(임고운, 은주희, 2022)에서는 주거 지원과 관련한 청소년부모의 경험을 ‘주거 지원 이전, 주거 지원 탐색, 주거 지원 이후’로 나누어 설명하였다(임고운, 은주희, 2022: 10). 주거 지원 이전에는 주거비 마련의 어려움으로 ‘정처 없이 떠도는’ 생활을 하게 되며 잦은 이사로 인한 불안감이 강해진다(임고운, 은주희, 2022: 10-12). 이후 청소년부모는 독립을 위해 안정적인 주거를 탐색하고, 그 과정에서 주거 지원 제도를 경험하게 되면 정서적·사회적 변화가 나타나고 경제적 상황과 장래 계획에서의 변화를 위해 의지를 가지고 도전하게 된다(임고운, 은주희, 2022: 14-17). 이처럼 주거 상황은 청소년부모의 생활에서 불안정성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 된다.

3) 심리적 건강

청소년부모의 삶의 만족도, 우울 등의 심리적 건강에 대한 선행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청소년부모의 삶의 만족도는 10점 척도에서 평균 6.6점으로 나타났다(이상정 외, 2022: 68-69). 반면 청소년부모는 우울 척도 점수가 평균 21.3점으로 응답자의 61.4%가 우울 위험군에 속하여서, 일반 청년부모(평균 7.8점)에 비해 우울 수준이 높은 편이었다(이상정 외, 2022: 65). 청소년부모 현황 연구에서 청소년부모의 68.3%가 산후우울감을 느낀 경험이 있다고 보고하였으며, 청소년부모 중 20.1%가 자주 또는 항상 우울감을 느낀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박미진 외, 2022: 199, 274). 청소년한부모 실태조사에서도 응답자의 65.5%가 산후우울감을 느낀 경험이 있으며, 27.7%는 최근 우울감을 경험하였다고 보고하였다(정가원 외, 2021: 133, 189).

청소년부모가 경험한 아동·청소년기 부정적인 사건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과반수(61.4%)가 가정형편의 어려움을 경험하였으며, 일반 청년부모에 비해 학교·동네에서의 괴롭힘이나 따돌림 경험(47.5%), 가까운 사람의 상실 경험(47.5%), 정서(신)적 어려움을 경험한 가정구성원 여부(36.6%), 양육자 체벌 및 정서적 공격(32.7%) 등을 상대적으로 많이 경험하였다(이상정 외, 2022: 65-67).

이처럼 청소년부모의 다수가 경증은 서로 다르겠지만 우울을 경험하거나 부정적 사건으로 인해 심리적 건강이 나빠질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부모는 주변 자원을 이용하기보다는 고립되어 있는 편이거나 자신의 심리적 상태에 소홀하였다. 박미진 외(2022)에 따르면, 산후우울감을 느꼈다고 응답한 비율은 과반이 넘으나 의료기관 및 전문상담센터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경우는 9.9%이었으며(박미진 외, 2022: 201), 우울감이나 외로움을 느낄 때 혼자서 참는다는 응답이 51.6%이었다(박미진 외, 2022: 280).

4) 사회적 관계

사회적지지는 청소년부모의 자녀 양육이나 자립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안경천, 김현진(2018)¹⁷⁾의 연구에서는 미혼한부모의 자립 의지에 심리적인 사회적지지와

17) 이 연구에서는 성인 한부모도 연구대상으로 포함하지만, 응답자 중 10대가 21.4%, 20대가 54.7%이며, 출산 당시 연령이 10대인 경우는 30.4%여서 청소년부모의 특성을 다소 보여준다고 여겨짐.

자아존중감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주변인들로부터의 관심, 애정, 신뢰(정서적 지지), 조언, 정보제공(정보적 지지), 그리고 자기평가와 관련한 정보전달(평가적 지지)을 포함하는 심리적인 사회적지지는 미혼한부모의 자아존중감을 높이고 이는 그들이 자립 의지를 갖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안경천, 김현진, 2018: 113-114).

청소년부모의 사회적 관계 중 원가족과의 관계는 청소년부모에게 특히나 중요하다. 원가족으로부터의 양육 및 경제적 지원은 청소년부모(미혼모)에게 심리적인 안정감을 제공하고, 혼자 자녀를 키우면서 겪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이선희 외, 2021: 246).

한편 지역사회 지원 제도 이용에 있어 청소년한부모는 지원 정책의 전달체계 중 구청이나 주민센터 등의 공공복지전달체계와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을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김은지 외, 2013: 58). 청소년한부모들의 정책 이용에서 경험한 주된 어려움은 첫째, 시설중심으로 정책 전달이 이루어져 가정에서 아이를 양육하는 청소년한부모에게 서비스 안내와 전달이 부족한 점, 둘째, 공공복지전달체계 담당자들이 청소년한부모에 대해 갖는 부정적 태도와 편견으로 정리된다(김은지 외, 2013: 59, 65).

3. 청소년부모 대상 지원 정책

가. 근거법

1) 「청소년복지 지원법」의 [제5장2 청소년부모 지원]¹⁸⁾

청소년부모를 지원하는 법적 근거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중 [제5장2 청소년부모 지원]으로서 2021년 3월에 신설되었다. [제5장2 청소년부모 지원]에서는 청소년부모에 대한 가족지원서비스, 복지지원, 교육지원, 직장체협 및 취업지원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다.

1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 2022. 4. 21.] [법률 제18101호, 2021. 4. 20., 일부개정]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20421&lsiSeq=231693#0000>에서 2023. 2. 27. 인출.

〈표 II-3-1〉 「청소년복지 지원법」의 [제5장의2 청소년부모 지원]

제18조의2 (청소년부모 에 대한 가족지원서 비스)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부모에게 다음 각 호의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1. 아동의 양육 및 교육 서비스 2. 「지역보건법」 제11조제1항제5호사목에 따른 방문건강관리사업 서비스 3. 교육·상담 등 가족 관계 증진 서비스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소년부모에 대한 가족지원 서비스 ② 제1항에 따른 가족지원서비스 대상 청소년부모의 선정 기준, 범위 및 기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3. 23.]
제18조의3 (청소년부모 에 대한 복지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부모와 그 자녀에게 복지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복지지원은 생활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청소년활동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에 따라 물품 또는 서비스의 형태로 제공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복지지원 대상 청소년부모의 선정 기준, 범위 및 기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3. 23.]
18조의4 (청소년부모 에 대한 교육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부모가 학업을 할 수 있도록 청소년부모의 선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학적 유지를 위한 지원 및 교육비 지원 또는 검정고시 지원 2.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교육비 지원 3. 「초·중등교육법」 제28조에 따른 교육 지원 4. 그 밖에 청소년부모의 교육 지원을 위하여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부모의 학업과 양육의 병행을 위하여 그 자녀가 청소년부모가 속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설치된 직장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부모가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에게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 청소년부모의 선정 기준, 범위 및 기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3. 23.]
제18조의5 (청소년부모 에 대한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부모가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업의 체험과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직업적성 검사 및 진로상담프로그램 2. 직업체험 및 훈련프로그램 3. 직업소개 및 관리 4. 그 밖에 청소년부모의 직업체험 및 훈련에 필요한 사항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부모를 대상으로 취업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 및 태도를 습득·향상시키기 위하여 직업교육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3. 23.]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n.d.).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 2022. 4. 21.] [법률 제18101호, 2021. 4. 20., 일부개정]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20421&lsiSeq=231693#0000>에서 2023. 2. 27. 인출.

「청소년복지 지원법」상의 청소년부모 지원 근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명확히 책임성을 부여하고 있지 않은 임의 규정이다(이상정 외, 2022: 32). 청소년부모 대상 가족지원서비스와 복지지원 기간은 필요한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연장할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1년이며, 지원대상자가 지원 기간 중에 24세에 도달하는 경우 지원기간은 해당 연도의 마지막 날까지로 한다고 명시하고 하고 있어(「청소년복지 지원법 대통령령」 제10조의2 제2항 제5호), 자녀의 임신과 출산, 양육 그리고 당사자의 자립이라는 청소년부모의 장기적·다중적 위기 지원에 대한 배려가 없으며, 24세 이후의 연속적인 지원을 단절시키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이상정 외, 2022: 32).

2)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청소년한부모 지원¹⁹⁾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1의2에 의하면 ‘청소년한부모’란 24세 이하의 모 또는 부를 말한다. 청소년한부모를 지원하는 법적 근거는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제17조의2, 제17조의4, 제17조의5이며, 청소년한부모에 대한 교육지원, 자립지원, 건강진단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다.

〈표 II-3-2〉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청소년한부모 지원

제17조의2 (청소년한부모에 대한 교육 지원)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한부모가 학업을 할 수 있도록 청소년한부모의 선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학적 유지를 위한 지원 및 교육비 지원 또는 검정고시 지원 2.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교육비 지원 3. 「초·중등교육법」 제28조에 따른 교육 지원 4. 그 밖에 청소년한부모의 교육 지원을 위하여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교육 지원을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순회교육 실시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1.>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한부모의 학업과 양육의 병행을 위하여 그 자녀가 청소년한부모가 속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설치된 직장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8. 1. 16.>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한부모가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에게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1. 16.> [본조신설 2011. 4. 12.]
---	---

19)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n.d.).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 2021. 4. 21.] [법률 제17540호, 2020. 10. 20., 일부개정]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10421&lsiSeq=222505#0000>에서 2023. 3. 6. 인출.

제17조의4 (청소년한부모의 자립지원)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한부모가 주거마련 등 자립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으로 형성된 자산은 청소년한부모가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확인할 때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자립 지원의 대상과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자립 지원의 신청, 방법 및 지원금의 반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 1. 21.]
제17조의5 (청소년한부모의 건강진단)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한부모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결과를 청소년한부모 본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실시와 그 결과 통보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대상과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건강진단의 신청, 방법 및 제2항에 따른 결과의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 12. 12.] [중전 제17조의5는 제17조의6으로 이동 <2017. 12. 12.>]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n.d.).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 2021. 4. 21.] [법률 제17540호, 2020. 10. 20., 일부개정]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10421&lsiSeq=222505#0000>에서 2023. 3. 6. 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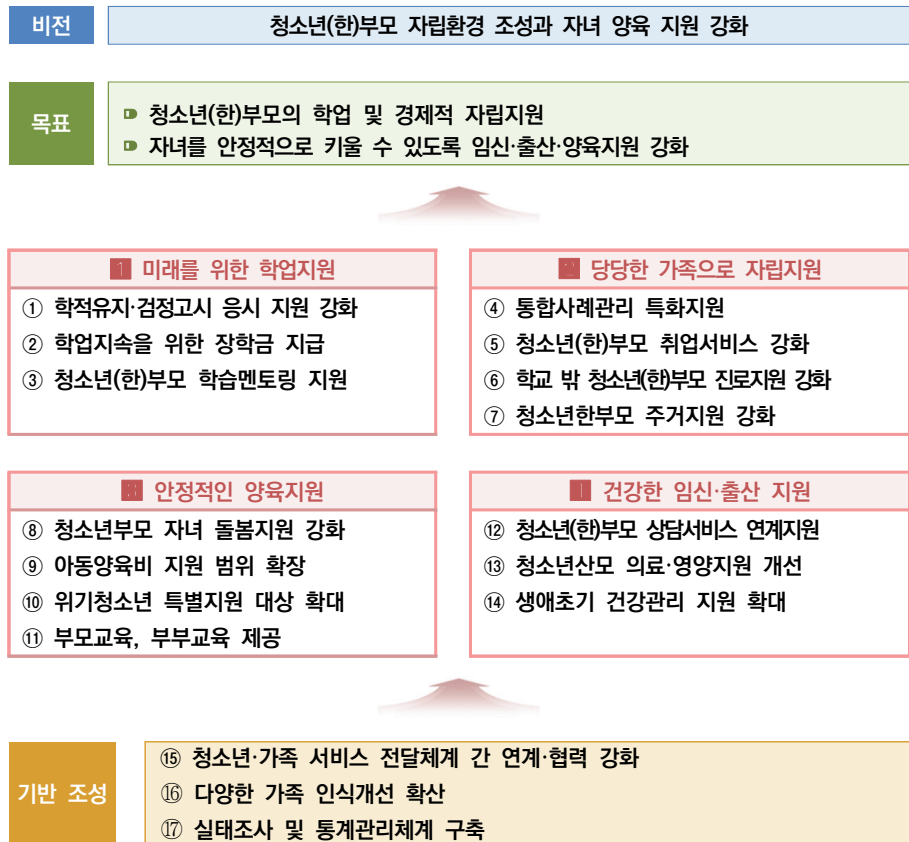
나. 청소년부모 지원 대책

2021년 11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청소년부모·한부모 양육 및 자립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본 방안은 청소년부모·한부모의 양육부담을 덜고, 청소년부모·한부모 개인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지원 대책으로 2021년 3월에 개정된 「청소년복지 지원법」의 후속조치이다(관계부처합동 보도자료, 2021. 11).

[그림 II-3-1]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본 대책의 비전은 ‘청소년(한)부모 자립환경 조성’과 자녀 양육 지원 강화’이며, 목표는 ‘청소년(한)부모의 학업 및 경제적 자립지원, 자녀를 안정적으로 키울 수 있도록 임신·출산·양육지원 강화’로 명시하였다.

정책과제로는 ‘미래를 위한 학업지원’, ‘당당한 가족으로 자립지원’, ‘안정적인 양육지원’, ‘건강한 임신·출산 지원’의 4개 과제로 구성되며, 총 17개의 세부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그림 II-3-1] 청소년(한)부모 양육 및 자립지원 강화방안



자료: 관계부처 합동. (2021. 11). 만 24세 이하 청소년 부모·한부모 양육·자립 지원 강화. 보도자료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8217에서 2023. 3. 2. 인출

다. 청소년부모 지원 정책

1) 청소년부부 지원 정책

청소년부모 모두가 24세 이하이면서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 사업을 임신·출산, 양육, 주거, 생계, 근로 등으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먼저 임신·출산 지원 정책을 살펴보면,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은 국민행복카드 전자바우처로 받는 현금성 지원으로, 만19세 미만 청소년 임신부에게는 120만원, 만 20세 이상 임신부에게는 100만원 지급된다. 2022년 1월 1일 출생아에게 지급 되는 ‘첫만남 이용권’도 현금성 지원으로 200만원이 지급된다.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지원'과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은 소득수준에 따라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

다음으로, 양육 지원 정책을 살펴보면, '부모급여', '아동수당', '가정양육수당'은 현금지원으로 아동 연령에 따라 지원 금액은 상이하다. 2022년 7월부터 '청소년부모 양육비지원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청소년부모 가구의 기준 소득이 60% 이하일 때,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아동 1인당 20만원의 아동 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아래 표에서 하늘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청소년부모에게만 추가로 지원되는 정책이다.

〈표 II-3-3〉 청소년부모 지원 정책-임산·출산, 양육

구분	지원 정책	대상	지원내용
임산·출산	1) 임신·출산 진료비지원 (국민행복카드)	만 19세 이하 임신부 만 20세 이상 임신부	임신 1회당 120만원 임신 1회당 100만원
	2) 첫만남 이용권(국민행복카드)	2022. 1. 1 이후 출생아	200만원
	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 출산 가정에 산모·신생아 관리사를 통한 가정방문 서비스 지원 • 본인부담금 有
	4)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국민행복카드)	저소득층 영아(0~24개월) 가구	• 기저귀 지원 : 월 70,000원 •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 월 160,000원 • 최대 24개월 동안 지원
양육	5) 부모급여	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	0세 월 70만원 1세 월 35만원
	6) 아동수당	만 8세 미만 아동	월 10만원
	7) 가정양육수당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영유아를 돌보는 가구	아동 개월수에 따라 10~20만원
	8)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	중위소득 60% 이하 청소년부모	자녀당 월 20만원

자료: 1) 국가바우처통합카드 국민행복카드. (n.d).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http://www.voucher.go.kr/voucher/pregnancy.do?p_sn=56에서 2023. 3. 3. 인출.
 2) 국가바우처통합카드 국민행복카드. (n.d). 첫만남 이용권 지원.
http://www.voucher.go.kr/voucher/firstEncounter.do?p_sn=70에서 2023. 3. 3. 인출.
 3)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n.d).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원사업.
https://www.socialservice.or.kr:444/user/htmlEditor/view2.do?p_sn=7에서 2023. 3. 3. 인출.
 4) 국가바우처통합카드 국민행복카드. (n.d).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http://www.voucher.go.kr/voucher/diaper.do?p_sn=59에서 2023. 3. 3. 인출.

- 5) 보건복지부. (2023). 2023년 부모급여 사업안내.
- 6) 복지로. (n.d). 아동수당 지급.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ld=WLF00001171&wlfareInfoReldBztpCd=01>에서 2023. 3. 3. 인출.
- 7) 복지로. (n.d). 가정양육수당 지원.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ld=WLF00003253&wlfareInfoReldBztpCd=01>에서 2023. 3. 3. 인출.
- 8) 복지로. (n.d).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ld=WLF00005023&wlfareInfoReldBztpCd=01>에서 2023. 3. 3. 인출.

주거 지원은 LH임대지원, 지방도시공사 시행 공공 주택 지원, 생계 지원은 맞춤형 기초생활보장, 근로 지원은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내일배움카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가족역량강화 지원으로는 심리상담 및 전문상담기관 연계, 법률지원, 학습정서지원(자녀대상)이 있다.

〈표 II-3-4〉 청소년부모 지원 정책-주거, 생계, 근로, 가족역량강화

구분	지원 정책	내용
주거	LH임대지원, 지방도시공사 시행 공공 주택 지원	•수급가정 우선 •자부담보증금 지원사업 대상이 (청소년)한부모 중심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 법정대리인동의/대리 필요
생계	맞춤형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조사 •소득인정액 기준
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소득기준(II유형, 특정 대상 중 청소년부모 포함)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지원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직업상담, 직업교육훈련 등, 전국 159개소 운영
가족역량강화	심리상담 및 전문상담기관 연계	•청소년부모 대상 신규(2022)사업
	법률지원	•소득기준, 시간/횟수/기간 제한 有
	학습정서지원(자녀대상)	•건강가정센터 93개소 제공

자료: 이상정 외. (2022). 청소년부모의 정책소외 실태 및 정책개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35.

대부분의 지원 정책이 청소년부모를 특정한 정책이 아니라, 모든 부모를 포괄한 정책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청소년 지위에서 해결하기 가장 어려운 주거와 생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지만 관련 지원은 부재하며, 근로지원에 있어서도 영유아 자녀 돌봄 문제와 같은 청소년부모의 특성을 전혀 배려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이상정 외, 2022: 43).

2) 청소년한부모 지원 정책

여성가족부의 한부모가족지원사업 내 청소년한부모 지원 정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은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에게 아동양육비, 검정고시학습비, 자립촉진수당 등을 지원하여 조기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으로, 청소년한부모의 소득에 따라,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급을 포함한다.

〈표 II-3-5〉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구분	내용
개요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에게 아동양육비, 검정고시학습비, 자립촉진수당 등을 지원하여 조기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
지원대상	사별, 이혼 등에 의한 한부모가족으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만 24세 이하 청소년인 경우 -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인 경우 ※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원대상은 65% 이하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대상〉 -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만 24세 이하 청소년인 경우 -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경우
지원내용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기준 중위소득 72% 이하) -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급(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자료: 여성가족부. (n.d).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http://www.mogef.go.kr/sp/fam/sp_fam_f007.do에서 2023. 2. 28. 인출.

청소년한부모에게 지원되는 복지급여는 〈표 II-3-6〉에 제시한 바와 같이, 소득 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청소년한부모 가족의 자녀에게 월 35만원의 ‘아동양육비’가 지원되며,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청소년한부모 가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 가구당 월 5만원의 ‘생활보조금’이 지급된다. 또한 중위소득 65% 이하인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청소년한부모에게는 가구당 연 154만원 이내의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이 제공되며, 학업이나 취업활동을 하는 청소년한부모에게는 가구당 월 10만원의 ‘자립촉진수당’이 지급된다.

〈표 II-3-6〉 청소년한부모 복지 급여

지원종류	지원대상	지원금액
아동양육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청소년한부모 가족의 자녀 ※ 제외 가구: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	월 35만원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 ※ 제외 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경우,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생계지원을 받는 경우,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	가구당 월 5만원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으로서, “부” 또는 “모”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 등	가구당 연 154만원 이내
자립촉진 수당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으로서 “부” 또는 “모”가 학업이나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구당 월 10만원

자료: 여성가족부. (n.d).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http://www.mogef.go.kr/sp/fam/sp_fam_f007.do에서 2023. 2. 28. 인출.

‘청소년한부모 등 자립지원패키지’는 청소년한부모와 미혼모·부가 자립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로, 사례관리를 통한 청소년한부모 양육·자립지원이다. 양육·취업 등 각종 지원 정보를 종합적으로 안내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제공(신청 대행 포함)하는 ‘정부 서비스 연계’와 상담, 전문심리치료, 멘토링, 양육용품·병원비(연 100만원 이내)지원, 자조모임 지원 등의 ‘정서 지원 등 서비스’로 구성된다.

〈표 II-3-7〉 청소년한부모 등 자립지원패키지

구분	내용
개요	- 청소년한부모에 대한 정부의 각종 지원이 실질적 자립으로 이어지도록 수행기관을 통해 사례관리를 제공하여 청소년한부모의 자립 역량 강화를 도모 - 미혼모·부가 아기를 스스로 양육하고자 할 경우 초기 위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여 양육은 물론 자립에 이르도록 지원
지원대상	-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기준중위소득 72% 이하 청소년한부모* 가구, 혼인기록이 없고 사실혼 관계가 아니면서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하지 않은 미혼모·부자 ※ 모 또는 부가 만 24세 이하 청소년
지원내용	- 사례관리를 통한 청소년한부모의 양육·자립 지원 • (정부 서비스 연계) 양육·취업 등 각종 지원 정보를 종합적으로 안내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제공(신청 대행 포함) ※ (생활지원) 임신·출산 의료비, 건강관리, 양육(돌봄) 서비스 지원 연계 등 ※ (자립지원) 주거 지원, 취업 지원(직업훈련 등), 양육비이행 지원 연계 등 ※ (기타지원) 각종 서비스 정보 안내, 지역사회 자원 활용·연계 등 • (정서 지원 등 서비스) 상담, 전문심리치료, 멘토링, 양육용품·병원비(연 100만원 이내)지원, 자조모임 지원 등

자료: 여성가족부. (n.d).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http://www.mogef.go.kr/sp/fam/sp_fam_f007.do에서 2023. 2. 28. 인출.

III

청소년부모 양육 실태와 요구

- 01 조사참여자 특성
- 02 청소년부모 자녀 양육 실태
- 03 청소년부모 지원 요구
- 04 소결

Ⅲ. 청소년부모 양육 실태와 요구

3장에서는 설문조사와 심층면담 내용을 바탕으로 청소년부모의 자녀 양육 실태와 지원 요구를 정리하였다. 1절에서는 설문조사와 심층면담에 참여한 조사참여자 특성을 정리하였다. 2절에서는 청소년부모 자녀 양육 실태를 임신·출산 경험, 건강, 자녀 양육/돌봄 및 역량, 가족관계, 가정환경으로 구분하여 결과를 제시하였다. 3절에서는 정부/지자체 지원 수혜 경험과 만족도, 지원 요구 우선순위, 청소년부모 지원센터/서비스 인지도 및 이용 경험 등을 다루었다. 4절에서는 설문조사와 심층면담 내용을 종합하는 소결을 담았다.

1. 조사참여자 특성

가. 설문조사

「청소년부모 양육실태 및 정책지원 요구 조사」에는 자녀를 양육하는 24세 이하의 부모 총 285명이 참여하였다.²⁰⁾ 응답자 특성은 다음 <표 Ⅲ-1-1>과 같다.

어머니는 85.6%, 아버지는 14.4%이고, 혼인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배우자/파트너가 있는 청소년부부에 해당하는 응답자는 56.1%, 배우자/파트너가 없는 한부모 응답자는 43.9%인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대다수가 19세 이상의 성인(90.9%)이며, 부부 연령의 경우, 부부 모두 24세 이하인 청소년부모는 37.9%, 부부 중 한 명만 24세 이하인 경우는 18.2%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자녀 특성을 살펴보면, 자녀수는 1명이 85.6%, 2명 이상이 14.4%로 한 명의 자녀를 양육하는 응답자가 더 많았다. 첫째 자녀 기준, 자녀의 연령을 살펴보면, 0세가 28.1%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1세 23.5%, 2세 19.6% 순으로 유아보다 영아의 비율이 높았다. 첫째 자녀 출생 시, 부모 연령은 부모 모두 19세 이상

20) 본 설문조사에서는 다양한 청소년부모 가정이 참여할 수 있도록, 청소년 부모의 경우, 가정 당 부부 중 한 명만 참여하도록 하였음. 응답자인 청소년부모의 연령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별하였기 때문에 배우자의 연령 역시 24세 이하인 경우에만 설문조사의 대상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 중 한 명만 24세 이하인 가정을 포함하고 있음.

인 경우가 64.2%로 가장 많았고, 부모 중 한 명만 미성년인 경우 22.1%, 부모 모두 미성년인 경우 13.7% 순이었다.

응답자 가구의 경제적 특성을 살펴보면, 응답자 가구의 62.5%는 경제활동을 하고, 37.5%는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가구소득의 경우, 100만원 미만 41.1%,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25.3%,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이 13.0% 순으로 분석되었다. 현재 과반수 이상의 응답자(50.5%) 가구가 80만원 이상의 정부지원금 수혜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1-1〉 응답자 특성(전체)

		단위: %(명)	
구분	계 (수)	구분	계 (수)
전체	100.0 (285)	자녀수	
성별		1명	85.6 (244)
남성	14.4 (41)	2명 이상	14.4 (41)
여성	85.6 (244)	첫째 자녀 성별	
배우자/파트너 유무		남아	48.1 (137)
배우자/파트너 있음	56.1 (160)	여아	51.9 (148)
배우자/파트너 없음	43.9 (125)	첫째 자녀 연령	
응답자 연령		0세	28.1 (80)
19세 미만	9.1 (26)	1세	23.5 (67)
19세 이상	90.9 (259)	2세	19.6 (56)
가족 형태		3세	15.1 (43)
부모 모두 24세 이하	37.9 (108)	4세	5.3 (15)
부모 중 한 명만 24세 이하	18.2 (52)	5세	3.2 (9)
한부모	43.9 (125)	6세 이상	5.3 (15)
거주지역		첫째 자녀 출생 시 부모 연령	
수도권	42.5 (121)	부모 모두 19세 미만	13.7 (39)
그 외 지역	57.5 (164)	부모 중 한 명만 19세 미만	22.1 (63)
가구 경제활동 여부		부모 모두 19세 이상	64.2 (183)
경제활동 함	62.5 (178)	첫째 자녀 출산 시 모 연령	
경제활동 안함	37.5 (107)	19세 미만	33.7 (96)
모 경제활동 여부		19세 이상	66.3 (189)
경제활동 함	24.6 (70)	월평균 수혜 정부지원금액	
경제활동 안함	70.9 (202)	20만원 미만	11.6 (33)
남자 한부모(해당 없음)	4.6 (13)	20만원 이상~40만원 미만	14.4 (41)
월평균 가구소득		40만원 이상~60만원 미만	14.4 (41)
100만원 미만	41.1 (117)	60만원 이상~80만원 미만	9.1 (26)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13.0 (37)	80만원 이상	50.5 (144)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25.3 (72)	최종학력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11.9 (34)	중학교 졸업 이하	15.8 (45)
400만원 이상	5.6 (16)	고등학교 졸업	70.9 (202)
모름/무응답	3.2 (9)	전문대 졸업	8.4 (24)
		4년대 대학 졸업	4.9 (14)

청소년부부 160명과 청소년한부모 125명의 응답자를 구분하여 제시한 응답자 특성은 다음 표와 같다. 청소년한부모의 경제상황을 살펴보면,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응답자가 68.8%로 2/3가 벌이가 없거나 학업중이며, 이에 따라 월 평균 가구소득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가 75.2%인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자녀 출생 시의 부모연령을 살펴보면, 청소년부부 응답자의 경우, 부모 모두 성인이 75.0%이지만, 한부모의 경우, 부모(친부/친모) 모두 미성년이 18.4%, 부모 중 한 명만 미성년이 31.2%로 나타나, 첫째 자녀 출산 시 부모(친부/친모) 중 한 명이라도 미성년인 경우가 약 50%에 육박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III-1-2〉 응답자 특성(청소년부부/청소년한부모)

단위: %(명)

구분	청소년부부 계 (수)	청소년한부모 계 (수)
전체	100.0 (160)	100.0 (125)
성별		
남성	17.5 (28)	10.4 (13)
여성	82.5 (132)	89.6 (112)
응답자 연령		
19세 미만	8.8 (14)	9.6 (12)
19세 이상	91.3 (146)	90.4 (113)
가족 형태		
부모 모두 24세 이하	67.5 (108)	
부모 중 한 명만 24세 이하	32.5 (52)	
가구 경제활동 여부		
경제활동 함	86.9 (139)	31.2 (39)
경제활동 안함	13.1 (21)	68.8 (86)
모 경제활동 여부		
경제활동 함	23.1 (37)	26.4 (33)
경제활동 안함	76.9 (123)	63.2 (79)
(해당없음=남자 한부모)		10.4 (13)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14.4 (23)	75.2 (94)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16.9 (27)	8.0 (10)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36.3 (58)	11.2 (14)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19.4 (31)	2.4 (3)
400만원 이상	8.8 (14)	1.6 (2)
모름/무응답	4.4 (7)	1.6 (2)
월평균 수혜 정부지원금액		
20만원 미만	15.0 (24)	7.2 (9)
20만원 이상~40만원 미만	19.4 (31)	8.0 (10)
40만원 이상~60만원 미만	15.0 (24)	13.6 (17)
60만원 이상~80만원 미만	10.6 (17)	7.2 (9)
80만원 이상	40.0 (64)	64.0 (80)

구분	청소년부부	청소년한부모
	계 (수)	계 (수)
자녀수		
1명	82.5 (132)	89.6 (112)
2명 이상	17.5 (28)	10.4 (13)
첫째 자녀 성별		
남아	49.4 (79)	46.4 (58)
여아	50.6 (81)	53.6 (67)
첫째 자녀 연령		
0세	31.9 (51)	23.2 (29)
1세	27.5 (44)	18.4 (23)
2세	23.1 (37)	15.2 (19)
3세	12.5 (20)	18.4 (23)
4세	1.9 (3)	9.6 (12)
5세	1.9 (3)	4.8 (6)
6세 이상	1.3 (2)	10.4 (13)
첫째 자녀 출생 시 부모 연령		
부모 모두 19세 미만	10.0 (16)	18.4 (23)
부모 중 한 명만 19세 미만	15.0 (24)	31.2 (39)
부모 모두 19세 이상	75.0 (120)	50.4 (63)
첫째 자녀 출산 시 모 연령		
19세 미만	24.4 (39)	45.6 (57)
19세 이상	75.6 (121)	54.4 (68)
거주지역		
수도권	35.6 (57)	51.2 (64)
그 외 지역	64.4 (103)	48.8 (61)
최종 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16.3 (26)	15.2 (19)
고등학교 졸업	68.1 (109)	74.4 (93)
전문대 졸업	10.0 (16)	6.4 (8)
4년제 대학 졸업	5.6 (9)	4.0 (5)

나. 심층면담

설문조사 문항을 통해 파악하기 어려운 청소년부모 고유의 임신·출산·양육 경험과 지원 요구를 깊이 있게 파악하기 위하여, 청소년부모 15명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진행하였다. 심층면담에 참여한 청소년부부 7명과 청소년한부모 8명의 특성은 아래 표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Ⅲ-1-3〉 면담참여자 특성(청소년부부)

	구분	지역	연령	배우자	취업	월평균소득	자녀
A	아버지	수도권	21세	22세/혼인신고	휴직 중	100~200만원	1세
B	어머니	수도권	21세	24세/혼인신고	학업 중	100~200만원	3개월

	구분	지역	연령	배우자	취업	월평균소득	자녀
C	아버지	수도권	22세	23세/혼인신고	무직	100~200만원	2세
D	아버지	수도권	24세	23세/혼인신고 안함.	취업 중	100~200만원	2개월
E	어머니	수도권	23세	24세/혼인신고 안함.	무직	100~200만원	2개월
F	어머니	그 외 지역	18세	18세/혼인신고	무직	200~300만원	1개월
G	어머니	그 외 지역	20세	22세/혼인신고	무직	200~300만원	2세, 임신 중

〈표 III-1-4〉 면담참여자 특성(청소년한부모)

	구분	지역	연령	취업/학업	월평균소득	자녀
A	어머니	그 외 지역	24세	학업 중	100만원 미만	3세
B	어머니	수도권	24세	취업 중	200~300만원	4세, 3세
C	어머니	그 외 지역	24세	학업 중	없음	3세
D	어머니	수도권	21세	학업 중	없음	3세, 2세
E	어머니	그 외 지역	22세	학업 중	100만원 미만	4세
F	어머니	수도권	23세	무직	없음	2세
G	어머니	수도권	20세	학업 중	없음	2세
H	어머니	수도권	22세	학업 중	없음	4세

본 연구의 설문조사와 심층면담 대상자는 청소년부모, 한부모, 미혼모 지원 단체 등의 협조를 받아 모집되었으므로 단체의 지원을 경험해 본 일부 청소년부모에 집중되어 있다. 따라서 전체 청소년부모 중 지원을 더 시급히 필요로 하거나 지원 이용에 적극적인 부부 또는 한부모의 상황이 상대적으로 더 반영되었을 수 있음을 밝힌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본 연구 결과를 해석하고 활용하는 데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2. 청소년부모 자녀 양육 실태

가. 임신·출산 경험

1) 출산 시 상황

첫 자녀가 태어났을 시의 어머니와 아버지의 연령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어머니 연령은 평균 19.3세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 별로 살펴보면, 배우자/파트너가 없는 청소년한부모(평균 18.8세)가 배우자/파트너가 있는 청소년부모의 어머니(평

균 19.8세)보다 출산 연령이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 연령이 높고, 자녀수가 많을수록 어머니의 첫 출산 연령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월 평균 가구소득이 100만원 미만인 가구(평균 18.9세)가 100만원 이상인 가구(평균 19.1~19.9세)보다 어머니의 출산 연령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2-1〉 첫 자녀가 태어났을 시, 어머니 연령

단위: %(명), 세

구분	19세 미만	19세 이상 ~ 21세 미만	21세 이상	계	평균
전체	33.7	39.3	27.0	100.0 (285)	19.3
배우자/파트너 유무					
배우자/파트너 있음	24.4	40.6	35.0	100.0 (160)	19.8
배우자/파트너 없음	45.6	37.6	16.8	100.0 (125)	18.8
$\chi^2(df) / t$		18.152(2)***			4.4***
부모 연령					
부모 모두 24세 이하	27.8	41.7	30.6	100.0 (108)	19.5
부모 중 한 명만 24세 이하	17.3	38.5	44.2	100.0 (52)	20.4
한부모(24세 이하)	45.6	37.6	16.8	100.0 (125)	18.8
$\chi^2(df) / F$		21.816(4)***			14.1***
자녀수					
1명	29.9	39.8	30.3	100.0 (244)	19.5
2명 이상	56.1	36.6	7.3	100.0 (41)	18.2
$\chi^2(df) / t$		14.111(2)**			4.0***
첫째 자녀 연령					
0세~2세	25.1	36.9	37.9	100.0 (203)	19.9
3세 이상	54.9	45.1	0.0	100.0 (82)	18.1
$\chi^2(df) / t$		47.449(2)***			8.8***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45.3	36.8	17.9	100.0 (117)	18.9
1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27.5	42.2	30.3	100.0 (109)	19.6
300만원 이상	20.0	38.0	42.0	100.0 (50)	19.9
모름/무응답	33.3	44.4	22.2	100.0 (9)	19.1
$\chi^2(df) / F$		17.424(6)**(b)			4.6**

주: (b)=기대빈도가 5보다 작은 셀이 20% 이상인 경우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청소년부모 양육실태 및 정책지원 요구 조사」의 결과임.

** $p < .01$, *** $p < .001$.

이어서, 첫 자녀가 태어났을 시의 아버지 연령을 살펴보면, 아버지의 연령은 평균 21.8세로, 어머니의 연령보다 2.5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 출산 연령의 경향과 유사하게,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첫째 자녀의 연령이 높을수록 첫 자녀의 출생 시의 아버지 연령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III-2-2〉 첫 자녀가 태어났을 시, 아버지 연령

단위: %(명), 세

구분	20세 미만	20세 이상 ~ 22세 미만	22세 이상 ~ 25세 미만	25세 이상	계	평균
전체	29.8	28.4	21.1	20.7	100.0 (285)	21.8
배우자/파트너 유무						
배우자/파트너 있음	25.0	33.8	19.4	21.9	100.0 (160)	21.9
배우자/파트너 없음	36.0	21.6	23.2	19.2	100.0 (125)	21.6
$\chi^2(df) / t$		7.222(3)				0.8
부모 연령						
부모 모두 24세 이하	36.1	45.4	18.5	0.0	100.0 (108)	20.0
부모 중 한 명만 24세 이하	1.9	9.6	21.2	67.3	100.0 (52)	26.0
한부모(24세 이하)	36.0	21.6	23.2	19.2	100.0 (125)	21.6
$\chi^2(df) / F$		113.694(6)***				60.2*** (a)
자녀수						
1명	28.7	26.2	23.8	21.3	100.0 (244)	22.0
2명 이상	36.6	41.5	4.9	17.1	100.0 (41)	20.5
$\chi^2(df) / t$		9.856(3)*				2.2*
첫째 자녀 연령						
0세~2세	20.7	29.6	26.1	23.6	100.0 (203)	22.4
3세 이상	52.4	25.6	8.5	13.4	100.0 (82)	20.2
$\chi^2(df) / t$		31.580(3)***				4.5***

주: (a)=등분산 가정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청소년부모 양육실태 및 정책지원 요구 조사」의 결과임.

* $p < .05$, *** $p < .001$.

현재 자녀가 친부/친모와 함께 살고 있는지 알아보았다(첫째 자녀 기준). 그 결과, 청소년부부 응답자(160명) 중, 자녀가 친부/친모와 함께 살고 있는 경우는 95.0%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5.0%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미한 차이이지만 월 평균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친부/친모와 함께 살고 있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이 있었다.

〈표 Ⅲ-2-3〉 첫째 자녀 친부/친모와 함께 거주 여부

단위: %(명)

구분	첫째 자녀 친부/친모와 함께 살고 있음	첫째 자녀 친부/친모와 함께 살고 있지 않음	계(수)
전체	95.0	5.0	100.0 (160)
가족 형태			
부모 모두 24세 이하	94.4	5.6	100.0 (108)
부모 중 한 명만 24세 이하	96.2	3.8	100.0 (52)
$\chi^2(df)$	0.216(1)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82.6	17.4	100.0 (23)
1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96.5	3.5	100.0 (85)
300만원 이상	97.8	2.2	100.0 (45)
모름/무응답	100.0	0.0	100.0 (7)
$\chi^2(df)$	8.921(3)*(b)		

주: (b)=기대빈도가 5보다 작은 셀이 20% 이상인 경우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청소년부모 양육실태 및 정책지원 요구 조사」의 결과임.
* $p < .05$.

2) 임신·출산으로 인한 부담

첫 자녀를 임신하였을 당시에 응답자가 느낀 부담이 어느 정도이었는지 항목 별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4점 만점으로, 경제적 부담(예: 생활비 및 병원비 부담 등)이 평균 3.5점으로 가장 높게 응답되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정서적 부담(예: 임신으로 인한 스트레스)과 사회적 고립(예: 임신을 주변에 알리기 어려운 상황, 사회의 부정적 시선과 참견 등)이 3.1점으로 분석되었다. 신체적 부담과 가족관계의 어려움(예: 임신으로 가족과의 관계 변화 등)은 평균 2.9점으로 나타나, 다른 항목에 비하여 비교적 낮은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배우자/파트너가 있는 청소년부모 응답자 보다 한부모 응답자가, 모든 영역에서 부담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2-4〉 첫 자녀 임신으로 인한 부담감

단위: 점, (명)

구분	신체적 부담	정서적 부담	사회적 고립	경제적 부담	가족관계의 어려움	(수)
전체	2.9	3.1	3.1	3.5	2.9	(285)
응답자 성별						
남자	2.6	3.1	3.1	3.7	3.1	(41)
여자	3.0	3.1	3.1	3.4	2.9	(244)
t	-2.0*	-0.4	-0.1	3.0**	0.9	

구분	신체적 부담	정서적 부담	사회적 고립	경제적 부담	가족관계의 어려움	(수)
배우자/파트너 유무						
배우자/파트너 있음	2.8	3.0	2.9	3.4	2.7	(160)
배우자/파트너 없음	3.1	3.3	3.4	3.6	3.3	(125)
<i>t</i>	-3.4**	-2.5*	-4.3***	-2.4*	-4.7***	
응답자 연령						
19세 미만	2.6	2.6	2.7	2.9	2.7	(26)
19세 이상	3.0	3.2	3.1	3.5	3.0	(259)
<i>t</i>	-1.7	-2.5*	-1.9	-2.8**	-1.1	
가족 형태						
부모 모두 24세 이하	2.8	3.0	3.0	3.5	2.8	(108)
부모 중 한 명만 24세 이하	2.7	3.0	2.6	3.0	2.4	(52)
한부모(24세 이하)	3.1	3.3	3.4	3.6	3.3	(125)
<i>F</i>	5.9**	3.1*	9.7***(a)	5.9**(a)	12.4*** (a)	
자녀수						
1명	3.0	3.2	3.1	3.5	3.0	(244)
2명 이상	2.5	2.8	2.8	3.2	2.6	(41)
<i>t</i>	2.9**	2.3*	1.9	1.7	2.3*	
첫째 자녀 연령						
0세~2세	2.9	3.0	3.0	3.4	2.8	(203)
3세 이상	3.1	3.3	3.4	3.7	3.3	(82)
<i>t</i>	-1.6	-2.5*	-3.9***	-3.6***	-3.8***	
첫째 자녀 출생 시 부모 연령						
부모 모두 19세 미만	3.2	3.2	3.3	3.4	3.3	(39)
부모 중 한 명만 19세 미만	2.7	2.9	2.9	3.3	2.7	(63)
부모 모두 19세 이상	2.9	3.2	3.1	3.5	2.9	(183)
<i>F</i>	2.9	2.1	2.1	1.0(a)	3.6*(a)	
거주지역						
수도권	2.9	3.0	3.1	3.5	3.0	(121)
그 외 지역	2.9	3.3	3.1	3.5	2.9	(164)
<i>t</i>	-0.5	-2.5*	-0.2	-0.2	1.2	
가구 경제활동 여부						
경제활동 함	2.9	3.1	3.0	3.4	2.8	(178)
경제활동 안함	3.0	3.2	3.3	3.5	3.1	(107)
<i>t</i>	-1.4	-0.4	-2.1*	-0.7	-2.3*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3.0	3.2	3.3	3.6	3.2	(117)
1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2.8	3.1	3.1	3.4	2.8	(109)
300만원 이상	2.9	3.1	2.8	3.3	2.6	(50)
모름/무응답	2.8	3.1	3.0	3.9	3.3	(9)
<i>F</i>	1.1(a)	0.1	2.5	5.4**(a)	4.1**	

주: 1) '① 전혀 부담스럽지 않다'~'④ 매우 부담스럽다'의 평균을 산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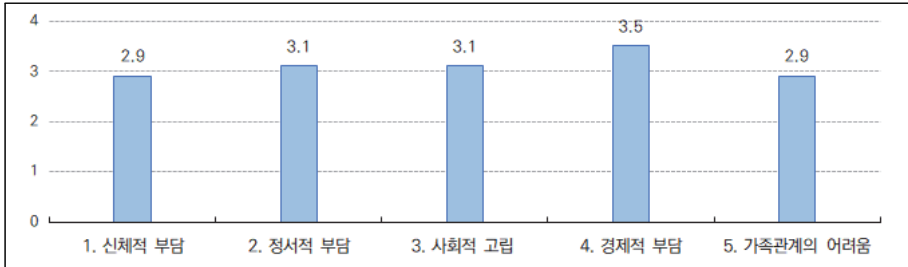
2) (a)=등분산 가정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청소년부모 양육실태 및 정책지원 요구 조사」의 결과임.

* $p < .05$, ** $p < .01$, *** $p < .001$.

[그림 III-2-1] 첫 자녀 임신으로 인한 부담감

단위: 점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청소년부모 양육실태 및 정책지원 요구 조사」의 결과임.

심층면담에서도 설문조사 결과와 마찬가지로 임신·출산 시 가장 큰 어려움으로 경제적인 측면이 언급되었다.

돈이죠 돈... 도움을 못 받고 저 스스로 다 해야 하다보니까... (청소년부부A)

저희 집이 잘 사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배우자 쪽도 잘 사는 것도 아니고, 지원해주는 것도 아니어서 되게 경제적으로도 힘들었고요. 같이 살 수 있는 집도 없어가지고 임신했을 때 따로 살면서 배우자랑 자주 만나기도 어려웠었기도 했고요. (청소년부부B)

저는 처음에는 임신한 거 키워보면 어떨까. 하다가 그 후로 빛이 점점 늘어나다 보니까. 아이를 못 키울 것 같다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빛이 생기고 나서 아기를 지을 생각도 했어요. 그런데 원래 지우는 게 돈이 너무 많이 들고, 그때 지을 시기도 놓쳐버렸고 이미 그때는 제가 배가 많이 나온 상태였고요. (청소년부부D)

처음에 알았을 때는 솔직히 조금 막막했는데, 바로 저희는 결정한 것 같아요. 낳기로. 그때 너무 자만했던 것 같아요. 난 할 수 있겠다. (중략) 보증금 부모님들이 도와주신다 한들 좀 어렵잖아요. 청소년한테는 명의를 안 내주잖아요. 집을 아무리 봐도 그래서 그것도 있었고 금전적인 문제도 좀 금액이 크다 보니까 집은 좀 힘들었죠. (청소년부부F)

제가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모아둔 돈으로 이제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되게 경제적으로 이렇게 해서는 아이를 못 키우겠다. 왜냐면 가족들에 대한 그런 지원도 받을 수 없는 상태였고, 그렇다고 누가 도와줄 사람도 없고 이런 아이를 낳고 키우는 거를 누구한테 직접적으로 교육을 받은 것도 없고 하니까 이때는 되게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되게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청소년부부B)

음. 일단 이것저것 사야 되는 것들? 아기 침대나 그런 용품들 있잖아요. 유모차도 비싸고 다 비싼데. 갑자기 새로운 곳에 이제 돈이 들어가야 되니까 경제적으로 좀 어려움도 있었고 아이 아파한테도 돈을 못 받았기 때문에 제가 임신 6개월까지는 일단 일을 했어요. 근데 그 뒤로는 이제 몸이 불편하니까 일을 못해서 그 부분에서 좀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것 같아요.

대출도 좀 받았었고... 이제 임신 6개월에 일을 그만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입이 끊기니까 월세도 못 내고 그래서 나가야 되는... 지금 방을 빼야 되는 상황이 왔어요. (청소년한부모C)

또한, 가족이나 파트너의 출산 반대를 어려움으로 인식한 경우도 발견되었다.

제가 그렇게 완전 정식으로 결혼하고 아기를 낳은 게 아니라서 남편 쪽 부모님께서 되게 많이 반대를 하셨어요. 그래서 심리적으로 힘들었기도 했고, 또 제 부모님한테 죄송한 것도 되게 많았어요. 부모님한테 얹혀사는 거다 보니까 눈치도 많이 보이기도 했었어요. (청소년 부부B)

남자 집에서는 입양 보내라는 식으로 좀 안 좋은 반응이 나와서 끝내게 된 것 같아요. 내가 엄마의 입장에서 선택을 해야 될지, 아니면 그냥 나만 생각하고 선택을 해야 될지 그런 부분들이 좀 힘들었어요. 의지할 사람이 그냥 한 명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나마 아기를 돌 보면서 그런 힘들음을 조금이라도 잊을 수 있다고 해야 되나 그랬던 것 같아요. (청소년한 부모C)

임신하고 애 아빠의 엄마가 저한테 “이제 애 지우러 가자.” 이렇게 하셨어요. 처음 통화했을 때. 그런데 제가 “어머니 저는 낳고 싶어요.”라고 했더니 갑자기 화를 버럭 내시면서 “야 너 미친 거 아니야? 내가 너 처음 보는데 이렇게 말해야겠어?”라고 했어요. (청소년한 부모E)

파트너와의 갈등이나 헤어짐을 언급, 혼란스러움을 보고한 사례 역시 존재하였는데, 대부분이 청소년한부모에 해당하는 등 청소년부부와 다소 차이를 보였다.

저는 원래 키울 생각이 없었고 입양을 보내고 싶었지만 아기 아빠가 너무 설득을 시켜가지고 같이 키우자 이렇게 했는데... 파토가 나니까 이제 거기서 엄청나게 좀 무너졌던 것 같긴 해요. (청소년한부모A)

심리적으로 둘째 아이의 아빠랑 되게 심리적으로 많이 다투고 좀 많이 싸우다 보니까 첫째 임신했을 때보다 심리적으로는 되게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마음고생이 심했고 뭔가 더 우울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청소년한부모B)

일단 막 낳고 보니까 (상대방이) 책임을 지지를 않았고, 돈도 안 벌었고 그냥 저는 혼자 아기 보고 자기는 놀러 다니고... (청소년한부모C)

아기 아빠가 아기 낳기 전에 바람을 두 번을 펴서, 제가 “너 이거 왜 이렇게 하냐” 했더니, “또 이걸 어디서 찾은 건데?”, 막 소름 돋는다면서 헤어지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힘들었어요. (청소년한부모E)

(갈등이 커지면서) 나는 내가 알아서 살 테니까, 너한테 양육소송 할 거고, 빠이빠이 하자 했는데 그쪽에서는 일단은 알았다고 했어요. 헤어지고 나서 잠깐 아기를 넣고 입양을 보내야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헤어져서 당장 갈 데가 없으니까, 출산 예정일 이틀 전에 헤어졌는데, 그때 바로 시설에 연락해서 들어갔거든요. (청소년한부모G)

(임신 사실을) 말했는데 남자친구는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남자친구는 계속 없어질 거다. 유산될 거다 이러면서.. 얘기했어요. 이 친구가 너무 싫어지고 막 그래서 또 막 싸우고 또 헤어지고. 그러다가 이제 임신한 거 알고 이제 어떡할 거냐 하면서 싸우다가 또 그럴 거면 헤어지자. 이려고 진짜 이건 아니다 싶어서 다시 만나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남자애는 지우길 바랐고, 저는 그건 아니다. 지우진 못한다. 나는 그렇게 얘기하고. (청소년한부모H)

이 외에 임신 사실을 늦게 알아차려 출산이 임박했다거나, 임신 사실을 숨겼던 것, 심리적인 측면에서 양육에 대한 막연함 혹은 임신으로 인한 학교 재학 상태나 취업상태 변화에 대한 적응의 어려움 등을 호소하기도 하였다.

임신사실을 늦게 알았거든요. 거의 8~9개월. 학교 다니면서 이렇게 돼가지고 부모님도 당연히 모르시고 저도 몰랐어요. (청소년한부모A)

제가 아기를 가지고 초반에 심장 소리만 듣고 병원을 한 번도 간 적이 없어요. 낳을 때까지. 그래서 낙태를 못한다 해서 입양을 보내자,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 쪽으로만 출생 신고를 하고 입양을 보내자. (청소년부부E)

아무래도 심리적으로 제일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임신한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헤어져 가지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한참 뒤에 알았어요. 그때 워낙에 몸 상태도 안 좋았고, 계속 생리도 불규칙해서 그리고 저도 좀 둔한 편이어서 그럴 수 있죠. (중절수술) 예약도 잡아놓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좀 나중에 죄책감이 좀 클 것 같아서 일단은 낳아서 입양을 보내든 어떻게든 해야겠다 해서 시설에 들어가게 돼서. 또 시설 들어가고 이제 아기 낳기 전까지 입양을 보낼 생각이었어요. 아기를 낳고 나서 일주일 정도 입양 속려 기간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입양을 보내기 위해서 어찌 됐든 간에 제가 일주일을 봐야 되는데, 조리원에서 있던 시간, 그리고 또 일주일의 시간이 있으니까 한 거의 2주 정도를 제가 아기를 데리고 있거든요. 솔직히 그때부터 생각이 조금 바뀌긴 했어요. (청소년한부모F)

제가 임신했던 게 고등학교 1학년인데 애들이 수학여행 간 것을 보고 많이 울었었어요. (청소년한부모E)

사실 자퇴를 안 해도 됐더라고요. 알아보니까 근데 학교에서 저랑 부장님 이런 선생님들 모여가지고 면담하면서 근데 초기인데 좀 위험하지 않겠냐 약간 자퇴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저는 그때 당연히 자퇴를 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 약간 알고 보니까 굳이 자퇴를 안 해도 되었던더라고요. (청소년한부모E)

계속 안 가고 출산 3개월 전에 갔던 것 같아요. 다 숨기고 다녔어요. 제가 썩썩 싸맸던 것 같아요. 일부러.. 배도 안 나오게 힘주고 다니고 그랬던 것 같아요. (청소년한부모H)

3) 출산 시 도움

첫 자녀 출산 당시, 경제적 영역(예: 병원비, 생활비 등 지원), 정서적 영역(예: 의논, 위로, 꾸밈 상대 등), 생활 영역(예: 간병, 육아, 가사 등 지원), 정보제공(예: 출산, 돌봄 관련 정보 지원)에 도움을 준 사람이 누구인지 질문하였다. 그 결과, 정서적 도움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가장 많은 도움을 준 사람으로 ‘응답자의 가족’이 가장 많이 응답되었으며, 정서적 도움은 ‘배우자/파트너’의 응답이 가장 높았다. 경제적, 생활영역에서는 ‘내 가족’ 다음으로 ‘배우자/파트너’가 두 번째로 응답되었지만, 출산, 돌봄 관련 정보 제공에서는 ‘없음’이 높게 응답되었다.

모든 영역에서 도움을 많이 준 사람이 없다는 응답이 10.2%에서 18.6%까지 나타나, 첫 자녀 출산 시 도움을 받은 사람이 없는 청소년(한)부모가 상당히 많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출산, 돌봄 영역에서의 정보제공에 도움을 준 사람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18.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III-2-5〉 첫 자녀 출산 시 가장 도움을 많이 준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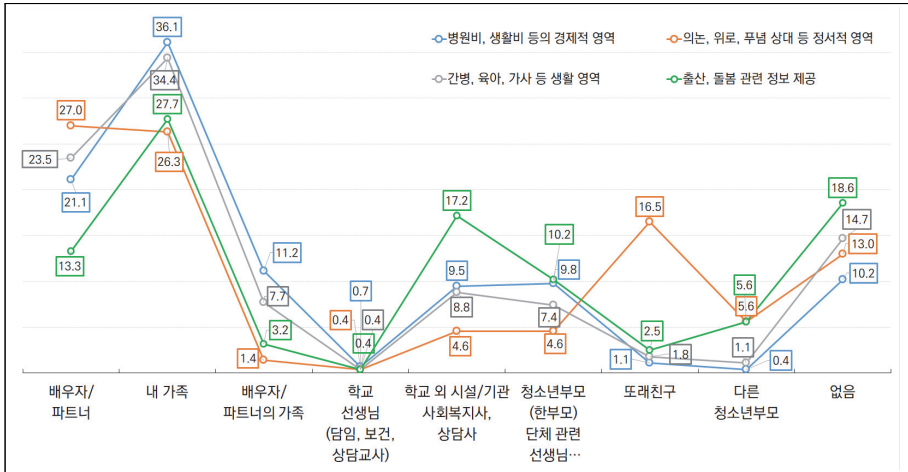
단위: %(명)

구분	배우자/ 파트너	내 가족	배우자/ 파트너의 가족	학교 선생님 (담임, 보건, 상담 교사)	학교 외 시설/ 기관 사회 복지사, 상담사	청소년 부모 (한부모) 단체 관련 선생님 (활동가)	또래 친구	다른 청소년 부모	없음	기타	계(수)
경제적 도움	21.1	36.1	11.2	0.7	9.5	9.8	1.1	0.4	10.2	0.0	100.0 (285)
정서적 도움	27.0	26.3	1.4	0.4	4.6	4.6	16.5	5.6	13.0	0.7	100.0 (285)
생활의 도움	23.5	34.4	7.7	0.4	8.8	7.4	1.8	1.1	14.7	0.4	100.0 (285)
정보 제공	13.3	27.7	3.2	0.4	17.2	10.2	2.5	5.6	18.6	1.4	100.0 (285)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청소년부모 양육실태 및 정책지원 요구 조사」의 결과임.

[그림 III-2-2] 첫 자녀 출산 시 가장 도움을 많이 준 사람

단위: %



첫 자녀 출산 시 가장 도움을 준 사람을 세부 영역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병원비, 생활비 등의 경제적 영역에서 가장 도움을 준 사람은 내 가족이 36.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배우자/파트너 21.1%, 배우자/파트너의 가족 11.2%, 없음 10.2%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높은 응답 비율을 나타낸 ‘내 가족’을 제외하고, 경제적 영역에서 도움을 준 사람으로, 청소년부모는 배우자/파트너와 그의 가족을 선택한 비율이 높았으나, 배우자/파트너가 없는 청소년한부모는 학교 외 시설/기관의 사회복지사, 상담사와 청소년(한)부모 지원단체의 활동가를 도움을 준 사람으로 선택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한부모의 경우, 기관이나 단체의 사회복지사, 상담사, 활동가에게 경제적 도움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첫 자녀 출산 시 도움을 준 사람이 없다는 응답을 살펴보면, 배우자/파트너가 없는 청소년한부모와 19세 미만의 미성년 응답자,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가구, 월 소득 100만원 미만인 가구의 응답자 즉, 비교적 경제적으로 취약하다고 볼 수 있는 집단에서 도움을 준 사람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2-6〉 첫 자녀 출산 시, 병원비, 생활비 등의 경제적 영역에 가장 도움 준 사람

단위: %(명)

구분	배우자/파트너	내 가족	배우자/파트너의 가족	학교 선생님 (담임, 보건, 상담 교사)	학교 외 시설/기관 사회 복지사, 상담사	청소년 부모 (한부모) 단체 관련 선생님 (활동가)	또래 친구	다른 청소년 부모	없음	기타	계(수)
전체	21.1	36.1	11.2	0.7	9.5	9.8	1.1	0.4	10.2	0.0	100.0 (285)
배우자/파트너 유무											
배우자/파트너 있음	32.5	35.0	16.9	0.6	2.5	3.8	0.0	0.0	8.8	0.0	100.0 (160)
배우자/파트너 없음	6.4	37.6	4.0	0.8	18.4	17.6	2.4	0.8	12.0	0.0	100.0 (125)
$\chi^2(df)$					71.506(8)***	(b)					
응답자 연령											
19세 미만	23.1	23.1	3.8	0.0	11.5	19.2	0.0	3.8	15.4	0.0	100.0 (26)
19세 이상	20.8	37.5	12.0	0.8	9.3	8.9	1.2	0.0	9.7	0.0	100.0 (259)
$\chi^2(df)$					16.727(8)*	(b)					
가족 형태											
부모 모두 24세 이하	23.1	42.6	16.7	0.0	3.7	5.6	0.0	0.0	8.3	0.0	100.0 (108)
부모 중 한 명만 24세 이하	51.9	19.2	17.3	1.9	0.0	0.0	0.0	0.0	9.6	0.0	100.0 (52)
한부모(24세 이하)	6.4	37.6	4.0	0.8	18.4	17.6	2.4	0.8	12.0	0.0	100.0 (125)
$\chi^2(df)$					94.142(16)***	(b)					
첫째 자녀 출생 시 부모 연령											
부모 모두 19세 미만	5.1	35.9	10.3	2.6	12.8	20.5	0.0	2.6	10.3	0.0	100.0 (39)
부모 중 한 명만 19세 미만	23.8	39.7	3.2	1.6	7.9	11.1	1.6	0.0	11.1	0.0	100.0 (63)
부모 모두 19세 이상	23.5	35.0	14.2	0.0	9.3	7.1	1.1	0.0	9.8	0.0	100.0 (183)
$\chi^2(df)$					28.380(16)*	(b)					
거주지역											
수도권	27.3	28.9	6.6	0.0	11.6	13.2	1.7	0.0	10.7	0.0	100.0 (121)
그 외 지역	16.5	41.5	14.6	1.2	7.9	7.3	0.6	0.6	9.8	0.0	100.0 (164)
$\chi^2(df)$					17.332(8)*	(b)					
가구 경제활동 여부											
경제활동 함	29.8	40.4	12.4	0.6	3.4	5.6	1.1	0.0	6.7	0.0	100.0 (178)
경제활동 안함	6.5	29.0	9.3	0.9	19.6	16.8	0.9	0.9	15.9	0.0	100.0 (107)
$\chi^2(df)$					54.603(8)***	(b)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6.8	29.1	8.5	1.7	18.8	17.1	1.7	0.9	15.4	0.0	100.0 (117)
1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25.7	40.4	13.8	0.0	4.6	6.4	0.9	0.0	8.3	0.0	100.0 (109)
300만원 이상	38.0	46.0	14.0	0.0	0.0	0.0	0.0	0.0	2.0	0.0	100.0 (50)
모름/무응답	55.6	22.2	0.0	0.0	0.0	11.1	0.0	0.0	11.1	0.0	100.0 (9)
$\chi^2(df)$					74.792(24)***	(b)					
월평균 수혜 정부지원금액											
40만원 미만	31.1	39.2	12.2	0.0	6.8	5.4	0.0	0.0	5.4	0.0	100.0 (74)
40만원 이상~80만원 미만	9.0	61.2	10.4	1.5	1.5	7.5	0.0	0.0	9.0	0.0	100.0 (67)
80만원 이상	21.5	22.9	11.1	0.7	14.6	13.2	2.1	0.7	13.2	0.0	100.0 (144)
$\chi^2(df)$					47.740(16)***	(b)					

주: (b)=기대빈도가 5보다 작은 셀이 20% 이상인 경우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청소년부모 양육실태 및 정책지원 요구 조사」의 결과임.

* $p < .05$, *** $p < .001$.

다음으로, 첫 자녀 출산 시, 의논, 위로, 푸념 상대 등 정서적 영역에서 가장 도움을 준 사람을 살펴보면, 배우자/파트너 27.0%, 내 가족 26.3%가 높게 나타났으며, 또래친구도 16.5%로 응답되어, 다른 항목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로 응답되었다.

〈표 III-2-7〉 첫 자녀 출산 시, 의논, 위로, 푸념 상대 등 정서적 영역에 가장 도움을 준 사람

단위: %(명)

구분	배우자/ 파트너	내 가족	배우자/ 파트너 의 가족	학교 선생님 (담임, 보건, 상담 교사)	학교 외 시설/ 기관 사회 복지사, 상담사	청소년 부모 (한부모) 단체 관련 선생님 (활동가)	또래 친구	다른 청소년 부모	없음	기타	계(수)
전체	27.0	26.3	1.4	0.4	4.6	4.6	16.5	5.6	13.0	0.7	100.0 (285)
배우자/파트너 유무											
배우자/파트너 있음	45.6	21.9	2.5	0.6	0.6	0.0	15.0	3.1	9.4	1.3	100.0 (160)
배우자/파트너 없음	3.2	32.0	0.0	0.0	9.6	10.4	18.4	8.8	17.6	0.0	100.0 (125)
$\chi^2(df)$						92.159(9)***	(b)				
가족 형태											
부모 모두 24세 이하	46.3	22.2	3.7	0.0	0.9	0.0	14.8	1.9	8.3	1.9	100.0 (108)
부모 중 한 명만 24세 이하	44.2	21.2	0.0	1.9	0.0	0.0	15.4	5.8	11.5	0.0	100.0 (52)
한부모	3.2	32.0	0.0	0.0	9.6	10.4	18.4	8.8	17.6	0.0	100.0 (125)
$\chi^2(df)$						102.386(18)***	(b)				
가구 경제활동 여부											
경제활동 함	36.5	25.8	2.2	0.6	0.6	0.6	19.1	3.4	10.1	1.1	100.0 (178)
경제활동 안함	11.2	27.1	0.0	0.0	11.2	11.2	12.1	9.3	17.8	0.0	100.0 (107)
$\chi^2(df)$						62.554(9)***	(b)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8.5	29.9	0.0	0.9	10.3	9.4	13.7	8.5	18.8	0.0	100.0 (117)
1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37.6	22.9	3.7	0.0	0.9	0.9	19.3	4.6	8.3	1.8	100.0 (109)
300만원 이상	46.0	28.0	0.0	0.0	0.0	2.0	14.0	2.0	8.0	0.0	100.0 (50)
모름/무응답	33.3	11.1	0.0	0.0	0.0	0.0	33.3	0.0	22.2	0.0	100.0 (9)
$\chi^2(df)$						76.569(27)***	(b)				
월평균 수혜 정부지원금액											
40만원 미만	37.8	21.6	0.0	0.0	4.1	2.7	20.3	4.1	8.1	1.4	100.0 (74)
40만원 이상~80만원 미만	28.4	35.8	3.0	0.0	3.0	1.5	20.9	3.0	4.5	0.0	100.0 (67)
80만원 이상	20.8	24.3	1.4	0.7	5.6	6.9	12.5	7.6	19.4	0.7	100.0 (144)
$\chi^2(df)$						31.749(18)*	(b)				

주: (b)=기대빈도가 5보다 작은 셀이 20% 이상인 경우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청소년부모 양육실태 및 정책지원 요구 조사」의 결과임.

* $p < .05$, *** $p < .001$.

이어서, 첫 자녀 출산 시, 간병, 육아, 가사 등 생활영역에 가장 도움을 준 사람은 내 가족 34.4%, 배우자/파트너 23.5% 순으로 많이 응답되었으며, 그 외 항목에서는 9% 이내의 낮은 비율로 응답되었다.

〈표 III-2-8〉 첫 자녀 출산 시, 간병, 육아, 가사 등 생활 영역에 가장 도움을 준 사람

단위: %(명)

구분	배우자/ 파트너	내 가족	배우자/ 파트너 의 가족	학교 선생님 (담임, 보건, 상담 교사)	학교 외 시설/ 기관 사회 복지사, 상담사	청소년 부모 (한부모) 단체 관련 선생님 (활동가)	또래 친구	다른 청소년 부모	없음	기타	계(수)
전체	23.5	34.4	7.7	0.4	8.8	7.4	1.8	1.1	14.7	0.4	100.0 (285)
배우자/파트너 유무											
배우자/파트너 있음	39.4	30.6	11.9	0.6	1.9	2.5	1.3	0.0	11.3	0.6	100.0 (160)
배우자/파트너 없음	3.2	39.2	2.4	0.0	17.6	13.6	2.4	2.4	19.2	0.0	100.0 (125)
$\chi^2(df)$					89.183(9)***	(b)					
가족 형태											
부모 모두 24세 이하	32.4	33.3	15.7	0.0	2.8	3.7	0.9	0.0	10.2	0.9	100.0 (108)
부모 중 한 명만 24세 이하	53.8	25.0	3.8	1.9	0.0	0.0	1.9	0.0	13.5	0.0	100.0 (52)
한부모	3.2	39.2	2.4	0.0	17.6	13.6	2.4	2.4	19.2	0.0	100.0 (125)
$\chi^2(df)$					109.162(18)***	(b)					
가구 경제활동 여부											
경제활동 함	30.9	39.3	9.0	0.6	2.2	2.8	2.2	1.1	11.2	0.6	100.0 (178)
경제활동 안함	11.2	26.2	5.6	0.0	19.6	15.0	0.9	0.9	20.6	0.0	100.0 (107)
$\chi^2(df)$					57.579(9)***	(b)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8.5	29.1	4.3	0.9	17.9	14.5	2.6	1.7	20.5	0.0	100.0 (117)
1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30.3	39.4	11.9	0.0	2.8	2.8	1.8	0.9	9.2	0.9	100.0 (109)
300만원 이상	42.0	38.0	6.0	0.0	0.0	2.0	0.0	0.0	12.0	0.0	100.0 (50)
모름/무응답	33.3	22.2	11.1	0.0	11.1	0.0	0.0	0.0	22.2	0.0	100.0 (9)
$\chi^2(df)$					73.157(27)***	(b)					
월평균 수혜 정부지원금액											
40만원 미만	33.8	31.1	9.5	0.0	5.4	2.7	1.4	2.7	12.2	1.4	100.0 (74)
40만원 이상~80만원 미만	19.4	50.7	9.0	0.0	4.5	7.5	0.0	0.0	9.0	0.0	100.0 (67)
80만원 이상	20.1	28.5	6.3	0.7	12.5	9.7	2.8	0.7	18.8	0.0	100.0 (144)
$\chi^2(df)$					32.311(18)***	(b)					

주: (b)=기대빈도가 5보다 작은 셀이 20% 이상인 경우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청소년부모 양육실태 및 정책지원 요구 조사」의 결과임.

* $p < .05$, *** $p < .001$.

마지막으로 첫 자녀 출산 시, 출산, 돌봄 관련 정보 제공에 가장 도움을 준 사람을 살펴보면, 내 가족이 27.7%, 학교 외 시설/기관 사회복지사, 상담사 17.2%가 높은 비율로 응답되었다. 도움을 준 사람이 없다는 비율도 18.6%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III-2-9〉 첫 자녀 출산 시, 출산, 돌봄 관련 정보 제공에 가장 도움을 준 사람

단위: %(명)

구분	배우자/ 파트너	내 가족	배우자/ 파트너 의 가족	학교 선생님 (담임, 보건, 상담 교사)	학교 외 시설/ 기관 사회 복지사, 상담사	청소년 부모 (한부모) 단체 관련 선생님 (활동가)	또래 친구	다른 청소년 부모	없음	기타	계(수)
전체	13.3	27.7	3.2	0.4	17.2	10.2	2.5	5.6	18.6	1.4	100.0 (285)
배우자/파트너 유무											
배우자/파트너 있음	23.1	28.8	4.4	0.6	10.6	3.1	3.1	5.6	18.8	1.9	100.0 (160)
배우자/파트너 없음	0.8	26.4	1.6	0.0	25.6	19.2	1.6	5.6	18.4	0.8	100.0 (125)
$\chi^2(df)$					57.085(9)***	(b)					
가족 형태											
부모 모두 24세 이하	18.5	32.4	6.5	0.0	10.2	4.6	3.7	6.5	14.8	2.8	100.0 (108)
부모 중 한 명만 24세 이하	32.7	21.2	0.0	1.9	11.5	0.0	1.9	3.8	26.9	0.0	100.0 (52)
한부모	0.8	26.4	1.6	0.0	25.6	19.2	1.6	5.6	18.4	0.8	100.0 (125)
$\chi^2(df)$					78.707(18)***	(b)					
자녀수											
1명	11.9	27.9	3.7	0.4	18.9	11.1	2.9	6.1	16.0	1.2	100.0 (244)
2명 이상	22.0	26.8	0.0	0.0	7.3	4.9	0.0	2.4	34.1	2.4	100.0 (41)
$\chi^2(df)$					17.028(9)*	(b)					
첫째 자녀 연령											
0세~2세	17.2	26.1	3.4	0.5	17.2	8.4	3.4	6.4	15.8	1.5	100.0 (203)
3세 이상	3.7	31.7	2.4	0.0	17.1	14.6	0.0	3.7	25.6	1.2	100.0 (82)
$\chi^2(df)$					18.269(9)*	(b)					
거주지역											
수도권	9.9	19.8	0.8	0.0	21.5	13.2	0.8	5.0	25.6	3.3	100.0 (121)
그 외 지역	15.9	33.5	4.9	0.6	14.0	7.9	3.7	6.1	13.4	0.0	100.0 (164)
$\chi^2(df)$					28.522(9)**	(b)					
가구 경제활동 여부											
경제활동 함	18.0	33.1	3.9	0.6	9.6	6.2	2.8	5.6	19.1	1.1	100.0 (178)
경제활동 안함	5.6	18.7	1.9	0.0	29.9	16.8	1.9	5.6	17.8	1.9	100.0 (107)
$\chi^2(df)$					38.324(9)***	(b)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3.4	21.4	0.9	0.0	30.8	17.1	1.7	5.1	17.9	1.7	100.0 (117)
1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16.5	31.2	5.5	0.0	9.2	7.3	3.7	6.4	19.3	0.9	100.0 (109)
300만원 이상	28.0	38.0	2.0	2.0	6.0	0.0	2.0	2.0	20.0	0.0	100.0 (50)
모름/무응답	22.2	11.1	11.1	0.0	0.0	11.1	0.0	22.2	11.1	11.1	100.0 (9)
$\chi^2(df)$					81.211(27)***	(b)					

구분	배우자/ 파트너	내 가족	배우자/ 파트너 의 가족	학교 선생님 (담임, 보건, 상담 교사)	학교 외 시설/ 기관 사회 복지사, 상담사	청소년 부모 (한부모) 단체 관련 선생님 (활동가)	또래 친구	다른 청소년 부모	없음	기타	계(수)
월평균 수혜 정부지원금액											
40만원 미만	14.9	28.4	5.4	0.0	9.5	4.1	2.7	8.1	23.0	4.1	100.0 (74)
40만원 이상~80만원 미만	11.9	41.8	1.5	0.0	11.9	11.9	1.5	1.5	17.9	0.0	100.0 (67)
80만원 이상	13.2	20.8	2.8	0.7	23.6	12.5	2.8	6.3	16.7	0.7	100.0 (144)
$\chi^2(df)$					30.613(18)(b)						

주: (b)=기대빈도가 5보다 작은 셀이 20% 이상인 경우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청소년부모 양육실태 및 정책지원 요구 조사」의 결과임.

* $p < .05$, ** $p < .01$, *** $p < .001$.

4) 임신·출산 정보 습득 경로

청소년부모는 임신, 출산 관련 정보를 크게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경로로 획득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온라인 인터넷 검색은 주로 유튜브, 맘카페, 포털 등이 가장 많이 언급되었으며, 오프라인에서는 국가 및 시설 미혼모 지원기관 혹은 시설을 통해 정보를 얻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외에 가족(언니, 엄마, 이모 등)을 언급하기도 하였으나, 이를 언급한 참여자는 상대적으로 소수에 해당하였다. 한편, 도움을 받지 못하였다고 보고하거나, 검색을 열심히 하였지만 정보에 접근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보고도 발견되었다.

저도 이제 뭔가 새로 계속 변할 때마다 이게 맞나 싶어서 인터넷도 찾아보고, 유튜브도 보고 영상 보면서 혼자서 전전긍긍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청소년부부B)

알아보려고.. 진짜 어디 도움 받을 데가 있고 우리가 무슨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정책에 대해서도 계속 알아보려고 하고, 하루 맨날 핸드폰을 잡고 있으면 하루의 절반을 맨날 검색하다가 끝났거든요. 둘이서... (청소년부부C)

(외부적으로 도와준 사람은) 없어요. 유튜브, 인터넷하고... (청소년부부D)

맘카페에 많이 물어본 것 같아요. (중략) 언니가 먼저 출산을 해서 그래서 그냥 나도 낳아야겠다. 언니 보고 많이 본받은 것 같아요. (언니한테 어떤 도움을 받았는지) 임신 중에는 배우처 같은 거 신청하는 거 좀 까다롭더라고요. 청소년은. 그런 거 언니가 다 알려주고 육아도 궁금한 거 있으면 다 알려줬던 것 같아요. 분유 뭐 어떻게 먹이고, 어떻게 타고 그런 거. (청소년부부G)

간호사 선생님들이 계시거든요. 시설 안에는. 그리고 시설에 다 얘기 엄마들이니까. 다 정보를 주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 못하겠어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어떻게 하는 거다 다 알려 주시고 하시니까 좀 어려움은 딱히 없었어요. (청소년한부모A)

한부모가족센터나 000미혼모 카페 그리고 000(시설 사이트) 그렇게 이용하고 있어요. 인터넷에 검색해서 잘 안 나오는 거는 이제 미혼모나 한부모 그런 000(포털 사이트)카페 통해서 더 일찍 정보를 습득하고 나서 이제 인터넷 검색해가지고 홈페이지 들어가서 신청하고 그런 게 되게 더 큰 것 같아요. (청소년한부모B)

맘카페 이런 데랑 유튜브 주로 그렇게 봤던 것 같아요. 최근 근데 아기가 좀 크고 나서 뭔가 육아 방식 그런 거에 대해서는 책도 봤긴 했는데 기저귀 간다든지 속싸개를 그렇게 한다든지. 그런 거 보면 유튜브에 영상으로도 되게 잘 나와 있어서 주로 그런 데서 많이 찾아봤던 거 같아요. (청소년한부모C)

처음에 000사이트랑 유튜브를 되게 많이 찾아봤었어요. 아기 낳았을 때는 옆에서 도와줄 어른들이 없었어 가지고 그냥 아기 씻기는 것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서 그런 거 다 하나하나 찾아보고 아기가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 것도 다 찾아보고 그랬었어요. (청소년한부모D)

엄마랑 이모들이 조금 도와주셨어요. 큰이모, 작은 이모가 약간 모유 이런 거 먹이는 거 하고, 아기 조금 봐주시고 씻기는 거 도와주시고 이랬는데 지금은 단절이 되었습니다. (청소년한부모E)

5) 미혼모자 시설 입소 및 산후조리원 이용 경험

여성 응답자 244명을 대상으로, 미혼모자 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경험이 있는지 알아보았다. 여성 응답자 중 27.9%가 미혼모자 가족복지시설에서 생활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배우자/파트너가 없는 청소년한부모, 첫째 자녀 출산 시 모의 연령이 19세 미만,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가구, 월 가구 소득이 낮은 경우에 미혼모자 가족복지시설 입소경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2-10〉 미혼모자 가족복지시설 입소 경험(여성 응답자)

단위: %(명)

구분	있음	없음	계(수)
전체	27.9	72.1	100.0 (244)
배우자/파트너 유무			
배우자/파트너 있음	7.6	92.4	100.0 (132)
배우자/파트너 없음	51.8	48.2	100.0 (112)
$\chi^2(df)$	58.912(1)***		

구분	있음	없음	계(수)
가족 형태			
부모 모두 24세 이하	7.2	92.8	100.0 (83)
부모 중 한 명만 24세 이하	8.2	91.8	100.0 (49)
한부모	51.8	48.2	100.0 (112)
$\chi^2(df)$	58.925(2)***		
첫째 자녀 연령			
0세~2세	23.3	76.7	100.0 (172)
3세 이상	38.9	61.1	100.0 (72)
$\chi^2(df)$	6.170(1)*		
첫째 자녀 출산 시 모 연령			
19세 미만	35.6	64.4	100.0 (87)
19세 이상	23.6	76.4	100.0 (157)
$\chi^2(df)$	4.054(1)*		
거주지역			
수도권	35.8	64.2	100.0 (109)
그 외 지역	21.5	78.5	100.0 (135)
$\chi^2(df)$	6.133(1)*		
가구 경제활동 여부			
경제활동 함	15.5	84.5	100.0 (148)
경제활동 안함	46.9	53.1	100.0 (96)
$\chi^2(df)$	28.441(1)***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48.1	51.9	100.0 (106)
1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14.9	85.1	100.0 (87)
300만원 이상	4.7	95.3	100.0 (43)
모름/무응답	25.0	75.0	100.0 (8)
$\chi^2(df)$	40.406(3)***(b)		

주: 1) 미혼모자 가족복지시설은 미혼 여성의 출산을 돕고, 출산 후 양육 지원을 위하여 일정 기간 동안 주거와 생계를 지원하는 시설을 의미함.

2) (b)=기대빈도가 5보다 작은 셀이 20% 이상인 경우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청소년부모 양육실태 및 정책지원 요구 조사」의 결과임.

* $p < .05$, *** $p < .001$.

이어서, 여성 응답자를 대상으로 산후조리원 이용 경험 알아보았다. 그 결과, 과반 이상의 여성 응답자(52.9%)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해 본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파트너가 있는 청소년부모, 경제활동을 하는 가구, 월평균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산후조리원을 이용해 본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2-11〉 산후조리원 이용 경험(여성 응답자)

단위: %(명)

구분	있음	없음	계(수)
전체	52.9	47.1	100.0 (244)
배우자/파트너 유무			
배우자/파트너 있음	61.4	38.6	100.0 (132)
배우자/파트너 없음	42.9	57.1	100.0 (112)
$\chi^2(df)$	8.328(1)**		
가족 형태			
부모 모두 24세 이하	60.2	39.8	100.0 (83)
부모 중 한 명만 24세 이하	63.3	36.7	100.0 (49)
한부모	42.9	57.1	100.0 (112)
$\chi^2(df)$	8.441(2)*		
가구 경제활동 여부			
경제활동 함	58.1	41.9	100.0 (148)
경제활동 안함	44.8	55.2	100.0 (96)
$\chi^2(df)$	4.144(1)*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45.3	54.7	100.0 (106)
1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55.2	44.8	100.0 (87)
300만원 이상	72.1	27.9	100.0 (43)
모름/무응답	25.0	75.0	100.0 (8)
$\chi^2(df)$	11.504(3)**(b)		

주: (b)=기대빈도가 5보다 작은 셀이 20% 이상인 경우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청소년부모 양육실태 및 정책지원 요구 조사」의 결과임.
 * $p < .05$, ** $p < .01$.

심층면담 중 산후조리원 이용 금액이 비싸서 이용하지 못한 경우가 다수 발견되었고, 일부는 첫만남이용권과 같이 정부 지원을 통해 이용경험이 있다 보고하였다.

조리원에 못갔죠. 산후조리원이 되게 비싸다고 알고 있어요. (청소년부부A)

산후조리원도 제가 못 갔거든요. 비용도 되게 많이 들고... (청소년한부부B)

제가 조리원을 안 갔었거든요. 돈 때문에. (청소년한부모C)

산후조리원은 2주 다녀왔어요. 첫만남 이용권으로 산후조리원비를 냈어요. (청소년부부B)

나. 건강

청소년부모의 건강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산후우울감, 현재 우울 수준, 현재 건강상태, 심리적 어려움에 대한 전문적인 대처 여부 등을 조사하였다.

먼저, 출산 후에 우울감을 느껴본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 84.4%가 경험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현재 배우자/파트너의 유무나 가족 형태에 따라서는 응답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응답자가 19세 미만의 미성년인 경우보다는 현재 19세 이상인 경우 산후우울감을 느꼈었다는 응답이 더 많았고, 첫째 자녀의 성별이 남아일 때는 90.7%가 우울감을 느꼈다고 응답하여 여아인 경우와 차이가 있었다.

〈표 III-2-12〉 출산 후 산후우울감 느껴본 경험(여성 응답자)

				단위: %(명)
구분	있음	없음	계(수)	
전체	84.4	15.6	100.0	(244)
배우자/파트너 유무				
배우자/파트너 있음	81.1	18.9	100.0	(132)
배우자/파트너 없음	88.4	11.6	100.0	(112)
$\chi^2(df)$	2.477(1)			
응답자 연령				
19세 미만	62.5	37.5	100.0	(24)
19세 이상	86.8	13.2	100.0	(220)
$\chi^2(df)$	9.733(1)**			
가족 형태				
부모 모두 24세 이하	77.1	22.9	100.0	(83)
부모 중 한 명만 24세 이하	87.8	12.2	100.0	(49)
한부모	88.4	11.6	100.0	(112)
$\chi^2(df)$	5.134(2)			
첫째 자녀 성별				
남아	90.7	9.3	100.0	(108)
여아	79.4	20.6	100.0	(136)
$\chi^2(df)$	5.876(1)*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청소년부모 양육실태 및 정책지원 요구 조사」의 결과임.

* $p < .05$, ** $p < .01$.

현재 우울 수준에 대해 4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평균 2.3점으로 보통 수준이었다. 남자 응답자의 평균은 2.0점이었으나 여자 응답자는 2.3점으로 좀 더 높았다. 또한 현재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가구에서는 평균 2.4점으로 경제활동을 하고 있

는 가구(2.2점)의 응답자보다 우울 수준을 다소 높게 보고하였다.

〈표 III-2-13〉 우울(평균)

단위: 점,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수)
전체	2.3	0.8	(285)
응답자 성별			
남자	2.0	0.7	(41)
여자	2.3	0.8	(244)
<i>t</i>	-2.7**		
배우자/파트너 유무			
배우자/파트너 있음	2.2	0.8	(160)
배우자/파트너 없음	2.4	0.7	(125)
<i>t</i>	-1.9		
가족 형태			
부모 모두 24세 이하	2.2	0.8	(108)
부모 중 한 명만 24세 이하	2.2	0.8	(52)
한부모 24세 이하	2.4	0.7	(125)
<i>F</i>	1.9		
가구 경제활동 여부			
경제활동 함	2.2	0.8	(178)
경제활동 안함	2.4	0.7	(107)
<i>t</i>	-2.3*		

주: 1) 우울 문항 중, '5) 비교적 잘 지냈다.'와 '8) 큰 불만 없이 생활했다.'는 역채점하여 합산함.

2) '① 극히 드물다(일주일 동안 1일 이하)~'④ 대부분 그랬다(일주일 동안 5일 이상)'의 평균을 산출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청소년부모 양육실태 및 정책지원 요구 조사」의 결과임.

* $p < .05$, ** $p < .01$.

현재의 건강상태를 신체건강과 정신건강으로 나누어 4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신체건강은 평균 2.8점, 정신건강은 평균 2.6점이었다. 응답자의 성별이 남자인 경우 신체건강과 정신건강 모두에서 여자 응답자보다 더 건강하다고 응답하였다.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가구에서도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두 건강영역에서 모두 더 건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응답자의 연령에 따라서는 신체건강에 차이가 있었는데 미성년인 경우 3.2점으로 19세 이상 응답자보다 건강수준을 더 높게 보고하였다. 정신건강에 있어서는 청소년부부인 경우, 부모 모두 24세 이하인 경우,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그리고 소득수준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정신건강 수준을 더 높게 보고하였다.

〈표 III-2-14〉 현재 건강상태

단위: 점, (명)

구분	신체건강	정신건강	(수)
전체	2.8	2.6	(285)
응답자 성별			
남자	3.1	3.1	(41)
여자	2.8	2.5	(244)
<i>t</i>	3.1**	3.8***	
배우자/파트너 유무			
배우자/파트너 있음	2.9	2.8	(160)
배우자/파트너 없음	2.7	2.4	(125)
<i>t</i>	1.3	3.1**	
응답자 연령			
19세 미만	3.2	2.9	(26)
19세 이상	2.8	2.6	(259)
<i>t</i>	2.6*	1.7	
가족 형태			
부모 모두 24세 이하	2.9	2.8	(108)
부모 중 한 명만 24세 이하	2.8	2.6	(52)
한부모	2.7	2.4	(125)
<i>F</i>	0.9	5.8**	
거주지역			
수도권	2.7	2.5	(121)
그 외 지역	2.9	2.7	(164)
<i>t</i>	-1.3	-2.0*	
가구 경제활동 여부			
경제활동 함	2.9	2.7	(178)
경제활동 안함	2.7	2.5	(107)
<i>t</i>	2.3*	2.6*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2.7	2.5	(117)
1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2.9	2.8	(109)
300만원 이상	2.9	2.7	(50)
모름/무응답	2.6	2.4	(9)
<i>F</i>	1.9	2.8*	

주: '① 전혀 건강하지 않음'~'④ 매우 건강함'의 평균을 산출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청소년부모 양육실태 및 정책지원 요구 조사」의 결과임.

* $p < .05$, ** $p < .01$, *** $p < .001$.

심층면담에서도 청소년부모가 체중 증가, 불면 등 신체적인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무력감, 우울, 불안 등 심리적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도 발견되었다. 부모의 심리적, 신체적 증상은 양육과정에서 자녀에 대한 반응성, 가용성, 민감성 측면과 연관되며, 실제로 부모의 우울이 자녀 양육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 바, 청소년부모에 대한 심리적 지원도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요즘은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있어요. 제가. 좀 많이 스트레스 받아요. (청소년부부A)

(임신 기간에) 저는 살이 너무 많이 찼었거든요. 호르몬 때문도 있겠지만 밖을 안나갔잖아요. 제가 주변에 임신 사실을 알고서 임신을 하고 있었던 게 아니니까 집에만 있었거든요. 그래서 살도 많이 찼고 근육도 없어지니까 관절도 아프고 살도 트고 그런 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진짜 정신적 심리적으로도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조금만 뭔가 고민이 있거나 뭔가 신경을 많이 쓰면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속이 쓰리다거나 그런 것도 있었고 항상 불안했어요. 밖에 나가도 어떤 사람이랑 갑자기 시비가 붙지 않을까? 문 밖에서 쿵쿵 소리가 나면은 누가 찾아온 것 같고 그런 불안함도 있었어요. (청소년한부모C)

약간 요즘 애들이랑 권태기가 와서 그런지 그냥 약간 진짜 집안일도 하기 싫고, 애들도 보기 싫고 학교생활도 하기 싫고 그런데 너무 한 번에 많이 몰려가지고... (청소년한부모D)

좀 심했었어요. 약간 공황 증상도 있었고 해가지고. 우울증도 심했고, 그런 부분 때문에 상담을 받았어요. 공황 증상은 진짜 지금은 많이 없어졌거든요. 저도 이 정도면 그래 많이 나아졌다 했는데, 또 혼자 있고 혼자 살다가 보니까, 아기랑 같이 보내는 시간도 더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좀 지쳐 있는 시간도 많고. 그래서 요즘 또 다시 상태가 이상해지고 있기는 해요. 약간 조금 나사 하나 빠진 사람처럼 그럴 때도 있고요. (청소년한부모F)

산후우울증? 그게 좀 심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시설에 있고 또 혼자하고 오롯이 이제 미래에 대한 부담감이랑 압박도 좀 있었고요. 아기 한 100일 때까지는 진짜 그냥 정신 없으니까 그런 우울을 느낄 그것도 없었는데 그 이후로는 아기가 그냥 누워 있고 하니까 그때부터는 되게 생각이 많아졌던 것 같아요. (청소년한부모H)

부모가 된 이후 심리적인 어려움으로 의료기관이나 전문상담센터에서 진단을 받거나 전문 상담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25.3%이었다. 청소년한부모인 경우, 첫째 자녀가 유아인 경우, 수도권 지역에 살거나, 가구소득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전문적인 도움을 받은 경험의 비율이 더 높았다.

〈표 III-2-15〉 부모가 된 이후, 심리적 어려움으로 의료기관 또는 전문상담센터에서 진단을 받거나 전문 상담을 받아 본 경험

단위: %(명)

구분	있음	없음	계(수)
전체	25.3	74.7	100.0 (285)
배우자/파트너 유무			
배우자/파트너 있음	16.9	83.1	100.0 (160)
배우자/파트너 없음	36.0	64.0	100.0 (125)
$\chi^2(df)$	13.595(1)***		
가족 형태			
부모 모두 24세 이하	15.7	84.3	100.0 (108)
부모 중 한 명만 24세 이하	19.2	80.8	100.0 (52)
한부모	36.0	64.0	100.0 (125)
$\chi^2(df)$	13.821(2)**		
첫째 자녀 연령			
0세~2세	20.7	79.3	100.0 (203)
3세 이상	36.6	63.4	100.0 (82)
$\chi^2(df)$	7.816(1)**		
거주지역			
수도권	35.5	64.5	100.0 (121)
그 외 지역	17.7	82.3	100.0 (164)
$\chi^2(df)$	11.756(1)**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35.9	64.1	100.0 (117)
1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16.5	83.5	100.0 (109)
300만원 이상	16.0	84.0	100.0 (50)
모름/무응답	44.4	55.6	100.0 (9)
$\chi^2(df)$	15.453(3)**(b)		

주: 1) 의료기관 및 전문상담센터란, 보건의료원(보건소), 정신건강의학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 위(Wee)센터 등을 지칭함.

2) (b)=기대빈도가 5보다 작은 셀이 20% 이상인 경우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청소년부모 양육실태 및 정책지원 요구 조사」의 결과임.

** $p < .01$, *** $p < .001$.

다. 자녀 양육/돌봄 및 역량

자녀 양육과 관련 자녀의 주 양육자, 자녀와 함께 지내는 시간, 배우자와의 자녀 돌봄 분담 비율, 자녀 양육 시 부담, 주변으로부터 받는 도움 정도, 도움 받는 사람이나 기관, 자녀 양육 정보를 얻는 곳, 양육정보의 도움 정도, 정보를 얻기 위해 선호하는 방식, 자녀와의 애착, 양육역량, 양육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역량, 나 자신과 자녀에게 집중하는 정도 등을 조사하였다.

1) 자녀 양육/돌봄 현황

현재 첫째 자녀의 주 양육자는 자녀의 어머니가 90.9%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그리고 자녀의 외조부모 3.5%, 자녀의 아버지 2.5%, 자녀의 친조부모 1.8%, 부모의 형제자매나 친인척이 1.4%이었다.

〈표 III-2-16〉 현재 첫째 자녀의 주 양육자

단위: %(명)

구분	자녀의 어머니	자녀의 아버지	자녀의 외조부모	자녀의 친조부모	부모의 형제자매, 친인척	계(수)
전체	90.9	2.5	3.5	1.8	1.4	100.0 (285)
배우자/파트너 유무						
배우자/파트너 있음	94.4	1.9	2.5	0.6	0.6	100.0 (160)
배우자/파트너 없음	86.4	3.2	4.8	3.2	2.4	100.0 (125)
$\chi^2(df)$			6.278(4)(b)			
가족 형태						
부모 모두 24세 이하	94.4	0.9	2.8	0.9	0.9	100.0 (108)
부모 중 한 명만 24세 이하	94.2	3.8	1.9	0.0	0.0	100.0 (52)
한부모	86.4	3.2	4.8	3.2	2.4	100.0 (125)
$\chi^2(df)$			7.956(8)(b)			

주: (b)=기대빈도가 5보다 작은 셀이 20% 이상인 경우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청소년부모 양육실태 및 정책지원 요구 조사」의 결과임.

자녀의 부모가 직접 자녀를 돌보기 어려울 때는 자녀의 외조부모가 자녀를 돌본다는 응답이 49.1%로 가장 많았고, 자녀의 친조부모 31.9%, 아이돌보미 15.8%, 부모의 이웃이나 친구 11.9% 등의 순이었으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응답은 14.7%이었다. 청소년부부인 경우에는 대부분 자녀의 외조부모(55.6%) 다음으로 친조부모가 돌본다(45.6%)는 응답이 많았으나, 청소년한부모인 경우에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거나(27.2%), 이웃이나 친구가 돌보아준다(16.8%)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더 많았다. 응답자가 미성년인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응답이 30.8%로 높은 편이었으며, 첫째 자녀가 유아인 경우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율(22.0%)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또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가구에서는 자녀의 조부모들이 자녀 돌봄에 도움을 주는 비율(자녀의 외조부모 55.6%, 자녀의 친조부모 39.9%)이 높으나,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가구에서는 비

교적 아이돌봄서비스(22.4%)나 지역아동센터(9.3%) 등을 이용하거나, 친구나 이웃의 도움을 받는다(18.7%)는 비율이 높게 보고되었다.

〈표 III-2-17〉 응답자와 배우자/파트너가 직접 자녀를 돌보기 어려울 때, 자녀를 돌보는 사람(또는 기관)(중복응답)

단위: %(명)

구분	자녀의 외조부모	자녀의 친조부모	기타 친인척	아이 돌봄 서비스 (아이 돌보미)	시간제 보육 서비스	지역아동 센터/ 다함께 돌봄 등 기타기관	민간 육아 도우미 (베이비 시터)	사교육 서비스	(부모의 이웃, 친구 등 없음)	(수)
전체	49.1	31.9	7.0	15.8	6.7	4.9	2.8	1.1	11.9	14.7 (285)
배우자/파트너 유무										
배우자/파트너 있음	55.6	45.6	5.0	6.9	6.9	1.9	3.1	0.0	8.1	13.8 (160)
배우자/파트너 없음	40.8	14.4	9.6	27.2	6.4	8.8	2.4	2.4	16.8	16.0 (125)
응답자 연령										
19세 미만	34.6	30.8	15.4	7.7	3.8	0.0	3.8	0.0	7.7	30.8 (26)
19세 이상	50.6	32.0	6.2	16.6	6.9	5.4	2.7	1.2	12.4	13.1 (259)
가족 형태										
부모 모두 24세 이하	57.4	51.9	5.6	10.2	8.3	2.8	3.7	0.0	7.4	9.3 (108)
부모 중 한 명만 24세 이하	51.9	32.7	3.8	0.0	3.8	0.0	1.9	0.0	9.6	23.1 (52)
한부모	40.8	14.4	9.6	27.2	6.4	8.8	2.4	2.4	16.8	16.0 (125)
첫째 자녀 연령										
0세~2세	48.8	36.5	6.4	13.3	6.9	5.4	3.4	1.0	12.3	12.8 (203)
3세 이상	50.0	20.7	8.5	22.0	6.1	3.7	1.2	1.2	11.0	19.5 (82)
가구 경제활동 여부										
경제활동 함	55.6	39.9	7.9	11.8	7.9	2.2	2.8	1.7	7.9	12.4 (178)
경제활동 안함	38.3	18.7	5.6	22.4	4.7	9.3	2.8	0.0	18.7	18.7 (107)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청소년부모 양육실태 및 정책지원 요구 조사」의 결과임.

첫째 자녀와 주중 평일에 함께 지낸 시간은 평균 10.0시간(10시간 0분)이었으며, 주말에 함께 지낸 시간은 14.4시간(14시간 24분)이었다. 이는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고 방학이 아닌 평범한 하루를 기준으로 응답한 시간이다.

응답자의 성별과 연령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응답자가 여자인 경우 남자보다 평일에 자녀와 함께 지내는 시간이 약 2시간 정도 더 많았으며, 응답자가 미성년인 경우 성년인 부모보다 주중 평일과 주말 모두 3시간 가량 더 자녀와 함께 지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녀수가 1명인 경우, 그리고 첫째 자녀가 영아인 경우 주중 평일에 자녀와 함께 지내는 시간이 10시간 이상으

로 다른 집단보다 더 많은 시간을 자녀와 함께 지내고 있었다. 그리고 경제활동을 하는 가구인 경우 자녀와 함께 지내는 시간이 그렇지 않은 가구에 비해 훨씬 줄어들었다.

〈표 III-2-18〉 첫째 자녀와 함께 지내는 시간(최근, 1일 기준)

단위: 시간, (명)

구분	평일	주말	(수)
전체	10.0	14.4	(285)
응답자 성별			
남자	8.1	13.3	(41)
여자	10.3	14.6	(244)
<i>t</i>	-2.2*	-1.3	
배우자/파트너 유무			
배우자/파트너 있음	10.4	14.3	(160)
배우자/파트너 없음	9.4	14.6	(125)
<i>t</i>	1.4	-0.5	
응답자 연령			
19세 미만	13.3	16.8	(26)
19세 이상	9.6	14.2	(259)
<i>t</i>	3.1**	2.6*	
가족 형태			
부모 모두 24세 이하	10.2	14.1	(108)
부모 중 한 명만 24세 이하	10.8	14.7	(52)
한부모	9.4	14.6	(125)
<i>F</i>	1.1	0.4	
자녀수			
1명	10.2	14.5	(244)
2명 이상	8.3	14.1	(41)
<i>t</i>	2.4*	0.5	
첫째 자녀 연령			
0세~2세	10.9	14.4	(203)
3세 이상	7.6	14.5	(82)
<i>t</i>	5.1***	-0.1	
가구 경제활동 여부			
경제활동 함	9.3	13.9	(178)
경제활동 안함	11.1	15.3	(107)
$\chi^2(df) / t$	-2.6**	-2.3*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청소년부모 양육실태 및 정책지원 요구 조사」의 결과임.

* $p < .05$, ** $p < .01$, *** $p < .001$.

청소년부부의 자녀 돌봄 분담 정도는 평균 어머니 7.4 : 아버지 2.6으로 조사되었다. 첫째 자녀 출생 시 부모의 연령이 모두 19세 이상이었던 경우 혹은 어머니가 19세 이상이었던 경우 현재 어머니의 자녀 돌봄 비율이 7.6으로 다른 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첫째 자녀 연령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III-2-19〉 지난 한주 동안 귀하와 배우자의 자녀 돌봄 분담 비율

단위: %(명), 어머니:아버지

구분	엄마 60% 이하	엄마 60% 초과 ~ 80% 이하	엄마 80% 초과	계(수)		평균	
						어머니	아버지
전체	28.8	40.0	31.3	100.0	(160)	7.4	2.6
가족 형태							
부모 모두 24세 이하	30.6	41.7	27.8	100.0	(108)	7.4	2.6
부모 중 한 명만 24세 이하	25.0	36.5	38.5	100.0	(52)	7.5	2.5
$\chi^2(df) / F$		1.890(2)				0.2	
첫째 자녀 연령							
0세~2세	25.8	41.7	32.6	100.0	(132)	7.5	2.5
3세 이상	42.9	32.1	25.0	100.0	(28)	7.0	3.0
$\chi^2(df) / t$		0.312(2)				0.1	
첫째 자녀 출생 시 부모 연령							
부모 모두 19세 미만	56.3	18.8	25.0	100.0	(16)	6.8	3.3
부모 중 한 명만 19세 미만	45.8	25.0	29.2	100.0	(24)	6.7	3.3
부모 모두 19세 이상	21.7	45.8	32.5	100.0	(120)	7.6	2.4
$\chi^2(df) / F$		13.210(4)*(b)				4.1*	
첫째 자녀 출생 시 모 연령							
19세 미만	51.3	23.1	25.6	100.0	(39)	6.6	3.4
19세 이상	21.5	45.5	33.1	100.0	(121)	7.6	2.4
$\chi^2(df) / t$		13.318(2)**				-3.1**	

주: (b)=기대빈도가 5보다 작은 셀이 20% 이상인 경우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청소년부모 양육실태 및 정책지원 요구 조사」의 결과임.

* $p < .05$, ** $p < .01$.

심층면담에서도 설문조사 결과와 유사하게 어머니가 주양육자 역할을 주로 담당하였다. 하지만 양육을 같이 분담한다고 밝힌 경우는 적었다. 이는 주로 아버지가 경제적 부양을 위하여 취업을 하게 되는데, 일부 사례의 경우 고용 불안정성이 높은 직군에서 장시간 노동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양육 분담이 어려운 현실인 것으

로 보인다. 이에 양육 부담 정도에 대해서 청소년 부모 가정은 ‘남편은 안아주고 밥 먹이는 정도’, ‘대부분 부인, 남편이 조금씩 도와줌’ 등으로 아버지보다는 어머니가 상대적으로 양육에 적극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청소년모) 일단 배우자가 거의 늦게 들어와요. 밤 11시 반에서 12시쯤 오고 막 그래요. 친정 부모님은 이제 가끔 연락 오시긴 하는데, 이제 어쨌든 제가 마지막으로 키운 거여서 이제 아기 키워봤자, 자기(부모님) 21년이 넘었는데..모르겠다고... (청소년부부B)

(청소년모) 거의 제가 다 해요. (청소년부부G)

(청소년모) 대부분은 제가 하는데 조금씩 남편이 도와주긴 하죠. (어떻게 부담하는지) 근데 하는 게 별로 없잖아요. 신생아는 밥 먹이고 재우고 하는.. 그것 밖에는.. (청소년부부F)

(청소년부) 저는 이제 돈 벌어 와야 하는 입장이고, 그래서 애랑 그렇게 오래 있을 시간은 없었죠. (중략) 저는 솔직히 양육을 그냥 진짜 잠깐 잠깐 해주는 거구요. 일 때문에 이제 자주 양육을 못 해주니까, 일 가기 전에 일단은 뭐 좀 안아주고 뭐 밥도 먹여주고 하는데, 이제 그것도 별로 못 하다 보니까 양육권은 저한테는 딱히 없는 거 같아요. (청소년부부A)

(청소년부) 맨 처음에 애를 낳았을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할까? 아니 그때는 시간을 딱 정했어요. 이때부터 이때까지 내가 볼 테니까, 이때부터 네가 내가 봐라. 그래서 그때 둘 다 동의를 해서 오후까지 내가 보겠다. 그럼 네가 그 뒤에 다 봐라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정확한 시간 그런 건 없고 서로 그날 그날 컨디션에 따라 서로 맞춰 나가는 거죠. (청소년부부C)

2) 자녀 양육 부담

자녀 양육 시 경험할 수 있는 부담에 대해 신체적 부담(예: 육체적 피로, 휴식시간 없음 등), 정서적 부담(예: 양육스트레스 등), 사회적 고립(예: 친구·지인·이웃과 소통기회 부족 등), 경제적 부담(예: 교육비, 의료비 등), 가족관계의 어려움(예: 가족과의 단절, 양육에 도움을 주는 가족과의 갈등 등)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그 결과, 경제적 부담이 3.2점으로 가장 높고, 신체적 부담과 정서적 부담은 2.9점, 사회적 고립은 2.6점, 가족관계의 어려움은 2.3점이었다. 청소년한부모이거나 부모 모두 24세 이하인 청소년부부에게서 가족관계 어려움이 더 높게 보고되었으며, 경제적 부담도 더 높게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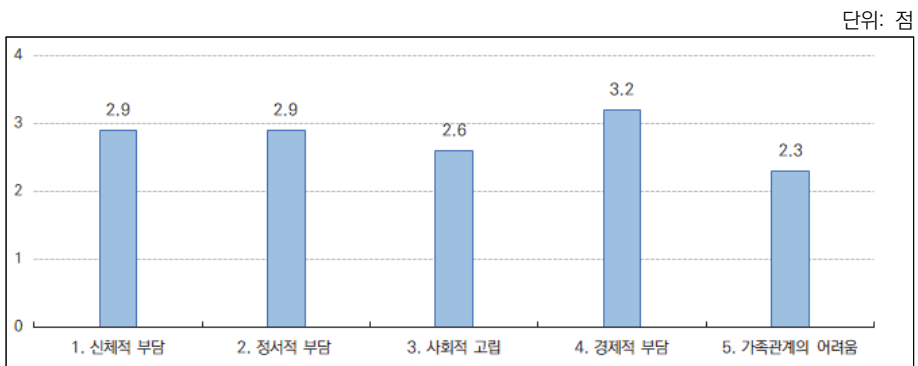
〈표 III-2-20〉 자녀 양육 시 겪은 부담(첫째 자녀 기준)

단위: 점, (명)

구분	신체적 부담	정서적 부담	사회적 고립	경제적 부담	가족관계의 어려움	(수)
전체	2.9	2.9	2.6	3.2	2.3	(285)
배우자/파트너 유무						
배우자/파트너 있음	2.8	2.8	2.6	3.1	2.1	(160)
배우자/파트너 없음	2.9	2.9	2.7	3.4	2.5	(125)
<i>t</i>	-1.4	-0.3	-0.5	-1.9	-2.6**	
가족 형태						
부모 모두 24세 이하	2.8	2.9	2.6	3.3	2.3	(108)
부모 중 한 명만 24세 이하	2.8	2.8	2.5	2.9	1.9	(52)
한부모	2.9	2.9	2.7	3.4	2.5	(125)
<i>F</i>	1.0	0.2	0.2	4.1*(a)	5.8**	

주: 1) '① 전혀 부담스럽지 않다'~'④ 매우 부담스럽다'의 평균을 산출함.
 2) (a)=등분산 가정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청소년부모 양육실태 및 정책지원 요구 조사」의 결과임.
 * $p < .05$, ** $p < .01$.

〈그림 III-2-3〉 자녀 양육 시 겪은 부담(첫째 자녀 기준)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청소년부모 양육실태 및 정책지원 요구 조사」의 결과임.

3) 자녀 양육 도움

가족의 사회자본 즉, 배우자 이외의 다른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받는 지원 정도를 4점 척도로 조사하였다. 그 결과, 정서적 도움(예: 의논, 위로, 푸념 상대 등)은 평균 2.6점, 생활의 도움(예: 가사, 육아, 간병 등)과 정보 제공(예: 자녀 양육, 교육 등에 관한 정보 지원)은 각각 2.5점, 경제적 도움(예: 용돈, 생활비 등)은 2.4 점이었다. 경제적 도움에 대해 청소년부부이거나, 부모 모두 24세 이하이거나, 수

도권 이외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또는 경제활동을 하는 가구에게서 주변 도움을 받는 정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정서적 도움에 대해서는 수도권 이외 지역에 거주하거나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 주변 도움을 받고 있는 정도가 더 높았으며, 정보 제공에 대해서는 자녀수가 1명이거나 첫째 자녀가 영아인 경우, 혹은 수도권 이외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정보 제공을 받고 있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III-2-21〉 배우자 이외의 다른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받은 도움 정도

단위: 점, (명)

구분	경제적 도움	정서적 도움	생활의 도움	정보 제공	(수)
전체	2.4	2.6	2.5	2.5	(285)
배우자/파트너 유무					
배우자/파트너 있음	2.5	2.7	2.5	2.5	(160)
배우자/파트너 없음	2.2	2.5	2.6	2.5	(125)
<i>t</i>	2.6*	1.7	-0.4	0.4	
가족 형태					
부모 모두 24세 이하	2.6	2.7	2.6	2.6	(108)
부모 중 한 명만 24세 이하	2.3	2.6	2.3	2.4	(52)
한부모	2.2	2.5	2.6	2.5	(125)
<i>F</i>	5.4**	1.6	1.3	0.7	
자녀수					
1명	2.4	2.6	2.6	2.5	(244)
2명 이상	2.2	2.6	2.3	2.2	(41)
<i>t</i>	0.8	0.0	1.8	2.2*	
첫째 자녀 연령					
0세~2세	2.4	2.6	2.6	2.6	(203)
3세 이상	2.2	2.5	2.5	2.3	(82)
<i>t</i>	1.4	0.9	0.8	2.2*	
거주지역					
수도권	2.1	2.4	2.4	2.3	(121)
그 외 지역	2.5	2.8	2.7	2.6	(164)
<i>t</i>	-3.1**	-2.9**	-2.0	-2.3*	
가구 경제활동 여부					
경제활동 함	2.5	2.7	2.6	2.5	(178)
경제활동 안함	2.2	2.5	2.4	2.4	(107)
<i>t</i>	2.4*	2.0*	1.6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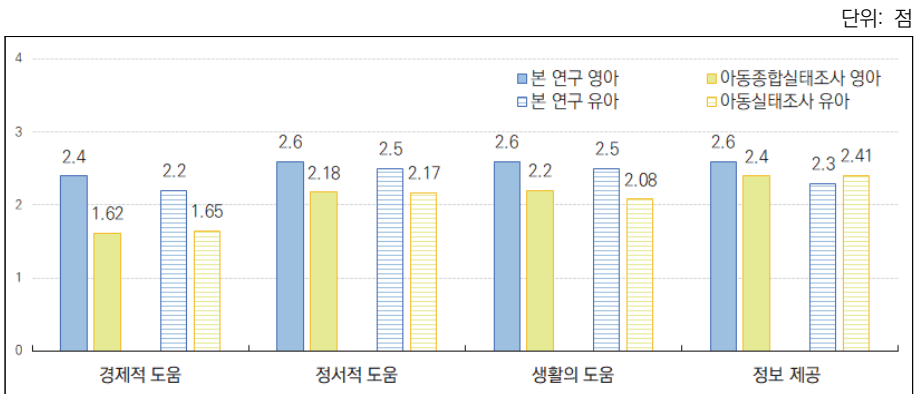
주: '① 전혀 그렇지 않다'~'④ 매우 그렇다'의 평균을 산출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청소년부모 양육실태 및 정책지원 요구 조사」의 결과임.

* $p < .05$, ** $p < .01$.

한편 0~17세 아동을 양육 중인 가구를 대상으로 가족의 사회자본에 대해 조사한 아동종합실태조사(류정희 외, 2018: 264-267)에 따르면, 영아 및 유아 가구가 받는 경제적 도움은 각각 1.62점, 1.65점, 정서적 도움은 2.18점, 2.17점, 생활의 도움은 2.20점, 2.08점, 정보 제공은 2.40점, 2.41점이었다. 본 연구의 결과와 비교하였을 때 다소 낮은 편이었다.

[그림 III-2-4] 배우자 이외의 다른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받은 도움 정도(본 연구, 아동종합실태조사)



자료: 1) 본 연구를 위한 「청소년부모 양육실태 및 정책지원 요구 조사」의 결과임.

2) 류정희, 이상정, 전진아, 박세경, 여유진, 이주연, 김지민, 송현중, 유민상, 이봉주. (2018). 아동종합실태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위에서 살펴본 도움을 받는 영역별로 가장 도움을 주는 사람이나 기관에 대해 알아본 결과, 네 영역에서 주로 배우자/파트너나 응답자의 가족을 중심으로 도움을 받고 있었으며, 도움을 받는 곳이 없다는 응답도 다소 나타났다. 영역별로 살펴보면, 경제적 도움은 배우자/파트너 31.6%, 내 가족 29.1%, 없음 21.8% 등이었다. 정서적 도움 역시 배우자/파트너가 31.6%로 가장 많았으며, 내 가족 23.5%, 포래친구 15.4% 등으로 응답하였다. 생활 영역에서의 도움은 내 가족 34.0%, 배우자/파트너 29.1%, 없음 16.1% 등이었으며, 정보 제공은 내 가족 24.6%, 없음 22.5%, 배우자/파트너 18.2% 등으로 다소 다르게 보고되었다.

〈표 Ⅲ-2-22〉 현재 자녀 양육 시, 가장 도움을 주는 사람/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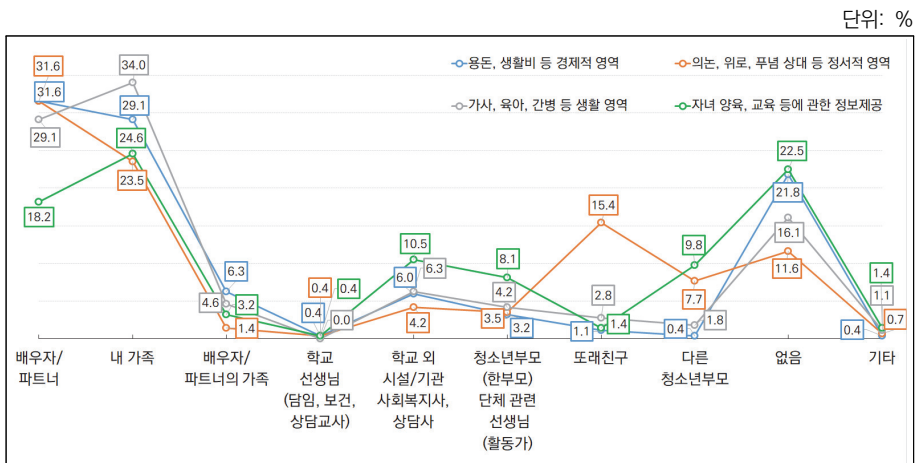
단위: %(명)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계(수)
경제적 도움	31.6	29.1	6.3	0.4	6.0	3.2	1.1	0.4	21.8	0.4	100.0 (285)
정서적 도움	31.6	23.5	1.4	0.4	4.2	3.5	15.4	7.7	11.6	0.7	100.0 (285)
생활의 도움	29.1	34.0	4.6	0.0	6.3	4.2	2.8	1.8	16.1	1.1	100.0 (285)
정보 제공	18.2	24.6	3.2	0.4	10.5	8.1	1.4	9.8	22.5	1.4	100.0 (285)

주: ① 배우자/파트너 ② 내 가족 ③ 배우자/파트너의 가족 ④ 학교 선생님(담임, 보건, 상담교사) ⑤ 학교 외 시설/기관 사회복지사, 상담사 ⑥ 청소년부모(한부모) 단체 관련 선생님(활동가) ⑦ 또래친구 ⑧ 다른 청소년부모 ⑨ 없음 ⑩ 기타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청소년부모 양육실태 및 정책지원 요구 조사」의 결과임.

〈그림 Ⅲ-2-5〉 현재 자녀 양육 시, 가장 도움을 주는 사람/기관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청소년부모 양육실태 및 정책지원 요구 조사」의 결과임.

영역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경제적 도움에서 청소년한부모인 경우 도움을 주는 사람이나 기관이 없다는 응답이 40.0%로 비교적 높았으며, 부모 중 한 명만 24세 이하인 경우 73.1%가 배우자/파트너가 가구에 경제적 도움을 주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가구소득이 100만원 미만이거나 정부지원금액을 80만원 이상 많이 받는 가구에서 경제적 도움을 주는 사람이나 기관이 없다는 응답 비율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표 III-2-23〉 현재 자녀 양육 시, 용돈, 생활비 등 경제적 영역에서 가장 도움을 준 사람 기관

단위: %(명)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계(수)
전체	31.6	29.1	6.3	0.4	6.0	3.2	1.1	0.4	21.8	0.4	100.0 (285)
배우자/파트너 유무											
배우자/파트너 있음	53.8	25.0	11.3	0.0	1.3	1.3	0.0	0.0	7.5	0.0	100.0 (160)
배우자/파트너 없음	3.2	34.4	0.0	0.8	12.0	5.6	2.4	0.8	40.0	0.8	100.0 (125)
$\chi^2(df)$	132.529(9)*** (b)										
가족 형태											
부모 모두 24세 이하	44.4	32.4	11.1	0.0	1.9	1.9	0.0	0.0	8.3	0.0	100.0 (108)
부모 중 한 명만 24세 이하	73.1	9.6	11.5	0.0	0.0	0.0	0.0	0.0	5.8	0.0	100.0 (52)
한부모	3.2	34.4	0.0	0.8	12.0	5.6	2.4	0.8	40.0	0.8	100.0 (125)
$\chi^2(df)$	148.602(18)*** (b)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6.0	30.8	1.7	0.9	12.8	6.0	0.9	0.9	40.2	0.0	100.0 (117)
1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44.0	29.4	9.2	0.0	1.8	1.8	1.8	0.0	11.9	0.0	100.0 (109)
300만원 이상	60.0	30.0	10.0	0.0	0.0	0.0	0.0	0.0	0.0	0.0	100.0 (50)
모름/무응답	55.6	0.0	11.1	0.0	0.0	0.0	0.0	0.0	22.2	11.1	100.0 (9)
$\chi^2(df)$	143.621(27)*** (b)										
월평균 수혜 정부지원금액											
40만원 미만	51.4	24.3	10.8	0.0	1.4	0.0	0.0	0.0	12.2	0.0	100.0 (74)
40만원 이상~80만원 미만	23.9	44.8	3.0	1.5	1.5	6.0	1.5	0.0	16.4	1.5	100.0 (67)
80만원 이상	25.0	24.3	5.6	0.0	10.4	3.5	1.4	0.7	29.2	0.0	100.0 (144)
$\chi^2(df)$	53.357(18)*** (b)										

주: 1) ① 배우자/파트너 ② 내 가족 ③ 배우자/파트너의 가족 ④ 학교 선생님(담임, 보건, 상담교사) ⑤ 학교 외 시설/기관 사회복지사, 상담사 ⑥ 청소년부모(한부모) 단체 관련 선생님(활동가) ⑦ 또래친구 ⑧ 다른 청소년부모 ⑨ 없음 ⑩ 기타

2) (b)=기대빈도가 5보다 작은 셀이 20% 이상인 경우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청소년부모 양육실태 및 정책지원 요구 조사」의 결과임.

*** $p < .001$.

정서적 도움에 대해서 특성별로 살펴본 결과, 청소년부부는 53.1%가 배우자/파트너에게서 정서적 도움을 받으나 청소년한부모의 30.4%는 내 가족, 23.2%는 또래친구에게서 도움을 받으며 19.2%는 도움 받는 곳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가구에서 혹은 월평균 가구소득이 100만원 미만이라고 응답한 가구에서 정서적 도움을 주는 사람이나 기관이 없거나 또래친구로부터 도움을 얻고 있다는 응답이 비교적 높은 경향을 보였다.

〈표 III-2-24〉 현재 자녀 양육 시, 의논, 위로, 푸념 상대 등 정서적 영역에서 가장 도움을 준 사람 기관

단위: %(명)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계(수)
전체	31.6	23.5	1.4	0.4	4.2	3.5	15.4	7.7	11.6	0.7	100.0 (285)
배우자/파트너 유무											
배우자/파트너 있음	53.1	18.1	1.9	0.0	0.0	2.5	9.4	8.8	5.6	0.6	100.0 (160)
배우자/파트너 없음	4.0	30.4	0.8	0.8	9.6	4.8	23.2	6.4	19.2	0.8	100.0 (125)
$\chi^2(df)$	96.791(9)*** (b)										
가족 형태											
부모 모두 24세 이하	50.9	21.3	2.8	0.0	0.0	3.7	8.3	7.4	4.6	0.9	100.0 (108)
부모 중 한 명만 24세 이하	57.7	11.5	0.0	0.0	0.0	0.0	11.5	11.5	7.7	0.0	100.0 (52)
한부모	4.0	30.4	0.8	0.8	9.6	4.8	23.2	6.4	19.2	0.8	100.0 (125)
$\chi^2(df)$	103.746(18)*** (b)										
가구 경제활동 여부											
경제활동 함	44.4	23.6	1.7	0.0	0.6	2.2	13.5	8.4	5.1	0.6	100.0 (178)
경제활동 안함	10.3	23.4	0.9	0.9	10.3	5.6	18.7	6.5	22.4	0.9	100.0 (107)
$\chi^2(df)$	62.720(9)*** (b)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9.4	26.5	0.0	0.9	10.3	6.0	20.5	6.0	19.7	0.9	100.0 (117)
1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40.4	25.7	1.8	0.0	0.0	2.8	10.1	11.0	7.3	0.9	100.0 (109)
300만원 이상	62.0	16.0	2.0	0.0	0.0	0.0	14.0	4.0	2.0	0.0	100.0 (50)
모름/무응답	44.4	0.0	11.1	0.0	0.0	0.0	22.2	11.1	11.1	0.0	100.0 (9)
$\chi^2(df)$	91.001(27)*** (b)										

주: 1) ① 배우자/파트너 ② 내 가족 ③ 배우자/파트너의 가족 ④ 학교 선생님(담임, 보건, 상담교사) ⑤ 학교 외 시설/기관 사회복지사, 상담사 ⑥ 청소년부모(한부모) 단체 관련 선생님(활동가) ⑦ 또래친구 ⑧ 다른 청소년부모 ⑨ 없음 ⑩ 기타

2) (b)=기대빈도가 5보다 작은 셀이 20% 이상인 경우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청소년부모 양육실태 및 정책지원 요구 조사」의 결과임.

*** $p < .001$.

생활 영역에서의 도움에 대해서는 청소년부부의 경우 배우자/파트너가 도움을 준다는 응답이 51.3%, 내 가족 26.9% 등으로 응답한데 비해, 청소년한부모의 경우 내 가족 43.2%, 시설의 사회복지사 13.6% 등으로 응답하였으며, 생활영역에서 도움을 주는 사람이나 기관이 없다는 응답이 24.0%이었다. 부모 모두 24세 이하인 경우 나와 배우자/파트너의 가족이 도와준다는 응답이 약 38.0%(27.8% + 10.2%)인 반면 부모 중 한 명만 24세 이하인 경우 약 28.8%(25.0% + 3.8%)로 다소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첫째 자녀가 영아일 때는 배우자/파트너가 생활 영역에서 도움을 주는 비율(34.0%)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또한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가구에서 혹은 월평균 가구소득이 100만원 미만이라고 응답한 가구에서 생활

영역에서 도움을 주는 사람이나 기관이 없다는 응답이 각각 25.2%, 24.8%로 비교적 높은 편이었다.

〈표 III-2-25〉 현재 자녀 양육 시, 가사, 육아, 간병 등 생활 영역에서 가장 도움을 준 사람 기관

단위: %(명)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계(수)
전체	29.1	34.0	4.6	0.0	6.3	4.2	2.8	1.8	16.1	1.1	100.0 (285)
배우자/파트너 유무											
배우자/파트너 있음	51.3	26.9	8.1	0.0	0.6	1.9	0.6	0.0	10.0	0.6	100.0 (160)
배우자/파트너 없음	0.8	43.2	0.0	0.0	13.6	7.2	5.6	4.0	24.0	1.6	100.0 (125)
$\chi^2(df)$	122.156(8)*** (b)										
가족 형태											
부모 모두 24세 이하	47.2	27.8	10.2	0.0	0.9	2.8	0.9	0.0	9.3	0.9	100.0 (108)
부모 중 한 명만 24세 이하	59.6	25.0	3.8	0.0	0.0	0.0	0.0	0.0	11.5	0.0	100.0 (52)
한부모	0.8	43.2	0.0	0.0	13.6	7.2	5.6	4.0	24.0	1.6	100.0 (125)
$\chi^2(df)$	128.376(16)*** (b)										
첫째 자녀 연령											
0세~2세	34.0	29.1	5.9	0.0	7.4	4.9	3.0	2.5	12.8	0.5	100.0 (203)
3세 이상	17.1	46.3	1.2	0.0	3.7	2.4	2.4	0.0	24.4	2.4	100.0 (82)
$\chi^2(df)$	24.858(8)** (b)										
가구 경제활동 여부											
경제활동 함	41.6	35.4	6.2	0.0	2.2	1.7	1.1	0.6	10.7	0.6	100.0 (178)
경제활동 안함	8.4	31.8	1.9	0.0	13.1	8.4	5.6	3.7	25.2	1.9	100.0 (107)
$\chi^2(df)$	66.312(8)*** (b)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7.7	33.3	1.7	0.0	12.8	8.5	5.1	4.3	24.8	1.7	100.0 (117)
1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40.4	35.8	7.3	0.0	2.8	1.8	1.8	0.0	9.2	0.9	100.0 (109)
300만원 이상	54.0	32.0	2.0	0.0	0.0	0.0	0.0	0.0	12.0	0.0	100.0 (50)
모름/무응답	33.3	33.3	22.2	0.0	0.0	0.0	0.0	0.0	11.1	0.0	100.0 (9)
$\chi^2(df)$	89.706(24)*** (b)										

주: 1) ① 배우자/파트너 ② 내 가족 ③ 배우자/파트너의 가족 ④ 학교 선생님(담임, 보건, 상담교사) ⑤ 학교 외 시설/기관 사회복지사, 상담사 ⑥ 청소년부모(한부모) 단체 관련 선생님(활동가) ⑦ 또래친구 ⑧ 다른 청소년부모 ⑨ 없음 ⑩ 기타

2) (b)=기대빈도가 5보다 작은 셀이 20% 이상인 경우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청소년부모 양육실태 및 정책지원 요구 조사」의 결과임.

** $p < .01$, *** $p < .001$.

정보 제공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본 결과, 청소년한부모인 경우 또는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가구에서, 월평균 가구소득이 100만원 미만인 가구에서 사회복지사나 청소년부모(한부모) 관련 단체의 활동가로부터 정보 제공의 도움을 받는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청소년한부모는 정보제공 측면에서 도움을 주는 사람이

나 기관이 없다는 응답이 27.2%로 높은 편이었다.

〈표 III-2-26〉 현재 자녀 양육 시, 자녀 양육, 교육 등에 관한 정보제공에서 가장 도움을 준 사람 기관
단위: %(명)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계(수)
전체	18.2	24.6	3.2	0.4	10.5	8.1	1.4	9.8	22.5	1.4	100.0 (285)
배우자/파트너 유무											
배우자/파트너 있음	31.9	22.5	5.0	0.6	4.4	4.4	1.3	10.6	18.8	0.6	100.0 (160)
배우자/파트너 없음	0.8	27.2	0.8	0.0	18.4	12.8	1.6	8.8	27.2	2.4	100.0 (125)
$\chi^2(df)$	65.864(9)*** (b)										
가족 형태											
부모 모두 24세 이하	29.6	24.1	7.4	0.9	3.7	6.5	0.9	10.2	15.7	0.9	100.0 (108)
부모 중 한 명만 24세 이하	36.5	19.2	0.0	0.0	5.8	0.0	1.9	11.5	25.0	0.0	100.0 (52)
한부모	0.8	27.2	0.8	0.0	18.4	12.8	1.6	8.8	27.2	2.4	100.0 (125)
$\chi^2(df)$	77.912(18)*** (b)										
가구 경제활동 여부											
경제활동 함	25.3	27.0	4.5	0.6	3.9	5.1	1.1	10.7	21.3	0.6	100.0 (178)
경제활동 안함	6.5	20.6	0.9	0.0	21.5	13.1	1.9	8.4	24.3	2.8	100.0 (107)
$\chi^2(df)$	45.445(9)*** (b)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5.1	23.1	0.0	0.0	20.5	13.7	1.7	8.5	24.8	2.6	100.0 (117)
1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22.9	24.8	5.5	0.9	3.7	6.4	0.9	11.0	22.9	0.9	100.0 (109)
300만원 이상	36.0	30.0	4.0	0.0	2.0	0.0	2.0	8.0	18.0	0.0	100.0 (50)
모름/무응답	33.3	11.1	11.1	0.0	11.1	0.0	0.0	22.2	11.1	0.0	100.0 (9)
$\chi^2(df)$	67.527(27)*** (b)										

주: 1) ① 배우자/파트너 ② 내 가족 ③ 배우자/파트너의 가족 ④ 학교 선생님(담임, 보건, 상담교사) ⑤ 학교 외 시설/기관 사회복지사, 상담사 ⑥ 청소년부모(한부모) 단체 관련 선생님(활동가) ⑦ 또래친구 ⑧ 다른 청소년부모 ⑨ 없음 ⑩ 기타

2) (b)=기대빈도가 5보다 작은 셀이 20% 이상인 경우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청소년부모 양육실태 및 정책지원 요구 조사」의 결과임.

*** $p < .001$.

심층면담에서 청소년한부모 가정의 경우, 배우자나 파트너가 부재하므로 양육지원자는 돌봄서비스(국가지원, 민간) 혹은 시설 등의 지원을 받거나 자신의 부모님 도움을 더 받는 경향이 있었다.

(주로 직접 돌보는데) 그럴 때(학교일, 다른일)는 아이돌봄서비스 쓰고 있어요. (청소년한부모F)

정부 지원 지금 받고 있는 거는 아이돌봄 서비스요. (청소년한부모F)

정부 지원 아이돌봄 서비스도 이용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00재단(민간)에서 이번에 하는 사업이 있는데 무료로 아이돌봄 서비스를 지원 해주셔가지고 보통 평일은 00재단 통해서

하는 돌봄 서비스 이용하고 있고, 토요일 제가 근무할 때는 정부 지원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어요. (청소년한부모B)

(부모님과 연락을) 일주일에 세네 번? 하고 같은 지역에 살고 있어요. 어린이집에서 이제 연장반이 되긴 하는데, 그 시간 이후로 제가 그래도 더 늦게 가야 된다 하면은 학원 차량이 저희 엄마 집으로 가서 내려주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잠깐 봐주세요. (부모님이)경제적으로도 조금 도움을 주시긴 했어요. (청소년한부모C)

지금은 방학이라서 그냥 집에서 쉬고 있는데, 학교 다니고 있을 때는 그냥 어린이집 보내놓고 갔다 와서 바로 아기를 보고 그게 그냥 일상이예요. 좀 늦게 마친다 싶으면은 그때 돌봄 선생님한테 이제 그때 일찍 하원을 가달라고 해서 가주시고 했었어요. (청소년한부모D)

아기 낳고, 엄마랑 관계 회복이 되고, 엄마가 조금씩 옆에서 도와주면서 봤던 게 제일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아기가 진짜 아무 일 없이 울 때도 있고 그러니까. 그랬던 엄마가 이렇게 해가지고 또 하면 된다고 하거나 아기 씻기는 것도 혼자서 잘 못하겠다. 그럼 엄마가 와서 씻겨주시고 그래서 가지고... (청소년한부모D)

학교 갈 때는 제가 시간표를 최대한 제가 아기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갔다가 올 수 있게끔 짜서 아침에 바로 데려다 주고 그 다음에 바로 학교 가고, 또 학교 갔다 오면 아빠(외조부)가 봐주시거나 제가 데리러 가는 편이었던 것 같아요. (청소년한부모H)

4) 자녀 양육 정보 습득 경로

다음으로 자녀 양육을 위한 정보를 얻는 사람이나 매체가 무엇인지 조사하였다. 그 결과, 인터넷 블로그나 맘카페와 같은 사이트에서 정보를 얻는다는 응답이 39.3%로 가장 많았으며, 가족이나 친지 27.0%, 친구/지인 13.7%, 소셜 미디어 플랫폼 12.6% 등의 응답을 보였다. 응답자가 미성년인 경우 성년인 응답자보다 인터넷 블로그/사이트(42.3%), 양육 관련 앱/소프트웨어(19.2%)에서 정보를 얻는다는 응답이 더 많은 편이었다.

〈표 III-2-27〉 자녀 양육 정보 습득 경로

단위: %(명)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계(수)
전체	27.0	13.7	39.3	12.6	2.8	0.4	3.2	1.1	100.0 (285)
배우자/파트너 유무									
배우자/파트너 있음	30.0	13.1	38.8	12.5	1.3	0.6	2.5	1.3	100.0 (160)
배우자/파트너 없음	23.2	14.4	40.0	12.8	4.8	0.0	4.0	0.8	100.0 (125)
$\chi^2(df)$	5.884(7)(b)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계(수)
응답자 연령									
19세 미만	23.1	7.7	42.3	7.7	19.2	0.0	0.0	0.0	100.0 (26)
19세 이상	27.4	14.3	39.0	13.1	1.2	0.4	3.5	1.2	100.0 (259)
$\chi^2(df)$	30.331(7)*** (b)								
가족 형태									
부모 모두 24세 이하	32.4	15.7	37.0	11.1	1.9	0.0	1.9	0.0	100.0 (108)
부모 중 한 명만 24세 이하	25.0	7.7	42.3	15.4	0.0	1.9	3.8	3.8	100.0 (52)
한부모	23.2	14.4	40.0	12.8	4.8	0.0	4.0	0.8	100.0 (125)
$\chi^2(df)$	18.517(14)(b)								

주: 1) ① 가족 및 친지 ② 친구/지인 ③ 인터넷 블로그/사이트 (예: 맘카페) ④ 소셜 미디어 플랫폼 (예: YouTube, 인스타그램) ⑤ 양육 관련 앱/소프트웨어 ⑥ 도서/출판물 ⑦ 자녀 자원 기관 (예: 어린이집, 유치원) ⑧ 전문가 상담 ⑨ 기타

2) (b)=기대빈도가 5보다 작은 셀이 20% 이상인 경우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청소년부모 양육실태 및 정책지원 요구 조사」의 결과임.

*** $p < .001$.

심층면담 대상자에게 양육 관련 도움이 되는 정보를 어디서 받았는지 면담하였다. 설문조사 결과와 일관되게 유튜브나 포털매체, 맘카페, 오픈 채팅방 등 온라인 방식이 가장 많이 언급되었고, 산후도우미, 시설 원장, 청소년부모 지원 민간단체, 어린이집이나 치료 센터, 한부모 가족센터 등 주변의 인적자원 혹은 지역사회 공립, 사립기관을 통한 정보의 획득도 확인되었다.

단독방에도 많이 물어봤어요. 엄마들 있는 단독방에 찾아 들어가서 또래 엄마들한테 많이 물어봤던 것 같아요. 오픈 채팅방. (청소년부부G)

저는 카페 같은데 한부모 카페 같은 거나 아니면 단독방 같은 게 있어요. 육아 정보방이라던가 아니면 한부모들 이제 모여가지고 얘기하는 그런 단독방도 있고 해서 단독방에서도 얻고 카페 같은 데서도 얻고 그러는 것 같아요. (청소년한부모F)

육아 교육은 대표님이나 멘토 선생님들께 배웠어요. (청소년부부C)

몇 번씩 멘토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아기를 봐주시거나 육아 그런 거 알려주시고 그랬었는데 되게 도움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청소년한부모D)

아기를 양육하는 방법을 시설에서 알려주긴 하나, 실천을 잘 못했죠. 저는 양육하는 법은 책이 있어서 그 책들을 읽었던 것 같아요. (중략) 그리고 시설 사람들끼리 그냥 얘기하는 게 전부였던 것 같아요. (청소년한부모H)

교회 기반 재단에서 살면서 내가 스스로 안 해본 것들 선생님들께 물어보면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시고, 필요하면은 아이 봐주실 때도 있고요. (청소년한부모G)

일단 어린이집이 가장 크고요. 어린이집이 1차고, 2차는 여기 시설에서 이제 놀이 치료라든지 이제 상담 치료를 해줘요. 아기와 같이. 그때 좀 도움을 되게 많이 얻는 편인 것 같아요. 놀이치료 같은 거를 하면서 뒤에 상담을 해 주시는데, 그 때 아기가 약간 좀 정서 불안이 있으면 있다고, (놀이치료 때) 가지고 논 장난감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거나, “배변 훈련 어떻게 해요? 아기가 똥강을 피우는데 어떻게 해요?” 물어보면 전문가이시니까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 같아요. (청소년한부모A)

어린이집에서 다양하게 언어 발달이나 오감 활동 같은 거 그런 거를 많이 해주시니까 아이가 되게 성장도 빠르고 말도 빠르고 되게 푹푹하게 잘 자라는 것 같아요. (청소년한부모B)

이상에서 살펴본 여러 경로를 통해 얻은 양육정보가 실제 자녀 양육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를 5점 척도로 물어보았을 때, 평균 4.1점으로 대체로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응답을 살펴보면, 도움 됨 50.2%, 매우 도움됨 30.2%, 보통 17.5% 등이었다. 또한 청소년부부인 경우 또는 첫째 자녀가 영아인 경우 양육정보의 도움 정도를 더 높게 평가하였다.

〈표 III-2-28〉 여러 경로를 통해 얻은 양육정보가 실제 자녀 양육 도움 정도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도움 안 됨	도움 안 됨	보통	도움 됨	매우 도움 됨	계(수)	평균
전체	0.0	2.1	17.5	50.2	30.2	100.0 (285)	4.1
배우자/파트너 유무							
배우자/파트너 있음	0.0	2.5	13.1	49.4	35.0	100.0 (160)	4.2
배우자/파트너 없음	0.0	1.6	23.2	51.2	24.0	100.0 (125)	4.0
$\chi^2(df) / t$			7.191(3)(b)				2.2*
가족 형태							
부모 모두 24세 이하	0.0	2.8	10.2	50.9	36.1	100.0 (108)	4.2
부모 중 한 명만 24세 이하	0.0	1.9	19.2	46.2	32.7	100.0 (52)	4.1
한부모	0.0	1.6	23.2	51.2	24.0	100.0 (125)	4.0
$\chi^2(df) / F$			9.245(6)(b)				2.7
첫째 자녀 연령							
0세~2세	0.0	1.5	13.3	47.8	37.4	100.0 (203)	4.2
3세 이상	0.0	3.7	28.0	56.1	12.2	100.0 (82)	3.8
$\chi^2(df) / t$			21.699(3)*** (b)				4.7***

주: (b)=기대빈도가 5보다 작은 셀이 20% 이상인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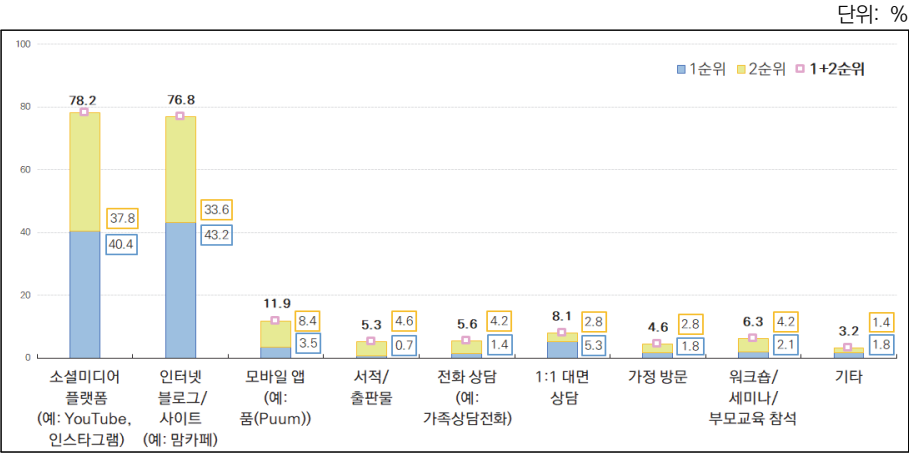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청소년부모 양육실태 및 정책지원 요구 조사」의 결과임.

* $p < .05$, *** $p < .001$.

한편 자녀 양육과 관련한 정보를 얻고자 할 때 선호하는 방식 1순위로는 인터넷 블로그/사이트를 가장 많이 꼽았으며(43.2%), 소셜미디어 플랫폼도 40.4%로 응답

비율이 높은 편이었다. 1, 2순위 응답을 모두 고려하였을 때는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선호한다는 응답이 78.2%로 가장 많았고, 인터넷 블로그/사이트 76.8%, 모바일 앱 11.9%, 1:1 대면 상담 8.1% 등의 순이었다.

[그림 Ⅲ-2-6] 자녀 양육 관련 정보 얻고자 할 때 선호하는 방식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청소년부모 양육실태 및 정책지원 요구 조사」의 결과임.

5) 자녀 애착 및 양육역량

첫째 자녀와의 부모-자녀 애착에 대해 4점 척도로 조사하였다. 각 문항별로 살펴보면 모두 평균 3.8점으로 부모들은 자녀와의 애착 수준을 높게 평가하였다. 첫째 자녀 연령이 유아인 경우 ‘아이는 나와 신체접촉을 좋아한다’에 대해 3.9점으로 영아 자녀를 둔 부모보다 높게 응답하였다.

〈표 Ⅲ-2-29〉 자녀 애착

단위: 점, (명)

구분	아이는 나의 말이나 웃음 등에 반응을 보인다.	아이는 나와 신체접촉을 좋아한다.	아이는 나와 서로 눈 맞춤을 한다.	아이는 나와 상호작용하는 동안 함께 웃는다.	(수)
전체	3.8	3.8	3.8	3.8	(285)
배우자/파트너 유무					
배우자/파트너 있음	3.8	3.8	3.8	3.8	(160)
배우자/파트너 없음	3.8	3.9	3.8	3.8	(125)
t	-0.2	-1.2	0.1	-0.6	

구분	아이는 나의 말이나 웃음 등에 반응을 보인다.	아이는 나와 신체접촉을 좋아한다.	아이는 나와 서로 눈 맞춤을 한다.	아이는 나와 상호작용하는 동안 함께 웃는다.	(수)
가족 형태					
부모 모두 24세 이하	3.8	3.8	3.8	3.8	(108)
부모 중 한 명만 24세 이하	3.8	3.8	3.8	3.8	(52)
한부모	3.8	3.9	3.8	3.8	(125)
<i>F</i>	0.1	0.8	0.0	0.2	
첫째 자녀 연령					
0세~2세	3.8	3.8	3.8	3.8	(203)
3세 이상	3.8	3.9	3.8	3.8	(82)
<i>t</i>	-0.6	-2.2*	0.3	-0.5	

주: '① 전혀 그렇지 않다'~'④ 매우 그렇다'의 평균을 산출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청소년부모 양육실태 및 정책지원 요구 조사」의 결과임.

* $p < .05$.

부모가 인식한 자신의 양육역량에 대해 상호작용 역량, 인지적 역량, 양육효능감, 정서적 역량으로 구분하여 5점 척도로 조사하였다. 그 결과, 상호작용 양육역량(예: 나는 ○○를 자주 안아주고 좋아한다는 표현도 자주 한다.)은 평균 4.3점, 인지적 역량(예: 나는 ○○의 연령에 따른 발달단계와 행동을 이해한다.) 4.1점, 양육효능감(예: 나는 ○○를 돌보는데 있어 유능하다고 생각한다.) 3.5점, 정서적 역량(예: 부모로서 겪게 되는 좌절과 스트레스에 잘 대처해나간다.) 3.5점으로 나타났다. 상호작용 역량의 경우, 청소년부부에서, 또는 영아 자녀를 둔 가구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가구에서, 소득수준이 높은 가구에서 역량을 높은 수준으로 응답하였다. 인지적 역량에 대해서는 여자 응답인 경우, 미성년인 경우, 영아 자녀를 둔 경우 더 높게 평가하였다. 양육효능감은 청소년부부인 경우, 응답자가 미성년인 경우, 영아기 자녀를 둔 경우, 경제활동을 하거나 소득수준이 높은 가구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정서적 역량도 역시 청소년부부인 경우 또는 경제활동을 하는 가구에서 더 높은 수준으로 보고하였다.

종합해보면, 청소년부모들이 전반적으로 자신의 양육역량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실제로 이들의 양육역량이 객관적으로도 높은 수준일 수 있으나, 자신의 양육을 긍정적으로 생각하여 양육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줄이고자 하는 인지적 노력일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원가정에서

의 긍정적 경험이 부족한 청소년부모의 경우 바람직한 부모상에 대한 그림이 분명하지 않을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표 III-2-30〉 양육역량(평균)

단위: 점, (명)

구분	상호작용 역량		인지적 역량		양육효능감		정서적 역량		(수)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전체	4.3	0.7	4.1	0.7	3.5	0.9	3.5	0.9	(285)
응답자 성별									
남자	4.3	0.6	3.8	0.9	3.6	1.0	3.7	0.9	(41)
여자	4.3	0.7	4.1	0.7	3.4	0.9	3.4	0.9	(244)
<i>t</i>	0.4		-2.4*		1.2		1.9		
배우자/파트너 유무									
배우자/파트너 있음	4.3	0.6	4.1	0.7	3.6	0.9	3.6	0.9	(160)
배우자/파트너 없음	4.2	0.7	4.0	0.8	3.2	0.9	3.3	0.9	(125)
<i>t</i>	2.6*		1.4		3.6***		2.5*		
응답자 연령									
19세 미만	4.4	0.7	4.4	0.6	4.1	0.7	3.6	0.9	(26)
19세 이상	4.3	0.6	4.0	0.8	3.4	0.9	3.5	0.9	(259)
<i>t</i>	1.1		2.6*		3.8***		0.9		
가족 형태									
부모 모두 24세 이하	4.3	0.6	4.1	0.7	3.6	0.9	3.6	0.9	(108)
부모 중 한 명만 24세 이하	4.4	0.7	4.2	0.7	3.7	1.0	3.5	1.0	(52)
한부모	4.2	0.7	4.0	0.8	3.2	0.9	3.3	0.9	(125)
<i>F</i>	3.5*		1.9		6.8**		3.3*		
첫째 자녀 연령									
0세~2세	4.3	0.6	4.1	0.7	3.6	0.9	3.6	0.9	(203)
3세 이상	4.1	0.7	3.9	0.8	3.2	0.9	3.3	0.9	(82)
<i>t</i>	2.3*		2.0*		3.0**		1.9		
가구 경제활동 여부									
경제활동 함	4.3	0.6	4.1	0.7	3.6	0.9	3.6	0.9	(178)
경제활동 안함	4.1	0.8	4.0	0.8	3.2	0.9	3.3	0.9	(107)
<i>t</i>	2.7**		1.2		3.3**		2.6**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4.1	0.7	4.0	0.8	3.3	0.9	3.3	0.9	(117)
1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4.4	0.5	4.1	0.8	3.5	0.9	3.6	0.9	(109)
300만원 이상	4.3	0.7	4.1	0.6	3.7	1.0	3.5	1.0	(50)
모름/무응답	4.3	0.4	4.1	0.6	3.8	0.5	3.4	0.6	(9)
<i>F</i>	4.5**(a)		0.2		3.3*		2.6		

주: 1) '① 전혀 그렇지 않다'~'⑤ 매우 그렇다'의 평균을 산출함.

2) (a)=등분산 가정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청소년부모 양육실태 및 정책지원 요구 조사」의 결과임.

* $p < .05$, ** $p < .01$, *** $p < .001$.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 양육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역량으로 과반 수가 상호작용 역량(예: 아이와 건강하게 놀이하고, 이야기 나누고 안아주기)을 꼽았으며(58.9%), 정서적 역량(예: 부모 자신의 감정 다스리기) 11.9%, 아이돌보기 역량(예: 먹이기, 재우기, 씻기기 등) 10.2% 등으로 응답하였다. 청소년부부인 경우 청소년한부모에 비해 상호작용 역량과 인지적 역량(예: 아이 발달을 잘 이해하고 아이를 위한 활동 알기)이 중요하다는 응답이 많은 편이었다. 한편 중요하게 생각하는 역량의 1, 2순위 응답을 모두 합하면, 상호작용 역량 82.8%, 정서적 역량 32.6%, 아이돌보기 역량 29.5%, 인지적 역량 28.4%, 양육효능감(예: 부모로서 잘 할 수 있다는 자신감 갖기) 18.9% 등으로 보고되었다.

〈표 III-2-31〉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 양육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영역

단위: %(명)

구분	상호 작용 역량	인지적 역량	양육 효능감	정서적 역량	아이 돌보기 역량	문제· 갈등 해결 역량	기타	계(수)
1순위 전체	58.9	9.8	6.7	11.9	10.2	2.5	0.0	100.0 (285)
배우자/파트너 유무								
배우자/파트너 있음	61.9	13.1	5.0	10.0	9.4	0.6	0.0	100.0 (160)
배우자/파트너 없음	55.2	5.6	8.8	14.4	11.2	4.8	0.0	100.0 (125)
$\chi^2(df)$			12.444(5) ^(b)					
가족 형태								
부모 모두 24세 이하	57.4	14.8	6.5	11.1	9.3	0.9	0.0	100.0 (108)
부모 중 한 명만 24세 이하	71.2	9.6	1.9	7.7	9.6	0.0	0.0	100.0 (52)
한부모	55.2	5.6	8.8	14.4	11.2	4.8	0.0	100.0 (125)
$\chi^2(df)$			16.100(10)(b)					
1+2순위	82.8	28.4	18.9	32.6	29.5	7.7	0.0	(285)

주: (b)=기대빈도가 5보다 작은 셀이 20% 이상인 경우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청소년부모 양육실태 및 정책지원 요구 조사」의 결과임.

* $p < .05$.

심층면담에서 자녀 양육을 위해 더 개발하고 싶은 부분, 배우고자 하는 것, 양육 역량을 기르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질문하였다. 그 결과 자녀와 대화하는 방법(훈육하는 방법), 연령에 맞는 발달 및 심리 이해 등을 발달시키고 싶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었다.

육아 관련해서 개발해야 될 부분이라고 하면은, 진짜 말하는 거를 좀 더 발전시켜야 할 것 같기는 해요. 훈육하는. 아기들한테 말하거나 할 때, 내 기분에 따라 말하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서... 아기가 분명 잘못된 행동을 한 게 맞긴 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잘 고치려고 말을 할 때 막 화를 낸다거나, 아니면 또 너무 나긋나긋하게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말을 다 듣는 게 아니니까 적당함을 유지하면서 아기들을 바른 길로 이끌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게 조금 어려운 거 같아요. (청소년한부모G)

아이들의 심리? 그런 걸 좀 더 이해하고.. 대화하는 법. 나이별로 대화하는 법. 아기가 크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대화하는 방법이 자주 자주 달라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 속도를 맞추기가 힘든 것 같아요. 지금 내 아기가 어느 단계인지 파악하는 것도 그게 좀 빨리 빨리 파악이 안 된다고 해야 되나... (청소년한부모C)

아기가 이제 한참 말 안 듣는 나이기도 하고, 말을 못하니까 더 대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가 지고, 약간 아기 훈육이나 그런 것도 그렇고 아기가 진짜 아무 이유 없이 짜증을 낼 때... 말이 안 되니까 몸으로 애가 막 표현을 하거든요. 물건 집어던지고 그러는데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게 제일... (배우고 싶어요.) (청소년한부모D)

나이에 맞는 양육법을 제가 나이마다 공부를 해야 하는데, 그걸 안 하고 있죠.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청소년한부모H)

또한 영아를 돌보는 기술(먹이기, 씻기기, 재우기, 울음에 반응하기)에 대한 정보를 알고 싶다는 의견도 찾을 수 있었다.

육아법이 제일 궁금해요. 먹이는 것도 그렇고요. 씻기는 거 아니면 애가 왜 우는지는 저희는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아직 잘 모르겠어요... 어떤 환경 뭐.. 얼마나 추우면 얼마나 온도를 또 얼마나 맞춰줘야 되는지. 뭐 그런 것도 정확하게 잘 모르고, 애가 울면 어디가 아픈지도 모르는 그런거 라서요. (청소년부부E)

아기 분유 먹이는 시간 같은 것도 있잖아요. 몇 시간 만에 몇 시간 텀으로 먹이고 뭐 얼마나 먹이고 그런 게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애기 이얌이 같은 거 어떻게 하고. 애기 있잖아요. 발달. 배밀이는 어느 개월 수에 하는지, 언제 걸어 다니고 언제 이유식을 먹이나 그런 거, 편식 안하는 방법 알고 싶어요. (청소년부부G)

인터넷이나 그런 거 찾아 보면 대부분 6개월 지나고 돌 지나고, 그런 아이들에 대한 것만 잘 나오고, 약간 신생아에 대한 거는 이제 찾아보기가 좀 어렵긴 하더라고요. (청소년부부B)

하지만 일부 청소년부모는 양육역량과 관련하여 무엇을 더 개발해야 할지, 어떠한 정보를 얻고자 하는지 모르겠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청소년부모가 자신이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 해야 하는 일에 대한 그림이 구체적이지 않음을 반영한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원가정에서 받은 양육의 경험이 한정되어 있고, 양육에 대한 전반적 지식이 부족하여서 오는 현상으로 보인다.

없는 것 같아요. 아직은. (청소년부부F)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를. (청소년한부모D)

(양육에 대해) 뭘 배운다기 보다 배울 걸 찾아야 해요. (청소년부부A)

6) 부모됨, 자녀관

심층면담 중 자녀에게 어떠한 부모가 되고 싶은지 질문한 결과, ‘친구 같은 부모’, ‘자애로운 부모(자녀의 말에 귀를 기울여주고 자녀 편에 서주는 역할)’가 되길 희망한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이 아이도 좀 저랑 이제 좀 친구 같은 사이처럼 편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청소년부부B)

젊을 때 아기를 낳았으니까 그냥 엄마랑 딸보다는 친구같이 지내고 싶어요. (청소년부부F)

저는 약간 친근한 부모가 되고 싶어요. 친구 같은. 너무 약간 부모라고 해서 이를 강압적이게 그렇게 한다거나 너무 예의를 차리게 하면은 아기랑 거리가 좀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가지고 적당한 선에서 예의도 차리게 하고 약간 친구같이 지내는 그런 엄마요. (청소년한부모D)

저는 좀 편한 친구 같은 엄마이고 싶어요. 항상 왜냐하면 저는 진짜 엄한 그런 분위기에서 커서 엄청 제한도, 제약도 많았고요. (청소년한부모F)

아들을 키우게 되면, 거리를 좀 가까이. 의사소통을 좀... (청소년부부D)

보통 부모님한테 되게 섭섭했던 거나 그런 걸 생각하면서 내 아이한테는 이렇게 안 해야지 생각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저도 좀 그런데 아빠가 뭔가 경제적으로 되게 해주시려고 노력하시고 그런 건 있었지만, 너무 무서우셨거든요. 말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저는 아직도 고민을 아빠한테 이야기하지 못해요. 그것도 있고, 뭔가 말하는 거 자체가 좀 힘들다고 해야 되나? 좀 그래서 저는 대화하기 편한 엄마가 되고 싶어요. 힘든 거 이야기할 수 있고요. (청소년한부모C)

통제는 하되, 적당 선에서 이제 자유롭게. (청소년부부E)

엄격하면서도 다정한 엄마? 너무 오냐오냐 키워도 안 되잖아요. 근데 저희 엄마가 되게 엄격했는데 혼내고 나면 꼭 안아주고 그런 스타일이어서 나도 그런 엄마가 되고 싶다고 느낀 것 같아요. (청소년부부G)

애에 대해서 많이 귀 기울여주는 사람이에요. 저희 애가 자랑스러울 때도 있으면, 때로는 비난받을 때도 있을 테니까 어느 때가 되든 간에 제 자식 편에 서줘야죠. 그래서 든든한 조력자가 되는 거죠. (청소년부부C)

더불어 아이가 '원하는 것을 아낌없이 해주는 부모'가 되겠다는 응답도 찾을 수 있었다.

애가 원하는 대로 그냥 다 해줄 수 있는 게 좋은 부모죠. 근데 저는 그렇게 못하니까.. 솔직히 다 해주고 싶죠. 근데 다 해주고 싶은데 못하니까, 그래서 그냥 쓰레기 부모처럼만 되지 말자. (청소년부부A)

이제 어쨌든 제가 정상적으로 이 아이를 낳은 게 아니어서 좀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드라마 같이.. '엄마, 아빠가 나한테 뭘 해준 게 있어?'라는 거나 아니면 이제 '이럴 거면 왜 나를 낳았어?' 이런 말을 하게 하고 싶지 않아요. 저희 엄마가 했듯이 저도 이 아이한테 되게 해줄 수 있는 애정은 다 줘야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청소년부부B)

부모로서 부끄럽지 않게 키우고 싶어요. 하고 싶은 건 없어도 그냥 제가 못 했으니까 그냥 제 자식한테는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웬만하면 다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청소년부부D)

제가 지금 바라는 건 아이들이 나중에 다니고 싶은 학원이나 배우고 싶은 게 있으면 그런 거를 다 지원해주고 싶은 그런 생각이 지금은 있는 것 같아요. (청소년한부모B)

청소년부모가 자신의 자녀에 대해 가지고 있는 생각(자녀가 어떤 사람으로 자라나면 좋겠는지)에 대해 조사하였다. 그 결과 자녀가 '건강하고 행복한 아이', '하고 싶은 것을 찾고 목표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아이', '당당하고 예의바른 사람', '바르고 모범적인 아이', '자신의 일에 스스로 책임지는 아이'로 자라면 좋겠다는 의견을 청취할 수 있었다. 자신과 다른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담은 답변도 있었다. 자신이 받은 부정적인 양육을 대물림하고 싶지 않다는 의지와 자신이 바르게 하지 못한 부분을 닦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담겨있는 답변으로 유추된다.

그냥 딱 건강하고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청소년부부B)

그냥 행복한 사람ियो. 자기 인생이나 생활에 대해서 불평불만하지 않고, 그냥 불평불만 그런 걸 거의 안 하면 그냥 행복한 거 같아요. 밝게. 그냥 본인이 생각하기에 나 지금 행복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청소년한부모C)

하고 싶은 걸 같이 찾아주자. 사고만 치지 않고 성실하게 크되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위해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다. (청소년부부C)

그냥 바르게만 컸으면 좋겠어요. 요즘은 좀 사고도 많이 치고 어린 나이에 술, 담배 같은 것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안 하고 그냥 어른들한테 싸가지 없게 안 굴고, 지금 애들이랑 다르게 컸으면 해요. (청소년부부G)

그냥 바른 방향으로 크는? 방향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전 제가 방향했어가지고, 그게 결코 좋은 행동이 아니라는 걸 인식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아기가 자랄 때. 저는 그런 걸 이렇게 뭔가 잡아줄 사람이 없어서, 그렇게 막 뭐가 멋있고 뭐가 좋은 거고, 어떤 게 좋은 행동이고, 이런 걸 판단을 어려울 때 못했던 것 같아서... 옆에서 좀 많이 개입할 것 같아요. (청소년한부모H)

정서적으로는 그냥 조금 당당했으면 좋겠고, 예의가 발랐으면 좋겠어요. 그거 말고는 공부야 잘하면 좋은데 필수는 아니고요. 그냥 키 크고 잘생긴 것도 안 바래요. 키 크고 당당하고 예의 바른 거. (청소년한부모E)

그냥 평범하게만 자랐으면 좋겠어요. 그냥 평범하게 자라서 자기 하고 싶은 거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냥 너무 나쁜 애들하고도 어울리지 말고, 그렇다고 또 너무 소외되지도 않고 딱 그런 선에서만 적당히 그냥 평범하게만. (청소년한부모D)

저는 그냥 평범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좀 컸어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요즘은 안 그렇지만 저도 사실 한부모 가정에서 커가지고, “재는 엄마가 없대, 뭐 아빠가 없대.” 이런 거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도 지금은 그렇게 큰 흠이 되진 않으니깐. (청소년한부모F)

그냥 평범하게 자랐으면 좋겠어요. 보통의 그냥 아이들처럼 세상 평범하게.. 뛰어나지 않아도 되니까 공부는 못해도 되니까 그냥 먹고 할 정도로 자기 좋아하는 거 하면서 살면... (청소년한부모G)

예의 바르고 그래도 혼자 키우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 약간 주눅 들지 않고 그냥 당당하게 잘 자랐으면 좋겠는 그런 마음이 큰 것 같아요. (청소년한부모B)

진짜 너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라. 왜냐하면 저도 제 인생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거든요. 정말. 그래서 저는 후회가 없어요. 대신에 책임은 너가 저라. 일단 네가 하고 싶은 거에는 너의 선택에 대한 책임이 있어. 그거는 같이 가르쳐 줘야 돼요. (청소년한부모A)

제 아들은 좀 나와서 나 이거 하고 싶어. 나 이거 할래. 그랬으면 좋겠어요. (청소년부부D)

일단 저처럼만 안 컸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뭐 공부 같은 거 못 해도 되니까 그냥 학업에 스트레스를 안 받았으면 좋겠고, 공부 잘한다고 다 잘 되는 건 아니잖아. (제가) 좀 비틀어 지고 그러다 보니까 저처럼은 절대 안 되게 키워야겠다고 생각했죠. (청소년부부A)

엄마, 아빠처럼은 안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너무 힘이 들었으니까 그렇게 선택을 해서 살았음 안 해요. 남편이랑 저도 사고를 엄청 쳤거든요. 아기도 솔직히 일찍 낳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청소년부부B)

양육과 관련하여 마지막으로 나 자신을 위한 삶과 자녀를 위한 삶 중 어느 정도 집중하고 있는지를 7점으로 표현하도록 한 결과, 평균 5.6점으로 나타났다. 현재의 연령에 따른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으나 첫째 자녀 출생 시 부모 모두 미성년이었던가(5.0점) 모가 미성년이었던 경우(5.3점)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현재 나 자신을 위한 삶에 집중하는 정도가 약간 높은 경향을 보였다.

〈표 III-2-32〉 현재 ‘나 자신을 위한 삶’과 ‘자녀를 위한 삶’ 중 집중 정도

단위: %(명), 점

구분	나 자신을 위한 삶		〈-----〉			자녀를 위한 삶		계(수)	평균
	1	2	3	4	5	6	7		
전체	1.4	3.2	4.9	12.6	17.9	27.7	32.3	100.0 (285)	5.6
배우자/파트너 유무									
배우자/파트너 있음	0.0	3.1	5.6	10.6	18.1	28.1	34.4	100.0 (160)	5.7
배우자/파트너 없음	3.2	3.2	4.0	15.2	17.6	27.2	29.6	100.0 (125)	5.4
$\chi^2(df) / t$			7.189(6)(b)						1.4
가족 형태									
부모 모두 24세 이하	0.0	3.7	5.6	11.1	19.4	28.7	31.5	100.0 (108)	5.6
부모 중 한 명만 24세 이하	0.0	1.9	5.8	9.6	15.4	26.9	40.4	100.0 (52)	5.8
한부모	3.2	3.2	4.0	15.2	17.6	27.2	29.6	100.0 (125)	5.4
$\chi^2(df) / F$			8.833(12)(b)						1.5
첫째 자녀 출생 시 부모 연령									
부모 모두 19세 미만	2.6	2.6	10.3	23.1	20.5	23.1	17.9	100.0 (39)	5.0
부모 중 한 명만 19세 미만	0.0	3.2	3.2	17.5	14.3	27.0	34.9	100.0 (63)	5.6
부모 모두 19세 이상	1.6	3.3	4.4	8.7	18.6	29.0	34.4	100.0 (183)	5.6
$\chi^2(df) / F$			14.821(12)(b)						3.6*
첫째 자녀 출산 시 모 연령									
19세 미만	1.0	3.1	6.3	20.8	17.7	26.0	25.0	100.0 (96)	5.3
19세 이상	1.6	3.2	4.2	8.5	18.0	28.6	36.0	100.0 (189)	5.7
$\chi^2(df) / t$			10.899(6)(b)						-2.1*

주: (b)=기대빈도가 5보다 작은 셀이 20% 이상인 경우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청소년부모 양육실태 및 정책지원 요구 조사」의 결과임.

* $p < .05$.

라. 가족관계

1) 원가정과의 관계

본 연구에 참여한 청소년부모 중 자신의 부모와 같은 집에 함께 사는 경우는 전체의 22.5%로 나타나 다수의 청소년부모가 자신의 부모와 함께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청소년부모가 자신의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비율이 28.0%로 청소년부부 보다 높았고, 부모 모두 24세 이하인 가구는 22.2%, 부모 중 한 명만 24세 이하인 가구는 9.6%만이 부모와 함께 사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표 III-2-33〉 응답자 부모와 거주 여부

단위: %(명)			
구분	함께 거주함	함께 거주하지 않음	계(수)
전체	22.5	77.5	100.0 (285)
배우자/파트너 유무			
배우자/파트너 있음	18.1	81.9	100.0 (160)
배우자/파트너 없음	28.0	72.0	100.0 (125)
$\chi^2(df)$	3.930(1)*		
가족 형태			
부모 모두 24세 이하	22.2	77.8	100.0 (108)
부모 중 한 명만 24세 이하	9.6	90.4	100.0 (52)
한부모	28.0	72.0	100.0 (125)
$\chi^2(df)$	7.133(2)*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청소년부모 양육실태 및 정책지원 요구 조사」의 결과임.

* $p < .05$.

청소년부모가 자신의 부모와 함께 살지 않는 경우 부모와 연락하고 지내는지 여부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80.5%의 응답자가 부모와 같이 살지 않지만 연락하고 지내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청소년부부(86.3%), 부모 모두 24세 이하인 가구(86.9%), 비수도권 지역에 거주하는 가구(88.0%), 경제활동을 하는 가구(86.1%), 월평균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92.5%)에서 부모와 연락하는 비율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표 III-2-34〉 응답자 부모와 연락 여부

단위: %(명)

구분	연락하며 지냄	연락하지 않음	계(수)
전체	80.5	19.5	100.0 (221)
배우자/파트너 유무			
배우자/파트너 있음	86.3	13.7	100.0 (131)
배우자/파트너 없음	72.2	27.8	100.0 (90)
$\chi^2(df)$	6.708(1)*		
가족 형태			
부모 모두 24세 이하	86.9	13.1	100.0 (84)
부모 중 한 명만 24세 이하	85.1	14.9	100.0 (47)
한부모	72.2	27.8	100.0 (90)
$\chi^2(df)$	6.770(2)*		
거주지역			
수도권	70.8	29.2	100.0 (96)
그 외 지역	88.0	12.0	100.0 (125)
$\chi^2(df)$	10.211(1)**		
가구 경제활동 여부			
경제활동 함	86.1	13.9	100.0 (137)
경제활동 안함	71.4	28.6	100.0 (84)
$\chi^2(df)$	7.183(1)**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68.5	31.5	100.0 (89)
1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88.2	11.8	100.0 (85)
300만원 이상	92.5	7.5	100.0 (40)
모름/무응답	71.4	28.6	100.0 (7)
$\chi^2(df)$	15.413(3)**(b)		

주: 1) 본인의 부모와 함께 거주하지 않는 응답자 221명을 대상으로 함.

2) (b)=기대빈도가 5보다 작은 셀이 20% 이상인 경우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청소년부모 양육실태 및 정책지원 요구 조사」의 결과임.

* $p < .05$, ** $p < .01$.

청소년부모 중 자신의 부모와 연락하고 지내는 경우 얼마나 자주 연락하며 지내는지 질문하였다. 그 결과, 매주 한 번 이상 연락하며 주말에 함께 시간을 보내는 비율이 62.9%로 가장 높았고, 한 달에 2~3번 정도 연락하고 가끔 주말에 만나기도 하는 경우가 25.8%였고, 몇 달에 한 번 정도 연락하며 만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한 경우가 11.2%로 보고되었다.

청소년부부보다는 청소년한부모가 부모와 드물게 연락하거나 만나지 않는 비율이 높았고, 부모 중 한 명만 24세 이하인 가구에서 부모와 자주 연락하고 주말에도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경우가 77.5%로 높았다. 첫째 자녀 출산 시 어머니가 미성년인 경우 부모와 아주 드물게 연락하는 비율이 18.2%로 다소 높았고, 유사하게 월평균 가구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가구(19.7%), 월평균 수혜 정부지원금이 80만원 이상인 가구(16.9%)에서 부모와 드물게 연락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보고되었다.

〈표 III-2-35〉 응답자 부모와 연락 빈도

단위: %(명)

구분	매주 한 번 이상 연락하며 주말에 함께 시간을 보냄	한 달에 2~3번 정도 연락하고 가끔 주말에 만나기도 함	몇 달에 한 번 정도 연락하며 만나지 않는 경우가 많음	계(수)
전체	62.9	25.8	11.2	100.0 (178)
배우자/파트너 유무				
배우자/파트너 있음	69.9	23.0	7.1	100.0 (113)
배우자/파트너 없음	50.8	30.8	18.5	100.0 (65)
$\chi^2(df)$		8.122(2)*		
가족 형태				
부모 모두 24세 이하	65.8	24.7	9.6	100.0 (73)
부모 중 한 명만 24세 이하	77.5	20.0	2.5	100.0 (40)
한부모	50.8	30.8	18.5	100.0 (65)
$\chi^2(df)$		10.062(4)*(b)		
첫째 자녀 출산 시 모 연령				
19세 미만	65.5	16.4	18.2	100.0 (55)
19세 이상	61.8	30.1	8.1	100.0 (123)
$\chi^2(df)$		6.266(2)*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54.1	26.2	19.7	100.0 (61)
1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60.0	32.0	8.0	100.0 (75)
300만원 이상	83.8	13.5	2.7	100.0 (37)
모름/무응답	60.0	20.0	20.0	100.0 (5)
$\chi^2(df)$		14.071(6)*(b)		
월평균 수혜 정부지원금액				
40만원 미만	52.1	37.5	10.4	100.0 (48)
40만원 이상~80만원 미만	85.4	14.6	0.0	100.0 (41)
80만원 이상	58.4	24.7	16.9	100.0 (89)
$\chi^2(df)$		16.160(4)**(b)		

주: 1) 본인의 부모와 함께 거주하지 않지만 연락은 하고 지내는 응답자 178명을 대상으로 함.

2) (b)=기대빈도가 5보다 작은 셀이 20% 이상인 경우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청소년부모 양육실태 및 정책지원 요구 조사」의 결과임.

* $p < .05$, ** $p < .01$.

심층면담에서 원가족과의 관계를 청소년부부 중심으로 살펴보면, 자신의 부모와 소원하다가 다시 연락하거나, 도움을 받는 경우, 연락을 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부모님과 사이가 좋지 않다고 보고한 경우도 존재하였다. 부모님과의 관계성에 대한 청소년부부의 면담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임신 사실을 알렸을 때) 소리를 막 고래고래 지으시면서 “너 이거 뭐냐? 장난치지 마라.”, “진짜다. 영상통화 걸어줄까?” 막 이러면서 저는 엄청 좋아했거든요. 엄마가 내일 당장 산 부인과 데려가라고. 제가 웃으면서 “몇 주래~” 이러니까 와이프랑 엄마가 어두워지고 표정 이... 그때는 그런 말씀하셨는데 낳으니까 엄청 좋아해요. (청소년부부C)

(부모님과) 한번도 상의해본 적이 없어서. 저희 둘이서 끝내려고 했었던 일이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호의적이셔서지구 (놀랐어요.) (청소년부부D)

이제 용기 나서 먼저 아빠한테 아버지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상황 설명 다 말씀드리고 입양 보내려고까지 했었다 하니까 욕을 많이 먹었어요. 저희가. 왜 애를 보낼 생각을 하나, 그렇게 무책임한 짓을 왜 하나고 진짜 그래서 그러고서는. 오히려 그렇게 말씀하시고 당장 몇 시간 뒤에 바로 연락 와서 아기 사진 좀 보내라고, 생년월일하고 다 보내라고. 이름 다시 작성소 가서 이름 지으시겠다고... (중략) 엄청 좋아하세요. (청소년부부E)

그냥 저희 부모님한테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처음에는 안 된다고 하시다가 저희 끝까지 날 겠다, 잘 키우겠다, 이러니까 허락해 주셨고, 남자 쪽 어머니께서는 그냥 환영해 주셨어요. (경제적으로) 도와주셨어요. (청소년부부F)

아빠랑 가끔 전화(세 달에 한번)는 하고요. 시댁은 저는 연락은 안 하고 지내고 있어요. (청소년부부G)

(지금은 시댁에서) 반대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좋은 눈으로 바라보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친정 부모님은 이제 가끔 연락 주시긴 하는데... (청소년부부B)

원래 그전부터 부모님이랑 사이는 안 좋았어요. 애가 있는 것 때문에 저를 더 싫어하는 거 같아요. (청소년부부A)

한편, 청소년한부모의 경우 부모님과 연락 및 교류하지 않는 경우, 연락은 하지만 자녀 출산 사실을 모르는 경우 등 온전한 관계를 맺고 있지 않은 사례들이 발견되었다. 물론 연락을 자주하며 사이가 좋은 경우도 있었는데, 경제적 지원을 하거나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 해당하였다. 부모님과의 관계성에 대한 청소년한부모 면담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모님은) 아직도 모르세요. 교류를 안 하지는 않았어요. 안 하지 않았는데, 이제 또 그렇게 그다지 제가 할머니랑만 연락하고 아빠랑은 연락을 안 해가지고... 할머니한테는 얘기를 해야지 해야지 했는데 이게 또 마음이 안 서더라고요. 그래서 끌고 끌고 끌다가 여기까지 왔네요. (청소년한부모F)

나쁜 건 아닌데 그래도 좋지는 않아요. 엄마랑 관계가 되게 안 좋거든요. 아빠랑은 되게 잘 지내는데, 근데 왜냐하면 친척들도 모르고 계시니까... (청소년한부모A)

온 가족이랑 임신한 순간 연락을 끊었어요. 가족끼리도 이렇게 너 나갔으니까 이제 이방인이다. (청소년한부모G)

그 시설에 입소하고 나서 제가 집을 안 들어가고, 엄마한테 책상 위에 제가 책에다가 편지 꺼냈으니까 읽어봐 주세요. 하고 이제 그때 읽으시고 막 연락 주셨죠. 미안하다고...(중략) 주말마다 집으로 가고, 또 엄마가 오시기도 하고 시설 쪽으로. 왕래 많이 했어요. (청소년한부모H)

연락은 거의 매일 하고 있고 방학에 시간 되면 부모님이 올라오시거나 아니면 제가 내려가서 지내다 오고 그렇게... 제가 가서 있으면 한 2주, 3주, 3주는 있는 것 같아요. (부모님이) 오시면 그렇게 오래 있다 가시지는 못해요. 많이 반대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사이가 좋지는 않았어요. 이제 한 몇 달씩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냥 엄마도 이제 인정하시고 아기도 예뻐하시고 그래요. (청소년한부모D)

저희 부모님은 처음에 많이 놀라셨는데 저도 눈치를 많이 봤었죠. 제가 뭔가 잘못된 것 같아가지고 눈치도 많이 보고.. 그때는 힘들었는데 근데 부모님도 자꾸 아기를 보다 보니까 이제 정도 들고 지금 엄청 예뻐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른 친구들, 저랑 또 비슷한 상황의 친구들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저희 부모님은 되게 그냥 많이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뭔가 잘못된 거에 대해서 들추려고 하시지도 않았고, 그냥 좀 감싸주셨던 것 같아요. (청소년한부모C)

연락도 매일 하고 되게 아이들도 예뻐하시고 사이 되게 좋아요. (아이들도) 되게 좋아해요. 잘 따르고. (청소년한부모B)

2) 가족관계 만족도(자녀, 부모, 배우자/파트너)

5점 만점 기준(점수가 높을수록 관계에 만족함.)으로 첫째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 본인 부모와의 관계 만족도, 배우자/파트너와의 관계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가 4.5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배우자/파트너와의 관계 만족도가 3.9점, 자신 부모와의 관계 만족도가 3.7점으로 나타났다.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는 특히 자녀가 영아인 가구에서 4.6점으로 상대적으로 높았고, 배우자/파트너와의

관계 만족도는 남성 응답자에게서 4.5점으로 가장 높게 보고되었다. 본인 부모와의 관계 만족도는 청소년한부모보다는 청소년부부에게서, 수도권 거주하는 가구보다 그 외 지역에 거주하는 가구, 100만원 이상인 가구에서 점수가 높은 경향을 보였다.

〈표 III-2-36〉 가족관계 만족도(자녀, 부모, 배우자/파트너)

단위: 점, (명)

구분	첫째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		본인 부모와의 관계 만족도		배우자/파트너와의 관계 만족도	
	평균	(수)	평균	(수)	평균	(수)
전체	4.5	(285)	3.7	(285)	3.9	(160)
응답자 성별						
남자	4.5	(41)	4.0	(41)	4.5	(28)
여자	4.6	(244)	3.6	(244)	3.8	(132)
$\chi^2(df) / t$	-0.1		1.8		2.9**	
배우자/파트너 유무						
배우자/파트너 있음	4.6	(160)	3.8	(160)	3.9	(160)
배우자/파트너 없음	4.5	(125)	3.5	(125)	-	-
$\chi^2(df) / t$	1.8		2.1*		-	
첫째 자녀 연령						
0세~2세	4.6	(203)	3.7	(203)	3.9	(132)
3세 이상	4.4	(82)	3.6	(82)	4.1	(28)
$\chi^2(df) / t$	2.2*		0.5		-0.7	
거주지역						
수도권	4.5	(121)	3.3	(121)	3.7	(57)
그 외 지역	4.6	(164)	3.9	(164)	4.1	(103)
$\chi^2(df) / t$	-1.3		-3.9***		-2.0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4.5	(117)	3.5	(117)	3.7	(23)
1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4.6	(109)	3.9	(109)	4.0	(85)
300만원 이상	4.5	(50)	3.9	(50)	4.0	(45)
모름/무응답	4.7	(9)	2.9	(9)	4.1	(7)
$\chi^2(df) / F$	1.7(a)		3.9**		0.7	

주: 1) '① 매우 불만'~'⑤ 매우만족'의 평균을 산출함.

2) (a)=등분산 가정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청소년부모 양육실태 및 정책지원 요구 조사」의 결과임.

* $p < .05$, ** $p < .01$, *** $p < .001$.

파트너/배우자와의 관계에 대한 청소년부부의 면담 내용을 정리해 보면 ‘우호적이거나 친밀감이 좋은 상태보다는 갈등이나 경직된 관계’를 언급하는 경우가 대다수에 해당하였다.

진짜 엄청 꼴 보기 싫어요. 그리고 이제 또 애 자고 있으니까 설거지랑 빨래 다 해야 하잖아요. 저는 둘 중의 하나는 일단 제가 하거든요. 일도 하는데 집안일도 제가 신경을 많이 써요. 제가 이제 뭐 “빨래 널어라, 설거지해라” 하면 한다면 계속 핸드폰만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소리를 지르면, 소리 지르고 쌍욕을 하면, 그때 말을 들어요. (청소년부부A)

사실은 이제 배우자랑 미래까지 생각할 정도가 아니어서, 사귀었다가 중간에 헤어졌었어요. 그런데 이제 (임신 사실을) 알게 되어서 다시 연락을 한 거였는데, 이제 좀 약간 관계가 얽혀 있는 부분도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또 되게 못 미더웠기도 했고요, 좀 만나기도 싫었던 사람이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청소년부부B)

대화가 부족한 것 같아요. (청소년부부C)

조금 뭐 그냥 지금 잘 살아보자. 이런... (청소년부부D)

임신 기간 중에 갈등이 좀 많았죠. 어쩔 수 없이. 그때 남자친구가 이게 마음을 못 잡으니까 제가 중간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저는 임신한 몸이고 그래서 중간에 아기를 지우니 낳니 이렇게 과정에 있어서 그게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애기 낳고는 그냥 사소한 일로 싸우는 것 같아요. (청소년부부F)

(현재 배우자와) 그냥 그래요. 너무 살아온 세월이 서로 달라서 서로 안 맞는다고 해야 하나? 정리.. 집안일 같은 거가 (안맞아요). 저는 좀 할 거면 제대로 하는 스타일인데 오빠는 그냥 대충대충... (청소년부부G)

한편, 청소년한부모의 경우 자녀의 아버지인 파트너와 전혀 연락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 중 임신 사실도 알리지 않은 것으로 보고한 사례도 있었다. 자녀만 만나거나, 양육비만 받는 경우, 자녀와 만나면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경우 등 자녀 아버지와 맺는 관계성은 다양하였다.

(아이가 있다는 것을) 몰라요. 별로 알리고 싶지도 않고. (청소년한부모F)

나중에 아이가 보고 싶다고 하면 아기 아빠도 보여줄 생각이고... (아이와 아빠가 지금까지) 세 번 정도 만났어요. 어릴 때? (지금은 왕래는 안하고) 양육비만 받고 있습니다. (청소년한부모G)

아기 아빠랑 첫째 낳기 전부터 같이 살고 있다가 둘째 낳고 둘째 100일쯤 됐을 때 헤어졌어요. 약간 아기 아빠가 약간 술버릇이 되게 안 좋고, 알코올 중독이 있었어가지고. 그걸로 헤어졌죠. (지금은) 전혀 연락 안 하고 있어요. (청소년한부모D)

지금 큰 첫째 자녀 아빠랑은 이제 임신했을 때 연락이 끊어져서 연락을 안 하고 있는 상태이고, 둘째 아이 아빠랑은 그래도 아이 관련해서 연락은 해요. 관련해서 연락을 하고 있고

몇 번씩 같이 보기도 하고, 그리고 만약에 아이 보러 왔을 때 아이를 돌봐주긴 해주긴 해요.
(청소년한부모B)

봤다가 안 봤다가 이러긴 했어요. 그쪽에서는 또 자기가 아빠 노릇을 하고 싶다. 그리고 결혼도 해서 같이 살고 싶다. 이런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고, 근데 저는 한 번 당한 게 있으니까, 믿음이 안 가서 계속 저는 같이 살 수는 없다. 그냥 아기만 보여주겠다 해서 지금도 그냥 아기만 보여주고 있어요. 거의 매주. (청소년한부모C)

한 달에 한 번은 만나고 있어요. 모임 갔다가 아기 보내주고 1박2일.. 이렇게 보내주고 있어요. 양육비를 보내주니까. (청소년한부모A)

그냥 웬만하면 이제 평일 동안은 본인도 일을 하고, 아이도 어린이집에서 시간을 보내니까 멀리 놀러 간다든지 이런 걸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자기 차 타고 멀리 나들이 간다고 해야 되나? 아쿠아리움이라든지 아니면 동물들 볼 수 있는 곳에 데려가서 놀아주고 (아이가 아빠를) 엄청 좋아하는 것 같아요. (청소년한부모C)

한 달에 한, 두 번씩 가는 것 같아요. 계속 왕래할 것 같습니다. (청소년한부모H)

마. 가정환경

1) 거주 상황

본 연구에 참여한 청소년부모를 대상으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수도권에 거주하는 청소년부모가 42.5%, 그 외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가 57.5%로 구분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에 거주하는 청소년부모가 수도권에 거주하는 경우보다 많았고, 한부모의 경우 수도권과 그 외 지역에 고루 분포하는 경향이 있었다. 부모 중 한 명만 24세 이하인 청소년부부는 부모 모두 24세 이하인 집단에 비해 수도권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게 보고되었다. 경제활동을 하는 청소년부모가 수도권보다는 그 외 지역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다는 점이 눈에 띈다.

〈표 III-2-37〉 거주지역

단위: %(명)			
구분	수도권	그 외 지역	계(수)
전체	42.5	57.5	100.0 (285)
배우자/파트너 유무			
배우자/파트너 있음	35.6	64.4	100.0 (160)
배우자/파트너 없음	51.2	48.8	100.0 (125)
$\chi^2(df)$	6.968(1)**		

구분	수도권	그 외 지역	계(수)
가족 형태			
부모 모두 24세 이하	32.4	67.6	100.0 (108)
부모 중 한 명만 24세 이하	42.3	57.7	100.0 (52)
한부모	51.2	48.8	100.0 (125)
$\chi^2(df)$	8.376(2)*		
가구 경제활동 여부			
경제활동 함	37.1	62.9	100.0 (178)
경제활동 안함	51.4	48.6	100.0 (107)
$\chi^2(df)$	5.612(1)*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47.9	52.1	100.0 (117)
1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36.7	63.3	100.0 (109)
300만원 이상	36.0	64.0	100.0 (50)
모름/무응답	77.8	22.2	100.0 (9)
$\chi^2(df)$	8.329(3)*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청소년부모 양육실태 및 정책지원 요구 조사」의 결과임.

* $p < .05$, ** $p < .01$.

청소년부모 전체의 총 가구원 수(본인과 자녀 포함) 평균은 3.2명이며, 청소년부부는 평균 3.5명, 청소년한부모는 2.7명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청소년부모가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가구원수가 평균 3.4명으로 전체 평균보다 높았지만,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2.8명으로 가구원수가 큰 폭으로 적은 경향을 보였다. 유사하게 월평균 가구소득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 가구원 수가 2.9명으로 가장 적었으며, 가구소득이 늘어날수록 가구원수가 증가하였다.

〈표 III-2-38〉 총 가구원 수(본인, 자녀 포함)

단위: %(명), 명					
구분	2명	3명	4명 이상	계(수)	평균
전체	27.4	43.9	28.8	100.0 (285)	3.2
배우자/파트너 유무					
배우자/파트너 있음	1.3	63.1	35.6	100.0 (160)	3.5
배우자/파트너 없음	60.8	19.2	20.0	100.0 (125)	2.7
$\chi^2(df) / t$	127.753(2)***				6.4***
가족 형태					
부모 모두 24세 이하	1.9	61.1	37.0	100.0 (108)	3.6
부모 중 한 명만 24세 이하	0.0	67.3	32.7	100.0 (52)	3.5
한부모	60.8	19.2	20.0	100.0 (125)	2.7
$\chi^2(df) / F$	128.335(4)***				20.5***(a)

구분	2명	3명	4명 이상	계(수)	평균
자녀수					
1명	32.0	48.0	20.1	100.0 (244)	3.0
2명 이상	0.0	19.5	80.5	100.0 (41)	4.2
$\chi^2(df)/t$		64.095(2)***			-7.2***
첫째 자녀 연령					
0세 ~ 2세	21.7	48.8	29.6	100.0 (203)	3.2
3세 이상	41.5	31.7	26.8	100.0 (82)	3.1
$\chi^2(df) / t$		12.384(2)**			1.4
첫째 자녀 출생 시 부모 연령					
부모 모두 19세 미만	35.9	35.9	28.2	100.0 (39)	3.1
부모 중 한 명만 19세 미만	38.1	27.0	34.9	100.0 (63)	3.2
부모 모두 19세 이상	21.9	51.4	26.8	100.0 (183)	3.2
$\chi^2(df) / F$		13.807(4)**			0.2
첫째 자녀 출산 시 모 연령					
19세 미만	36.5	30.2	33.3	100.0 (96)	3.2
19세 이상	22.8	50.8	26.5	100.0 (189)	3.2
$\chi^2(df) / t$		11.568(2)**			-0.3
가구 경제활동 여부					
경제활동 함	12.4	52.8	34.8	100.0 (178)	3.4
경제활동 안함	52.3	29.0	18.7	100.0 (107)	2.8
$\chi^2(df) / t$		53.732(2)***			4.7***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53.0	26.5	20.5	100.0 (117)	2.9
10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	12.8	52.3	34.9	100.0 (109)	3.4
300만원 이상	0.0	66.0	34.0	100.0 (50)	3.5
모름/무응답	22.2	44.4	33.3	100.0 (9)	3.4
$\chi^2(df) / F$		70.359(6)***			7.5***
월평균 수혜 정부지원금액					
40만원 미만	10.8	63.5	25.7	100.0 (74)	3.3
40만원 이상 ~ 80만원 미만	23.9	41.8	34.3	100.0 (67)	3.3
80만원 이상	37.5	34.7	27.8	100.0 (144)	3.1
$\chi^2(df) / F$		23.450(4)***			1.9

주: (a)=등분산 가정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청소년부모 양육실태 및 정책지원 요구 조사」의 결과임.

** $p < .01$, *** $p < .001$.

2) 학업, 취업 상황

청소년부모의 최종학력을 살펴보면, 고등학교를 졸업한 경우가 70.9%로 가장 많았고, 중학교 졸업 이하가 15.8%로 뒤를 이었다. 최종학력은 현재 청소년부모의 연령과 출산 당시 청소년부모 연령과 가장 긴밀한 연관이 있었다. 특히 어머니가 미성년 시기에 출산을 한 경우에 전문대나 4년제 졸업을 현재 한 경우가 각기

5.1%밖에 되지 않아서, 19세 이후에 출산을 하여 청소년부모가 된 경우보다 학업을 이어가는데 어려움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배우자의 최종학력은 응답자의 최종학력에 비해 중학교 졸업 이하의 비율이 낮고, 4년제 대학교 졸업 비율이 더 높은 경향이 있었다. 이는 응답자의 여성 비율이 월등히 높아, 배우자 정보가 대부분의 남성의 최종학력이기 때문에 발생한 결과로 보인다.

〈표 III-2-39〉 최종학력

단위: %(명)

구분	중졸 이하	고졸	전문대 졸업	4년제 대졸	계(수)
전체	15.8	70.9	8.4	4.9	100.0 (285)
배우자/파트너 유무					
배우자/파트너 있음	16.3	68.1	10.0	5.6	100.0 (160)
배우자/파트너 없음	15.2	74.4	6.4	4.0	100.0 (125)
$\chi^2(df)$		1.896(3)			
응답자 연령					
19세 미만	57.7	42.3	0.0	0.0	100.0 (26)
19세 이상	11.6	73.7	9.3	5.4	100.0 (259)
$\chi^2(df)$		38.925(3)***			
가족 형태					
부모 모두 24세 이하	14.8	70.4	9.3	5.6	100.0 (108)
부모 중 한 명만 24세 이하	19.2	63.5	11.5	5.8	100.0 (52)
한부모	15.2	74.4	6.4	4.0	100.0 (125)
$\chi^2(df)$		2.786(6)			
첫째 자녀 출생 시 부모 연령					
부모 모두 19세 미만	25.6	64.1	5.1	5.1	100.0 (39)
부모 중 한 명만 19세 미만	33.3	63.5	1.6	1.6	100.0 (63)
부모 모두 19세 이상	7.7	74.9	11.5	6.0	100.0 (183)
$\chi^2(df)$		31.398(6)***			
첫째 자녀 출산 시 모 연령					
19세 미만	31.3	62.5	3.1	3.1	100.0 (96)
19세 이상	7.9	75.1	11.1	5.8	100.0 (189)
$\chi^2(df)$		29.111(3)***			
배우자 전체(청소년부부)	13.1	70.6	8.8	7.5	100.0 (160)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청소년부모 양육실태 및 정책지원 요구 조사」의 결과임.

*** $p < .001$.

현재 학업중인 청소년부모는 응답자의 10.9%로 나타났다. 청소년부부(6.9%)보다는 청소년한부모(16.0%)가 현재 학업 중인 비율이 높았다. 또한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학업 중인 비율이 20.6%, 가구소득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 학업중인 비율이 16.2%로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을 보였다. 청소년부부의 배우자는 8.8%가 학업중인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부부 응답자의 6.9%보다 높은 비율임을 확인하였다.

〈표 III-2-40〉 현재 학업 여부

단위: %(명)

구분	학교를 다니고 있음	학교를 다니고 있지 않음	계(수)
전체	10.9	89.1	100.0 (285)
배우자/파트너 유무			
배우자/파트너 있음	6.9	93.1	100.0 (160)
배우자/파트너 없음	16.0	84.0	100.0 (125)
$\chi^2(df)$	6.028(1)*		
가족 형태			
부모 모두 24세 이하	6.5	93.5	100.0 (108)
부모 중 한 명만 24세 이하	7.7	92.3	100.0 (52)
한부모(해당없음)	16.0	84.0	100.0 (125)
$\chi^2(df)$	6.081(2)*		
가구 경제활동 여부			
경제활동 함	5.1	94.9	100.0 (178)
경제활동 안함	20.6	79.4	100.0 (107)
$\chi^2(df)$	16.572(1)***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16.2	83.8	100.0 (117)
10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	5.5	94.5	100.0 (109)
300만원 이상	12.0	88.0	100.0 (50)
모름/무응답	0.0	100.0	100.0 (9)
$\chi^2(df)$	7.879(3)*		
배우자 전체(청소년부부)	8.8	91.3	100.0 (160)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청소년부모 양육실태 및 정책지원 요구 조사」의 결과임.

* $p < .05$, *** $p < .001$.

과거에 임신, 출산으로 인해 학교를 그만둔 경험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 전체의 24.6%가 학업 중단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어머니의 출산 연령이 19세 미만인 경우(37.5%), 부모 모두 미성년자(35.9%)이거나, 부모 중 한 명이 미성년자인 경우(34.9%)에 두드러졌다. 청소년부부의 배우자가 학업을 중단한 경우(10.0%)는 응답자 본인(23.1%)이 학업을 중단한 비율에 비해 현저히 낮았는데, 이는

청소년부부 응답자가 대개 여성이었기 때문에 보이는 결과로 유추할 수 있다.

〈표 III-2-41〉 학업 중단 경험 여부

단위: %(명)

구분	있음	없음	계(수)
전체	24.6	75.4	100.0 (285)
배우자/파트너 유무			
배우자/파트너 있음	23.1	76.9	100.0 (160)
배우자/파트너 없음	26.4	73.6	100.0 (125)
$\chi^2(df)$	0.406(1)		
가족 형태			
부모 모두 24세 이하	23.1	76.9	100.0 (108)
부모 중 한 명만 24세 이하	23.1	76.9	100.0 (52)
한부모	26.4	73.6	100.0 (125)
$\chi^2(df)$	0.406(2)		
첫째 자녀 연령			
0세 ~ 2세	20.7	79.3	100.0 (203)
3세 이상	34.1	65.9	100.0 (82)
$\chi^2(df)$	5.708(1)*		
첫째 자녀 출생 시 부모 연령			
부모 모두 19세 미만	35.9	64.1	100.0 (39)
부모 중 한 명만 19세 미만	34.9	65.1	100.0 (63)
부모 모두 19세 이상	18.6	81.4	100.0 (183)
$\chi^2(df)$	9.888(2)**		
첫째 자녀 출산 시 모 연령			
19세 미만	37.5	62.5	100.0 (96)
19세 이상	18.0	82.0	100.0 (189)
$\chi^2(df)$	13.079(1)***		
월평균 수혜 정부지원금액			
40만원 미만	27.0	73.0	100.0 (74)
40만원 이상 ~ 80만원 미만	37.3	62.7	100.0 (67)
80만원 이상	17.4	82.6	100.0 (144)
$\chi^2(df)$	10.152(2)**		
배우자 전체(청소년부부)	10.0	90.0	100.0 (160)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청소년부모 양육실태 및 정책지원 요구 조사」의 결과임.

* $p < .05$, ** $p < .01$, *** $p < .001$.

현재 일하고 있는 청소년부모는 전체의 30.9%로 보고되었다. 경제활동을 하는 비율은 남성 응답자에게서 65.9%로 여성 응답자 25.0%에 비해 월등히 높은 비율을 보였다. 또한 응답자가 19세 이상인 경우, 자녀가 1명인 경우에 일하는 비율이 높았다. 월 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집단과, 월평균 수혜 정부 지원금액 40만원 이상~80만원 미만 집단에서 일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청소년부부에게 배우자의 경제활동 여부를 질문한 결과, 71.3%로 상당히 높게 보고되었다.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연구의 주 응답자가 여성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인다.

〈표 III-2-42〉 현재 경제활동 여부

단위: %(명)

구분	일한다	일하지 않는다	계(수)
전체	30.9	69.1	100.0 (285)
성별			
남성	65.9	34.1	100.0 (41)
여성	25.0	75.0	100.0 (244)
$\chi^2(df)$	27.449(1)***		
배우자/파트너 유무			
배우자/파트너 있음	30.6	69.4	100.0 (160)
배우자/파트너 없음	31.2	68.8	100.0 (125)
$\chi^2(df)$	0.011(1)		
응답자 연령			
19세 미만	11.5	88.5	100.0 (26)
19세 이상	32.8	67.2	100.0 (259)
$\chi^2(df)$	5.013(1)*		
가족 형태			
부모 모두 24세 이하	35.2	64.8	100.0 (108)
부모 중 한 명만 24세 이하	21.2	78.8	100.0 (52)
한부모	31.2	68.8	100.0 (125)
$\chi^2(df)$	3.249(2)		
자녀수			
1명	34.0	66.0	100.0 (244)
2명 이상	12.2	87.8	100.0 (41)
$\chi^2(df)$	7.831(1)**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13.7	86.3	100.0 (117)
10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	43.1	56.9	100.0 (109)
300만원 이상	42.0	58.0	100.0 (50)
모름/무응답	44.4	55.6	100.0 (9)
$\chi^2(df)$	27.549(3)***		
월평균 수혜 정부지원금액			
40만원 미만	41.9	58.1	100.0 (74)
40만원 이상 ~ 80만원 미만	47.8	52.2	100.0 (67)
80만원 이상	17.4	82.6	100.0 (144)
$\chi^2(df)$	25.481(2)***		
배우자 전체(청소년부모)	71.3	28.8	100.0 (160)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청소년부모 양육실태 및 정책지원 요구 조사」의 결과임.

* $p < .05$, ** $p < .01$, *** $p < .001$.

현재 일하고 있는 청소년부모 88명에게 현재 고용형태를 질문하였다. 그 결과 전체 43.2%가 현재 정규직, 30.7%가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자녀 연령이 영아인 집단에서 정규직으로 일하는 비율이 53.6%로 상당히 높게 보고된 점이 눈에 띈다. 청소년부부 160가구 중 응답자 본인이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는 49가구, 배우자가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는 114가구였는데, 배우자 절반이 정규직이고, 27.2%가 프리랜서, 자영업 등인 것으로 나타나 그 양상이 다소 달랐다.

〈표 III-2-43〉 고용형태

단위: %(명)				
구분	계약직	정규직	그 외	계(수)
전체	30.7	43.2	26.1	100.0 (88)
배우자/파트너 유무				
배우자/파트너 있음	26.5	44.9	28.6	100.0 (49)
배우자/파트너 없음	35.9	41.0	23.1	100.0 (39)
$\chi^2(df)$		0.947(2)		
가족 형태				
부모 모두 24세 이하	26.3	42.1	31.6	100.0 (38)
부모 중 한 명만 24세 이하	27.3	54.5	18.2	100.0 (11)
한부모	35.9	41.0	23.1	100.0 (39)
$\chi^2(df)$		1.841(4)		
첫째 자녀 연령				
0세 ~ 2세	26.8	53.6	19.6	100.0 (56)
3세 이상	37.5	25.0	37.5	100.0 (32)
$\chi^2(df)$		7.096(2)*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50.0	12.5	37.5	100.0 (16)
10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	29.8	51.1	19.1	100.0 (47)
300만원 이상	9.5	52.4	38.1	100.0 (21)
모름/무응답	75.0	25.0	0.0	100.0 (4)
$\chi^2(df)$		16.328(6)*		
배우자 전체(청소년부부)	22.8	50.0	27.2	100.0 (114)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청소년부모 양육실태 및 정책지원 요구 조사」의 결과임.

* $p < .05$.

현재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청소년부모 197명을 대상으로 향후 일할 계획이 있는지 질문하였다. 그 결과 청소년부모 응답자 전체의 70.1%가 구직/취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청소년부부보다는 청소년한부모가 구직/취업을 준비하는 비율이 81.4%로 눈에 띄게 높았으며, 청소년부부 중에서는 부모가 모두 24세 이하인 경우(64.3%)가 부모 중 한 명만 24세 이하인 경우(56.1%)보다 구직/취업 준

비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III-2-44〉 향후 경제활동 계획 여부

단위: %(명)

구분	구직/취업 준비 중	준비하지 않음	계(수)
전체	70.1	29.9	100.0 (197)
배우자/파트너 유무			
배우자/파트너 있음	61.3	38.7	100.0 (111)
배우자/파트너 없음	81.4	18.6	100.0 (86)
$\chi^2(df)$	9.363(1)**		
가족 형태			
부모 모두 24세 이하	64.3	35.7	100.0 (70)
부모 중 한 명만 24세 이하	56.1	43.9	100.0 (41)
한부모	81.4	18.6	100.0 (86)
$\chi^2(df)$	10.189(2)**		
배우자 전체(청소년부부 해당)	69.6	30.4	100.0 (46)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청소년부모 양육실태 및 정책지원 요구 조사」의 결과임.

** $p < .01$.

3) 가구소득 및 소비

정부지원금액을 제외한 가구소득을 조사한 결과, 전체 월평균 소득은 약 151만원으로 집계되었다. 청소년부모 가구의 월 평균소득은 배우자/파트너 유무, 응답자 연령, 가족 형태, 첫째 자녀 출생 시 부모와 모 연령, 가구 경제활동 여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청소년부부의 월평균소득은 224만원에 이르게 반해 청소년한부모는 월에 61만원 정도 소득을 보고하였다. 부모 중 한 명만 24세 이하인 청소년부부는 월에 253만원 정도를 벌고 있었고, 부모 모두 24세 이하인 부부는 210만원 정도를 버는 것으로 보고되어, 응답자와 배우자 연령이 증가할수록 경제적 여유가 높아짐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출생 시 부모 모두가 19세 이상인 경우가 모두 미성년인 경우 보다 2배 높은 가구 수입을 가지는 것에서도 일관적으로 나타난다. 경제활동을 하는 가구는 평균 약 230만원 정도를 버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평균 소득은 약 28만원 선으로 현저히 낮았다.

본 연구에 참여한 전체 청소년부모가 수혜 받는 정부지원금은 월평균 약 80만원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정부지원금액은 배우자/파트너 유무, 응답자 연령, 가족 형태, 첫째 자녀 출생 시 부모 연령, 가구 경제활동 여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청소년부부는 월에 약 60만원의 지원금을 받는 반면 청소년한부모는 월평균

약 106만원 정도를 수혜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한 청소년부모가 현재 미성년자인 경우 약 110만원선의 지원금을 받고 있었으며, 자녀 출생 시 부모가 모두 미성년인 가구에서 한 달에 약 100만원을 수혜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에서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수혜 받는 정부지원금은 월평균 113만원 선으로 모든 조건 중에서 가장 높게 보고되었다.

종합하여보면 전체 청소년부모는 가구소득과 정부지원금을 합쳐 월에 231만원 정도를 가지고 가계를 운영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정부지원금과 가구소득을 모두 합쳤을 때 청소년부부는 약 284만원, 청소년한부모는 약 167만원을 가지고 생활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는데, 청소년부부가 평균적으로 가구소득이 높고 정부지원금에 의존하는 정도가 한부모에 비해 낮은 것이 특징이었다. 청소년부부 중 부모 중 한 명만 24세 이하인 가구에서는 가구소득과 지원금을 합쳐 약 311만원을 보고하였고, 부모 모두가 24세 이하인 가구는 약 271만원을 보고하여 청소년부부의 연령 조합에 따라서도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다. 소득 면에서 가장 취약한 집단은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부모로 월평균 가구소득과 정부지원금 합계에서 약 141만원으로 최저 수준을 보고하였다.

〈표 III-2-45〉 월평균 가구소득과 수혜 정부지원금액

단위: 만원, (명)

구분	월평균 가구소득	월평균 정부지원금	월평균 가구소득+ 정부지원금 합계	(수)
전체	151.5	79.8	231.3	(285)
배우자/파트너 유무				
배우자/파트너 있음	224.1	59.6	283.7	(160)
배우자/파트너 없음	61.1	105.6	166.7	(125)
$\chi^2(df) / t$	11.8***	-6.9***	-	
응답자 연령				
19세 미만	89.4	109.8	199.2	(26)
19세 이상	157.7	76.8	234.5	(259)
$\chi^2(df) / t$	-2.9**	2.8**	-	
가족 형태				
부모 모두 24세 이하	210.1	60.6	270.7	(108)
부모 중 한 명만 24세 이하	253.0	57.5	310.5	(52)
한부모	61.1	105.6	166.7	(125)
$\chi^2(df) / F$	70.6***	24.1***(a)	-	
첫째 자녀 연령				
0세 ~ 2세	167.8	81.3	249.1	(203)
3세 이상	110.8	76.1	186.9	(82)
$\chi^2(df) / t$	3.4**	0.7	-	

구분	월평균 가구소득	월평균 정부지원금	월평균 가구소득+ 정부지원금 합계	(수)
첫째 자녀 출생 시 부모 연령				
부모 모두 19세 미만	83.9	99.7	183.6	(39)
부모 중 한 명만 19세 미만	122.1	81.9	204.0	(63)
부모 모두 19세 이상	176.0	74.8	250.8	(183)
$\chi^2(df) / F$	11.9*** (a)	3.2*	-	
첫째 자녀 출산 시 모 연령				
19세 미만	108.9	88.6	197.5	(96)
19세 이상	173.1	75.3	248.4	(189)
$\chi^2(df) / t$	-3.9***	1.9	-	
가구 경제활동 여부				
경제활동 함	229.8	59.9	289.7	(178)
경제활동 안함	27.8	112.9	140.7	(107)
$\chi^2(df) / t$	17.2***	-7.7***	-	

주: (a)=등분산 가정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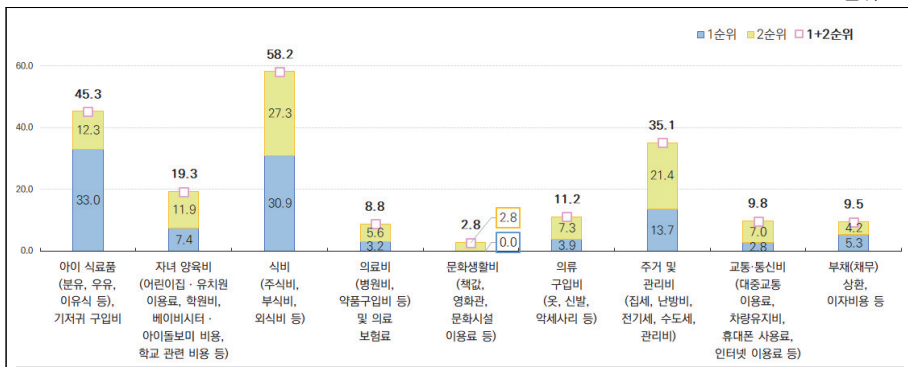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청소년부모 양육실태 및 정책지원 요구 조사」의 결과임.

* $p < .05$, ** $p < .01$, *** $p < .001$.

소비지출 영역 중 가장 많이 소비하고 있는 항목을 2순위까지 조사하였다. 먼저 1순위 결과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아이 식료품(분유, 우유, 이유식 등)과 기저귀 구입비를 우선 선택한 비율이 33.0%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식비(주식비, 부식비, 외식비 등)가 30.9%, 주거 관리비(집세, 난방비, 전기세, 수도세, 관리비) 13.7% 순으로 보고되었다. 1+2순위를 합산한 결과에서는 식비가 58.2%로 가장 높았고, 아이 식료품과 기저귀 구입비가 45.3%, 주거 관리비가 35.1%로 나타났다.

[그림 III-2-기] 소비지출 영역 중 가장 많이 소비하는 부문

단위: %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청소년부모 양육실태 및 정책지원 요구 조사」의 결과임.

소비지출 영역 중 현재 가장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항목을 2순위까지 조사하였다. 그 결과 1순위로는 ‘의류구입비(옷, 신발, 악세사리 등)’, ‘식비(주식비, 부식비, 외식비 등)’, ‘아이 식료품(분유, 우유, 이유식)과 기저귀 구입비’에서 부족하다고 느낀 경우가 각기 16.8%, 15.8%, 15.4% 순으로 보고되었다. 청소년부부는 의류구입비 부족을, 청소년한부모는 식비 부족을, 미성년 응답자는 아이 식료품과 기저귀 구입비 부족을 상대적으로 높게 보고하는 경향이 있었다.

1+2순위 합산 결과는 1순위 결과와 상이한 양상을 보였다. 의류구입비와 식비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다는 부분에서는 공통되나, 주거 및 관리비 부족을 보고한 비율(27.0%)이 아이 식료품과 기저귀 구입비 부족을 보고한 경우(26.0%)보다 높은 점에 차이가 있다.

〈표 III-2-46〉 소비지출 영역 중 가장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부문

단위: %(명)											계(수)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순위 전체	15.4	7.0	15.8	6.3	11.6	16.8	12.3	3.5	10.2	1.1	100.0 (285)
배우자/파트너 유무											
배우자/파트너 있음	16.9	5.0	11.9	3.8	14.4	18.8	15.0	2.5	11.3	0.6	100.0 (160)
배우자/파트너 없음	13.6	9.6	20.8	9.6	8.0	14.4	8.8	4.8	8.8	1.6	100.0 (125)
$\chi^2(df)$	17.500(9)*(b)										
응답자 연령											
19세 미만	26.9	3.8	0.0	11.5	7.7	15.4	23.1	7.7	0.0	3.8	100.0 (26)
19세 이상	14.3	7.3	17.4	5.8	12.0	17.0	11.2	3.1	11.2	0.8	100.0 (259)
$\chi^2(df)$	18.191(9)*(b)										
가족 형태											
부모 모두 24세 이하	16.7	4.6	12.0	3.7	13.0	17.6	17.6	2.8	11.1	0.9	100.0 (108)
부모 중 한 명만 24세 이하	17.3	5.8	11.5	3.8	17.3	21.2	9.6	1.9	11.5	0.0	100.0 (52)
한부모	13.6	9.6	20.8	9.6	8.0	14.4	8.8	4.8	8.8	1.6	100.0 (125)
$\chi^2(df)$	20.602(18)(b)										
첫째 자녀 출생 시 부모 연령											
부모 모두 19세 미만	10.3	10.3	33.3	0.0	12.8	5.1	15.4	5.1	2.6	5.1	100.0 (39)
부모 중 한 명만 19세 미만	14.3	7.9	14.3	11.1	7.9	20.6	14.3	3.2	4.8	1.6	100.0 (63)
부모 모두 19세 이상	16.9	6.0	12.6	6.0	12.6	18.0	10.9	3.3	13.7	0.0	100.0 (183)
$\chi^2(df)$	35.995(18)**(b)										
1+2순위	26.0	12.3	29.5	10.9	25.6	36.8	27.0	13.7	17.2	1.1	(2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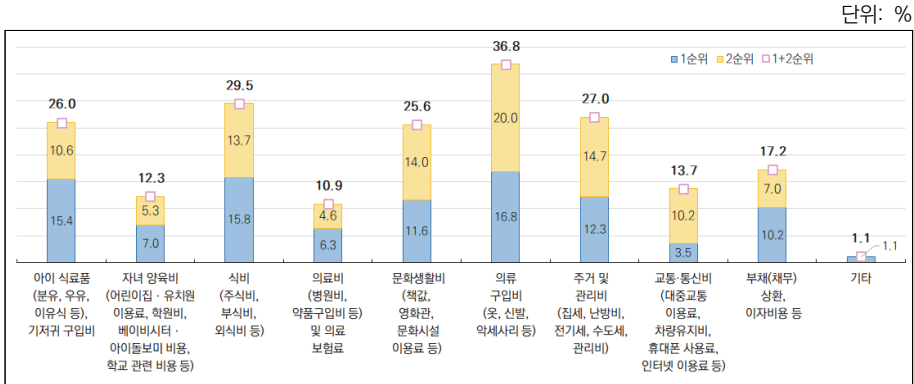
주: 1) ① 아이 식료품(분유, 우유, 이유식 등), 기저귀 구입비 ② 자녀 양육비(어린이집·유치원 이용료, 학원비, 베이비시터·아이돌보미 비용, 학교 관련 비용 등) ③ 식비(주식비, 부식비, 외식비 등) ④ 의료비(병원비, 약품 구입비 등) 및 의료 보험료 ⑤ 문화생활비(책값, 영화관, 문화시설이용료 등) ⑥ 의류구입비(옷, 신발, 악세사리 등) ⑦ 주거 및 관리비(집세, 난방비, 전기세, 수도세, 관리비) ⑧ 교통·통신비(대중교통 이용료, 차량유지비, 휴대폰 사용료, 인터넷 이용료 등) ⑨ 부채(채무) 상황, 이자비용 등 ⑩ 기타

2) (b)=기대빈도가 5보다 작은 셀이 20% 이상인 경우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청소년부모 양육실태 및 정책지원 요구 조사」의 결과임.

* $p < .05$, ** $p < .01$.

[그림 III-2-8] 소비지출 영역 중 가장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부문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청소년부모 양육실태 및 정책지원 요구 조사」의 결과임.

3. 청소년부모 지원 요구

가. 지원 수혜 경험

1) 영역별 정부/지자체 지원 수혜 경험과 만족도

청소년부모의 영역별 정부/지자체 지원 수혜 경험을 조사하였다. 가장 높은 수혜 경험을 보인 영역은 ‘자녀 양육 지원(예: 아동수당, 가정양육수당,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등)’이며, 두 번째로 수혜 경험이 높은 영역은 ‘임신 출산 지원(예: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첫만남 이용권 등)’으로 나타났다. 이 두 영역 지원의 수혜 경험 비율은 각기 92.6%, 91.6%로 다른 영역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다. ‘가족 주거 지원(예: LH 임대지원, 공공주택지원 등)’이 37.9%, ‘부모 취업 지원(예: 국민취업제도, 국민내일배움카드 등)’이 28.8%, ‘부모 학업 지원(검정고시 학습지원 등)’이 18.9% 선이었으며, 가장 낮은 수혜 비율을 보고한 영역은 ‘부모 양육역량 강화 지원(예: 심리상담, 전문가 상담 등)’이었다(17.5%).

영역별 지원 경험이 있는 청소년부모를 대상으로 만족도(5점 만점 기준)를 조사한 결과, 만족도가 가장 높은 지원은 ‘가족 주거 지원’이었다(3.8점). ‘부모 양육역량 강화 지원’은 지원 경험 비율이 가장 낮았지만 만족도가 3.7점으로 높은 편으로 보고되었다. ‘부모 학업 지원’, ‘부모 취업 지원’은 공통적으로 3.6점이었으며, 만족도 점수가 가장 낮은 영역은 수혜 경험이 가장 높았던 ‘자녀 양육 지원’으로 나타

났다(3.4점). 많은 청소년부모가 경험한 서비스, 비용 지원이 주를 이루는 자녀 양육 지원 영역에서의 만족도가 가장 낮다는 점은 단순히 자녀 양육 비용을 지원받는 것 이상의 지원, 혹은 더 많은 양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부모들의 요구를 반영하는 결과로 유추할 수 있다.

〈표 III-3-1〉 정부/지자체의 지원을 받은 경험(종합)

단위: %(명), 점

구분	지원 받은 경험			지원 받은 경우, 만족도	
	있음	없음	계(수)	평균	(수)
1. 임신·출산 지원	91.6	8.4	100.0 (285)	3.5	(261)
2. 부모 학업 지원	18.9	81.1	100.0 (285)	3.6	(54)
3. 부모 취업 지원	28.8	71.2	100.0 (285)	3.6	(82)
4. 자녀 양육 지원	92.6	7.4	100.0 (285)	3.4	(264)
5. 가족 주거 지원	37.9	62.1	100.0 (285)	3.8	(108)
6. 부모 양육역량 강화 지원	17.5	82.5	100.0 (285)	3.7	(50)

주: 만족도 5점 만점 기준(1=매우 불만족, 5=매우 만족)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청소년부모 양육실태 및 정책지원 요구 조사」의 결과임.

독립변인에 따른 각 지원 제도의 이용 경험 비율과 만족도를 차이 검증을 통해 살펴보았다. 이 중 유의미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임신 출산 지원 수혜 경험 비율은 가구 내 월평균 수혜 정부 지원 금액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정부지원금을 많이 받는 가구일수록 임신 출산 지원을 받은 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신 출산 지원 만족도는 첫째 자녀 연령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자녀가 어릴수록 임신 출산 지원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 이는 이전보다 임신 출산 지원금의 액수가 증가함에 따라 나타나는 만족도의 차이로 이해할 수 있다.

〈표 III-3-2〉 정부/지자체의 지원을 받은 경험: 임신출산지원

단위: %(명), 점

구분	임신·출산 지원 수혜 경험			임신출산지원 만족도	
	있음	없음	계(수)	평균	(수)
전체	91.6	8.4	100.0 (285)	3.5	(261)
배우자/파트너 유무					
배우자/파트너 있음	93.8	6.3	100.0 (160)	3.5	(150)
배우자/파트너 없음	88.8	11.2	100.0 (125)	3.5	(111)
$\chi^2(df) / t$	2.230(1)			0.0	

구분	임신·출산 지원 수혜 경험			임신출산지원 만족도	
	있음	없음	계(수)	평균	(수)
가족 형태					
부모 모두 24세 이하	93.5	6.5	100.0 (108)	3.6	(101)
부모 중 한 명만 24세 이하	94.2	5.8	100.0 (52)	3.4	(49)
한부모	88.8	11.2	100.0 (125)	3.5	(111)
$\chi^2(df) / F$	2.253(2)(b)			0.6	
첫째 자녀 연령					
0세~2세	93.1	6.9	100.0 (203)	3.6	(189)
3세 이상	87.8	12.2	100.0 (82)	3.3	(72)
$\chi^2(df) / t$	2.126(1)			2.1*	
월평균 수혜 정부지원금액					
40만원 미만	83.8	16.2	100.0 (74)	3.3	(62)
40만원 이상~80만원 미만	89.6	10.4	100.0 (67)	3.6	(60)
80만원 이상	96.5	3.5	100.0 (144)	3.5	(139)
$\chi^2(df) / F$	10.761(2)**			1.5	

주: (b)=기대빈도가 5보다 작은 셀이 20% 이상인 경우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청소년부모 양육실태 및 정책지원 요구 조사」의 결과임.

* $p < .05$, ** $p < .01$.

청소년부모의 부모 학업 지원 경험은 배우자/파트너 유무, 부모/응답자 연령, 가족 형태, 첫째 자녀 성별, 첫째 자녀 출산 시 부모/모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청소년부부보다는 청소년한부모가 학업 지원을 받은 비율이 더 높았고(13.1% < 26.4%), 응답한 부모가 19세 미만인 경우, 부모 모두가 24세 이하인 경우, 여아의 부모인 경우, 첫째 자녀 출생 시 부모 중 한 명만 미성년인 경우, 어머니가 19세 미만인 경우

학업 지원을 받은 비율이 높게 보고되었다. 청소년부부보다는 청소년한부모가 학업 지원을 받을 확률이 높고, 부모의 연령이 어린 경우에 학업 지원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부모 학업 지원 만족도 점수는 독립변인 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표 III-3-3〉 정부/지자체의 지원을 받은 경험: 부모 학업 지원

단위: %(명), 점

구분	부모 학업 지원 수혜 경험			부모 학업 지원 만족도	
	있음	없음	계(수)	평균	(수)
전체	18.9	81.1	100.0 (285)	3.6	(54)
응답자 성별					
남자	12.2	87.8	100.0 (41)	3.4	(5)

구분	부모 학업 지원 수혜 경험			부모 학업 지원 만족도	
	있음	없음	계(수)	평균	(수)
여자	20.1	79.9	100.0 (244)	3.6	(49)
$\chi^2(df) / t$	1.422(1)			-0.2	
배우자/파트너 유무					
배우자/파트너 있음	13.1	86.9	100.0 (160)	3.6	(21)
배우자/파트너 없음	26.4	73.6	100.0 (125)	3.5	(33)
$\chi^2(df) / t$	8.053(1)**			0.4	
응답자 연령					
19세 미만	38.5	61.5	100.0 (26)	3.3	(10)
19세 이상	17.0	83.0	100.0 (259)	3.6	(44)
$\chi^2(df) / t$	7.094(1)**			-0.9	
가족 형태					
부모 모두 24세 이하	15.7	84.3	100.0 (108)	3.5	(17)
부모 중 한 명만 24세 이하	7.7	92.3	100.0 (52)	4.0	(4)
한부모	26.4	73.6	100.0 (125)	3.5	(33)
$\chi^2(df) / F$	9.533(2)**			0.5	
첫째 자녀 성별					
남아	13.9	86.1	100.0 (137)	3.6	(19)
여아	23.6	76.4	100.0 (148)	3.5	(35)
$\chi^2(df) / t$	4.431(1)*			0.1	
첫째 자녀 출생 시 부모 연령					
부모 모두 19세 미만	35.9	64.1	100.0 (39)	3.5	(14)
부모 중 한 명만 19세 미만	41.3	58.7	100.0 (63)	3.6	(26)
부모 모두 19세 이상	7.7	92.3	100.0 (183)	3.5	(14)
$\chi^2(df) / F$	42.945(2)***			0.1	
첫째 자녀 출산 시 모 연령					
19세 미만	38.5	61.5	100.0 (96)	3.6	(37)
19세 이상	9.0	91.0	100.0 (189)	3.5	(17)
$\chi^2(df) / t$	36.191(1)***			0.1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청소년부모 양육실태 및 정책지원 요구 조사」의 결과임.

* $p < .05$, ** $p < .01$, *** $p < .001$.

부모 취업 지원은 청소년부부보다는 청소년한부모가, 자녀 연령이 어린 가구보다는 3세 이상인 가구에서, 월평균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수혜 유경험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부모 취업 지원 경험 만족도는 청소년한부모보다는 청소년부부가, 응답자 연령이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보였다.

〈표 III-3-4〉 정부/지자체의 지원을 받은 경험: 부모 취업 지원

단위: %(명), 점

구분	부모 취업 지원 수혜 경험			부모 취업 지원 만족도	
	있음	없음	계(수)	평균	(수)
전체	28.8	71.2	100.0 (285)	3.6	(82)
배우자/파트너 유무					
배우자/파트너 있음	23.8	76.3	100.0 (160)	3.8	(38)
배우자/파트너 없음	35.2	64.8	100.0 (125)	3.3	(44)
$\chi^2(df) / t$	4.489(1)*			2.3*	
응답자 연령					
19세 미만	23.1	76.9	100.0 (26)	2.8	(6)
19세 이상	29.3	70.7	100.0 (259)	3.6	(76)
$\chi^2(df) / t$	0.453(1)			-2.1*	
가족 형태					
부모 모두 24세 이하	24.1	75.9	100.0 (108)	3.9	(26)
부모 중 한 명만 24세 이하	23.1	76.9	100.0 (52)	3.7	(12)
한부모	35.2	64.8	100.0 (125)	3.3	(44)
$\chi^2(df) / F$	4.506(2)			2.8	
첫째 자녀 연령					
0세~2세	24.1	75.9	100.0 (203)	3.5	(49)
3세 이상	40.2	59.8	100.0 (82)	3.6	(33)
$\chi^2(df) / t$	7.393(1)**			-0.5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33.3	66.7	100.0 (117)	3.5	(39)
1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31.2	68.8	100.0 (109)	3.6	(34)
300만원 이상	12.0	88.0	100.0 (50)	3.8	(6)
모름/무응답	33.3	66.7	100.0 (9)	3.3	(3)
$\chi^2(df) / F$	8.454(3)(b)			0.4	

주: (b)=기대빈도가 5보다 작은 셀이 20% 이상인 경우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청소년부모 양육실태 및 정책지원 요구 조사」의 결과임.

* $p < .05$, ** $p < .01$.

가족 주거 지원은 청소년한부모 가구, 부모 모두 24세 이하인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 첫 자녀 출산 시 어머니가 미성년인 가구, 첫 자녀 출산 시 부모 중 한 명만 미성년인 가구,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가구에서 유경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이 있었다. 가족 주거 지원 만족도 측면에서는 응답자 연령이 19세 이상 집단인 가구가 19세 미만인 가구보다 제도 이용에서 더 만족하는 경향을 보였다.

〈표 III-3-5〉 정부/지자체의 지원을 받은 경험: 가족 주거 지원

단위: %(명), 점

구분	가족 주거 지원 수혜 경험			가족 주거 지원 만족도	
	있음	없음	계(수)	평균	(수)
전체	37.9	62.1	100.0 (285)	3.8	(108)
배우자/파트너 유무					
배우자/파트너 있음	25.0	75.0	100.0 (160)	3.8	(40)
배우자/파트너 없음	54.4	45.6	100.0 (125)	3.9	(68)
$\chi^2(df) / t$	25.773(1)***			-0.7	
응답자 연령					
19세 미만	34.6	65.4	100.0 (26)	3.1	(9)
19세 이상	38.2	61.8	100.0 (259)	3.9	(99)
$\chi^2(df) / t$	0.131(1)			-2.3*	
가족 형태					
부모 모두 24세 이하	26.9	73.1	100.0 (108)	3.7	(29)
부모 중 한 명만 24세 이하	21.2	78.8	100.0 (52)	4.0	(11)
한부모	54.4	45.6	100.0 (125)	3.9	(68)
$\chi^2(df) / F$	26.258(2)***			0.7	
자녀수					
1명	35.2	64.8	100.0 (244)	3.8	(86)
2명 이상	53.7	46.3	100.0 (41)	4.0	(22)
$\chi^2(df) / t$	5.057(1)*			-0.6	
첫째 자녀 연령					
0세~2세	29.1	70.9	100.0 (203)	3.7	(59)
3세 이상	59.8	40.2	100.0 (82)	4.0	(49)
$\chi^2(df) / t$	23.378(1)***			-1.4	
첫째 자녀 출생 시 부모 연령					
부모 모두 19세 미만	46.2	53.8	100.0 (39)	3.6	(18)
부모 중 한 명만 19세 미만	52.4	47.6	100.0 (63)	3.9	(33)
부모 모두 19세 이상	31.1	68.9	100.0 (183)	3.8	(57)
$\chi^2(df) / F$	10.288(2)**			0.6	
첫째 자녀 출산 시 모 연령					
19세 미만	49.0	51.0	100.0 (96)	3.8	(47)
19세 이상	32.3	67.7	100.0 (189)	3.9	(61)
$\chi^2(df) / t$	7.529(1)**			-0.2	
가구 경제활동 여부					
경제활동 함	31.5	68.5	100.0 (178)	3.9	(56)
경제활동 안함	48.6	51.4	100.0 (107)	3.8	(52)
$\chi^2(df) / t$	8.340(1)**			0.8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52.1	47.9	100.0 (117)	3.9	(61)
1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31.2	68.8	100.0 (109)	3.7	(34)
300만원 이상	22.0	78.0	100.0 (50)	4.0	(11)
모름/무응답	22.2	77.8	100.0 (9)	4.0	(2)
$\chi^2(df) / F$	18.471(3)*** (b)			0.6	

주: (b)=기대빈도가 5보다 작은 셀이 20% 이상인 경우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청소년부모 양육실태 및 정책지원 요구 조사」의 결과임.

* $p < .05$, ** $p < .01$, *** $p < .001$.

부모 양육역량 강화 지원은 청소년한부모의 경험 비율(28.0%)이 청소년부부에 비해 약 3배 높았고, 부모 모두 24세 이하인 가구의 수혜 비율이 부모 중 한 명만 24세 이하인 집단보다 2배 정도 높았다.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가구와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인 가구에서 부모 양육역량 강화 지원을 받은 비율이 각기 30.8%, 29.1%로 높게 보고된 점이 눈에 띈다. 지원 만족도는 응답자 연령이 높을 수록 유의미하게 높았다.

〈표 III-3-6〉 정부/지자체의 지원을 받은 경험: 부모 양육역량 강화 지원

단위: %(명), 점

구분	부모 양육역량 강화 지원 수혜 경험			부모 양육 역량 만족도	
	있음	없음	계(수)	평균	(수)
전체	17.5	82.5	100.0 (285)	3.7	(50)
응답자 성별					
남자	12.2	87.8	100.0 (41)	3.4	(5)
여자	18.4	81.6	100.0 (244)	3.7	(45)
$\chi^2(df) / t$	0.947(1)			-0.6	
배우자/파트너 유무					
배우자/파트너 있음	9.4	90.6	100.0 (160)	3.7	(15)
배우자/파트너 없음	28.0	72.0	100.0 (125)	3.6	(35)
$\chi^2(df) / t$	16.828(1)***			0.3	
응답자 연령					
19세 미만	15.4	84.6	100.0 (26)	2.5	(4)
19세 이상	17.8	82.2	100.0 (259)	3.8	(46)
$\chi^2(df) / t$	0.092(1)			-2.5*	
가족 형태					
부모 모두 24세 이하	11.1	88.9	100.0 (108)	3.6	(12)
부모 중 한 명만 24세 이하	5.8	94.2	100.0 (52)	4.3	(3)
한부모	28.0	72.0	100.0 (125)	3.6	(35)
$\chi^2(df) / F$	17.520(2)***			0.7	
가구 경제활동 여부					
경제활동 함	9.6	90.4	100.0 (178)	3.8	(17)
경제활동 안함	30.8	69.2	100.0 (107)	3.6	(33)
$\chi^2(df) / t$	20.940(1)***			0.8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29.1	70.9	100.0 (117)	3.7	(34)
1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11.0	89.0	100.0 (109)	3.8	(12)
300만원 이상	4.0	96.0	100.0 (50)	4.0	(2)
모름/무응답	22.2	77.8	100.0 (9)	3.0	(2)
$\chi^2(df) / F$	20.420(3)***(b)			0.4	

구분	부모 양육역량 강화 지원 수혜 경험		부모 양육 역량 만족도
	있음	없음	평균 (수)
월평균 수혜 정부지원금액			
40만원 미만	13.5	86.5	100.0 (74)
40만원 이상~80만원 미만	10.4	89.6	100.0 (67)
80만원 이상	22.9	77.1	100.0 (144)
$\chi^2(df) / F$	6.037(2)*		0.4(a)

주: 1) (a)=등분산 가정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2) (b)=기대빈도가 5보다 작은 셀이 20% 이상인 경우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청소년부모 양육실태 및 정책지원 요구 조사」의 결과임.

* $p < .05$, ** $p < .001$.

2) 도움이 되었던 지원

가장 도움이 된 지원으로 언급한 것 중 가장 많은 답변은 임신·출산 바우처 및 출산비 지원 등 경제적 측면에서의 지원이었고 특히 민간 지원단체의 다양한 지원(음식, 보증금, 월세, 가구, 검정고시 등)을 언급한 경우도 상당수 발견되었다. 이외에 부모급여, 기초수급 등을 언급한 사례도 발견되었다.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 하면서 기저귀 바우처 신청하고 그런 것도 되게 많은 도움이 됐어요. (청소년한부모B)

그 때(임신 때) 바우처 100만 원 나오는 거요. (민간 지원단체에서) 집을 구해주셔 가지고, 출산 전 그래도 한 달 전까지는 남편이랑 같이 있었어요. 교회 선생님들, 집사님, 권사님들이 아기용품 같은 거 많이 주시곤 했어요. (청소년부부B)

애가 태어난 지 초반 때는 여기저기 기저귀랑 분유나 그런 거를 와이프가 잘 지원을 받을 곳을 알아봤나 봐요. 택배로 자주 오더라고요. (청소년부부A)

(민간 지원단체에서) 일단 제일 큰 거 주거 지원을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때는 힘드니까, 먹을 거나 식비 그런 것도 해주셨고, 지원할 수 있는 거 해줬는데 저희가 부족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 대표님이 자기 사비로도 해주셨어요. 검정고시도 여기서(민간 지원단체) 지원을 받아서 했고요. (청소년부부C)

동사무소에서 기초수급자 신청되는지 그거 알아봐 주시고, 라면하고 김 같은 것도 주셨어요. (청소년부부G)

아기가 있고 대학 한부모 가정이면서 제가 대학교를 다니고 있고 또 아기도 있기 때문에 생계급여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생계급여랑 청소년 한부모 수당 이런 거랑 다 합치면 지원금이 총 150만 원 정도 돼서 그걸로 생활하고요. (청소년한부모C)

수급비랑 한부모 수당 말고는 없어요. (중략) 기저귀 지원해 주는 것도 이제 돌까지인가 밖에 안 돼서 그때까지는 유용하게 쓰는데, 돌 지나고 나 딱 그 기간이 지나면은 필요 없어가 지고요. (청소년한부모D)

한편, 청소년한부모의 경우 시설에 입소하여 생활하며 지원받은 것(생활용품, 아기용품, 검정고시 지원, 태교 및 산전관리 등)이 가장 큰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사람이 많았다. 또한 장학금 사업, 동아리 등 대기업의 사회공헌 사업 관련 지원도 언급되었다. 이외에 개별 후원금 지원, 보건소 지원 등도 확인되었다.

(시설에서는) 일단 경제적인 거를 정말 걱정할 필요가 없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진짜 거의 오로지 아이한테 신경을 쓸 수 있는? 왜냐면 내가 돈을 굳이 벌지 않아도 생계비가 나오고 그다음에 학교를 다닐 수 있게 지원이나 그런 것들을 다 해 주시니까 약간 외로운 거 빼면 저는 시설이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청소년한부모A)

(시설거주하기 때문에) 월세는 안 내고 전기세랑 수도세 이런 정도만 내요. 교회에서 한우도 후원 들어오고. 쌀, 라면, 휴지를 조금 정기적으로 주시고, 편의점이라 빵도 들어오고 해서 먹을 게 조금 많이 자주 오는 것 같아요. (청소년한부모E)

시설에 있을 때는 기저귀 분유를 먹을 때는 분유 아니면 식재료비 라던가 그 외에 다른 짜잘짜잘한 삼푸, 린스 이런 것들도 시설에 물품이 있으면 다 지원이 됐었고, 생필품 같은 것도 다 지원이 됐었기 때문에 비교적 나갈 돈이 많이 없었어요. (청소년한부모F)

(시설에서) 이제 임신 중간 중간에 계속 병원 진료 보는 것도 그렇고, 만약에 제가 아프거나 병원을 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의료적인 부분 같은 것도 많이 지원을 해 주셨고요. 그 안에서 또 프로그램 같은 게 있어서 태교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곧 태어날 아기를 위해서 바느질을 해서 배냇저고리를 만든다든가, 인형을 만든다든가 이런 것도 있었고요. 산전 관리 같은 거 있잖아요. 요가하고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었어요. 그 안에서 미성년자나 아직 출업을 못 했으면 검정고시 같은 것도 수업 같은 거 준비해 주시는 것도 있었고, 좀 다양한 게 프로그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청소년한부모F)

시설에 있을 때는 그냥 달마다 양육 물품이라 생계물품을 구매할 수 있게 해주시고, 현금으로 그러니까 실비로 지원도 되고 그냥 제가 거기서 물품으로 사고 싶다 하면 물품으로 사고 이런 식으로. 근데 실비는 내가 구매한 영수증들을 다 보내야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성적 장학금. 이제 분기마다 이제 학기 끝나면 성적 증명서 내서 그 성적이 이제 어느 일정 수준 넘으면 주시고 동아리를 하면 좀 더 뭔가가 많았어요. 여행을 같이 가거나. (청소년한부모H)

미혼모나 한부모 센터에서 비용(학비)을 지원해 주셔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게 됐어요. (청소년한부모B)

00재단이라는 곳에서 지원도 조금 받고 있고요. 아무나 다 지원해 주는 건 아니고 이제 면접을 통해서 선발을 해서 지원을 해주시긴 하는데 그것도 되게 금액이 그래도 생각보다 커서 되게 도움이 많이 됐어요. (청소년한부모C)

00재단의 금전적 지원이 엄청 커요. 매달 양육물품 30만 원씩 구매할 수 있고, 생계비도 20만원. 그리고 이제 학교 다니는 사람 검정고시 보는 사람, 직업 교육 받는 사람 이렇게 해서 그 지원을 신청을 하면은 대학 등록금도 지원해 주고, 성적도 한 학기마다 몇 이상 넘으면, 학기마다 200씩. (청소년한부모G)

저는 솔직히 생필품보다는 먹을 거랑 후원금 지원이 제일 좋았습니다. 00재단에서도 받고 있고, 그리고 집 주변에 이제 한부모 지원센터가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화장품, 옷, 먹을 거, 애기 기저귀, 분유, 이런 거 많이 챙겨주셨어요. 그리고 저번에 한 번 200만 원 후원금을 받았었는데 그게 너무 좋았어요. (청소년한부모E)

보건소에서 하는 영양 플러스나 찾아가는 그런 간호사 분이 오셔가지고 와가지고 아이 발달 상태나 저 몸 컨디션 회복 같은 거나 그런 육아 정보나 그런 거를 알려주셔가지고.. 되게 그 당시에는 아예 주변 가족도 아예 양육에 대해서 도움받을 사람이 없었는데 보건소에서 선생님 오셔가지고 그렇게 알려주시고, 이야기 들어주시고, 그런 부분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청소년한부모B)

자녀를 위한 지원(놀이치료, 발달지원 등), 가족의 여가활동을 위한 지원 중 도움이 된 지원도 있었다. 드림스타트 서비스, 언어발달 사업, 스포츠 바우처, 생리대 바우처, 문화누리카드 등이 언급되었다. 특히 청소년부모의 여가활동을 위한 도움 중 대기업에서 주도하는 문화동아리 활동 지원이 있었는데, 동아리 활동 시에 아이 돌봄을 지원해주어서 청소년부모가 마음 놓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한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시설에서 이제 놀이치료라든지 이제 상담 치료를 해줘요. 아기랑 같이. 그때 좀 도움을 되게 많이 얻는 편인 것 같아요. (청소년한부모A)

드림 스타트라고 그런 센터가 있는데 거기서 한 번씩 아기들.. 한의원에서 하는 그런 사업도 있고, 그런 언어 발달 사업 같은 것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가장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아요. 스포츠 바우처는 아기들 학원 같은 거 이용하고 있고, 그리고 여성 생리대 바우처 그것도 이용하고 있고, 그리고 문화누리카드 같은 것도 아이들 데리고 영화관이나 놀이동산 그런 관광할 수 있는 여가 활동 이용하고 있고, 그리고 여행할 수 있는 그런 산림복지바우처 그런 것도 이용하고 있어요. (청소년한부모B)

저희 타로 보는 것도 있고요. 심리 검사하는 것도 있고, 최근에는 요리 프로그램 했고 그냥 복지시설에서 할 만한 다양한 것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청소년한부모E)

00에서 동아리 활동할 때 아이 돌봄 한다고 했잖아요. 그거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는 삶 자체가 바뀌잖아요. 많이.. (중략) 엄마들도 사실 하고 싶은 활동들이 엄청 많은데 아이들 때문에 제약이 많으니까 그 모든 활동을 다 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00동아리는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문화 동아리 활동. (청소년한부모G)

지원센터를 통해 비슷한 상황에 있는 청소년부모를 만나고 자조모임을 가졌던 것이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도 있었다.

그냥 매주 목요일이나 한 달에 한 번씩은 이렇게 전체 모임이 있어가지고 만나고, 그렇게 시간을 좀 많이 보내고 학교 다니기 전에는 그냥 거의 매일 센터에 나갔었어요. 아무래도 또래 엄마들을 찾기가 어렵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또래 엄마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그냥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청소년한부모D)

이제 좀 큰 아기들은 서로 얘기를 하면 아빠가 없는 그런 얘기도 하고, “나도 괜찮아.” 그러면서.. 얘기도 하고, 그리고 엄마들도 그렇게 애들끼리 놀러 가면 애들 다 재우고 엄마들끼리 모여서 거기 담당관님께서 맥주랑 싸 깔아주시고, 너네 얘기해라 놀아라 맛있는 거 시켜주시고 아침, 점심, 저녁, 야식까지 챙겨주는 곳이에요. (청소년한부모G)

3) 지원받으면서 겪은 어려움

이처럼 청소년부모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여러 영역에 걸친 지원을 받고 있었는데, 제도가 있음에도 홍보가 안 되고 적극적으로 정보를 찾아야만 얻을 수 있는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었다.

기본적으로는 주변에서 이런 아이를 양육하는 방법이나 임신했을 때 병원비 같은 거 지원해주는 그런 정보나 아이 양육 물품이나 그런 부분에서, 그런 거를 이제 주민센터 가서도 잘 모르시더라고요. 제가 직접 찾아보지 않는 이상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제가 이제 인터넷으로 미혼모 지원이나 양육 물품 지원, 그런 거 후원물품 같은 거를 검색해서 직접 신청을 해서 센터에서 상담 오셔서 상담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연계를 해가지고 지원받게 된 거예요. (청소년한부모B)

홍보가 좀 잘 안 되고.. 아예 모르는 친구도 되게 많고.. 근데 이것도 되게 다 개인정보보호법이다 이래가지고 핸드폰 문자 발송도 못해가지고 조금 근데 그게 되게 조금 어려운 실정 이긴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다 미혼모라고 오픈을 안 하니까 어떻게 도와줄 방법도 없긴 한 것 같아요. (청소년한부모A)

아직도 주변에 엄마들 보면은 혼자 아이를 키우거나 한부모가 되거나 그런 미혼모 엄마들 보면은 아예 이런 지원이 있는지조차 모르는 엄마들이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주민센터에서도 가면은 이런 걸 모르니까. (청소년한부모B)

복지관에서 이런 미혼모나 한부모 같은 사업을 홍보를 할 방법을 잘 모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지역 내에서 홍보를 해도 신청하는 사람이 없고, 이런 거를 어디에 홍보를 해야 엄마들이 알고 신청을 할까.. 그런 걸 저희한테 여쭙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되게 조금 답답한 것 같아요. (청소년한부모B)

지원 절차와 조건이 까다로워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등 과정 중 어려움과 제도 이용의 한계가 있었다는 점이 여럿 보고되었다.

신청 방법도 조금 까다로워요. 되게 서류 절차도 복잡하고 또 이거를 어디 기관이랑 연계를 해서 신청을 해야 지원이 되고 또 아니면 센터에 또 찾아가서 상담을 받고 또 이걸 몇 차례에 걸쳐야 되고 아니면 또 집으로 오는 것도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이런 면담 같은 걸 계속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서 부담감을 느끼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청소년한부모B)

제가 생계급여를 늦게 받았거든요. 원래는 그냥 처음부터 아기 태어났을 때부터 받을 수 있었던 건데, 그걸 몰라서 못 받았거든요. 그래서 네 뭔가 그런 출생신고를 할 때 보통 주민센터에서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때 뭔가 정보가 많이 이렇게 됐으면 처음부터 생계급여도 받았을 것 같은데 그런 게 좀 아쉬워요. (청소년한부모C)

제가 아빠 쪽으로 들어가 있고, 남편은 남편 부모님 쪽으로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게 두 사람 두 가족을 합산해서 소득 측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산후조리원도 감면을 못 받았어요 (청소년부부B)

산후조리원도 제가 못 갔거든요. 비용도 되게 많이 들고 산후조리원 비용을 그때 제 당시에는 지원을 못 받았어요. 중복 지원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이런 지원 같은 거를 조금 폭을 넓혀주면 좋을 것 같다. (청소년한부모B)

지원을 받기 위한 과정에서 미성년자이기에 다소 어려움을 경험하는 부분도 발견되었다. 예를 들어, 기관에서 청소년부모에 대한 충분한 정보 부족으로 적절한 도움을 주지 못하거나, LH전세임대를 받기 위해서 세대 분리를 해야 하는 부분은 더욱 이들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나일로 따지면 청소년 부부이기 때문에 동사무소에 한번 가서 말씀을 드려봐라. 그러면 지원을 해줄 거라고 해서 동사무소를 갔는데 동사무소랑 구청에서는 너희가 어떻게 청소년 부부냐고 하면서 (지원이) 안 된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청소년부모B)

미성년자라는 게 좀 더 제한이 많았던 것 같아요. 미성년자라서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핸드폰도 막 혼자 개통을 못하고.. (아기)보호자인데 저도 보호자가 필요한 거죠. (청소년한부모H)

LN 전세임대라고 그런 사업이 있어서 신청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아이와 저랑 이제 둘만 나와서 살아야지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부모님 집에서 묶어 있으면 신청을 못하니까 나가서 살아야 신청 가능하다. 그래서 급하게 그냥 이제 원룸 구해서 나와가지고 신청을 하게 됐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청소년한부모B)

특히 안정된 주거를 찾을 때,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보증금을 마련할 수 없는데 자녀로 인하여 일을 할 수도 없어 적절한 주거공간을 찾는 것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음이 발견된 점은 정책 개발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살 수 있는 집 하고요, 약간 부모님의 동의가 많이 필요했죠. (청소년부부D)

전세 임대도 되게 집주인들이 절차도 까다롭고 잘 안 해 주시려고 하시더라고요. (중략) 엄마들이 조금이라도 희망을 갖고 전세임대를 신청하게 된 건데 집을 구하기가 진짜 하늘의 별따기다. 진짜로 그래도 되게 이제 시설이 낙후된 그런 주택 별레도 있고 곰팡이도 있고 정말 안 좋은 그런 집을 이제 보통 구하시더라고요. 저도 주택인데 그냥 3층에 옥탑방처럼 그런 집을 올려놔가지고 지은 그런 집에서 처음에 아이랑 살게 된 거예요. (청소년한부모B)

양육에 대한 막연함도 호소하였는데, 양육지식 및 기술에 대하여 오픈 상담이나 자세한 교육 혹은 맞춤형 지침을 원하는 것 등으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정보가 제일 부족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분유나 모유 수유의 장점이나 모유 수유하는 방법도 되게 뭔가 그 모유 수유할 때 뭔가 안 되는 그런 게 진짜 세부적인 뭐라 그래야 되지 뭔가 조그마한 그 문제 모유 수유할 때도 그런 게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물어볼 데가 없다 그래야 되나? 엄마한테도 물어보기도 좀 그렇고... (청소년한부모C)

배변 같은 거 알려주는 그런 것도 그렇고, 아기가 언어 발달이 조금 느린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말 가르치는 부분에서도 사실 옆에서 다른 아기가 말하는 걸 보고 따라 하면.. 또 같이 자라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게 있는데 이제 혼자서 뭘 하려고 하니깐 그게 좀 어렵더라고요. (청소년한부모F)

유의미한 보고 중 하나는 국가지원 서비스의 신청 절차가 오래 걸려 지원이 필요한 시기를 놓치거나, 개인차를 고려하지 않은 지원, 아이돌봄서비스와 같은 지원을 받기 위하여 아르바이트와 같은 경제적 활동에 제약을 받게 되는 경우였다.

약간 정부 돌봄 시스템이 좀 이상한 게, 한 번 이렇게 신청하면은 이제 다 될 때까지 기간이 좀 되게 오래 걸렸어요. 제가 이제 대학교 입학할 처음에 할 때, 돌봄이 필요해가지고 신청을 했는데 아기가 둘이라서 구하는 것도 어렵고, 저는 하루 종일 쓰는 것도 아니고, 한

두 세 시간만 쓰려고 하니까 그 시간을 하려는 사람도 없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구하는 데 한 네 달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거 쓸 바에 그냥 자부담금 들어서 하는 게 낫겠다 해서 민간 돌봄을 계속 썼었고, 민간 돌봄은 근데 또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차라리 정부 돌봄 그런 거에서 약간 내가 원하는 사람을 내가 그 사람을 집어서 그 사람한테 약간 바우처 카드처럼 형식의 돌봄비가 그렇게 나오면은 그걸로 그냥 제가 굶을 수 있게 하면은 편하겠다 싶었어요. (청소년한부모D)

사실 아이 돌봄은 딱히 도움이 안 되는 것 같고요. 그게 또 지역별로 선생님이 잘 안 구해진다거나 그런 문제들도 있더라고요. (청소년한부모C)

원래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 이제 정부 아이돌봄 지원이 960시간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주말 알바를 하다 보니까 그거를 한 달에 80시간인가 100시간 정도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쓰다 보면 나중에는 제 돈으로 다 내야 된대서 그래서 알바를 거의 반 강제로 그만뒀죠. 저는 계속 하고 싶었는데요. 정부에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차등적으로 조금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소득도 그렇고 이제 조금 조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 약간 이 사람이 대학생이고 소득이 없는데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어서 돌봄을 좀 써야 할 상황이다. 그러면 약간 100시간이라도 좀 더 주면 좋겠어요. (청소년한부모E)

시설 이용 시에 힘든 점도 존재하였는데 시설 규율을 지켜야하는 점, 집단생활에서 오는 어려움, 즉, 집단 내 관계의 문제로 이해된다.

시설이라는 것 자체가 되게 폐쇄돼 있거든요. 내가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하루에 한 번씩 방 청소 검사 말아야 되고, 그다음에 다른 친구들이랑 텃세 이런 것도 있으면.. 위계 질서가 좀 있는 시설이 있어가지고, 지원을 받는 게 시설마다 또 다르니까요. (청소년한부모A)

시설이 워낙에 그래도 아무리 자유로운 시설이라고 해도 제약이 좀 많아요. 통금이라던가 그런 외박 일수가 정해져 있고 그래가지고, 제가 어디 놀러 간다던가 만약에 한 달에 정해진 외박 일수가 5일이라고 치면, 그 5일을 넘겨서는 외박이 안 돼요. 그리고 사실 저 혼자서 몰라도, 아기와 같이 있는데 다른 아기와 아기 엄마랑 같이 산다는 것 자체가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워낙에 사람마다 성격도 다르고, 아기마다 성향들도 다르니까. (청소년한부모F)

나. 지원 요구

1) 지원 우선순위

청소년부모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을 우선순위대로 2가지 응답하도록 요청하였다. 1순위 결과를 먼저 살펴보면, ‘자녀 양육 지원’을 1순위로 선택한 경우가 38.9%로 가장 높았고, ‘임신·출산 지원’이 21.4%, ‘가족 주거 지원’이 19.3%, ‘부

모 취업 지원'이 16.1%로 뒤를 이었다. 1+2순위 합산 결과는 1순위 결과와 마찬가지로 '자녀 양육 지원'을 원하는 경우가 74.7%로 가장 높았다. 두 번째로 그 비율이 높았던 영역은 '가족 주거 지원'으로 53.0%가 해당하였다. 뒤이어 '부모 취업 지원'이 28.4%로 높게 보고되어 1+2순위 결과와 1순위 결과가 다소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장 필요한 지원 1순위 결과를 독립변인 별로 살펴본 결과, 남성 응답자는 가장 필요한 지원으로 '임신·출산 지원(43.9%)'을 가장 많이 선택한 반면, 여성 응답자는 '자녀 양육 지원(41.0%)'을 가장 필요로 하였다. 청소년부부와 청소년한부모의 지원 요구에서도 차이를 보였는데, 청소년부부는 '임신·출산 지원(32.5%)'을, 청소년한부모는 '자녀 양육 지원(51.2%)'을 가장 우선으로 선택하였다. 월평균 가구소득별로도 유사한 차이가 발견되었는데, 소득 300만원 미만의 가구에서는 '자녀 양육 지원'을 우선시하였지만, 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에서는 '임신·출산 지원'을 더 필요로 하였다.

'가족 주거 지원'은 청소년부부, 부모가 모두 24세 이하인 가구, 첫째 자녀 출산 시 부모 중 한 명만 미성년인 가구, 경제활동을 안 하는 가구, 월평균 가구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가구에서 필요를 더 높게 보고하는 경향을 보였다.

'부모 취업 지원' 요구가 높았던 집단은 청소년한부모, 첫째 자녀 출산 시 부모가 모두 미성년인 가구, 어머니가 미성년인 가구, 영아 양육 가구, 가구소득이 100만원 미만인 가구로 나타났다.

〈표 III-3-7〉 가장 필요한 지원

단위: %(명)

구분	임신·출산 지원	부모 학업 지원	부모 취업 지원	자녀 양육 지원	가족 주거 지원	부모 양육역량 강화 지원	계(수)
1순위 전체	21.4	2.1	16.1	38.9	19.3	2.1	100.0 (285)
응답자 성별							
남자	43.9	0.0	14.6	26.8	12.2	2.4	100.0 (41)
여자	17.6	2.5	16.4	41.0	20.5	2.0	100.0 (244)
$\chi^2(df)$			15.485(5)**(b)				
배우자/파트너 유무							
배우자/파트너 있음	32.5	2.5	13.8	29.4	20.6	1.3	100.0 (160)
배우자/파트너 없음	7.2	1.6	19.2	51.2	17.6	3.2	100.0 (125)
$\chi^2(df)$			32.731(5)*** (b)				

구분	임신·출산 지원	부모 학업 지원	부모 취업 지원	자녀 양육 지원	가족 주거 지원	부모 양육역량 강화 지원	계(수)
가족 형태							
부모 모두 24세 이하	30.6	0.0	12.0	31.5	25.0	0.9	100.0 (108)
부모 중 한 명만 24세 이하	36.5	7.7	17.3	25.0	11.5	1.9	100.0 (52)
한부모	7.2	1.6	19.2	51.2	17.6	3.2	100.0 (125)
$\chi^2(df)$			47.628(10)*** (b)				
첫째 자녀 연령							
0세~2세	24.6	2.5	17.7	36.0	18.7	0.5	100.0 (203)
3세 이상	13.4	1.2	12.2	46.3	20.7	6.1	100.0 (82)
$\chi^2(df)$			15.426(5)** (b)				
첫째 자녀 출생 시 부모 연령							
부모 모두 19세 미만	12.8	0.0	20.5	48.7	12.8	5.1	100.0 (39)
부모 중 한 명만 19세 미만	4.8	1.6	14.3	50.8	27.0	1.6	100.0 (63)
부모 모두 19세 이상	29.0	2.7	15.8	32.8	18.0	1.6	100.0 (183)
$\chi^2(df)$			26.127(10)** (b)				
첫째 자녀 출산 시 모 연령							
19세 미만	8.3	1.0	16.7	49.0	22.9	2.1	100.0 (96)
19세 이상	28.0	2.6	15.9	33.9	17.5	2.1	100.0 (189)
$\chi^2(df)$			17.064(5)** (b)				
가구 경제활동 여부							
경제활동 함	28.1	1.7	15.2	34.8	18.5	1.7	100.0 (178)
경제활동 안함	10.3	2.8	17.8	45.8	20.6	2.8	100.0 (107)
$\chi^2(df)$			13.178(5)* (b)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7.7	1.7	18.8	47.0	22.2	2.6	100.0 (117)
1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26.6	0.9	15.6	36.7	18.3	1.8	100.0 (109)
300만원 이상	40.0	6.0	12.0	26.0	16.0	0.0	100.0 (50)
모름/무응답	33.3	0.0	11.1	33.3	11.1	11.1	100.0 (9)
$\chi^2(df)$			36.305(15)** (b)				
1+2순위	25.6	7.4	28.4	74.7	53.0	10.9	(285)

주: (b)=기대빈도가 5보다 작은 셀이 20% 이상인 경우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청소년부모 양육실태 및 정책지원 요구 조사」의 결과임.

* $p < .05$, ** $p < .01$, *** $p < .001$.

2) 영역별 지원 요구

청소년부모가 가장 필요로 하는 임신·출산 관련 지원 내용을 조사한 결과, ‘병원비 지원 확대(29.1%)’와 ‘출산 후 산후조리 관련 지원 확대(26.7%)’를 우선으로 희망하였다. 병원비 지원 확대는 남성(36.6%), 청소년한부모(31.2%), 현재 미성년인 응답자(50.0%)가 가장 원하는 지원으로 나타났다. 반면 산후조리원 지원 확대는

여성(28.3%), 청소년부부(30.6%), 현재 미성년인 응답자(38.5%)가 상대적으로 더 희망하는 지원으로 보고되었다.

〈표 III-3-8〉 임신·출산 관련 지원 중 가장 필요한 지원

단위: %(명)

구분	출산· 육아 교육 프로그램 확대	임신 중 건강 지원 강화	출산 후 산후조리 관련 지원 확대	산후 우울 관리 등 심리적 지원 강화	신생아 돌봄 지원 확대	병원비 지원 확대	기타	계(수)
전체	10.5	3.2	26.7	14.4	13.7	29.1	2.5	100.0 (285)
응답자 성별								
남자	19.5	7.3	17.1	4.9	14.6	36.6	0.0	100.0 (41)
여자	9.0	2.5	28.3	16.0	13.5	27.9	2.9	100.0 (244)
$\chi^2(df)$	13.083(6)*(b)							
배우자/파트너 유무								
배우자/파트너 있음	10.0	3.8	30.6	11.9	16.3	27.5	0.0	100.0 (160)
배우자/파트너 없음	11.2	2.4	21.6	17.6	10.4	31.2	5.6	100.0 (125)
$\chi^2(df)$	15.288(6)*(b)							
응답자 연령								
19세 미만	0.0	0.0	38.5	7.7	3.8	50.0	0.0	100.0 (26)
19세 이상	11.6	3.5	25.5	15.1	14.7	27.0	2.7	100.0 (259)
$\chi^2(df)$	13.307(6)*(b)							
가족 형태								
부모 모두 24세 이하	11.1	4.6	26.9	12.0	16.7	28.7	0.0	100.0 (108)
부모 중 한 명만 24세 이하	7.7	1.9	38.5	11.5	15.4	25.0	0.0	100.0 (52)
한부모	11.2	2.4	21.6	17.6	10.4	31.2	5.6	100.0 (125)
$\chi^2(df)$	18.480(12)(b)							

주: (b)=기대빈도가 5보다 작은 셀이 20% 이상인 경우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청소년부모 양육실태 및 정책지원 요구 조사」의 결과임.

* $p < .05$.

청소년부모가 가장 필요로 하는 학업 관련 지원 내용을 조사한 결과, ‘등록금 등 학업 비용 지원’이 41.1%로 가장 높았고, 뒤이어 ‘학업 중 자녀 돌봄 서비스 지원’ 27.4%, ‘임신 및 자녀 양육 중에도 계속해서 학교에 다닐 수 있는 지원’이 20.4%로 나타났다. 학업 지원의 경우 현재 부모의 나이, 첫째 자녀 출산 시 부모의 나이와 유의미하게 관련되어 있었다. 응답자가 현재 미성년인 경우(61.5%), 첫째 자녀 출산 시에 부모 모두 미성년이었던 경우(56.4%) ‘등록금 등 학업 비용 지원’에 대한 요구가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을 보였다. ‘학업 중 자녀 돌봄 서비스 지원’은 응

답자가 현재 성인인 경우(29.3%), 첫째 자녀 출생 시 부모가 모두 성인인 경우(33.9%)에 상대적으로 요구도가 높았다.

〈표 III-3-9〉 부모 학업 관련 지원 중 가장 필요한 지원

단위: %(명)

구분	임신 및 자녀 양육 중에도 계속해서 학교에 다닐 수 있는 지원	학습 프로그램 지원	학업을 지원해 주는 멘토 제공	학업 중 자녀 돌봄 서비스 지원	등록금 등 학업 비용 지원	기타	계(수)
전체	20.4	4.2	6.0	27.4	41.1	1.1	100.0 (285)
배우자/파트너 유무							
배우자/파트너 있음	20.6	5.6	6.9	26.9	38.1	1.9	100.0 (160)
배우자/파트너 없음	20.0	2.4	4.8	28.0	44.8	0.0	100.0 (125)
$\chi^2(df)$			5.391(5)(b)				
응답자 연령							
19세 미만	15.4	0.0	7.7	7.7	61.5	7.7	100.0 (26)
19세 이상	20.8	4.6	5.8	29.3	39.0	0.4	100.0 (259)
$\chi^2(df)$			20.649(5)**(b)				
가족 형태							
부모 모두 24세 이하	18.5	6.5	7.4	25.9	38.9	2.8	100.0 (108)
부모 중 한 명만 24세 이하	25.0	3.8	5.8	28.8	36.5	0.0	100.0 (52)
한부모	20.0	2.4	4.8	28.0	44.8	0.0	100.0 (125)
$\chi^2(df)$			9.582(10)(b)				
첫째 자녀 출생 시 부모 연령							
부모 모두 19세 미만	17.9	5.1	7.7	7.7	56.4	5.1	100.0 (39)
부모 중 한 명만 19세 미만	20.6	0.0	4.8	20.6	52.4	1.6	100.0 (63)
부모 모두 19세 이상	20.8	5.5	6.0	33.9	33.9	0.0	100.0 (183)
$\chi^2(df)$			28.042(10)**(b)				
첫째 자녀 출산 시 모 연령							
19세 미만	20.8	2.1	6.3	14.6	53.1	3.1	100.0 (96)
19세 이상	20.1	5.3	5.8	33.9	34.9	0.0	100.0 (189)
$\chi^2(df)$			21.283(5)**(b)				

주: (b)=기대빈도가 5보다 작은 셀이 20% 이상인 경우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청소년부모 양육실태 및 정책지원 요구 조사」의 결과임.

** $p < .01$.

청소년부모가 가장 필요로 하는 취업 관련 지원 내용을 조사한 결과, ‘안정적인 일자리 보장 지원’을 원하는 경우가 42.1%로 가장 많았고, ‘취업 및 근무 중 자녀 돌봄 서비스 지원’ 요구가 30.2%로 보고되었다. 응답자가 성인인 경우 특히 취업 및 근무 중 자녀돌봄 서비스를 원하는 비율이 31.7%로 높았고, 응답자가 현재 미

성년인 경우 상대적으로 ‘취업에 필요한 기술 교육과 자격증 지원(26.9%)’과 ‘취업 관련 상담 서비스 지원(11.5%)’을 원하는 경우가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Ⅲ-3-10〉 부모 취업 관련 지원 중 가장 필요한 지원

단위: %(명)

구분	취업 관련 상담 서비스 지원	취업에 필요한 기술 교육과 자격증 지원	안정적인 일자리 보장 지원	취업 및 근무 중 자녀 돌봄 서비스 지원	기타	계(수)
전체	8.1	19.3	42.1	30.2	0.4	100.0 (285)
배우자/파트너 유무						
배우자/파트너 있음	8.8	20.6	41.3	28.8	0.6	100.0 (160)
배우자/파트너 없음	7.2	17.6	43.2	32.0	0.0	100.0 (125)
$\chi^2(df)$			1.632(4)(b)			
응답자 연령						
19세 미만	11.5	26.9	42.3	15.4	3.8	100.0 (26)
19세 이상	7.7	18.5	42.1	31.7	0.0	100.0 (259)
$\chi^2(df)$			13.324(4)*(b)			
가족 형태						
부모 모두 24세 이하	11.1	17.6	47.2	23.1	0.9	100.0 (108)
부모 중 한 명만 24세 이하	3.8	26.9	28.8	40.4	0.0	100.0 (52)
한부모	7.2	17.6	43.2	32.0	0.0	100.0 (125)
$\chi^2(df)$			12.639(8)(b)			

주: (b)=기대빈도가 5보다 작은 셀이 20% 이상인 경우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청소년부모 양육실태 및 정책지원 요구 조사」의 결과임.

* $p < .05$.

청소년부모가 가장 필요로 하는 자녀 양육 관련 지원 내용을 조사한 결과, ‘양육 비용 지원’을 원하는 경우가 56.5%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뒤이어 ‘가정 방문형 자녀 돌봄 서비스 지원’이 15.4%, ‘어린이집/유치원 등 기관 우선 이용권 지원’이 14.4% 선으로 보고되었다. 양육비용 지원을 상대적으로 더 희망하는 집단은 청소년한부모(63.2%), 현재 미성년인 응답자(84.6%), 첫째 자녀 출산 시 어머니가 미성년인 가구(71.9%)로 나타났다. 가정 방문형 자녀 돌봄 서비스를 상대적으로 더 원하는 집단은 청소년한부모(18.4%), 현재 19세 이상인 응답자(16.6%), 첫째 자녀 출생 시 부모 모두 미성년인 가구(20.5%), 첫째 자녀 출산 시 어머니가 19세 이상인 가구(16.9%), 월평균 정부지원금이 40만원 미만인 가구(18.9%)로 정리된다. 어린이집/유치원 등 기관 우선 이용권을 상대적으로 더 원하는 집단은 청소년부부

(18.8%), 현재 성인인 응답자(15.4%), 부모 중 한 명만 24세 이하인 가구(23.1%), 첫째 자녀 출생 시 부모가 모두 성인인 가구(18.0%), 첫째 자녀 출산 시 어머니가 19세 이상인 가구(17.5%), 월평균 정부지원금이 40만원 미만인 가구(21.6%)였다.

〈표 III-3-11〉 자녀 양육 관련 지원 중 가장 필요한 지원

단위: %(명)

구분	자녀 양육에 관한 믿을만한 자료 제공	맞춤형 사례관리, 1:1 양육코칭 기회 제공	어린이집/ 유치원 등 기관 우선 이용권 지원	가정 방문형 자녀 돌봄 서비스 지원	양육 비용 지원	기타	계(수)
전체	7.4	6.0	14.4	15.4	56.5	0.4	100.0 (285)
배우자/파트너 유무							
배우자/파트너 있음	10.0	6.3	18.8	13.1	51.3	0.6	100.0 (160)
배우자/파트너 없음	4.0	5.6	8.8	18.4	63.2	0.0	100.0 (125)
$\chi^2(df)$			12.128(5)*(b)				
응답자 연령							
19세 미만	3.8	0.0	3.8	3.8	84.6	3.8	100.0 (26)
19세 이상	7.7	6.6	15.4	16.6	53.7	0.0	100.0 (259)
$\chi^2(df)$			20.855(5)**(b)				
가족 형태							
부모 모두 24세 이하	13.0	3.7	16.7	13.9	51.9	0.9	100.0 (108)
부모 중 한 명만 24세 이하	3.8	11.5	23.1	11.5	50.0	0.0	100.0 (52)
한부모	4.0	5.6	8.8	18.4	63.2	0.0	100.0 (125)
$\chi^2(df)$			21.706(10)*(b)				
첫째 자녀 출생 시 부모 연령							
부모 모두 19세 미만	0.0	5.1	5.1	20.5	69.2	0.0	100.0 (39)
부모 중 한 명만 19세 미만	4.8	1.6	9.5	11.1	71.4	1.6	100.0 (63)
부모 모두 19세 이상	9.8	7.7	18.0	15.8	48.6	0.0	100.0 (183)
$\chi^2(df)$			23.526(10)**(b)				
첫째 자녀 출산 시 모 연령							
19세 미만	3.1	3.1	8.3	12.5	71.9	1.0	100.0 (96)
19세 이상	9.5	7.4	17.5	16.9	48.7	0.0	100.0 (189)
$\chi^2(df)$			18.024(5)**(b)				
월평균 수혜 정부지원금액							
40만원 미만	4.1	8.1	21.6	18.9	47.3	0.0	100.0 (74)
40만원 이상~80만원 미만	16.4	1.5	17.9	13.4	50.7	0.0	100.0 (67)
80만원 이상	4.9	6.9	9.0	14.6	63.9	0.7	100.0 (144)
$\chi^2(df)$			23.668(10)**(b)				

주: (b)=기대빈도가 5보다 작은 셀이 20% 이상인 경우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청소년부모 양육실태 및 정책지원 요구 조사」의 결과임.

* $p < .05$, ** $p < .01$.

청소년부모가 가장 필요로 하는 가족 주거 관련 지원 내용을 조사한 결과, ‘주거비 지원 확대’를 희망하는 경우가 49.1%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청소년부모가 이용할 수 있는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희망하는 경우가 36.5%로 나타났다. 주거 관련 지원의 경우 첫째 자녀 출산 시 어머니의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구체적으로 첫째 자녀 출산 시 어머니가 미성년이었던 가구에서 주거비 지원 확대를 원하는 경우가 60.4%로 압도적으로 높았고, 첫째 자녀 출산 시 어머니가 성인이었던 가구(40.2%)에서 청소년부모 대상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희망하는 비율이 미성년이었던 가구(29.2%)에 비해 높았다.

〈표 III-3-12〉 가족 주거 관련 지원 중 가장 필요한 지원

단위: %(명)

구분	주거 관련 1:1 상담 서비스 지원	청소년부모지원 시설(복지시설)/ 임시 거주지 확대	청소년부모가 이용할 수 있는 임대주택 공급 확대	주거비 지원 확대	계(수)
전체	6.3	8.1	36.5	49.1	100.0 (285)
배우자/파트너 유무					
배우자/파트너 있음	6.3	8.1	38.8	46.9	100.0 (160)
배우자/파트너 없음	6.4	8.0	33.6	52.0	100.0 (125)
$\chi^2(df)$		0.889(3)			
가족 형태					
부모 모두 24세 이하	4.6	10.2	42.6	42.6	100.0 (108)
부모 중 한 명만 24세 이하	9.6	3.8	30.8	55.8	100.0 (52)
한부모	6.4	8.0	33.6	52.0	100.0 (125)
$\chi^2(df)$		6.604(6)(b)			
첫째 자녀 출산 시 모 연령					
19세 미만	3.1	7.3	29.2	60.4	100.0 (96)
19세 이상	7.9	8.5	40.2	43.4	100.0 (189)
$\chi^2(df)$		8.329(3)*			

주: (b)=기대빈도가 5보다 작은 셀이 20% 이상인 경우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청소년부모 양육실태 및 정책지원 요구 조사」의 결과임.

* $p < .05$.

청소년부모가 가장 필요로 하는 부모 양육역량 관련 지원 내용을 조사한 결과, ‘다양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가 27.0%, ‘청소년 부모의 심리적 지원 강화’를 원하는 경우가 22.5%, ‘온라인으로 자녀 양육 관련 정보 제공’을 원하는 비율이 19.3%로 나타났다. 부모 양육역량 관련 지원에 대한 의견은 응답자 연령과 첫째 자녀 출산 시 어머니 연령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현재 미성

년인 청소년부모는 ‘청소년부모 자조모임 확대(34.6%)’, ‘온라인 자녀 양육 관련 정보 제공(26.9%)’, ‘다양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지원(23.1%)’순으로 선택하여 우선순위가 전체와 다른 양상을 보였다. 첫 자녀 출생 시 어머니가 미성년인 가구에서는 ‘청소년부모의 심리적 지원 강화(22.9%)’를 선택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청소년부모 자조모임 확대’와 ‘다양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지원’을 21.9%로 똑같이 보고하였다는 점에 차이를 보였다. 이는 청소년부모가 일찍이 부모가 될수록 자신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 자조모임을 통해 심리적 지원을 받고자 하는 요구가 상대적으로 강하다는 점을 지지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부모 양육역량 강화 지원 요구에서 미성년 부모와 성인인 부모 간 뚜렷한 차이를 보인 결과를 근거로 추후 청소년부모 양육역량 강화 관련 지원은 청소년부모의 연령에 따라 차별화된 지원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표 III-3-13〉 부모 양육역량 강화 관련 지원 중 가장 필요한 지원

단위: %(명)

구분	온라인으로 자녀 양육 관련 정보제공	다양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지원	양육역량 검사 및 1:1 양육 상담 지원	청소년 부모의 심리적 지원 강화	청소년 부모 자조모임 확대	기타	계(수)
전체	19.3	27.0	17.2	22.5	13.0	1.1	100.0 (285)
배우자/파트너 유무							
배우자/파트너 있음	20.6	25.6	17.5	21.9	13.1	1.3	100.0 (160)
배우자/파트너 없음	17.6	28.8	16.8	23.2	12.8	0.8	100.0 (125)
$\chi^2(df)$			0.810(5)(b)				
응답자 연령							
19세 미만	26.9	23.1	3.8	11.5	34.6	0.0	100.0 (26)
19세 이상	18.5	27.4	18.5	23.6	10.8	1.2	100.0 (259)
$\chi^2(df)$			16.124(5)**(b)				
가족 형태							
부모 모두 24세 이하	23.1	25.9	16.7	18.5	13.9	1.9	100.0 (108)
부모 중 한 명만 24세 이하	15.4	25.0	19.2	28.8	11.5	0.0	100.0 (52)
한부모	17.6	28.8	16.8	23.2	12.8	0.8	100.0 (125)
$\chi^2(df)$			5.012(10)(b)				
첫째 자녀 출생 시 모 연령							
19세 미만	17.7	21.9	15.6	22.9	21.9	0.0	100.0 (96)
19세 이상	20.1	29.6	18.0	22.2	8.5	1.6	100.0 (189)
$\chi^2(df)$			12.169(5)*(b)				

주: (b)=기대빈도가 5보다 작은 셀이 20% 이상인 경우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청소년부모 양육실태 및 정책지원 요구 조사」의 결과임.

* $p < .05$, ** $p < .01$.

청소년부모가 자립하여 자녀를 잘 돌보기 위해서 ‘자녀를 부모가 직접 돌볼 수 있도록 돕는 지원’과 ‘부모 대신 자녀를 맡아주는 자녀 돌봄 서비스 지원’ 중 어떠한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인식하는지 조사하였다. 그 결과 대체로 자녀를 부모가 직접 돌볼 수 있도록 돕는 지원으로 부모들이 조금 더 기울어져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응답자 연령에 따라 강도가 다소 달리 나타났는데, 현재 미성년 청소년부모의 경우 ‘자녀를 부모가 직접 돌볼 수 있도록 돕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더 강하게 생각하는 반면, 현재 성인인 청소년부모는 미성년 청소년부모에 비해 그 강도가 약한 양상을 보였다. 월평균 40만원 미만의 정부지원금 혜택을 받는 가구에서는 다른 집단과는 다르게 ‘자녀를 부모가 직접 돌볼 수 있도록 돕는 지원’과 ‘부모 대신 자녀를 맡아주는 자녀 돌봄 서비스 지원’에 대한 요구가 팽팽하게 맞서는 경향을 보였고, 다른 집단에 비해 ‘부모 대신 자녀를 맡아주는 자녀 돌봄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은 편이었다.

〈표 III-3-14〉 청소년부모가 자립하여 자녀를 잘 양육하기 위한 지원 필요 정도

단위: %(명), 점

구분	자녀를 부모가 직접 돌볼 수 있도록 돕는 지원				부모 대신 자녀를 맡아주는 자녀 돌봄 서비스 지원				계(수)	평균
	1	2	3	4	5	6	7			
전체	38.6	13.3	10.5	5.6	7.4	11.9	12.6	100.0 (285)	3.2	
배우자/파트너 유무										
배우자/파트너 있음	40.0	13.1	10.0	3.8	6.9	11.3	15.0	100.0 (160)	3.2	
배우자/파트너 없음	36.8	13.6	11.2	8.0	8.0	12.8	9.6	100.0 (125)	3.1	
$\chi^2(df) / t$				4.434(6)					0.2	
응답자 연령										
19세 미만	53.8	15.4	3.8	11.5	3.8	7.7	3.8	100.0 (26)	2.4	
19세 이상	37.1	13.1	11.2	5.0	7.7	12.4	13.5	100.0 (259)	3.2	
$\chi^2(df) / t$				7.476(6)(b)					-2.3*	
가족 형태										
부모 모두 24세 이하	35.2	13.9	12.0	3.7	10.2	13.9	11.1	100.0 (108)	3.3	
부모 중 한 명만 24세 이하	50.0	11.5	5.8	3.8	0.0	5.8	23.1	100.0 (52)	3.0	
한부모	36.8	13.6	11.2	8.0	8.0	12.8	9.6	100.0 (125)	3.1	
$\chi^2(df) / F$				18.746(12)(b)					0.2	
월평균 수혜 정부지원금액										
40만원 미만	41.9	5.4	6.8	4.1	5.4	16.2	20.3	100.0 (74)	3.6	
40만원 이상~80만원 미만	28.4	17.9	22.4	6.0	11.9	4.5	9.0	100.0 (67)	3.0	
80만원 이상	41.7	15.3	6.9	6.3	6.3	13.2	10.4	100.0 (144)	3.0	
$\chi^2(df) / F$				31.156(12)**(b)					1.3(a)	

주: 1) (a)=등분산 가정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2) (b)=기대빈도가 5보다 작은 셀이 20% 이상인 경우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청소년부모 양육실태 및 정책지원 요구 조사」의 결과임.

* $p < .05$, ** $p < .01$.

3) 희망하는 지원 내용

심층면담에서 희망하는 지원에 대한 답변은 상대적으로 다양하였다. 앞서 설문 조사 결과에서도 일관되게 보고되었는데 비용 관련 지원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은 경향을 보였다.

솔직히 가장 필요한 건 솔직히 돈이죠. 경제적인 게 가장 필요하죠.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게 돈이죠. (청소년부부A)

현실적으로 경제적인 지원이 제일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임신을) 늦게 알게 된 편인데, 100만원 다 쓰고 되게 부족하다 보니까, 임신했을 때는 제가 일을 못하니까 부모님한테 빌려야 하는 입장이라서 그런 부분에서 좀 미안함이 있었어요. (청소년부부B)

돈을 좀 지원 받았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아기 용품 사는 데도 돈이 많이 나갔고, 산후조리원 이런 거에도 돈을 많이 쓰잖아요. 그런 지원이 아무것도 없어서. (청소년부부G)

기저귀 바꾸처도 받았었는데 그게 이제 좀... 24개월인가에 끊겨요. 그래서 그런 게 기간이 조금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청소년한부모F)

한부모 중에서는 수급이 제공되는 기준이 부모 기준 24세가 아닌 아이 연령 기준으로 제공되면 좋겠다는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지금 저는 한부모 양육비 말고도 청소년 한부모 양육비를 받고 있는데, 근데 그게 부모 나이가 아니라 아기 나이였으면 차라리 좋겠어요. 왜냐하면 조금 아기는 어린데, 제가 나이가 많고 직장생활을 할 수 없는 상황이면, 아기를 받을 사람 저처럼 아기를 받을 사람이 없고 이런 상황이면 사실상 그 금액으로 너무 힘들거든요. 수급을 받고 있다고 해도 사실 수급 책정 비용이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어서 알바도 이제 파트로밖에 못하고요. 탈수급을 하면은 좋겠지만, 사실 혼자서 키우는 상황에서 탈수급을 할 정도로 별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청소년한부모F)

부모의 학업, 휴식을 위한 자녀 돌봄 서비스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다. 특히 자립할 수 있는 방향으로 청소년부모를 지원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들이 학업에 집중하고 건강하게 자기를 돌볼 수 있도록 자녀를 돌보아주는 지원이 더 확충되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대학 다니는 엄마 아빠들을 위해서 살짝 시험 기간 때 조금 뭔가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아기가 늦게 자는 편이라 더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아기가 10시, 11시에 늦으면

진짜 12시 넘어서 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험 기간에 공부하기가 힘들어서 아기 재우고 나면 제가 진이 다 빠지는 거예요. 저도 너무 피곤하고 제가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은 한 새벽 3시, 4시까지가 저의 체력인데, 아기가 12시에 자면 한 3시간, 4시간 되면은 너무 또 힘들고 하다 보니까 돌봄을 쓰고 싶은데, 또 그런 이유로 돌봄을 쓰면 약간 눈치가 보이기도 하고 (시간이 늦으니) 시급이 두 배더라고요. (청소년한부모E)

검정고시 지원 자체는 많은데, 그 시간 동안 아기를 봐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기 돌봄과 같이 하는 검정고시 지원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청소년한부모G)

아기를 낳고 나면 되게 엄마들이 이 때까지 쉴 새 없이 달려오고 그러니까 우울감 그런 게 있어가지고 아기를 잠시라도 봐주시는 분이나 봐주는 동안 엄마가 혼자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하거나 간단히 밖에 나가서 친구를 만나거나 개인적인 멘토 선생님 같은 거? (청소년한부모D)

자조 모임 한다고 해도 정부에서 이런 자조 모임이 있어요. 신청해서 오세요. 하는데 당장 그 시간에 애 봐줄 사람이 없는데 내가 거길 어떻게 가요. 약간 이런 게 많으니까 아이들이랑 같이 할 수 있는 콘텐츠나 아니면 같이 안 하더라도 아이들을 따로 봐주는 그런 자조 모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청소년부모G)

양육역량 강화와 관련하여서 아이 맞춤 정보를 제공받고 싶다는 의견, 부모 상담 지원 강화, 자조 모임 강화(아이와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제공), 가족 관계 회복을 위한 네트워크 형성이 강화되면 좋겠다는 의견이 수집되었다.

검색을 하면 정보가 너무 많은 시대잖아요. 이미 정보가 많아요. 근데 우리 아이한테 잘 맞는 정보를 찾기는 좀 힘들단 말이지. 좀 더 디테일.. 이런 아이한테 이렇게 해주세요. 이런 게 있으면 좋겠어요. 기준같은 거... (청소년한부모F)

심리 상담 지원도 필요해요. 아이를 낳아서 우울한 것도 있는데 그런 것도 있는데 그것보다 자기 주변 친구들과 비교되는 게 있잖아요. 개네들은 학교를 가는데, 개네들은 친구랑 노래방을 가는데 개네들은 저기서 저렇게 학교 다니고 애들이랑 왔다 갔다 하고, 저녁 시간에 돌아다니고 하는데, 나만 여기서 이려고 있다. 이 생각이 드는 순간 그게 진짜 우울감에 빠지기 되게 쉬운 지름길이거든요. (청소년한부모G)

청소년 자조 모임을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고, 자조 모임을 만들 거면 아이들을 좀 생각해줬으면 좋겠고, (중략) 아이들이랑 같이 할 수 있는 콘텐츠나 아니면 같이 안 하더라도 아이들을 따로 봐주는 그런 자조 모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엄마들이 진짜 그 잠깐의 시간에 아이를 다른 사람이 봐주는 짧은 시간이 엄청난 플러스가 돼요. 힘을 얻고 여기서 애기한테 가서 더 잘해줄 수 있고요. (청소년한부모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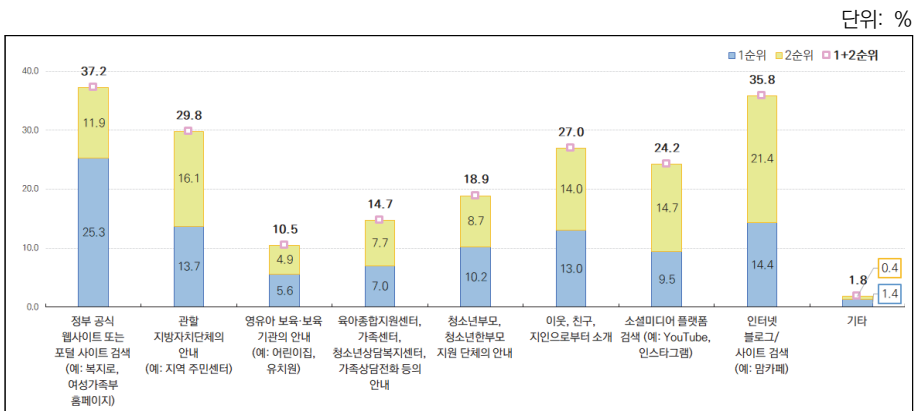
가족과의 관계? 그런 거.. 청소년은 아직 미성년자잖아요. 아직 한창 주위에 도움이 더 있어

야 할 시기인데 막 그런 뉴스에서 나오는 영아 유기 사건이나 그런 극단적인 게 나오는 게 진짜 주변에 의지할 데가 없어서 그렇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지지만, 지원망이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트워크.. 잘 형성되어 있으면 부모랑 같이 안 있더라도 선생님들이라도 당장 내가 위급할 때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다. 그것만 있어도 진짜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까지 안 하지 않을까요. (청소년한부모G)

다. 지원 사업 정보 습득 방법

청소년(한)부모 지원 사업에 대해 정보를 얻은 경로를 질문한 결과, 1순위로 정부 공식 웹사이트 또는 포털사이트 검색(예: 복지포,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을 통해 정보를 얻은 경우가 25.3%로 가장 많았다. 인터넷 블로그/사이트 검색(예: 맘카페)을 이용한 경우가 14.4%,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안내(예: 지역 주민센터)를 받은 경우가 13.7%, 이웃, 친구,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경우가 13.0%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III-3-1] 청소년(한)부모 지원 사업에 대한 정보 습득 방법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청소년부모 양육실태 및 정책지원 요구 조사」의 결과임.

라. 청소년부모 지원센터/서비스 인지도 및 이용 경험

청소년부모를 지원하거나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다양한 센터와 서비스에 대한 인지도와 이용 경험을 조사하였다. 가장 인지도와 이용률이 높은 서비스는 ‘아이돌봄서비스’로 나타났다. 전체 청소년부모의 79.6%가 아이돌봄서비스를 알고 있었고, 31.2%가 이용 경험이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서비스 인지도가 가장 낮은 곳은 ‘가족센터(39.6%)’이었는데, 이용률은 18.9%로 다른 센터에 비해 높은 편이었

다. 이용률이 가장 낮은 곳은 ‘보건복지상담센터’로 12.6%로 보고되었는데, ‘보건복지상담센터’의 인지도가 48.8%로 과반수준이어서 인지도보다 이용률이 많이 떨어지는 양상을 보였다. 센터 중에서 인지도(55.1%)와 이용률(22.5%)이 가장 높은 곳은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나타났다.

〈표 III-3-15〉 청소년부모 지원센터/서비스 인지도 및 이용 경험(종합)

단위: %(명)

구분	인지도			이용경험		
	알고 있음	모름	계(수)	있음	없음	계(수)
1. 가족센터	39.6	60.4	100.0 (285)	18.9	81.1	100.0 (285)
2. 청소년상담복지센터	53.3	46.7	100.0 (285)	14.0	86.0	100.0 (285)
3. 보건복지상담센터	48.8	51.2	100.0 (285)	12.6	87.4	100.0 (285)
4. 위(Wee)센터	48.1	51.9	100.0 (285)	15.8	84.2	100.0 (285)
5. 육아종합지원센터	55.1	44.9	100.0 (285)	22.5	77.5	100.0 (285)
6. 아이돌봄서비스	79.6	20.4	100.0 (285)	31.2	68.8	100.0 (285)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청소년부모 양육실태 및 정책지원 요구 조사」의 결과임.

독립변인에 따른 각 지원센터/서비스의 인지도와 이용 경험 비율을 차이 검증을 통해 살펴보았다. 이 중 유의미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족센터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집단은 청소년한부모(24.0%)이며, 청소년부부 중에서는 부모 모두 24세 이하인 가구의 이용률이 20.4%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또한 3세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월평균 40만원에서 80만원 사이의 정부지원금 혜택을 받는 가구에서 28.0%, 28.4%로 가족센터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보고되었다.

〈표 III-3-16〉 청소년부모 지원센터/서비스 인지도 및 이용 경험: 가족센터

단위: %(명)

구분	가족센터 인지도			가족센터 이용경험		
	알고 있음	모름	계(수)	있음	없음	계(수)
전체	39.6	60.4	100.0 (285)	18.9	81.1	100.0 (285)
배우자/파트너 유무						
배우자/파트너 있음	36.3	63.8	100.0 (160)	15.0	85.0	100.0 (160)
배우자/파트너 없음	44.0	56.0	100.0 (125)	24.0	76.0	100.0 (125)
$\chi^2(df)$	1.761(1)			3.701(1)		

구분	가족센터 인지도			가족센터 이용경험		
	알고 있음	모름	계(수)	있음	없음	계(수)
가족 형태						
부모 모두 24세 이하	40.7	59.3	100.0 (108)	20.4	79.6	100.0 (108)
부모 중 한 명만 24세 이하	26.9	73.1	100.0 (52)	3.8	96.2	100.0 (52)
한부모	44.0	56.0	100.0 (125)	24.0	76.0	100.0 (125)
$\chi^2(df)$	4.562(2)			9.942(2)**		
첫째 자녀 연령						
0세~2세	38.4	61.6	100.0 (203)	15.3	84.7	100.0 (203)
3세 이상	42.7	57.3	100.0 (82)	28.0	72.0	100.0 (82)
$\chi^2(df)$	0.443(1)			6.210(1)*		
거주지역						
수도권	26.4	73.6	100.0 (121)	9.9	90.1	100.0 (121)
그 외 지역	49.4	50.6	100.0 (164)	25.6	74.4	100.0 (164)
$\chi^2(df)$	15.318(1)***			11.165(1)**		
월평균 수혜 정부지원금액						
40만원 미만	32.4	67.6	100.0 (74)	9.5	90.5	100.0 (74)
40만원 이상~80만원 미만	49.3	50.7	100.0 (67)	28.4	71.6	100.0 (67)
80만원 이상	38.9	61.1	100.0 (144)	19.4	80.6	100.0 (144)
$\chi^2(df)$	4.228(2)			8.225(2)*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청소년부모 양육실태 및 정책지원 요구 조사」의 결과임.

* $p < .05$, ** $p < .01$, *** $p < .001$.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용률은 청소년한부모 가구(20.0%)에서 청소년부부 가구(9.4%)보다 유의미하게 높았고, 청소년부부 집단 중에서는 부모 중 한 명만 24세 이하인 가구(11.5%)가 부모 모두 24세 이하인 가구(8.3%)보다 높았다. 첫째 자녀 출생 시 부모 중 한 명만 미성년인 경우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용률은 31.7%로 가장 높았으며, 첫째 자녀 출산 시 어머니가 미성년인 경우에는 29.2%에 이르렀다.

〈표 III-3-17〉 청소년부모 지원센터/서비스 인지도 및 이용 경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단위: %(명)

구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인지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용경험		
	알고 있음	모름	계(수)	있음	없음	계(수)
전체	53.3	46.7	100.0 (285)	14.0	86.0	100.0 (285)
배우자/파트너 유무						
배우자/파트너 있음	51.9	48.1	100.0 (160)	9.4	90.6	100.0 (160)
배우자/파트너 없음	55.2	44.8	100.0 (125)	20.0	80.0	100.0 (125)
$\chi^2(df)$	0.312(1)			6.566(1)*		

구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인지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용경험		
	알고 있음	모름	계(수)	있음	없음	계(수)
가족 형태						
부모 모두 24세 이하	50.9	49.1	100.0 (108)	8.3	91.7	100.0 (108)
부모 중 한 명만 24세 이하	53.8	46.2	100.0 (52)	11.5	88.5	100.0 (52)
한부모	55.2	44.8	100.0 (125)	20.0	80.0	100.0 (125)
$\chi^2(df)$	0.432(2)			6.865(2)*		
첫째 자녀 출생 시 부모 연령						
부모 모두 19세 미만	56.4	43.6	100.0 (39)	20.5	79.5	100.0 (39)
부모 중 한 명만 19세 미만	60.3	39.7	100.0 (63)	31.7	68.3	100.0 (63)
부모 모두 19세 이상	50.3	49.7	100.0 (183)	6.6	93.4	100.0 (183)
$\chi^2(df)$	2.072(2)			26.216(2)***		
첫째 자녀 출산 시 모 연령						
19세 미만	61.5	38.5	100.0 (96)	29.2	70.8	100.0 (96)
19세 이상	49.2	50.8	100.0 (189)	6.3	93.7	100.0 (189)
$\chi^2(df)$	3.840(1)			27.472(1)***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청소년부모 양육실태 및 정책지원 요구 조사」의 결과임.

* $p < .05$, *** $p < .001$.

보건복지상담센터의 인지도는 거주지역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수도권(38.0%)보다는 그 외 지역(56.7%)에서 보건복지상담센터의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III-3-18〉 청소년부모 지원센터/서비스 인지도 및 이용 경험: 보건복지상담센터

단위: %(명)

구분	보건복지상담센터 인지도			보건복지상담센터 이용경험		
	알고 있음	모름	계(수)	있음	없음	계(수)
전체	48.8	51.2	100.0 (285)	12.6	87.4	100.0 (285)
배우자/파트너 유무						
배우자/파트너 있음	50.6	49.4	100.0 (160)	12.5	87.5	100.0 (160)
배우자/파트너 없음	46.4	53.6	100.0 (125)	12.8	87.2	100.0 (125)
$\chi^2(df)$	0.501(1)			0.006(1)		
가족 형태						
부모 모두 24세 이하	54.6	45.4	100.0 (108)	13.9	86.1	100.0 (108)
부모 중 한 명만 24세 이하	42.3	57.7	100.0 (52)	9.6	90.4	100.0 (52)
한부모	46.4	53.6	100.0 (125)	12.8	87.2	100.0 (125)
$\chi^2(df)$	2.634(2)			0.587(2)		
거주지역						
수도권	38.0	62.0	100.0 (121)	12.4	87.6	100.0 (121)
그 외 지역	56.7	43.3	100.0 (164)	12.8	87.2	100.0 (164)
$\chi^2(df)$	9.736(1)**			0.011(1)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청소년부모 양육실태 및 정책지원 요구 조사」의 결과임.

** $p < .01$.

위(Wee) 센터의 인지도는 거주지역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수도권 지역(40.5%)보다 그 외 지역(53.7%)에서 인지도가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첫째 자녀 출산 시 어머니가 미성년인 경우 위 센터 이용 비율이 22.9%로 가장 높게 보고되었다.

〈표 III-3-19〉 청소년부모 지원센터/서비스 인지도 및 이용 경험: 위(Wee)센터

단위: %(명)

구분	위센터 인지도			위센터 이용경험		
	알고 있음	모름	계(수)	있음	없음	계(수)
전체	48.1	51.9	100.0 (285)	15.8	84.2	100.0 (285)
배우자/파트너 유무						
배우자/파트너 있음	51.3	48.8	100.0 (160)	15.6	84.4	100.0 (160)
배우자/파트너 없음	44.0	56.0	100.0 (125)	16.0	84.0	100.0 (125)
$\chi^2(df)$	1.478(1)			0.007(1)		
가족 형태						
부모 모두 24세 이하	53.7	46.3	100.0 (108)	13.9	86.1	100.0 (108)
부모 중 한 명만 24세 이하	46.2	53.8	100.0 (52)	19.2	80.8	100.0 (52)
한부모	44.0	56.0	100.0 (125)	16.0	84.0	100.0 (125)
$\chi^2(df)$	2.279(2)			0.761(2)		
첫째 자녀 출산 시 모 연령						
19세 미만	41.7	58.3	100.0 (96)	22.9	77.1	100.0 (96)
19세 이상	51.3	48.7	100.0 (189)	12.2	87.8	100.0 (189)
$\chi^2(df)$	2.378(1)			5.530(1)*		
거주지역						
수도권	40.5	59.5	100.0 (121)	16.5	83.5	100.0 (121)
그 외 지역	53.7	46.3	100.0 (164)	15.2	84.8	100.0 (164)
$\chi^2(df)$	4.833(1)*			0.086(1)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청소년부모 양육실태 및 정책지원 요구 조사」의 결과임.

* $p < .05$.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인지도는 월평균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월평균 가구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는 72.0%가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용률은 현재 응답자가 성인인 경우(24.3%), 경제활동을 하는 가구(27.0%), 월평균 정부지원금이 40만원 이상 80만원 미만인 가구(32.8%)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보고되었다.

〈표 III-3-20〉 청소년부모 지원센터/서비스 인지도 및 이용 경험: 육아종합지원센터

단위: %(명)

구분	육아종합지원센터 인지도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용경험		
	알고 있음	모름	계(수)	있음	없음	계(수)
전체	55.1	44.9	100.0 (285)	22.5	77.5	100.0 (285)
배우자/파트너 유무						
배우자/파트너 있음	56.9	43.1	100.0 (160)	24.4	75.6	100.0 (160)
배우자/파트너 없음	52.8	47.2	100.0 (125)	20.0	80.0	100.0 (125)
$\chi^2(df) / t$	0.471(1)			0.771(1)		
응답자 연령						
19세 미만	42.3	57.7	100.0 (26)	3.8	96.2	100.0 (26)
19세 이상	56.4	43.6	100.0 (259)	24.3	75.7	100.0 (259)
$\chi^2(df) / t$	1.889(1)			5.690(1)*		
가족 형태						
부모 모두 24세 이하	62.0	38.0	100.0 (108)	25.9	74.1	100.0 (108)
부모 중 한 명만 24세 이하	46.2	53.8	100.0 (52)	21.2	78.8	100.0 (52)
한부모	52.8	47.2	100.0 (125)	20.0	80.0	100.0 (125)
$\chi^2(df) / F$	4.050(2)			1.230(2)		
가구 경제활동 여부						
경제활동 함	59.6	40.4	100.0 (178)	27.0	73.0	100.0 (178)
경제활동 안함	47.7	52.3	100.0 (107)	15.0	85.0	100.0 (107)
$\chi^2(df) / t$	3.817(1)			5.538(1)*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48.7	51.3	100.0 (117)	16.2	83.8	100.0 (117)
1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57.8	42.2	100.0 (109)	24.8	75.2	100.0 (109)
300만원 이상	72.0	28.0	100.0 (50)	34.0	66.0	100.0 (50)
모름/무응답	11.1	88.9	100.0 (9)	11.1	88.9	100.0 (9)
$\chi^2(df) / F$	15.058(3)**(b)			7.424(3)(b)		
월평균 수혜 정부지원금액						
40만원 미만	59.5	40.5	100.0 (74)	23.0	77.0	100.0 (74)
40만원 이상~80만원 미만	62.7	37.3	100.0 (67)	32.8	67.2	100.0 (67)
80만원 이상	49.3	50.7	100.0 (144)	17.4	82.6	100.0 (144)
$\chi^2(df) / F$	4.081(2)			6.303(2)*		

주: (b)=기대빈도가 5보다 작은 셀이 20% 이상인 경우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청소년부모 양육실태 및 정책지원 요구 조사」의 결과임.

* $p < .05$, ** $p < .01$.

청소년부모의 아이돌봄서비스 인지도는 첫째 자녀 나이가 많을수록 높았는데, 첫째 자녀가 3세 이상인 가구에서는 87.8%가 아이돌봄서비스를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률은 청소년부부(23.8%)보다는 청소년한부모 가구

(40.8%)에서 높게 나타났다. 청소년부모 집단 중에서는 부모 모두 24세 이하인 가구(25.9%)에서 부모 중 한 명만 24세 이하인 가구(19.2%)보다 이용률이 높게 보고되었다. 또한 월평균 정부지원금이 40만원 이상, 80만원 미만인 가구에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경험이 43.3%로 가장 높았다.

〈표 III-3-21〉 청소년부모 지원센터/서비스 인지도 및 이용 경험: 아이돌봄서비스

단위: %(명)

구분	아이돌봄서비스 인지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경험		
	알고 있음	모름	계(수)	있음	없음	계(수)
전체	79.6	20.4	100.0 (285)	31.2	68.8	100.0 (285)
배우자/파트너 유무						
배우자/파트너 있음	76.9	23.1	100.0 (160)	23.8	76.3	100.0 (160)
배우자/파트너 없음	83.2	16.8	100.0 (125)	40.8	59.2	100.0 (125)
$\chi^2(df)$	1.732(1)			9.499(1)**		
가족 형태						
부모 모두 24세 이하	79.6	20.4	100.0 (108)	25.9	74.1	100.0 (108)
부모 중 한 명만 24세 이하	71.2	28.8	100.0 (52)	19.2	80.8	100.0 (52)
한부모	83.2	16.8	100.0 (125)	40.8	59.2	100.0 (125)
$\chi^2(df)$	3.288(2)			10.232(2)**		
첫째 자녀 연령						
0세~2세	76.4	23.6	100.0 (203)	28.1	71.9	100.0 (203)
3세 이상	87.8	12.2	100.0 (82)	39.0	61.0	100.0 (82)
$\chi^2(df)$	4.724(1)*			3.258(1)		
월평균 수혜 정부지원금액						
40만원 미만	79.7	20.3	100.0 (74)	25.7	74.3	100.0 (74)
40만원 이상~80만원 미만	83.6	16.4	100.0 (67)	43.3	56.7	100.0 (67)
80만원 이상	77.8	22.2	100.0 (144)	28.5	71.5	100.0 (144)
$\chi^2(df)$	0.951(2)			6.106(2)*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청소년부모 양육실태 및 정책지원 요구 조사」의 결과임.

* $p < .05$, ** $p < .01$.

4. 소결

청소년(한)부모의 임신, 출산, 자녀 양육 관련 현황을 파악하고 양육역량 수준, 양육의 어려움과 지원제도 이용 경험, 만족도, 요구사항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총 285명의 청소년부모(청소년부부+청소년한부모)가 참여한 설문조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가. 임신·출산 경험

1) 출산 시 상황

첫 자녀가 태어났을 시의 부모 평균연령은 어머니 19.3세, 아버지 21.8세로, 어머니 연령보다 아버지의 연령이 2.5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자녀가 현재 친부/친모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지 질문한 결과, 95.0%는 친부/친모와 살고 있으며 5.0%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2) 임신·출산으로 인한 부담

첫 자녀를 임신하였던 과거 시점에 응답자가 느낀 부담감을 회상하여 응답하도록 하였더니, 경제적 부담이 평균 3.5점(4점 만점)으로 가장 높게 응답되었으며, 정서적 부담(3.1점), 신체적 부담, 가족관계의 어려움(각 2.9점) 순으로 응답되었다.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한 청소년부모는 임신 시, 앞으로 출산, 양육 시에 겪게 될 경제적 문제에 대한 부담감을 가장 많이 느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출산 시 도움

첫 자녀 출산 당시, 경제적 영역, 정서적 영역, 생활 영역, 정보제공에 도움을 준 사람으로 '내 가족'이 가장 많이 응답되었다. 경제적, 정서적, 생활영역에서는 '배우자/파트너'가 '내 가족'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많이 선택되었지만, 출산, 돌봄 관련 정보제공에서는 '없음'이 높게 응답되었다. 여기서 눈여겨 볼 점은, 첫 자녀 출산 시 도움을 준 사람이 없다는 응답이 항목별로 10.2%에서 18.6%까지 적지 않은 수준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특히, 출산, 돌봄 영역에서의 정보제공에 도움을 준 사람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18.6%로 가장 높게 나타나, 청소년부모에게 출산, 돌봄 관련 정보제공 도움을 주는 사회적 지지망의 취약성을 알 수 있다. 또한, 배우자/파트너가 없는 청소년한부모와 19세 미만의 미성년 응답자,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가구, 월 소득 100만원 미만인 가구 즉, 경제적으로 비교적 취약하다고 볼 수 있는 집단에서, 도움을 준 사람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나, 이들 집단을 대상으로 출산 시 지원체계 및 사회적 지원망 구축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4) 임신·출산 정보 습득 경로

청소년부모는 임신, 출산 관련 정보를 주로 온라인 인터넷 검색(유튜브, 맘카페, 포털 등)을 통해 얻었고, 오프라인에서는 국가 및 민간 미혼모 지원 기관 혹은 시설을 통해 정보를 얻는 경향을 보였다.

5) 미혼모자 시설 입소 및 산후조리원 이용 경험

본 연구에 참여한 청소년모 응답자 244명 중 27.9%는 미혼모자 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경험이 있었으며, 52.9%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부부의 경우 미혼모자 가족복지시설 입소경험이 7.6%로 현저히 낮았으나 청소년한부모는 51.8%로 이용경험이 높았고, 반면 산후조리원 이용 경험은 청소년부부가 61.4%로 청소년한부모 42.9%보다 높게 나타나 출산 상황이 청소년부부와 청소년한부모 간에 상당히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나. 건강

청소년부모의 건강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우울과 주관적인 건강 상태를 조사한 결과 산후우울감을 느껴본 경험이 있는 청소년모는 84.4%로 다수이었으나 이에 비해 진단이나 상담을 받은 경험이 있는 청소년부모는 25.3%로 소수만이 전문적인 도움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한부모이거나 저소득 가구인 경우 그렇지 않은 가구에 비해 전문적인 상담 경험이 높은 편이어서 제도적인 지원 대상이었을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다.

다. 자녀 양육/돌봄 및 역량

1) 자녀 양육/돌봄 현황

자녀의 주 양육자는 대부분 어머니였으며, 부모가 직접 양육할 수 없을 때는 조부모의 도움을 받고 있었다. 부모가 미성년인 경우 자녀를 돌봐주는 사람이 없다는 응답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청소년부모가 첫째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은 주중 10시간 0분, 주말 14시간 24분으로 응답 시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였음을 고려한다면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자녀와 함께 보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응답

자가 미성년인 경우 그 시간이 더 길었는데, 자녀도 어리고 경제활동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나타난 결과로 여겨진다. 한편 청소년부부의 자녀 돌봄 부담 정도는 10을 기준으로 어머니가 7.4로 나타나 아버지보다는 어머니가 자녀 돌봄에 더 관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자녀 양육 부담

자녀 양육 시 느낄 수 있는 부담 중에서 청소년부모는 임신·출산 시기와 일관되게 경제적 부담을 가장 크게 느끼고 있었으며, 청소년한부모이거나 부모 모두 24세 이하인 청소년부부인 경우 가족관계 어려움을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응답하였다.

3) 자녀 양육 도움

배우자 이외의 다른 가족이나 지인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정도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아동종합실태조사(류정희 외, 2018)와 비교한 결과, 청소년부모가 일반 부모에 비해 전반적으로 주변의 도움을 더 많이 받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사회적 자본에 대해 청소년한부모인 경우 또는 경제활동을 하지 않거나 월평균 가구소득이 낮은 경우 도움을 주는 사람이나 기관이 없다고 응답하는 비율이 높았다.

4) 자녀 양육 정보 습득 경로

자녀 양육을 위한 정보는 주로 인터넷 블로그/사이트, 가족이나 친지에게서 얻고 있으며, 그 정보들은 대체로 도움이 된다고 평가하였다. 양육정보를 얻기 위해 선호하는 방식으로는 인터넷 블로그/사이트나 소셜미디어 플랫폼 등을 꼽아서 비대면 방식을 선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 자녀 애착 및 양육역량

청소년부모는 대부분 자신과 자녀와의 애착관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며, 양육역량 역시 보통 이상의 수준으로 보고하였다. 다만, 청소년한부모이거나 소득수준이 낮은 경우 그렇지 않은 가구에 비해 상호작용 역량, 양육효능감 등에서 더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한 양육역량으로는 과반수가 1순위

로 '상호작용 역량'을 꼽았다. 이는 육아지침서의 주요 내용에 청소년부모의 상호 작용 방법에 대한 정보를 우선적으로 담는 근거가 된다. 마지막으로, 나 자신을 위한 삶(1)과 자녀를 위한 삶(7)에 어느 정도 집중하고 있는지에 대해 평균 5.6점으로 응답하여 대체로 나 자신보다는 자녀를 위한 삶에 집중하는 비율이 높았다. 이는 응답자의 자녀가 부모의 돌봄이 필요한 영유아기에 속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라. 가족관계

1) 원가정과의 관계

본 연구에 참여한 청소년부모는 22.5%만이 자신의 원가정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모와 같이 살고 있지 않은 청소년부모의 80.5%는 부모와 연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한부모는 청소년부부에 비해 원가정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비율이 높았으나, 부모와 연락하며 지내는 비율은 청소년한부모가 청소년부부에 비해 그 비율이 낮았고, 드물게 연락하거나 만나지 않는 비율도 상대적으로 높았다.

2) 가족관계 만족도(자녀, 부모, 배우자/파트너)

자녀, 부모, 배우자/파트너와의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자녀와의 만족도가 부모와의 관계만족도, 배우자/파트너와의 관계만족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이 연령이 어릴수록 자녀와 관계만족도가 좋은 점, 여성보다는 남성이 부부만족도가 높은 점, 청소년한부모 보다는 청소년부부의 원가정 부모와의 만족도가 높은 점이 주의 깊게 볼만하다.

마. 가정환경

1) 거주 상황

본 연구에 참여한 청소년부모는 수도권(42.5%)보다 그 외 지역에 다수 거주(57.5%)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여성가족부 제공 자료²¹⁾에 따르면, 수도권 지역

21) 비공개 자료에 따른 출처 생략

의 청소년부모(청소년부부+청소년한부모) 거주자가 그 외 지역보다 더 많은 것으로 파악되기 때문에 본 연구결과 해석 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청소년부모 가구의 총 가구원 수(본인+자녀 포함)는 평균 3.2명으로 파악되었다.

2) 학업, 취업 상황

청소년부모의 가장 많은 수는 고등학교 졸업자(70.9%)였으며, 출산 당시의 어머니 연령이 미성년인 경우에 성인 연령대에 출산한 청소년부모에 비해 학업을 이어나가기 어려운 상황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학업 중단 역시 19세 이전에 출산한 경우에 가장 그 비율이 높았다. 미성년에 출산한 경우, 고등학교 졸업 이후 대학을 진학하고 끝마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제약이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현재 학업을 이어나가고 있는 청소년부모 역시 10.9%로 제한적인 편이었는데, 청소년부부보다는 청소년한부모들이 더 높은 비율로 학업 중인 점이 눈에 띈다.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에 학업중인 비율이 높아 학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지원이 필요할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설문에 응답한 청소년부모 중심으로 현재 경제활동 여부를 비교했을 때, 30.9%만이 경제활동을 하고 있었다. 가구 기준으로 보면 청소년부모 중 1명이라도 경제활동을 하는 가구는 178가구, 아무도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가구는 107가구였다. 청소년모가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는 70가구로 집계되어 청소년부부 중에서는 청소년부가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43.2%가 정규직이고,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청소년부모도 약 70% 정도가 구직/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경제활동에 대한 의지는 청소년부부 응답자보다 청소년한부모에게서 더 강하게 보고된 점에 차이가 있었다.

3) 가구소득 및 소비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월평균 가구소득은 전체 청소년부모에게서 약 152만원이었고, 월평균 정부지원금은 평균 약 80만원으로 보고되었다. 소득면에서는 청소년부부와 청소년한부모의 양상이 이분화되었는데, 청소년한부모가 정부지원금을 청소년부부에 비해 약 40만원 이상 더 받고 있었으며 소득에서는 청소년부부가 청소년한부모에 비해 약 163만원 더 많이 벌고 있었다.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가구에서 월평균

정부지원금을 약 113만원으로 가장 많이 받고 있지만, 실제 생활하는데 필요한 비용은 약 141만원으로 최저수준을 보인다. 경제활동을 전혀 하지 않는 가구가 285가구 중 178가구에 이르기 때문에 이들이 추후 수급에만 의존하지 않고, 경제활동을 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시급해 보인다. 청소년부모가 가장 원하는 것은 비용지원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지만, 손쉽게 비용을 지원해주는 것이 건강한 자립으로 이어지지 못한다면 장기적으로 효과적인 계획이라 보기 어려울 것이다.

바. 청소년부모 지원 요구

1) 자녀 양육 지원

지원 수혜 경험이 가장 많은 영역은 ‘자녀 양육 지원(92.6%)’이었는데, 이는 자녀 양육 지원의 내용이 아동수당, 가정양육수당, 청소년 아동양육비 지원 등 비용 지원을 다수 포함하고 있기 때문으로 유추할 수 있다. 이 부문은 이용 경험에 많음에도 불구하고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가장 낮았는데, 자녀 양육 지원의 대부분은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모든 부모들에게 제공되는 지원이기 때문에 청소년부모를 대상으로 더 많은 양육비 지원이 추가되길 원하는 상황(전체 56.5%가 희망)을 반영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요구는 부모가 현재 미성년인 경우에 가장 강하게 나타났고, 청소년부부보다는 청소년한부모에게서 그 요구가 높았다. 또한 정부지원금을 많이 받는 집단일수록 양육비용 지원을 희망하는 비율이 높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추후 정책 방향이 청소년부모가 원하는 대로 비용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그들의 자립을 위해 적절한 방향인지 고민을 던져준다. 부모가 미성년 시기에 출산을 한 가정에서는 부모가 경제활동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직접적인 비용 지원이 필수적일 수 있으나, 자립을 할 수 있는데도 자립하지 않는 선택을 하는 청소년부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역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임신·출산 지원

임신·출산 지원(예: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첫만남 이용권 등) 역시 91.6%의 청소년부모가 이용 경험이 있었으나, 그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에 속하였다는 점에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최근 출산한 청소년부모의 임신·출산 지원 만족도가

더 높았는데, 최근에 청소년부모 대상 지원 금액이 증가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특성으로 이해된다. 임신·출산 관련 지원 중 가장 필요한 지원으로 ‘병원비 지원 확대(29.1%)’를 가장 우선시한 점은 자녀 양육 지원에서 ‘양육비 지원’을 강력히 희망하는 본 연구의 결과와 일관성 있다. 출산 후 산후조리 관련 지원을 원하는 비율(26.7%) 역시 상대적으로 높았는데, 특히 현재 미성년인 청소년부모, 청소년부부에게서 요구도가 높은 편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한부모의 경우 미혼모자가 족시설에 입소한 경험이 있는 경우가 51.8%였으나 청소년부부는 7.6%로 현저히 낮은 점을 고려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다. 즉, 청소년한부모가 미혼모자가족시설에서 출산을 하는 경우 산후조리를 시설 내에서 해결하는 반면, 청소년부부의 경우 외부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경우가 61.4%로 청소년한부모(42.9%)보다 높아 이러한 요구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3) 가족 주거 지원

세 번째로 수혜 경험에 높은 지원 영역은 ‘가족 주거 지원(예: LH임대지원, 공공주택지원 등)’이었는데, 이용 만족도가 다른 영역과 비교 시 가장 높았다. 청소년부부보다는 청소년한부모가 주거 지원 수혜 비율이 높았고, 자녀가 많고 자녀 연령이 높은 경우, 가구에서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소득이 가장 낮은 경우에 이용 비율이 높은 특성을 보였다. 주거 지원과 관련하여 가장 원하는 지원 내용은 ‘주거비 지원 확대(49.1%)’로 비용 지원을 가장 우선시하는 점에서 다른 영역과 일관된 결과를 보여준다. 주거비 지원을 희망하는 정도는 자녀 출산 시 미성년이었던 가정에서 가장 높고, 임대주택 공급 확대는 자녀 출산 시 성인이었던 가정에서 높은 점을 살펴보면 부모 연령별로 주거 상황의 차이를 반영한 결과로 이해된다. 즉, 미성년인 부모들의 경우 당장 월세를 내고 주거 상황을 유지하는 데에 집중하지만, 장기적인 주거 안정을 희망하는 청소년부모의 경우 임대주택을 이용 욕구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4) 부모 취업 지원

‘부모 취업 지원(예: 국민 취업 제도, 국민내일배움카드 등)’의 수혜 경험에 있는 부모는 전체의 28.8%이며, 만족도는 다른 영역과 비교해볼 때 중간 수준을 보고하

고 있다. 부모 취업 지원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받은 집단은 청소년한부모이며, 자녀 연령이 높은 가정일수록,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수혜 경험에 더 있는 경향이 있었다. 이는 청소년부모보다는 청소년한부모에게 취업 지원 혜택이 다양하게 제공되는 현재 상황을 반영하는 결과로 이해되며, 자녀를 어느 정도 키운 뒤 취업을 통해 가구소득의 증가를 원하는 가정에서 이러한 제도 이용을 희망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청소년 부모 취업 지원에서 가장 희망하는 것이 ‘안정적인 일자리 보장(42.1%)’인 점이 특징적이며, 성인 청소년부모가 ‘취업 및 근무 중 자녀 돌봄 서비스 지원’을 미성년 청소년부모에 비해 강하게 희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5) 부모 양육역량 강화 지원

‘부모 양육역량 강화 지원(예: 심리상담, 부모교육 등)’은 유경험 비율이 17.5%로 가장 낮았지만, 이용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보고된 점이 특징적이다.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부모 양육역량 강화 지원은 주로 청소년부부보다는 청소년한부모에게 더 빈번히 제공되어온 특성을 보인다. 또한 경제활동을 하지 않거나, 가구소득이 낮은 가구에 지원이 더 제공되어왔던 점이 눈에 띈다. 다수의 청소년부모들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모가 되기 때문에 심리적 지원과 부모로서 양육 기술 등을 습득하고 연습할 기회가 필요한데, 이러한 기회가 주로 저소득층, 청소년한부모 중심으로 제공되고 있었다는 점에 한계가 있었다.

전체적으로 다양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지원받는 것(27.0%)이 가장 우선시되었고, 뒤이어 청소년부모의 심리적 지원 강화(22.5%)를 희망하였다. 눈여겨 볼 부분은 부모 양육역량 지원 요구가 응답자 연령과 첫 자녀 출산 시 어머니 연령에 따라 다른 경향을 보였다는 점이다. 미성년 청소년부모는 청소년 자조모임 확대를 가장 희망하는 경향이 있었고, 유사하게 첫 자녀 출산 시 미성년이었던 청소년부모는 청소년 부모의 심리적 지원 강화를 우선시했다. 즉, 연령이 낮은 청소년부모에게는 자신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상담 지원과 자조모임을 지원하여 역량강화를 도모하고, 청소년부모의 연령 증가에 따라 다양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해야 할 것이다.

6) 부모 학업 지원

‘부모 학업 지원(예: 검정고시 학습지원 등)’은 전체의 18.9%의 청소년부모가 이용경험이 있었으며, 다른 영역과 비교할 때 중간 수준의 만족도를 보고하였다. 부모 학업 지원은 청소년부부보다는 청소년한부모가 수혜 받는 비율이 높았고, 부모의 연령이 어린 경우에 학업 지원을 더 많이 이용하는 경향을 보였다. 타 영역과 마찬가지로 ‘등록금 등 학업 비용 지원’을 희망하는 비율(41.1%)이 압도적으로 높은 경향을 보였다. 부모 취업 지원과 유사하게 부모 학업 지원 영역에서도 ‘학업 중 자녀 돌봄 서비스 지원(27.4%)’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부모의 연령이 어린 경우 학업 비용 지원을 희망하는 경향이 더 높게 보고되나, 부모가 자녀 출산 당시에 모두 19세 이상이거나 현재 19세 이상인 경우에 자녀 돌봄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다는 점을 눈여겨보아야 하겠다.

7) 지원 요구 우선순위

청소년부모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 1순위는 자녀 양육 지원(38.9%)이었고, 임신·출산 지원(21.4%), 가족 주거 지원(19.3%), 부모 취업 지원(16.1%) 순이었다. 1+2 합산 결과에 따르면 자녀 양육 지원(74.7%), 가족 주거 지원(53.0%), 부모 취업 지원(28.4%), 임신·출산 지원(25.6%) 순이어서 차이가 있었지만, 청소년부모가 가장 우선적으로 원하는 지원이 자녀 양육 지원과 가족 주거 지원으로 좁혀지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청소년부부는 임신·출산 지원(32.5%)과 가족 주거 지원(20.6%)을, 청소년한부모는 자녀 양육 지원(51.2%)과 부모 취업 지원(19.2%)에서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을 보였다. 소득이 낮은 가구(100만원 이하)에서는 자녀 양육 지원(47.0%)과, 가족 주거 지원(22.2%), 부모 취업 지원 요구(18.8%)를 상대적으로 우선시 했고, 출산 시 어머니가 미성년인 경우에 자녀 양육 지원(49.0%)을 우선시 하는 경향을 보였다. 즉, 청소년부모의 특성 중 배우자 유무, 가구소득, 청소년부모의 연령이 지원요구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요약된다.

8) 제도 지원 전달체계

청소년부모 지원 사업은 주로 정부 공식 웹사이트 또는 포털 사이트 검색(예: 복지포,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을 통해 정보를 얻거나 인터넷 블로그/사이트 검색(예: 맘카페)을 이용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다양한 청소년부모 지원센터와 서비스 중 인지도가 가장 높은 서비스는 ‘아이돌봄서비스’였다. 아이돌봄서비스와 인지도와 이용률이 다른 센터 이용과 비교해볼 때 가장 높았다. 가족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보건복지 상담센터, 위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중 인지도와 이용률이 가장 높은 곳은 ‘육아종합지원센터’였다. ‘가족센터’의 경우 인지도는 낮으나 이용률은 다른 센터보다 높은 편이었고, ‘보건복지상담센터’의 경우 인지도보다 이용률이 많이 떨어지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각 센터/서비스의 인지도와 이용 경향은 청소년부모 특성별로 상이했다. 지역별로 인지도에 차이가 있었던 센터는 보건복지상담센터와 위 센터로 나타났는데, 수도권 보다는 비수도권 지역에서 이 두 센터의 인지도가 높았다. 소득별로 인지도에 차이가 있었던 시설은 육아종합지원센터로 소득이 높을수록 인지도가 높아졌고 부모가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에 이용도도 높았다. 청소년한부모가 많이 이용하는 센터/서비스는 아이돌봄서비스, 가족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였고, 출산 시 어머니가 미성년인 경우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위 센터 이용이 높았다. 현재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기관의 특성을 살펴서 지원체계의 개선 방안을 도출해내야 할 것이다.

IV

청소년부모 대상 육아지침서 개발

01 제작개요

02 결과물 요약

IV. 청소년부모 대상 육아지침서 개발

4장에서는 육아지침서의 제작개요를 소개하고, 육아지침서 개발 과정 및 결과물 요약 등을 정리하였다. 육아지침서는 별책 부록으로 제시하였고, 육아정책연구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²²⁾

1. 제작개요

가. 청소년부모를 위한 육아지침서 개발의 필요성

청소년기는 자아정체감 형성과 정서적, 경제적 독립이라는 발달과업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인생 계획을 추진하고, 자신의 성장을 위해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하는 시기이다. 그러나 부모가 된 청소년은 청소년기에 이루어야 할 발달과업뿐 아니라 동시에 자녀 양육이라는 부모로서의 과제도 수행해야 한다. 이런 역할은 서로 충돌을 가져올 수 있으며, 청소년들에게 개인으로서의 자신과 부모로서의 자신 사이에 갈등을 경험하게 한다. 특히 평소 원가족과 관계가 좋지 않았던 청소년부모는 임신과 출산 과정을 겪으면서 원가족과 단절되어, 청소년부모 홀로 이 과정을 겪게 되는 경우가 많다(이선희 외, 2021).

임신, 출산을 미리 준비하고 계획한 성인 부모에게도 자녀를 기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특히 준비되지 않은 채 아이를 맞이한 청소년부모는 육아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이 없어 자녀 양육은 더욱 힘들어 수밖에 없다. 출산 후에 일반 성인부모들은 가족들, 친구들, 산후조리원 동기 등을 통해서 양육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으나, 청소년부모는 산후조리원에 가는 경우도 드물고, 부정적인 외부 시선과 또래 중에 출산을 경험한 친구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양육에

22) 육아정책연구소 홈페이지 > KICCE 연구 > 기타자료 > 연구사업 성과물
https://kicce.re.kr/main/board/view.do?menu_idx=261&board_idx=50136&manage_idx=126&old_menu_idx=0&old_manage_idx=0&old_board_idx=0&group_depth=0&parent_idx=0&group_idx=0&group_ord=0&viewMode=NORMAL&authKey=&search_text=&rowCount=10&viewPage=1

대한 정보를 얻거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회적지지 체계가 약하다(이상정, 2023). 특히, 원가족과 단절되고 주변에 도와줄 사람이 없는 청소년부모는 더욱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다. 이러한 경향은 3장에 제시한 본 연구결과에서도 드러나는데 임신·출산 시기에 각 영역별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부모가 10~18%이며,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경우가 청소년모 중 절반정도로 나타나 부모가 되는 과정에 어려움이 많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청소년부모들은 정서적인 어려움도 일반 성인 부모에 비해 높다. 일반 청년부모에 비해 청소년부모들은 우울 수준이 높으며, 아동·청소년기에 학교, 동네에서의 괴롭힘이나 따돌림(47.5%), 그리고 양육자 체벌 및 정서적 공격(32.7%) 등을 상대적으로 많이 경험하였다(이상정 외, 2022: 65-67). 또한 청소년부모 시설 관계자들은 시설에 온 대부분의 청소년부모는 원가정 부모에게 제대로 된 양육을 받은 경우가 매우 적다고 말한다. 본 연구의 심층면담에서도 이 같은 특성이 드러나는데, 원가정에서 부모와 관계가 좋지 않아 교류하지 않다가 임신과 출산을 경험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았고, ‘자신의 부모처럼 되고 싶지 않다.’, ‘내 아이가 나 같이 자라게 하고 싶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청소년부모가 다수 있었다. 이는 청소년부모 중 아동, 청소년 시절에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환경에서 성장하여 바람직한 부모 모델을 갖고 있지 못한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은 상황임을 시사한다.

이와 같이 청소년부모는 자신의 정서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아이를 양육하고 아이의 정서를 보살펴야 하는 부담감을 안고 있다. 또한 원부모로부터 올바른 양육을 받은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다 보니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난감해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자녀 양육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전무한 상태에서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상황은 청소년부모의 불안감을 높이고, 부모로서의 무력함을 느끼게 할 수 있다.

청소년부모에게 있어 배우자 혹은 파트너와의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은 개인의 성장과 안정을 위해 중요한 일이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청소년모는 배우자와 가깝고 좋은 관계를 맺을수록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유지하였다(Sarkadi et al., 2008). 청소년부부 뿐만 아니라 청소년한부모 역시 파트너(여자친구, 남자친구)를 갖는 경우가 많고 파트너와 양질의 관계를 맺는 것이 개인의 웰빙(well-being)과 자존감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배우자/파트너’와 관계를 잘 맺는 것은 모든 청

소년부모의 과업이 될 수 있다.

좋은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상호작용’을 잘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상대방에게 어떻게 이야기해야 하는지, 어떻게 반응해주는 것이 건강한 의사소통 방식인지 알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파트너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부모-자녀 관계에서도 건강한 상호작용이 강조되는데, 자녀와의 의사소통이 잘되지 않을 시 자녀 양육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청소년부모가 관계의 질을 높이는 의사소통 방법을 익혀 활용할 시 배우자와 자녀와의 관계에서 겪는 어려움을 다소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실제 본 연구 설문조사와 면담에서 공통적으로 청소년부모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양육역량이 ‘상호작용 역량’으로 꼽혔고, 자녀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예: 연령별 대화법, 올바른 훈육방법)에 대해 알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육아지침서의 개발 목적은 청소년부모가 자신의 정서를 관리하는 기술을 익히며, 자녀, 배우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의사소통 기술을 배우는 것이다. 특히 본 육아지침서는 청소년부모 자신, 그들의 자녀, 그들 주변 관계(예: 배우자/파트너, 원가정 등)를 돌보는 것, 즉, ‘상호작용’하는 방법을 연습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음을 밝힌다.

상호작용 역량은 모든 부모에게 필요한 기술이지만, 특히 청소년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잘 챙기지 못하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청소년부모의 경우 어린 시절에 부모와의 질적인 관계가 부족한 경우가 많거나 상호작용 방법을 가르쳐 줄 어른, 멘토가 부재할 확률이 높고, 생존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되어 자녀 양육의 질을 고려하지 못하는 상황이 빈번하다. 따라서 일반 부모들에 비해 이러한 콘텐츠를 접할 기회가 적고, 상호작용 기술을 높이기 위해 따로 노력하지 못하기도 한다. ‘최소한 아이와 상호작용할 때 이런 것들을 지키자.’라는 가이드를 제시하는 것, 바람직한 소통방법에 대한 구체적 방향을 연습하도록 하는 것이 본 육아지침서를 만든 근본적인 목적이다. 본 연구에서 제작한 청소년부모 육아지침서는 청소년부모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고, 이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쉽게 설명하고 있으며, 지지하는 방법, 훈육하는 방법을 실제 ‘대화’ 중심으로 구성하여 육아지침서로서 고유한 강점을 가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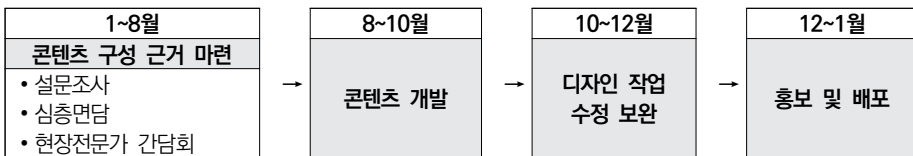
본 육아지침서를 통해 청소년부모가 부모로서 자기효능감을 가지고 자녀를 건강하게 양육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또한 본 육아지침서가 아이를 양육하는 청

소년부모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장 실무자들에게도 정보를 제공하는 데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길 기대한다.

나. 제작 과정

육아지침서 제작을 위해 1~8월 동안 육아지침서의 방향과 콘텐츠 구성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설문조사, 심층면담, 자문회의 등을 진행하였다. 이후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8~10월에 최종 원고를 정리하였고, 11월에 디자인 구성, 작업을 거쳐 12월에 육아지침서 디자인 작업을 완료한 뒤 홍보, 배포하였다. 배포 방식과 전략은 5장 정책제언에서 후술하고자 한다.

[그림 IV-1-1] 육아지침서 제작 과정



2. 결과물 요약

가. 육아지침서 구성

본 과제는 다양한 가족의 양육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5개년 연속과제 중 2차년도 과제로, 5년 동안 매해 각 취약·위기 가정의 특성에 맞추어 육아지침서 제작을 기획하고 있다. 따라서 본 육아지침서는 첫 번째 해에 제작된 위탁부모 양육역량 강화를 위한 육아지침서의 형식(예: 전체 제목, 디자인)을 유지하되 내용은 본 청소년부모의 특성을 반영하여 제작하였다. 본 과제의 육아지침서 제목은 ‘청소년부모 힘 키우기’로, 2022년에 제작된 위탁부모용 육아지침서 제목인 ‘위탁부모 힘 키우기’와 연속성을 갖도록 하였다.

육아지침서의 개발은 문헌연구와 학계 및 현장 전문가와의 논의, 청소년부모 대상 설문조사, 심층면담 내용을 근거로 방향을 계획하였다. 앞서 강조한 바와 같이 청소년부모 대상 육아지침서는 ‘상호작용 역량’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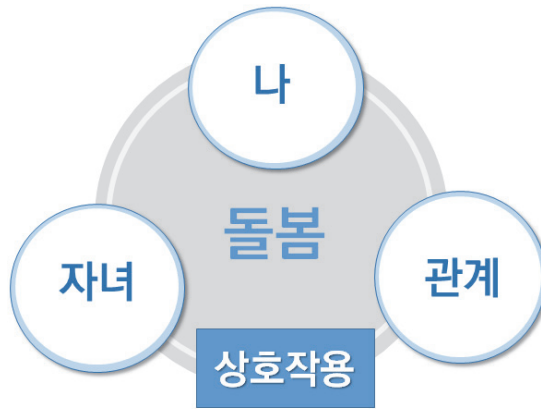
청소년부모를 위한 육아지침서는 크게 3가지 부문으로 구분된다.

첫째, 청소년부모인 자신을 이해하고 마음을 돌보는 방법을 제공하고자 하였다(‘나 돌보기’). 청소년기의 발달 특성의 과업인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개인으로서의 자신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육아지침서에서는 개인으로서의 나를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을 제시함과 동시에 부모로서의 두려움이나 불안감 등이 자연스러운 현상임을 인지시키고 부모로서의 자신의 강점을 생각해보도록 하였다. 성인부모에 비해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부모를 위해 자신의 정서 상태를 돌아보고, 정서를 조율하고 관리하는 방법을 제시하여 자녀를 양육하는 것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게 돕는 내용을 포함하였다.

둘째, 청소년부모가 자녀와 올바른 상호작용을 하고 자녀를 돌보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다(‘아이 돌보기’). 자녀를 돌봄에 앞서 부모의 역할이 무엇인지 인지하고, 여러 부모 유형 중 바람직한 부모상(감정 코칭형 부모)에 대해 이해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부모로서 아이의 발달, 정서적 발달을 도울 수 있는 양육 방법에 대해 알려준다. 자녀의 기질을 이해하여 기질에 맞는 양육과 행동의 한계를 정하고 훈육하는 방법을 통해 자녀의 자기조절력 발달을 도울 수 있도록 한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와 심층면담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청소년부모는 인터넷에서 보는 자료를 근거로 양육하거나, 어떠한 정보를 받아들여야 하는지 판단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어떠한 행동이 아동 학대인지 알고, 올바른 훈육 방법을 연습할 기회가 많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에 본 육아지침서의 두 번째 챕터에서는 바람직한 부모상에 대해 제시하고, 지지·훈육하는 부모가 되기 위한 연습을 반복적으로 하며, 상황별로 상호작용 하는 팁을 쉽게 제공하고자 하였다.

셋째, 배우자/파트너, 원가정 가족과 좋은 관계를 형성하는 방법을 제공하고자 하였다(‘관계 돌보기’).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대화들을 돌아보고 가족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상호작용 기술에 대해 정리하였다. 심층면담을 통해 수집된 청소년부모가 흔히 쓰는 말이지만 피해야 할 대화법들을 먼저 제시하고 경청과 공감의 대화법을 소개하였다. 또한 마지막에 ‘상대방이 원하는 배려’를 해주는 것이 건강한 관계 유지에 도움이 됨을 ‘사랑의 언어’를 통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왔다. 본 육아지침서에서 제시한 의사소통의 기술은 청소년부모가 배우자 및 자녀와 긍정적인 관계를 만드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그림 IV-2-1] 육아지침서 기본 틀



[그림 IV-2-2] 육아지침서 표지



[그림 IV-2-3] 육아지침서 목차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청소년부모 힘 키우기		
1장. 나 돌보기	2장. 아이 돌보기	3장. 관계 돌보기
1. 청소년부모의 어려움 2. 나 이해하기 3. 내 강점 찾기 4. 내 마음 관리하기 5. 미래 설계하기	1. 부모인 나 1) 부모의 역할 2) 이런 부모 안돼요! 3) 이런 부모가 되어보아요! 감정코치형 부모 2. 지지·훈육하는 부모 1) 기질을 이해하기 2) 애착 관계 형성하기 3) 경험과 공감하기 4) 칭찬하기 5) 한계와 규칙 정하기 6) 훈육하기 7) 연습해 봅시다 3. 상호작용하는 부모 1) 놀이 시간 2) 책 읽기 시간 3) 디지털 미디어 이용 시간 4) 식사 시간	1. 연결하는 대화 1) 비난하지 않기 2) 방어하지 않기 3) 경멸하지 않기 4) 담쌓지 않기 2. 사랑의 언어

V

청소년부모 양육역량 강화 지원 방안

- 01 기본 방향
- 02 세부 지원 방안
- 03 육아지침서 활용 방안

V. 청소년부모 양육역량 강화 지원 방안

본 장에서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첫째, 청소년부모 지원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였다. 둘째, 세부 영역별 지원 전략을 영역별, 특성별로 구분하여 제안하였고, 지원 센터/서비스의 접근성 제고 방안을 공유하였다. 마지막으로 육아지침서 활용 방안을 정리하였다.

1. 기본 방향

기존의 청소년부모·청소년한부모 지원은 배우자 유무에 따라 청소년한부모 혹은 청소년부모로 분류되거나, 청소년부부의 연령(부모 모두 24세 이하)에 따라 지원의 내용이 구분되어 왔다. 청소년부모·청소년한부모 지원 정책을 부모의 특성과 연령으로만 구분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갖는다.

첫째, 부모 연령과 특성에 따른 구분은 개별 가정의 고유한 상황을 총체적으로 반영하지 못한다. 모든 청소년부모가 동일한 지원을 원하지 않을 수 있으며, 다양한 요인(예: 거주 지역, 현재 학업/취업 여부, 주택 상황, 시설 이용 여부, 원가정과의 소통, 관계 등)에 따라 지원요구가 다른 경우가 있는 것이다.

둘째, 청소년한부모와 청소년부모를 구분하는 정책(배우자 유무에 따른 지원 정책 차이)은 불필요한 사회적 분리를 야기하고 가족과 사회의 연결을 약화시킬 수 있다. 상황이 비슷하지만 다른 지원을 받는 부모들 간에 격차와 구분이 더 심화될 수 있다.

셋째, 부모의 연령을 기준으로 한 청소년부모 정책에서 드러나는 한계점은 부모의 양육역량이 그들의 연령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부모 연령이 낮을수록 양육역량이 낮을 것으로 가정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 조사한 부모 양육역량 수준은 부모의 연령이 낮을수록 양육역량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19~24세의 양육역량 점수가 19세 미만인 부모들의 양육역량보다 낮았는데, 이와 같은 결과는 단순히 나이로 청소년부모의 상황과 상태 전반을 대변하기

어려움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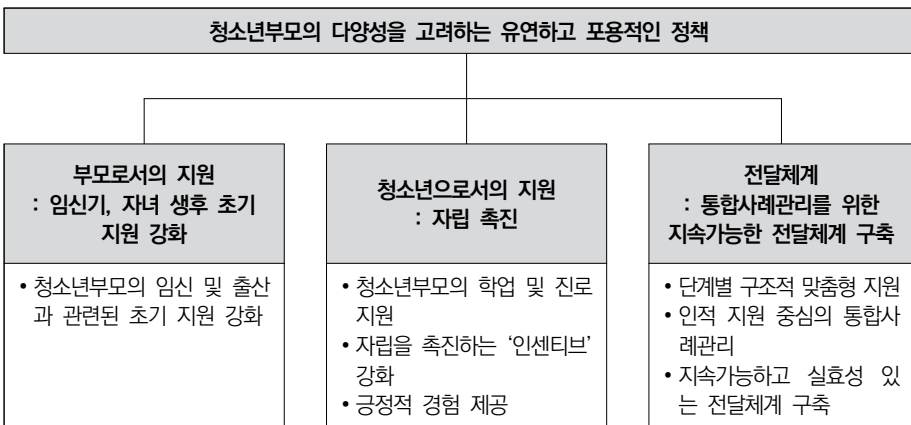
넷째, 청소년부모·청소년한부모 지원 정책을 부모의 특성과 연령으로만 구분하는 것은 가족의 다양성과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가진다. 청소년부모의 모습은 전형적인 모습이 없을 정도로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이며, 이들 가정의 모습은 전통적인 가족 모델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기존 청소년부모·청소년한부모 지원 정책들을 재평가하고 **청소년부모의 다양성을 고려하는 유연하고 포용적인 정책으로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떠한 특성을 가지는 가정에서 태어나든 아이들이 잘 자라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

이를 위해 ‘아동 중심’의 지원으로 청소년부모 지원의 틀을 잡아야 할 것이다. 부모가 어떠한 조건에 있기 때문에 주는 지원이 아닌, 아동을 둘러싼 **가구 단위**에서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부족한 부분을 찾아서 지원해주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자녀의 연령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자녀 연령에 따라 필요한 지원이 들어가는 면에서는 영유아 부모 대상 지원과 연결되고, 부모 청소년기 과업 해결을 위해서는 청소년 및 청년지원과 연결하는 등 제도의 통합, 연결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청소년부모에 대한 정책의 기본방향을 부모로서의 지원, 청소년으로서의 지원, 전달체계에 관한 부분으로 구분하여 제안하고자 한다.

[그림 V-1-1] 청소년부모 정책의 기본 방향



1) 부모로서의 지원: 임신기, 자녀 생후 초기 지원 강화

현재 청소년(한)부모 지원 정책은 아이가 태어난 뒤에 시작되는 경향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양육비 지원 관련 사업, 주거 지원 등이 그러하다. 또한 임신·출산 시기의 지원 내용은 비용 지원으로 한정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만 19세 이하인 임신 부에게 120만원 지원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청소년시기 임신을 경험하는 경우 직면하는 가장 큰 고민은 **‘아이를 낳을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면담에 참여한 청소년부모, 청소년한부모들 중 임신 사실을 뒤늦게 인지한 경우가 상당수 되었고, 아이를 낙태할 수 없는 개월에 임신을 인지하여 입양을 고려하고 낳게 된 경우가 다수였다. 이들이 이야기한 청소년부모 정책은 아이를 낙태하거나 입양하는 것을 우선 고려하게 하는 한계를 지닌다. 즉, 청소년부모가 아이를 낳으면 잘 키울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해주고 지지하는 집단이 있다는 인식이 부재하고, 실제 민간/사설 지원기관의 힘을 빌려 자녀 양육을 이어가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또한 임신기에 아이를 낳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지원에 대해 친절히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비슷한 상황에 있는 청소년부모, 청소년한부모의 이야기를 듣고 따라서 제도를 이용하게 된다.

아이를 익명으로 출산할 수 있도록 하는 보호출산제가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되는데(보건복지부, 2023. 10. 6), 청소년이 임신 시 쉽게 자녀 양육을 포기하고 익명으로 출산할 가능성이 있다. 출산 기록이 남지 않으며 자녀 양육을 포기할 수 있는 공식적인 선택지가 생겼기 때문에 청소년부모가 아이를 직접 양육하겠다는 용기 있는 선택을 할 때, 사회에서 청소년부모를 위해 이전보다 더 많은 지원과 응원으로 격려해야 할 것이다. 즉, 청소년부모가 아이 양육을 선택했을 때, **‘모든 임신은 축복받을 일이다.’**와 같은 긍정적인 메시지를 강력히 전달할 필요가 있다. 가치 있는 선택에 대해 격려하고 부모됨과 부모 양육역량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며, 아이를 양육하는 선택을 하고자 하는 청소년 임신기 부모를 대상으로 특별 주거 지원을 적극 확대하는 것 등이 실질적인 지원 예시가 될 수 있다.

정리하면 임신을 인지하고 임신 중단이나 출산 계획에 대한 고민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산후 6개월까지를 청소년부모의 양육역량 지원의 결정적 시기로 보고, 이 시기에 청소년부모를 대상으로 양질의 지원이 촘촘하게 제공될 필요가 있다.

2) 청소년으로서의 지원: 자립 촉진

청소년부모의 청소년으로서의 과업은 학업과 취업을 기반으로 한 ‘자립’이 핵심이다. 자립에 대한 의지를 가진 청소년부모도 자녀 양육을 도와줄 수 있는 조력자가 없으면 학업과 취업을 위해 도약하기 어렵다. 본 연구 결과에서도 학업과 취업을 위해 필요한 부분으로 비용지원을 제외하면, 학업과 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자녀를 실제 돌보아주는 서비스를 원하는 비율이 가장 높아 이러한 필요성을 지지한다.

청소년부모 중 자신이 스스로 일하여 돈을 버는 것보다 정부지원금을 받아서 생계를 이어가는 것에 의존하는 경우들이 있다. 정부지원금을 80만원 이상 수급하는 가정에서 자녀 양육 비용 지원을 가장 우선 희망하였던 본 연구의 결과를 볼 때, 청소년부모가 국가의 수급에 의존하여 머무르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장기적인 관점으로 볼 때 청소년부모의 생애 초기(부모로서의 초기)에 학업과 취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생애 초기 자립을 이루고 수급자로 머무르는 선택을 하지 않도록, 학업과 취업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이루었을 시 **긍정적 보상(인센티브)**으로 추가 지원이 이어져야 할 것이다. 자립하는 청소년부모가 지속해서 성장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긍정적인 강화가 제공되어야 한다.

이때 인센티브는 비용 지원을 넘어서 청소년부모가 다양하고 좋은 경험을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종류의 지원이어야 할 것이다. 청소년부모 대부분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또래가 하듯이 부담 없이 즐기고 노는 경험을 하지 못하거나 제한적으로 경험하는 경우가 많은데,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부모를 위한 인센티브로 ‘문화지원’을 강화(예: 자녀와 함께하는 여행, 콘서트 티켓 제공 등)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긍정적 경험을 제공하는 지원이 강조되어야 하는 것은 두 가지 이유이다. 청소년부모 중 원가정과 연락이 닿지 않고 고립되어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생애 초기에 긍정적 경험을 하지 못하고 성장한 경우가 많다. 긍정적 경험이 쌓일 때 청소년으로서의 과업과 부모로서의 과업을 잘 해낼 수 있다는 효능감을 가질 수 있을 것이므로 생애주기 초기에 성공의 경험, 성취의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중요하다. 두 번째, 청소년부모 가정에 지지적 가정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추후 지출될 수 있는 사회적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다. 청소년부모

와 그들의 자녀가 다양한 기회로부터 배제되어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초기에 지원한다면, 더 큰 위험에 빠지기 전에 안전 기지를 형성할 수 있는 긍정적 계기가 될 것이다.

3) 전달체계 : 통합사례관리를 위한 지속가능한 전달체계 구축

청소년부모 지원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이들에게는 어떠한 부모가 좋은 부모인지, 가정이 어떠한 방향으로 운영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지 알려주는 진정한 의미의 ‘어른’이 부재하다는 점이다. 또한 비용지원 위주로 지원이 이루어지다 보니 실제 다양한 서비스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다. 현장 전문가들은 청소년부모가 비용지원을 지속해서 희망하는 것도 양질의 다양한 서비스(인적 지원)를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결과라 입을 모았다.

이러한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청소년부모를 위해서는 특별히 **단계별 구조적으로 설계된 지원**이 필요하다. 크게 시기(임신·출산기, 자녀 양육기), 과업(청소년으로서의 학업/취업, 부모로서의 과업), 개별 특성(배우자 유무, 출산 시 부모 연령, 경제활동 상태별, 지역별)을 입체적으로 고려하는 ‘**통합사례관리**’가 제공되어야 한다.

특히 청소년부모 대상 지원은 ‘**인적 지원**’ 확대를 핵심으로 해야 할 것이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청소년부모가 자신의 자립과 성장을 지원하고 부모로서 잘 작용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는 ‘사람’이 필요하다. 우선순위에 따라 학업/취업 멘토, 사례관리사(가정 관리, 자녀 양육 지도 목적), 상담사(청소년 심리상담 목적), 주거 컨설턴트(청소년주거 정보 제공 및 계획 목적) 등이 붙어 맞춤형 밀착 지원이 가능하도록 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청소년부모 대상 인적 지원 중심의 **통합사례관리 주체가 될 기관이 필요한데**, 현 시점에서는 ‘**가족센터**’가 그러한 기능을 하고 있다 판단된다. 하지만 가족센터는 청소년부모를 지원하고 사례관리를 위한 전문 인력이 부족하고 시·도, 시·군·구 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어 서비스의 지속성과 일관성에 한계를 지닌다. 이런 상황에 대안으로 고려해볼 수 있는 주체는 ‘**드림스타트**’이다. 드림스타트에서는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 지원을 수행하고 있고, 초등학교 시기까지 서비스를 지속할 수 있기 때문에 아동 중심적인 지원을 제공하기에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청소년부모를 위한 통합된 전달체계가 부재한 현재 상황에서 이들을 위한 양질

의 서비스가 적시에 제대로 제공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청소년 자립, 경제적 지원, 자녀 양육역량 강화**를 위한 하나의 전달체계를 지정하고 구조화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어질 전달체계 제안 부분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부모를 위한 지원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정부공식 웹사이트 또는 포털사이트 검색(예: 복지포,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등)을 통하는 비율이 가장 많으며, 뒤이어 인터넷, 블로그/사이트 검색을 주로 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관할 지방자치단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에서 안내받는 경우는 개인 검색 이후에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었고, 이웃, 친구, 지인에게 소개받아서 지원 정보를 얻는 비율도 상당히 높았다. 청소년부모에게 힘든 부분 중 하나는 지원 정보를 스스로 알아내지 않으면 제도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다.

청소년부모를 지원하는 센터로 가족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 위(Wee)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이 운영되고 있지만, 인지도도 낮을뿐더러 이들 기관을 통해 서비스가 체계적으로 전달되고 있지 못하다. 심층면담에 참여한 대부분의 청소년부모는 민간/사립 지원 단체의 지원이 많은 도움이 되었음을 보고하고 있으며,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서비스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고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앞서 제안한 가족센터와 드림스타트로 연결하는 전달체계 역시 구축될 필요가 있다. 또한 청소년부모 지원정보는 보다 알기 쉬운 말로 제공될 필요가 있으며, 오프라인에서 직접 정책과 정보를 쉽게 설명해줄 수 있는 담당자가 필요하다. 따라서 통합사례관리 시작 전에 정보를 제공하고 사례관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원스톱 서비스 기능을 주민센터나 통합사례관리 기관에 부여하는 것을 제안한다.

2. 세부 지원 방안

가. 종합

본 연구에서 양육역량의 범위를 청소년부모의 내적특성과 외적 환경을 모두 포괄하는 범위로 규정하였기 때문에 세부 지원 방안 부분에서도 양육역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영역의 지원 요구를 종합적으로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 청소년부모가 가장 우선적으로 희망하는 지원(1순위 응답)은 자녀 양육 지원이었고, 임신·출산 지원, 가족 주거 지원, 부모 취업 지원 순이었다. 1+2순위 응답 합산 결과에 따르면 자녀 양육 지원, 가족 주거 지원, 부모 취업 지원, 임신·출산 지원 순이어서 차이가 있었지만, 청소년부모가 가장 우선적으로 원하는 지원이 '자녀 양육 지원'과 '가족 주거 지원'으로 좁혀지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종합적으로 정책 우선순위 설정 시 이 두 영역에 대한 지원을 우선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연구 결과에서 주목해야 할 중요한 점은 자녀 양육, 임신·출산, 가족 주거, 부모 학업 지원과 관련하여, '비용 지원'이 모든 이 지원 영역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지원으로 강조되는 것이다. 앞서 현장 전문가들의 견해처럼 지금까지 받아온 지원이 현금지원 중심이었기 때문에 비용 지원에 익숙하고, 달리 선호할 만한 좋은 서비스를 받은 경험이 없다는 점에서 비용지원을 선호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점을 고려해야 한다. 앞서 기본 방향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실제적으로는 서비스 지원, 특히 인적 지원에 중심을 둔 사례관리가 필요함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표 V-2-1〉 청소년부모 영역별 지원 경험과 요구

영역	1 순위	1+2 순위	연구 결과 종합	특성별 구분
자녀 양육 지원 (예: 아동수당, 가정양육수당, 청소년 아동양육비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1	1	- 이용경험 92.6% - 만족도 3.4점 - 양육비 지원 희망 56.5% - 가정 방문형 자녀 돌봄 서비스 지원 15.4%	- 미성년, 청소년부부, 정부지원금 많이 받을수록: 양육비 지원 희망 ↑
임신·출산 지원 (예: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첫만남 이용권)	2	4	- 이용경험 91.6% - 만족도 3.5점 - 병원비 지원 확대 29.1% - 출산 후 산후조리 관련 지원 확대 26.7%	- 최근 출산한 경우: 만족도 ↑ - 미성년, 청소년부부: 산후조리 지원 희망 ↑
가족 주거 지원 (예: LH임대지원, 공공주택지원)	3	2	- 이용경험 37.9% - 만족도 3.8점 - 주거비 지원 확대 49.1% - 임대주택 공급 확대 36.5%	- 청소년한부모, 자녀 연령 높을수록, 경제활동 하지 않는 경우, 소득 낮을수록: 이용 ↑ - 출산 시 미성년: 주거비 지원 확대 희망 ↑ - 출산 시 성인: 임대주택 공급 희망 ↑

영역	1 순위	1+2 순위	연구 결과 종합	특성별 구분
부모 취업 지원 (예: 국민 취업 제도, 국민내일배움카드)	4	3	- 이용경험 28.8% - 만족도 3.6점 - 안정적인 일자리 보장 42.1% - 취업/근무 중 자녀 돌봄 서비스 지원 30.2%	- 청소년한부모, 자녀 연령 높을 수록, 소득 낮을수록: 이용 ↑ - 성인: 취업/근무 중 자녀 돌봄 서비스 지원 희망 ↑
부모 양육역량 강화 지원 (예: 심리상담, 부모교육)	5	5	- 이용경험 17.5% - 만족도 3.7점 - 다양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지원 27.0% - 청소년부모 심리적 지원 강화 22.5%	- 청소년한부모, 경제활동 하지 않는 경우, 가구소득 낮을수록: 이용 ↑ - 미성년: 자조모임 확대 희망 ↑ - 출산 시 미성년: 부모 심리적 지원 강화 희망 ↑
부모 학업 지원 (예: 검정고시 학습 지원)	5	6	- 이용경험 18.9% - 만족도 3.6점 - 등록금 등 학업 비용 지원 41.1% - 학업 중 자녀 돌봄 서비스 지원 27.4%	- 미성년, 청소년한부모 이용 ↑ - 미성년: 학업 비용 지원 희망 ↑ - 출산 시 성인, 성인: 자녀 돌봄 서비스 지원 희망 ↑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청소년부모 양육실태 및 정책지원 요구 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진이 정리함.

청소년부모의 영역별 지원 우선순위는 분절적으로 이해하기보다는 통합적인 시각에서 보아야 한다. 청소년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 제한을 가지는 것은 자녀 양육을 직접적으로 도와주는 사람(인적 자원)이나 서비스의 부족에서 기인한다. 또한 임신 시기에 주거가 안정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섣뚱 아이 출산을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아이를 낳은 뒤에는 자녀 양육을 직접적으로 해야 해서 이들의 학업과 취업이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청소년부모가 자녀에게 좋은 양육을 제공하기에는 많은 한계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청소년기에 부모가 되었을 때 경험하는 심리적 부담과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기 어려운 구조이며, 이러한 불안정성은 원가정 혹은 배우자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으면 더 가중된다. 이처럼 청소년부모의 상황은 영역별로 떼어서 독립적으로 보기 어렵고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특성을 가진다. 따라서 우선순위에서 후순위에 있는 ‘부모 양육역량 강화’ 부문의 경우 실제 필요도가 낮아서 순위가 낮다기보다는 양육의 질 향상보다 더 시급한 생존의 문제를 우선 해결해야 하는 청소년부모의 상황으로 인한 결과로 해석해야 한다. 요구순위가 낮다는 것이 청소년부모에게서 ‘양육역량 강화’가 중요

하지 않거나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을 재차 기억해야 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청소년부모를 위한 지원에서 강화되어야 할 부분은 각 영역별 '인적 지원'이라 할 수 있다. 비용지원은 아동 기준으로 보편적으로 하고, 추가로 인적 자원 제공을 가족 특성별, 맞춤형으로 하는 **통합사례관리**가 지원되어야 한다. 이때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두 가지 포인트는 청소년부모의 **생애주기**와 **발달과업**이다.

생애주기와 발달과업을 고려한 종합 계획의 구체적 제안 내용은 <표 V-2-2>와 같다. 임신·출산기의 핵심은 임신 기간에도 학업과 취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고, 이 시기의 초기 심신 건강 지원을 통해 자녀를 출산하고 부모가 되길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 자녀 양육기의 핵심은 학업과 취업에서의 성취를 희망하는 가정의 자녀 돌봄을 지원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돕고, 상담전문가, 부모교육 전문가, 사례관리사의 도움을 받아 부모 양육의 질을 높이는 것에 있다.

<표 V-2-2> 청소년부모 지원의 고려사항: 생애주기, 발달과업

구분		발달 과업		비용	서비스 (인적 지원)
		청소년으로서의 과업 (학업, 취업)	부모로서의 과업		
생애 주기	임신· 출산기	• 임신 중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 • 청소년부모의 출산을 지원하는 체계 마련	• 출산, 자녀 양육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 • 부모됨 중심의 부모 양육역량 강화 교육 제공 • 생애초기 심리 상담+자조모임 등 지지체계 마련	보편적	생애 초기 심신 건강 지원
	자녀 양육기	• 자녀 돌봄 서비스 제공을 기본으로 하여 학업/취업을 준비하도록 지원 • 학업/취업의 성취에 대해 인센티브 제공	• 부모역할을 잘 해낼 수 있도록 상호작용역량 강화 • 가정 방문형 서비스 강화(가정 관리 및 양육 코칭 제공)	지원	자녀 돌봄 교육 인력 파견
비용		보편적 지원			
서비스 (인적 지원)		학업/취업 멘토	상담전문가, 부모교육 전문가, 사례관리사 지원		

나. 영역별 지원 전략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청소년부모 지원의 영역별 지원 전략을 종합하면 <표 V-2-3>과 같다.

<표 V-2-3> 청소년부모 영역별 지원 전략 요약

영역	세부 지원 전략
자녀 양육 지원	• 보편적 양육비 지급이 줄어드는 시기에 청소년부모 양육비 지원을 확대 • 가정 방문형 자녀 돌봄 서비스 강화: 아이돌봄서비스 우선 이용권 부여
임신·출산 지원	• 생애초기 건강관리 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 + α • 임신 초기에 출산과 양육에 대한 정보를 집중적으로 제공 • 임신기 청소년부부 출산 시설 마련
가족 주거 지원	• 청소년부부를 독립적 가족 주체로 인정 • 임신기에 주거 지원 가능하도록 지원: 임대주택 보증금 확대 지원 • 청소년부모를 위한 다양한 주거 형태 확대 • 청년·신혼부부 계층 임대정책과 연결지어 주거 지원 확대
부모 취업 지원	• 안정적인 일자리 지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확장판 '청소년부모일자리도약장려금' 마련 • 취업 준비 중, 근무 중 자녀 돌봄 강화: 아이돌봄서비스 우선 이용권 부여
부모 양육역량 강화 지원	• 구조화된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 • 부모 양육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내용: 자녀 연령별 발달 정보, 올바른 상호작용 방법과 더불어 아동 인권 교육, 아동 학대 방임 예방교육 포함 • 통합사례관리, 방문형 서비스 제공 • 정서지원 강화
부모 학업 지원	• 미성년 청소년부모가 임신 중에도 학교를 지속해서 다닐 수 있도록 지원 • 고등학교 사이버이수 가능하도록 확대 • 학업 중 자녀 돌봄 강화: 아이돌봄서비스 우선 이용권 부여 • 청소년부모 대학 입학 시 인센티브 지급 • 멘토 지원 강화

1) 자녀 양육 지원

가) 보편적 양육비 지급이 줄어드는 시기에 청소년부모 양육비 지원을 확대

2023년부터 정부에서 부모가 되는 첫 1년에 대한 양육비 지급을 강화한 상황이 기 때문에 최근 출산한 청소년부모 역시 이러한 보편적 복지의 혜택을 받고 있다. 2023년 기준 첫만남이용권 200만원, 부모급여 연간 840만원 선, 아동수당 연간 120만원이 첫 1년에 제공되기 때문에 양육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어진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듬해부터(아이 1세 때) 지원 금액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기 때

문에 양육비 지원이 갑자기 줄어드는 상황에 대해 청소년부모의 대비가 필요하다.

첫째, 아이 1세 때, 즉 보편적으로 받는 자녀 양육비 지원이 줄어드는 시기에 청소년부모 대상 양육비 지원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둘째, 자녀를 임신하거나 양육하고 있는 청소년부모가 학업과 취업을 준비하는 경우, 추가 양육비를 인센티브 형식으로 추가 제공하는 것이 정부 지원에 대한 양육비 의존을 예방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나) 가정 방문형 자녀 돌봄 서비스 강화: 아이돌봄서비스 우선 이용권 부여

단순히 양육비를 지원하는 것이 청소년부모의 자립을 보장하지 않는다. 이러한 이유로 청소년부모가 2순위로 희망한 ‘가정 방문형 자녀 돌봄 서비스 지원’이 중요한 것이다. 다른 가정에서도 아이를 돌봐주는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으나, 지지 기반이 약한 청소년부모만큼 이러한 서비스를 절실하게 원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이다.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봄서비스를 청소년부모에게 우선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제안한다. 출산 시 청소년부부 혹은 청소년한부모 연령이 모두 미성년인 경우 특히 지원의 우선권을 줄 필요가 있다. 부모 중 한 명이라도 미성년이면 이들이 학업 중이거나 취업을 준비 중이면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정부에서 이용비를 전액 지급하여 국가의 자녀 돌봄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자립’의 노력을 칭찬하고 독려해야 한다.

2) 임신·출산 지원

가) 생애초기 건강관리 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 + α

앞서 기본 방향과 종합 전략 부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청소년부모 대상으로 자녀가 태어나기 이전 임신기에 대한 지원이 확충되어야 한다. 기존에 임신부와 2세 영아기의 건강 수준 향상을 목표로 한 ‘생애초기 건강관리 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을 청소년부모의 임신 시기부터 필수 지원하도록 하여 국가의 보호 아래 출산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청소년부모 대상 지원은 특히 자녀가 태어난 이후부터 지원이 시작되는 것이 아

나라 임신 시기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청소년부모가 임신 등록을 하는 경우 생애초기 건강관리 사업이 바로 필수로 제공되고, 이렇게 미리 등록하고 아이를 출산하면 추후 자녀 양육에 관련된 지원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을 제안한다.

또한 임신·출산 시 시설에 입소하지 않은 경우는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임신 기간부터 정기적인 가정 방문(대면 상담)을 시행해야 할 것이다. 임신 초기 출산을 고민하는 시점, 출산을 결심하고 안정기에 들어가는 시기, 출산을 준비하는 임신 말기로 적어도 3번의 대면 상담을 통한 사례관리를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심층면담 중 청소년부모들이 병원을 출산하는 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방문한 경우가 있었는데,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하게 관리되어야 할 것이다.

나) 임신 초기에 출산과 양육에 대한 정보를 집중적으로 제공

현재의 청소년부모 임신·출산 지원은 임신 24주 이전의 지원이 미비하다는 점에 한계를 지닌다. 임신 초기에는 부모됨을 준비하고 정보를 습득하고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확보됨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은 이 시기에 임신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아이를 낳을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고민으로 시간을 보내곤 한다. 아이를 낳아 잘 기를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출산과 양육에 대한 정보를 임신 초기에 집중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제안한다.

다) 임신기 청소년부부 출산 시설 마련

본 연구의 심층면담에서 청소년한부모는 임신 말기에 한부모가족복지시설(미혼모 시설)에 입소하여 출산과 산후조리를 모두 도움을 받은 경험이 많았으나, 청소년부부는 이러한 도움을 받은 경험이 거의 발견되지 않았다. 미혼모가족복지시설은 배우자/파트너가 없이 홀로 자녀를 출산하고 기르는 경우에만 이용 가능하므로 청소년부부가 배우자와 떨어져서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는 찾기 어렵다. 청소년부부의 안정적인 출산을 돕기 위해 청소년부부 모두가 함께 머무를 수 있으면서 초기 출산과 양육을 지원해주는 형태의 복지시설을 마련하는 것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 청소년부모에 대한 진료를 우선으로 하는 거점형 산부인과를 지정하고(기존 산부

인과 중 선정), 공공형 산후조리원을 이들을 위한 조리기관으로 선정할 수 있다. 청소년부모 지원 병원과 산후조리시설로 지정되는 곳은 정부지원금을 제공하여 운영에 이점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대안으로 고려될 수 있다.

3) 가족 주거 지원

가) 청소년부부를 독립적 가족 주체로 인정

청소년부모가 주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 초기 어려움을 경험하고 자립하지 못하며 빈곤으로 나아갈 확률이 높아진다. 청소년부모의 주거 분리를 어렵게 하는 것은 현재의 법률 체계가 청소년부부를 독립적인 가족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원가정과의 주민등록상 관계 때문에 세대 분리가 어려운 경우와 자녀를 낳았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미성년자의 경우, 거주지를 분리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워진다. 청소년부부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러한 조건을 완화하여 미성년인 청소년부부도 가정으로서 독립된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나) 임신기에 주거 지원 가능하도록 지원: 임대주택 보증금 확대 지원

임신한 청소년부부가 자녀를 출산하여 양육하는 선택을 하였을 때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주거' 부분이다. 때문에 주거가 확실하지 않을 때 아이를 낙태하거나 유기할 위험성이 커질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청소년한부모는 한부모가족 복지시설(미혼모 시설)에서 주거를 해결할 수 있지만, 청소년부부의 경우 임신기에 주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점이 사각지대로 남아있다. 따라서 임신한 청소년부모가 임대주택을 이용하고자 한 경우 보증금 전액을 면제해주어 초기 시작부터 안정적인 주거를 확보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무주택 저소득층인 청소년의 경우 주거지원 뿐 아니라 다양한 역량강화 서비스가 동시에 필요할 수 있으므로 임신과 출산까지 통합사례관리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 동안 임대주택 입주와 보증금 면제 기회를 부여하는 것을 추천한다. 청소년자립지원관(이용형) 모델에서와 같이 대상자로 선정되면 개별 거주지에서 2년 정도 거주하면서 사례관리를 받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다.

다) 청소년부모를 위한 다양한 주거 형태 확대

청소년한부모가 다수 이용하는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은 자녀 연령과 머무르는 기간에 따라 1차 시설, 2차 시설, 3차 시설로 구분된다. 이처럼 청소년부부 역시 자립을 위해 임시로 머무를 수 있는 가족복지시설이 필요하다. 청소년부모가 임신·출산기에 머무를 수 있는 임시 주거시설을 국가 차원에서 운영하는 것을 제안한다. 아름다운재단과 킹메이커가 운영하는 ‘119응급하우스’, ‘인큐베이팅 하우스’처럼 머무는 기간과 주택 형태에 따라 맞춤형 주거 지원을 국가 차원에서 확대해나가야 할 것이다. 현재는 재단과 청소년부모 지원 단체인 킹메이커에서 관리하는 주거 지원 사업을 모델링하여 지자체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라) 청년·신혼부부 계층 임대정책과 연결 지어 주거 지원 확대

청년임대주택의 경우 자녀 유무를 제한 기준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청소년부부 혹은 한부모가 지원할 수 있다. 많은 청소년부모들이 아이가 있어서 지원할 수 없는 줄 아는 경우가 많으나, 자녀 유무에 따른 지원 제한 규정이 없는 경우 이용가능한 부분이 있음을 널리 알려야 할 것이다.

19세 이상 청소년한부모의 경우 청년매입임대주택이나 기숙사형 청년주택을 지원할 수 있으며, 청소년부부의 경우 청년전세임대나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혹은 전세임대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위의 임대주택 사업들이 청년임대의 경우 19세 이상~39세 이하로 범위가 넓고, 신혼부부 임대사업의 경우 한부모에게는 우선순위를 주지만 청소년부모에게는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지 않아서 순번에서 밀릴 수 있는 등 이용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 지원 정책 중에 청소년부모를 포괄할 수 있는 부분은 포함하되 안정적 주거가 더욱 절실한 청소년 부모에게 우선순위 가점을 부여하는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청년전세임대의 경우 만 19세 미만의 (대학생/취업준비생) 청년도 대상으로 포괄하고 있어서 미성년 청소년부모가 지원할 수 있는 주거지원이라 할 수 있다.²³⁾ 이처럼 연령이 19세 이상으로 제한되지 않고 미성년 청소년부모도 이용할 수 있는

23) 한국토지주택공사. (n.d.). 청년전세임대.
<https://apply.lh.or.kr/lhapply/cm/cntnts/cntntsView.do?mi=1240&cntntsId=1040>에서 2023. 10. 17. 인출.

임대주택의 지원이 더욱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청소년부모가 소득이 낮은 경우 취약계층으로 분류되어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주거취약계층에 “출산 예정 미혼모”나,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주거 환경에서 만 19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지원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어서 청소년부부인 경우 이용할 수 있는지 불분명한 한계를 지닌다.²⁴⁾ 청소년부부가 ‘주거취약계층 주거향상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다.

4) 부모 취업 지원

가) 안정적인 일자리 지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확장판 ‘청소년부모일자리도약장려금’ 마련

기본 방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청소년부모가 취업하고 자립하는 데 우선을 두는 방향으로 정책이 나아가야 한다. 그런 방향에서 부모 취업 지원은 취업 시 인센티브를 더욱 부여하는 방향으로, 성취를 인정하고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청소년부모가 안정적인 일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확장판인 ‘청소년부모일자리도약장려금’을 추가로 마련하는 것을 제안한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기업에서 취업으로 청년(만 15~34세의 취업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청년층)을 정규직으로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기업에 지원하는 제도이다.²⁵⁾ 제도 활용 시 기업은 청년 근로자의 임금 중 일부를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으로 충당할 수 있어 이점을 가진다. 청소년부모 역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대상이 되어 수혜를 받을 수 있지만, 자녀를 양육하는 청소년부모가 일반 청년들과 경쟁하여 이러한 기회를 얻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청소년(24세 이하)이면서 본인/배우자가 임신 중이거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자로 하는 ‘청소년부모일자리도약장려금’을 추가 신설하고,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과 중복수혜 가능하도록 기업에 지원하여 기업에서 청소년부모를 우선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추천한

24) 서울주거포털. (n.d.). 주거취약계층 주거향상지원.

https://housing.seoul.go.kr/site/main/content/sh01_061023에서 2023. 12. 6. 인출.

25) 고용노동부. (n.d.). 청년, 일할 기회 늘리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https://www.moel.go.kr/policy/policyinfo/young/list17.do>에서 2023. 12. 6. 인출.

다. 이를 통해 청소년부모의 고용 확대를 지원하고 안정적인 자립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나) 취업 준비 중, 근무 중 자녀 돌봄 강화: 아이돌봄서비스 우선 이용권 부여

취업 지원과 학업 지원 요구에서 공통으로 언급된 희망 지원은 학업, 취업 준비, 근무 중에 자녀를 돌봐주는 서비스였다. ‘자립’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로 청소년부모가 학업, 취업 준비, 직장 근무 중이면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가산점과 우선권을 부여하는 것을 제안한다.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는 아이들은 연장보육 등을 활용할 수 있으나, 가정 양육을 하는 가정에 대해서는 특히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에 우선권을 두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가정보육을 하는 청소년부모 가정을 대상으로 ‘시간제 보육’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간제 보육은 거주 지역에서만 이용해야 하는 서비스가 아니라, 가정, 학교, 직장에서 가까운 기관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 이점이 있으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면 좋을 것이다. 청소년부모가 시간제보육 이용의 우선권을 가질 수 있도록 가점을 부여하는 등 시간제보육제도의 내용을 보완하는 것을 제안한다.

5) 부모 양육역량 강화 지원

가) 구조화된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부모가 자녀 양육과 관련하여 자신이 무엇을 배우고 싶은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견되었다. 어떠한 정보가 어느 시기에 필요한지 잘 인지하지 못하는 청소년부모를 위해 그들의 발달과업과 생애주기에 맞는 자녀 연령별 지원 서비스가 시기별로 지원되도록 프로그램이나 지원의 단계가 구조화될 필요가 있다.

나) 부모 양육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내용: 자녀 연령별 발달 정보, 올바른 상호작용 방법과 더불어 아동 인권 교육, 아동 학대 방임 예방교육 포함

통합사례관리 차원에서 전문가가 가정 방문하여 가정생활에 대한 전반적 관찰과

지원을 계획할 때 양육역량 강화 서비스가 포함되어야 한다. 임신기에는 출산과 자녀의 기본적 생활을 지원하는 방법(먹이는 법, 재우는 법, 씻기는 법 등), 안전한 가정환경을 조성하는 방법에 대해 우선적 교육을 시행해야 하며, 자녀 성장에 따라 해당 연령의 발달 정보를 제공하고 발달을 촉진하는 방법, 대화하는 방법 등을 추가로 익히도록 도와야 한다.

청소년 지원 단체의 현장전문가들은 청소년부모의 자녀들에게 발달 지연 사례가 흔히 발견되고 있다고 증언한다. 청소년부모가 자녀와 적절하게 상호작용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으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아이에게 발달 자극을 충분히 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소년부모 교육과 연습할 기회가 충분히 마련되어야 한다. 본 연구 결과에서 청소년부모가 가장 배우고 싶은 양육역량 영역이 '상호작용' 영역이었다는 점을 근거로 부모-자녀 간 상호작용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을 제공할 것을 제안한다. 이러한 교육은 가족센터, 드림스타트,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을 통해서 전달할 수 있을 것이다.

청소년부모 현장전문가들은 청소년부모가 어떠한 언행이 아이를 학대하는 것인지 정확한 개념을 익히지 못하고 있음을 공통으로 언급하였다. 심층면담 중에도 원가정에서 부모의 폭력을 경험한 청소년부모가 '아이를 때리지 않고 원하는 것을 다 해주면 좋은 부모다.'라는 제한된 부모상을 가진 경우를 다수 발견할 수 있었다. 올바른 부모상을 제시하고 아동 권리를 존중하는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 아동 인권 교육, 아동 학대 및 방임 예방 교육이 필수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다) 통합사례관리, 방문형 서비스 제공

가정을 꾸려나가는 연습을 해본 적이 없는 청소년들이 갑자기 부모가 되었을 때 자녀 양육 방법에 대한 어려움도 크지만, 빨래하는 방법, 옷을 개는 방법, 음식 하는 방법 등 생활적인 면에 대한 경험 부족이 전반적 어려움을 가중하는 요인이 된다. 이러한 청소년부모의 특성을 고려해보면 사례관리사가 가정을 방문하여서 그 가정에 필요한 역량을 키워주는 것이 중요하고 효과적인 것이다. 사례관리사는 전반적인 생활 지도와 자녀와 상호작용하는 방법 등을 1:1 소통을 통해 전달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육아지침서는 사례관리사의 사례 방문 시 함께 다루어야 할 내용에 대한 가이드가 되어줄 것이다.

라) 정서지원 강화

부모 양육역량 강화는 임신기부터 준비되어야 하며, 단순히 자녀의 발달 등 양육 정보를 얻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부모 개인의 정서지원에 대한 지원이 함께 투입되어야 한다. 내 마음 관리하기, 관련 상담과 양육 코칭이 함께 들어가는 형태로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 할 수 있다.

청소년부모가 양육역량 강화 측면에서 두 번째로 많이 희망한 지원이 ‘부모의 심리적 지원’ 강화였는데, 이는 청소년부모가 되어서 관계가 단절되어 발생하는 고립을 예방하는 데 필요한 지원이라 할 수 있다. 비슷한 경험을 가진 선배 청소년부모들이 멘토/서포터즈가 되어 정기적으로 만나는 것이 이러한 지원의 예가 될 수 있다. 이 외에 전문적 상담 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상담 시간 동안 자녀 돌봄을 지원하는 등 양육 인프라를 함께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6) 부모 학업 지원

가) 미성년 청소년부모가 임신 중에도 학교를 지속해서 다닐 수 있도록 지원

부모 학업 지원은 청소년 부모의 장기적 자립을 위해 기초가 되는 지원이며, 특히 미성년의 청소년의 학업 지원은 그 무엇보다 우선시되어야 하는 지원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부모 학업 지원 요구가 다른 영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본 연구의 조사에 참여한 현재 미성년인 청소년부모의 수가 제한적이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청소년부모들 중 임신 기간 동안에 학교를 그만두거나, 대안 학교로 옮겨서 학업을 완수한 경우, 검정고시를 통해 고등학교 졸업학력을 갖게 된 경우가 다양하게 존재하였다. 여성 청소년부모가 임신 중 학교를 계속 다닐 수 있었던 경우는 매우 찾기 어려웠는데, 이는 청소년이 임신한 경우 편견 없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다는 사회적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학교에서 임신을 문제 삼을 수 있다는 생각에 청소년부모는 배가 나온 것을 감추려 출산 직전까지 배를 뽕뽕 감싸고 다니는 것이 익숙한 현실이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학교 내에서 ‘모든 임신은 축복받을 일이다.’, ‘한 생명을 책임지는 선택을 한 청소년 역시 존중

받을 권리가 있다.’는 인식 개선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동시에 생각해야 할 점은 이들은 청소년으로서 교육받을 권리 역시 있다는 점이다. 임신하였든, 아이를 낳아서 양육하고 있든, 자신의 연령, 발달단계에 맞는 과업을 지속해서 수행할 권리가 있다. 이들에게 대안학교나, 검정고시가 최선의 옵션이 되어서는 안 된다. 미성년 청소년부모의 달라진 조건과 상황 때문에 학업을 그만두지 않도록 학교 내에서 이들을 포용해야 하며, 출산을 위해 결석한 기간은 ‘병가’로 처리하여 출석 일수 부족으로 제적당하지 않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나) 고등학교 사이버이수 가능하도록 확대

사회의 편견 때문에 청소년부부 스스로가 학교 내에서 다른 학생들과 함께 교육받기를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다면, 고등학교 과정을 온라인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실제 ‘방송통신고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이 한 달에 두 번 일요일에 출석하고 인터넷을 통해 학습하며, 나이에 제한 없이 고등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운영 중이다. 청소년부모의 학업 중단을 막는 것이 최우선이지만, 기존에 다니던 학교에 다니기 어려운 경우 사이버로 이수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이는 자녀 양육과 학업을 동시에 해내야 하는 청소년부모에게 효과적인 옵션이 될 수 있다.

다) 학업 중 자녀 돌봄 강화: 아이돌봄서비스 우선 이용권 부여

취업 지원에서와 마찬가지로 부모가 학업 중이면 ‘자립’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로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가산점과 우선권을 부여하는 것을 제안한다. 또한 시간제돌봄을 학업 중 자녀 돌봄 서비스의 하나로 이용하도록 독려하는 방안이 효과적일 것이다.

라) 청소년부모 대학 입학 시 인센티브 지급

연구의 설문조사와 심층면담을 통해 유리한 조건으로 자립하기 위해서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청소년부모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들이 대학에 입학했을 때 학업 성취를 독려하고 자립을 촉진하는 방안으로 청소년부모의 대학 입학금 지

급과 같은 인센티브를 국가에서 제공하는 것을 추천한다. 또한 한해 우수한 성적을 내고 과업을 성실하게 해낸 경우에 인센티브를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실제 심층면담에 참여한 청소년부모들 중 다수가 대기업 사회공헌사업으로 우수 성적 인센티브에 대한 대가로 200만원을 매해 지급받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국가에서 소정의 인센티브를 지급한다면 이들의 성취를 돕는 긍정적인 보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마) 멘토 지원 강화

반복적으로 강조한 ‘인적 지원’의 일환으로 청소년부모이면서 학업에서 성취를 경험한 선배들과의 만남을 주선하여 멘토-멘티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특히 청소년부모로서 대학 졸업 후 자신의 꿈을 키워나가고 사회인으로서 잘 적응하는 모습을 보여준 멘토를 발굴하여 후배 청소년부모에게 ‘너희도 할 수 있다.’라는 용기를 불어넣어 주는 기회를 만들어준다면 긍정적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 특성별 지원 전략

본 보고서의 기본방향에서 청소년부모·청소년한부모 지원이 부모의 특성과 연령으로만 구분하는 것이 지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 이는 단편적인 기준으로 집단을 구분하는 것에 대해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단계별 구조적 맞춤형 지원(Guidance and support), 특히 인적 지원 중심의 통합사례관리를 위해서는 청소년부모의 여러 가지 특성에 따른 상황과 환경의 차이를 세심히 살펴보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이를 위해 ‘다. 특성별 지원 전략’ 부분에서는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청소년부부와 청소년한부모, 부모 연령별(현재, 출산 당시 미성년, 성인), 경제활동 상태별(경제활동을 한 명이라도 하는 가구, 전혀 하지 않는 가구), 거주지역별 차이를 정리하고 이에 따라 우선시되어야 하는 지원을 제안하였다.

1) 청소년부부, 청소년한부모 비교

부모 모두가 24세 이하인 청소년부모와 청소년한부모에 대한 법이 각기 구분되

기 때문에 두 집단 간 지원 수준에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 한 명만 24세 이하인 청소년부모가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선행연구와 현장전문가들의 자문내용을 바탕으로 부모 모두 24세 이하인 청소년부부(n=108), 부모 중 한 명만 24세 이하인 청소년부부(n=52), 청소년한부모(n=125)를 함께 비교해보았다. 세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결과를 정리하면 <표 V-2-4>와 같다.

첫째, 임신 중 자녀 양육 중에 도움이 없다고 인식하는 정도는 청소년한부모에게서 가장 강했다. 이들은 배우자의 부재가 전제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취약한 상황에 놓인다. 또한 자신의 양육역량에 대해서도 청소년부부에 비해 낮은 점수를 보고했는데, 이는 청소년한부모가 부모로서의 자기 모습에 낮은 자신감을 보이는 것으로 이해되며, 자존감 회복 및 양육역량 증진을 위한 지원이 이들에게 특히 더 강화될 필요가 있음을 지지한다.

둘째, 산후 우울이나 일상적 우울 때문에 전문 상담을 받은 경험의 비율을 비교해보면, 부모 모두 24세 이하 집단에서 상담 경험이 가장 낮게 발견되었다. 청소년한부모의 경우 상담 서비스 지원이 청소년부부에 비해 다양하게 제공되는 경향이 있어서 그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은 결과는 청소년부부 특히 부모 모두 연령이 낮은 경우 심리적 지원이 더 적극적으로 지원되어야 함을 지지한다.

셋째, 현재 학업 중인 청소년부부의 비율 역시 부모 모두 24세 이하인 청소년부부가 가장 낮게 보고된 점이 눈에 띈다. 청소년한부모는 청소년부부에 비해 학업 중단 비율도 높지만, 그만큼 다시 학업을 지속하는 비율 역시 높은 것으로 이해된다. 청소년부부의 학업 지원 정책이 청소년한부모에 비해 미비한 부분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넷째, 임신기 정보 제공에 있어서 도움을 받지 못한 정도가 가장 높은 집단이 부모 한 명만 24세 이하인 청소년부부였다는 점에서 ‘정보’ 습득의 측면에서 도움이 필요한 것은 부모의 나이와 배우자 유무와는 별개의 문제임을 확인하였다. 이는 청소년부모 모두에게 임신 중 충분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안내/소통 창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다섯째, 정책 이용률과 지원 우선순위에 대한 의견은 청소년부부와 청소년한부모로 갈리는 경향을 보였다. 전반적 제도 이용률은 청소년한부모 집단이 청소년부

부 집단에 비해 높았다. 청소년부부는 자녀 양육 지원과 임신·출산 지원을 우선시한 반면, 청소년한부모는 자녀 양육 지원과 부모 취업 지원을 최우선으로 선택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였다. 취업을 통한 자립 의지가 한부모에게서 더 강하게 드러나는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표 V-2-4〉 청소년부부(부모 모두 24세 이하, 한 명만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 연구 결과 비교표

구분		청소년부부 (부모 모두 24세 이하) (n=108)	청소년부부 (부모 한 명만 24세 이하) (n=52)	청소년한부모 (24세 이하) (n=125)
첫 자녀 출산 시 모 연령		19.8세	20.4세	18.8세
첫 자녀 출산 시 부 연령		20.0세	26.0세	21.6세
임신 부담 (4점)	신체	2.8	2.7	3.1
	정서	3.0	3.0	3.3
	사회고립	3.0	2.6	3.4
	경제	3.5	3.0	3.6
	가족관계	2.8	2.4	3.3
도움 없는 비율(임신)	경제	8.3%	9.6%	12.0%
	정서	8.3%	11.5%	17.6%
	생활	10.2%	13.5%	19.2%
	정보	14.8%	26.9%	18.4%
미혼모자 가족시설 이용률		7.2%	8.2%	51.8%
산후조리원 이용률		60.2%	63.3%	42.9%
정신건강(4점)		2.8	2.6	2.4
상담 경험		15.7%	19.2%	36.0%
양육 부담 (4점)	경제	3.3	2.9	3.4
	가족관계	2.3	1.9	2.5
양육 도움정도(4점) 경제		2.6	2.3	2.2
도움 없는 비율(양육)	경제	8.3%	5.8%	40.0%
	정서	4.6%	7.7%	19.2%
	생활	9.3%	11.5%	24.0%
	정보	15.7%	25.0%	27.2%
양육역량 (5점)	상호작용	4.3	4.4	4.2
	양육	3.6	3.7	3.2
	정서	3.6	3.5	3.3
원가정 부모 함께 거주 여부		22.2%	9.6%	28.0%
원가정 부모 연락 여부		86.9%	85.1%	72.2%
현재 학업 여부		6.5%	7.7%	16.0%
학업 중단 경험		23.1%	23.1%	26.4%
경제 활동 여부		35.2%	21.2%	31.2%

구분	청소년부부 (부모 모두 24세 이하) (n=108)	청소년부부 (부모 한 명만 24세 이하) (n=52)	청소년한부모 (24세 이하) (n=125)
월 평균 가구소득(만원)	210.1	253.0	61.1
월 평균 정부지원금(만원)	60.6	57.5	105.6
소득+지원금 합계(만원)	270.7	310.5	166.7
임신·출산 지원 경험 여부	93.5%	94.2%	88.8%
부모 학업 지원 경험 여부	15.7%	7.7%	26.4%
부모 취업 지원 경험 여부	24.1%	23.1%	35.2%
가족 주거 지원 경험 여부	26.9%	21.2%	54.4%
부모 양육역량 지원 경험 여부	11.1%	5.8%	28.0%
지원 우선순위	자녀 양육 > 임신·출산 > 가족 주거 > 부모 취업 > 부모 양육역량 강화 > 부모 학업	임신·출산 > 자녀 양육 > 부모 취업 > 가족 주거 > 부모 학업 > 부모 양육역량 강화	자녀 양육 > 부모 취업 > 가족 주거 > 임신·출산 > 부모 양육역량 강화 > 부모 학업
가족센터 이용률	20.4%	3.8%	24.0%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용률	8.3%	11.5%	20.0%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률	25.9%	19.2%	40.8%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청소년부모 양육실태 및 정책지원 요구 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진이 정리함.

위 내용을 바탕으로 청소년부모 배우자 유무, 연령 조건에 따른 지원 전략을 정리한 결과는 <표 V-2-5>와 같다. 연구 결과를 종합해보면, 청소년부부의 연령 조합(부모 모두 24세 이하, 부모 한 명만 24세 이하)에 따른 지원은 크게 차별을 두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하였다. 공통적으로 배우자 연령과 상관없이 청소년모가 임신 중 출산 관련 정보를 얻기 어려웠던 만큼, 임신한 여성청소년에게 정보가 긴밀히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중고등학교 성교육 시간에 피임 교육(청소년기 임신 예방 목적)과 더불어 임신했을 때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공적 기관의 정보를 공유(예: 가족상담전화 등)하는 것을 제안한다. 현재는 이러한 역할이 민간 지원기관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을 생각해볼 때 여성가족부 사업 중 청소년부모 대상 정보제공 및 상담 제공의 기능을 확충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반면 연구 결과에서 청소년부부와 청소년한부모 간에는 다양한 부문에서 차이가 발견되어 다음과 같은 지원 전략을 특성별로 제안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첫째, 청소년부부의 경우 미혼모자 가족시설 이용이 어려운 상황에 출산을 준비할 수 있는

지원이 강화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청소년부부의 주거 지원을 임신기부터 조기화 하는 지원이 동반되어야 한다. 둘째, 학업에 대한 열정이 높고, 다양한 지원을 받아 온 청소년한부모에 비해 청소년부부의 경우 현재 학업중인 비율이 낮기 때문에 원하는 경우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이들에 대한 맞춤 지원(예: 청소년부모 학업 시 아이돌봄서비스 우선 지원 등)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청소년한부모에게는 자존감 신장과 부모로서 효능감을 높여줄 수 있는 지원이 지속해서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가족센터를 중심으로 청소년부모 자조모임을 조성하고 지원해주고, 앞서 반복적으로 언급한 인적 지원 중 심리상담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

〈표 V-2-5〉 청소년부모 배우자 유무, 연령조건에 따른 지원 제한

구분	청소년부부	청소년한부모
배우자 유무별	• 산후 우울이나 일상적 우울 대비 심리적 지원 (특히 부모 모두 24세 이하 집중) • 임신·출산 지원 강화: 주거지원(단기, 장기 거주) • 학업 지원 정책 강화	• 자존감 회복 및 양육역량 증진을 위한 지원
전체 공통	• 임신기 정보 제공(특히, 부모 중 한 명만 24세 이하가 사각지대) • 자녀 양육 지원 확충	

2) 부모 연령별(현재, 출산 시) 비교

청소년부모의 현재 연령 혹은 출산 시 연령에 따라 미성년 집단과 성인 집단으로 구분하여 연구 결과를 정리해보면, 연령별로 취약한 부분이 달리 보고된 점이 눈에 띈다.

첫째, 청소년부모의 연령이 어릴수록 임신에 대한 부담이 클 것이라 가정하였으나, 실제 본 연구 결과에서는 성인인 청소년부모의 임신 부담이 미성년 집단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았다. 산후 우울을 경험한 비율도 성인인 청소년부모가 약 20% 이상 높았고, 신체건강도 더 낮게 보고하였다.

둘째, 양육역량 면에서도 부모의 연령이 어리면 자신의 역량을 낮게 보고할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실제 연구 결과에서는 성인 청소년부모가 자신의 양육역량 전반을 더 낮게 응답하였다. 이는 미성년 부모가 자신의 역량을 객관적으로 파악하지 못한 결과일 수 있어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달리 생각하면, 양육 역량은 특별히

부모의 연령과 무관하게 전반적으로 개발이 필요한 부분이라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같은 연구 결과는 부모 양육역량이 특별히 연령이 낮아서 더해져야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자녀 연령에 따라 지속해서 지원되어야 할 지원임을 시사한다.

셋째, 미성년 시기에 출산을 경험한 청소년부모는 학업 중단 경험 비율이 높고, 경제 활동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원가정 부모와 연락하는 정도도 성인 부모에 비해 빈도가 낮은 경향을 보였기 때문에 지지기반이 약한 상황이며, 임신기에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지 못하는 비율이 높고, 현재 실제 가구소득이 평균 89만원 대로 상당히 낮음을 알 수 있다. 출산 시 미성년인 부모에게는 기본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경제적 지원과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실제로 자녀 돌봄 서비스가 우선시 되어야 함을 지지한다.

넷째, 미성년 부모에게서 성인 부모에 비해 주거지원에 대한 요구가 높은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앞서 임신기에 주거지원이 시작되도록 주거지원의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본 연구의 제언을 지지하는 연구 결과라 할 수 있다.

〈표 V-2-6〉 응답자 연령별(19세 미만, 19~24세 이하) 연구 결과 비교표

구분		현재 19세 미만 (n=26) 출산 시 19세 미만 (n=96) ^{주1}	현재 19~24세 (n=259) 출산 시 19~24세 (n=189) ^{주1}
임신 부담 (4점)	신체	2.6	3.0
	정서	2.6	3.2
	사회고립	2.7	3.1
	경제	2.9	3.5
	가족관계	2.7	3.0
도움 없는 비율(임신) 경제		15.4%	9.7%
미혼모자 가족시설 이용률		(출산 시) 35.6%	(출산 시) 23.6%
산후우울 경험		62.5%	86.8%
신체건강(4점)		3.2	2.8
양육역량 (5점)	상호작용	4.4	4.3
	인지	4.4	4.0
	양육	4.1	3.4
	정서	3.6	3.5
자신 vs. 자녀		(출산 시) 5.3	(출산 시) 5.7
원가정 부모 연락 정도		매주 한번 이상 > 몇 달에 한번 정도 > 한 달에 2~3번	매주 한번 이상 > 한 달에 2~3번 > 몇 달에 한번 정도
학업 중단 경험		(출산 시) 37.5%	(출산 시) 18.0%
경제 활동 여부		11.5%	32.8%
월 평균 가구소득(만원)		89.6	157.7

구분	현재 19세 미만 (n=26) 출산 시 19세 미만 (n=96) ^{주1}	현재 19~24세 (n=259) 출산 시 19~24세 (n=189) ^{주1}
월 평균 정부지원금(만원)	109.8	76.8
소득+지원금 합계(만원)	199.2	234.5
부모 학업 지원 경험 여부	38.5%	17.0%
부모 취업 지원 경험 여부	23.1%	29.3%
가족 주거 지원 경험 여부	34.6%	38.2%
지원 우선순위	(출산 시) 자녀 양육 > 가족 주거 > 부모 취업 > 임신·출산 > 부모 양육역량 강화 > 부모 학업	(출산 시) 자녀 양육 > 임신·출산 > 가족 주거 > 부모 취업 > 부모학업지원 > 부모 양육역량 강화 지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용률	(출산 시) 29.2%	(출산 시) 6.3%
위(Wee)센터 이용률	(출산 시) 22.9%	(출산 시) 12.2%

주: 1) 출산 시 연령 기준인 경우 비교표에서 (출산 시)라 표기함. (출산 시) 표기가 없는 경우는 현재 연령에 대한 결과임.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청소년부모 양육실태 및 정책지원 요구 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진이 정리함.

부모 현재 및 출산 시 연령 비교 결과를 바탕으로 얻을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과 맞춤 지원 전략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의 지원은 출산 시에 미성년인 청소년부와 청소년모를 보호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연구 결과에서 특히 출산 시에 미성년인 집단은 임신사실을 안 뒤 학업을 중단한 비율이 높고, 미혼모자 가족시설을 통해 출산을 경험하는 비율 역시 높다. 자녀 양육과 가족 주거에 대한 요구가 높은 만큼 아동학대나 유기로 이어지지 않고 이들이 아이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분이 강화되어야 한다. 청소년부부여도 그들이 미성년인 경우 미혼모자가족시설 등에 머무를 수 있도록 시설의 이용 기준을 완화하거나 별도의 주거지가 필요하다. 또한 미성년기에 부모가 될 때 자신의 양육에 대한 객관적 판단이 어려울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바람직한 부모상에 대한 개념을 잘 주지시키는 교육이 제공되어야 한다.

둘째, 미성년 청소년보다 성인기에 부모가 된 청소년부모가 미성년 청소년부모보다 심리적으로 취약함을 보이고 자신의 양육역량을 낮게 인지하는 경향에 비추어볼 때, 심리적인 지원과 양육효능감 증진을 위한 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성인기에 청소년부모가 된 경우 자유롭게 지내는 또래들과 자신을 비교하며 우울해지고 고립감을 더 느끼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도울 수 있는 인적 지원 제공이 적절해 보인다.

〈표 V-2-7〉 청소년부모 현재/출산 시 연령에 따른 지원 제안

구분	미성년 청소년부모	성인 청소년부모
연령 특성별	• 미성년 청소년부모의 시설 및 서비스 지원 우선권 부여(청소년부부여도 미성년인 경우 머무를 수 있는 시설이나 주거지 필요) • 학업 지속 지원 • 방임, 유기 예방을 위한 부모됨 교육 실시	• 산후 우울, 임신기 심리적 지원, 양육 효능감 증진을 위한 부모교육 지원 강화

3) 경제활동 상태별 비교

부부 혹은 한부모 중 한 명이라도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 경제활동을 하는 집단(n=178)으로 분류하고, 경제활동을 하는 부모가 아무도 없는 경우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집단(n=107)으로 분류하여 비교한 연구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집단이 경제활동을 하는 집단에 비해 여러 영역에서 취약한 경향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임신 부담을 더 크게 느끼고 도움을 받지 못하는 비율이 높고, 우울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임신기 어려움과 마찬가지로 자녀 양육 시 경제와 정서적 측면에서 도움을 받는 정도가 낮고, 도움을 아예 받지 못하는 비율이 경제활동을 하는 집단에 비해 상당히 높은 경향을 보였다. 비슷한 방향으로 자신의 양육역량에 대해서도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부모가 그 수준을 더 낮게 보고하였다.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집단의 월 평균 소득은 27만원으로 여타 다른 조건의 특성 집단 중에서도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다. 특히 이들은 정부지원금을 합쳐 월 평균 140만원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어 그 취약함이 뚜렷이 드러났다.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청소년부모가 희망하는 지원 요구 중 ‘주거지원’과 ‘부모 취업’이 선순위에 위치해있는 것은 이들이 생계안정과 자립에 대한 욕구가 우선적으로 있음을 반영한다. 자녀 양육과 주거가 불안정하여 취업을 준비하기 어려운 상황에 부닥쳐있을 수 있으므로, 앞서 제안한 바와 같이 다양한 청년임대를 이용하여 이들의 주택문제를 먼저 해결하거나, 취업 전까지 임시거주를 할 수 있는 인큐베이팅 하우스 제공을 고려해볼 수 있다.

〈표 V-2-8〉 경제활동 상태별(경제활동 함, 안함) 연구 결과 비교표

구분		경제활동 함 (n=178)	경제활동 안함 (n=107)
임신 부담 (4점)	사회고립	3.0	3.3
	가족관계	2.8	3.1
도움 없는 비율 (임신)	경제	6.7%	15.9%
	정서	10.1%	17.8%
	생활	11.2%	20.6%
	정보	19.1%	17.8%
미혼모자 가족시설 이용률		15.5%	46.9%
산후조리원 이용률		58.1%	44.8%
우울(4점)		2.2	2.4
신체건강(4점)		2.9	2.7
정신건강(4점)		2.7	2.5
양육 도움 정도 (4점)	경제	2.5	2.2
	정서	2.7	2.5
도움 없는 비율 (양육)	정서	5.1%	22.4%
	생활	10.7%	25.2%
	정보	21.3%	24.3%
양육역량 (5점)	상호작용	4.3	4.1
	양육	3.6	3.2
	정서	3.6	3.3
원가정 부모 연락 여부		86.1%	71.4%
현재 학업 여부		5.1%	20.6%
월 평균 가구소득(만원)		229.8	27.8
월 평균 정부지원금(만원)		59.9	112.9
소득+지원금 합계(만원)		289.7	140.7
가족 주거 지원 경험 여부		31.5%	48.6%
부모 양육역량 지원 경험 여부		9.6%	30.8%
지원 우선순위		자녀 양육 > 임신·출산 > 가족 주거 > 부모 취업 > 부모 양육역량 강화/학업	자녀 양육 > 가족 주거 > 부모 취업 > 임신·출산 > 부모 양육역량 강화/학업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용률		27.0%	15.0%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청소년부모 양육실태 및 정책지원 요구 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진이 정리함.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청소년부모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자립’을 위한 준비, 수급에 계속 의존하지 않도록 힘을 기르는 일이다. 따라서 앞서 제안한대로 성적을 우수하게 받아 학업을 완료했을 시 1년에 1번 인센티브 지급, 취업에 성공했을 때 최초 인센티브 지급을 제도화하는 것을 제안한다. 내용은 성적 우수에 대한 보상으로 현금 200만원, 아이돌봄서비스 할인 우선 이용권, 여행권, 문화행사 콘서트 티켓 지급 등 청소년부모에게 매력적인 내용으로 구성해야할 것이다.

4) 지역별

청소년부모를 지원하는 환경이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에서 다르게 조성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청소년부모의 응답을 수도권(n=121)과 그 외 지역(n=164)으로 구분하여 비교해보았다.

예상과는 달리 임신 시 양육 시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비수도권보다 수도권 거주자에게 더 빈번히 발견됨을 확인하였다. 비수도권 지역에서 이용률이 높은 시설/센터는 미혼모자가족시설, 가족센터 등으로 보고되었고, 청소년 지원센터에 대한 인식 수준이 비수도권 지역에서 높은 경향을 보인 것이 특징적이다. 이는 수도권 지역보다 비수도권 지역에서 청소년 지원센터의 역할이 더 중시되고 뚜렷이 드러나는 특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수도권 지역에서 더 높은 비율을 보인 긍정적인 부분은 우울을 경험했을 시 상담 지원을 받은 비율이 비수도권에 비해 2배가량 높았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살펴볼 때 비수도권 지역보다 수도권 지역에 상담실이나 상담 서비스 인프라가 더 잘 구성되어 있음을 고려할 때 자연스러운 결과로 여겨진다.

〈표 V-2-9〉 수도권, 비수도권 연구 결과 비교표

구분		수도권 (n=121)	비수도권 (n=164)
임신 부담 (4점) 정서		3.0	3.3
도움 없는 비율(임신)	경제	10.7%	9.8%
	정보	25.6%	13.4%
미혼모자 가족시설 이용률		35.8%	21.5%
정신건강(4점)		2.5	2.7
상담 경험		35.5%	17.7%
양육 도움 정도(4점)	경제	2.1	2.5
	정서	2.4	2.8
	정보	2.3	2.6
원가정 부모 연락 여부		70.8%	88.0%
가족센터 인지도/이용률		26.4%/9.9%	49.4%/25.6%
보건복지상담센터 인지도		38.0%	56.7%
위(Wee)센터 인지도		40.5%	53.7%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청소년부모 양육실태 및 정책지원 요구 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진이 정리함.

지역별 차이 결과는 주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인프라의 차이로 나타났다. 이는 지원센터/서비스 접근성 제고에 근거가 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수도권에서의

가족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상담 서비스 인프라 확대가 요구된다 하겠다.

〈표 V-2-10〉 청소년부모 현재/출산 시 연령에 따른 지원 제안

구분	수도권	비수도권
지역 특성별 지원	• 청소년부모 대상 국가 지원 서비스 및 센터의 인지도와 이용률 제고 • 임신기, 자녀 양육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 대상으로 서비스 연결 지원	• 미혼모자가족시설, 청소년부모 상담 인프라 확충 • 지역에서 인지도가 높은 가족센터와 보건복지상담센터 중심으로 서비스 확대

라. 지원센터/서비스 접근성 제고 방안

청소년부모를 지원하는 센터와 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정부 서비스에 대한 인지도와 이용경험 결과를 바탕으로 제언을 하고자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를 정리하면 〈표 V-2-11〉과 같다.

〈표 V-2-11〉 지원센터/서비스 인지도 및 이용 경험

지원센터/서비스	인지도	이용경험	특성
아이돌봄서비스	79.6%	31.2%	청소년한부모: 이용 ↑
육아종합지원센터	55.1%	22.5%	소득 높을수록: 인지도 ↑, 경제활동 하는 경우: 이용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53.3%	14.0%	청소년한부모, 출산 시 미성년: 이용 ↑
보건복지상담센터	48.8%	12.6%	비수도권: 인지도 ↑
위(Wee)센터	48.1%	15.8%	비수도권: 인지도 ↑, 출산 시 미성년: 이용 ↑
가족센터	39.6%	18.9%	청소년한부모: 이용 ↑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청소년부모 양육실태 및 정책지원 요구 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진이 정리함.

1) 아이돌봄서비스

실제 가정에 방문하여 개별돌봄을 하는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인지도는 다른 센터 인지도에 비해 높았지만, 이용 비율이 30% 정도에 머물러서 청소년부모의 아이돌보미 이용을 더욱 지원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연구결과에서 청소년한부모보다 청소년부부의 이용 비율이 낮은 부분을 고려하여 청소년부부의 적극적인 이용을 지원하기 위해 제도 수정을 할 필요가 있다.

현재 아이돌보미 이용 안내 정보에 따르면, 양육공백가정의 종류는 맞벌이가정, 한부모가정(조손가족 포함), 장애부모가정, 다자녀가정, 다문화가정, 아동학대 피해위기 아동가정, 기타 양육부담가정으로 제한되어 있다. 청소년한부모의 경우 한 부모 가정으로 분류되어 우선순위를 가질 수 있으나, 청소년부부의 경우 ‘기타 양육부담가정’으로 분류될 뿐 다른 경우에 속하지 않아 인적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경우이지만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볼 때, 아이돌보미 우선 지원 요건으로 청소년부모를 포함하는 것을 제안한다. 또한 앞서 반복적으로 제안한 대로 청소년부모가 학업이나 취업, 근무하는 경우에 아이돌봄서비스를 가장 우선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우선권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제도는 직장건강보험에 가입하면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취업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청소년부모의 경우 해당 부모가 24세 이하인 경우 학업과 취업 준비 중 아이돌보미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학업/취업 준비 증임을 증명하는 서류(예: 학교 재학증명서, 취업 준비를 위한 학원 수강증, 최근 취업을 지원한 자료 등)를 제출하도록 하여 청소년부모의 경우 맞벌이가 아니더라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에 우선권을 주어야 한다.

또한 영아종일제서비스 신청 후 정부 지원 결정 시 부모급여/양육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것에 대해 청소년부모의 경우 예외로 적용하여 아이돌보미 이용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는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특히 이러한 지원은 청소년부모 중 한 명이라도 19세 미만인 경우에 더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표 V-2-12〉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자격 여부 기준 변경안

① 대상아동 기준	• 대한민국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는 아동 • 아동 연령 - 영아종일제서비스 : 생후 3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 시간제서비스 및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 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② 양육공백 기준	• 양육공백 확인 - 사회복지통합망(행복e음)에서 확인되는 서류(건강보험료, 가족관계 등)는 별도 제출 불필요 - 직장건강보험에 가입한 경우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취업한 것으로 인정 - 그 외의 경우 양육공백 입증서류 제출 • 양육공백 가정 종류 1. 맞벌이가정 2. 한부모가정(조손가족 포함) 3. 장애부모가정

	4. 청소년부모(청소년부부, 청소년한부모, 신청 부모 기준 24세 이하) 5. 다자녀가정 6. 다문화가정 7. 아동학대 피해위기 아동가정 8. 기타 양육부담가정
③ 자녀 양육 정부지원 중복금지 기준	• 영아종일제서비스 - 보육료 및 유아학비, 양육수당(농어촌 양육수당 포함), 부모급여, 아이돌봄 서비스 시간제 정부지원을 받는 아동은 영아종일제 중복지원 불가 • 시간제서비스 - 보육료 및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아동의 경우 보육시설 및 유치원 이용시간 (종일제, 반일제, 시간연장제)에는 정부지원 불가
④ 가구소득 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을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금액을 산정 • 가구소득 금액이 유형별 월평균 가구원수별 소득기준(가구원수별 상이)을 충족한 경우 정부지원 결정
유의사항	• 영아종일제서비스 신청 후 정부지원이 결정되면 부모급여 또는 양육수당이 자동 종료됩니다. (청소년부모 예외) • 따라서 영아종일제 이용을 원할 경우 사전에 소속 서비스제공기관에 연계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정부지원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아이돌봄서비스, 여성가족부. (n.d.). 정부지원 신청안내.

<https://www.idolbom.go.kr/front/srvUtztnGuide/govApply>에서 2023. 11. 3. 인출. 본 연구진이 수정 제안하는 내용은 음영 표기함.

2) 육아종합지원센터

본 연구 결과에서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알고 있는 청소년부모는 약 55%이었고, 이용 경험이 있는 경우는 약 22% 정도로 집계되었다. 인지도는 부모의 소득이 높을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고,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에 더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근거로 보면,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경우 학업/취업 중인 청소년부모보다는 직장생활을 하면서 어느 정도 안정적인 상황에 있는 청소년 부모가 더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시설로 이해할 수 있다.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청소년부모를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기관은 아니지만, 영유아를 양육하는 가정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지자체별로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활용할만하다.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사업들은 각 프로그램에 관심있는 부모들이 신청하여서 선착순으로 이용하거나, 프로그램이나 사업별로 특정 가정에 우선순위를 두는 경우로 나뉜다. 청소년부모는 양육에 있어서 취약한 상황에 있는 만큼 이러한 프로그램 참여에 있어서 우선권을 제공하는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선착순 신청으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의 경우 일정 비율(예: 1/4 이상)에 대해서는 청소년부모나 청소년한부모에게 더 우선순위를 줄 수 있도록 지원하길 바란다.

특히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중 부모 양육 상담이나 자녀 발달 검사 등은 청소년부모의 자녀 발달을 잘 파악하고 그들에게 부모로서 역량을 강화 하는데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다. 본 연구의 현장전문가 간담회에서 청소년부모가 자녀의 발달 수준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적절한 자극을 주지 못하여, 언어가 느리거나 발달이 전체적으로 지연되는 등의 문제가 많이 발생함을 우려하는 의견이 많았다. 발달 지연을 막고 청소년부모에게 올바른 가이드라인을 주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프로그램들이 이들에게 적극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인천광역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여러 해 진행 중인 영유아 대상 가정 지원사업 중에 ‘찾아가는 아이사랑 플레너’는 청소년부모의 사례관리 차원에서 모델링할 수 있는 모범적인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다.²⁶⁾ 이는 전문가들이 가정에 직접 방문하여 가정환경 내에서의 문제점을 찾고 개선을 위해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청소년부모의 경우 이처럼 방문형 맞춤 양육 컨설팅이 긴급하게 필요하므로 아이들의 건강한 발달을 촉진하기 위해서 청소년부모의 사례관리 시 이러한 지원을 추가해야 할 것이다.

3)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 위(Wee) 센터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출산 시 미성년인 청소년부모가 많이 이용하는 센터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위(Wee) 센터였다. 이들 기관은 청소년에게 상담과 지원을 제공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미성년인 청소년부모 특히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접근성이 높을 것으로 이해된다.

청소년이 임신을 처음 확인하고 이러한 상황에 대해 고민하고 있을 때에는 청소년상담전화(1388)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해 보인다. 하지만 현재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 홈페이지에서는 “청소년기에 나타날 수 있는 다양

26) 인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 (n.d.). 찾아가는 아이사랑 플레너.
<http://bumo.iccic.or.kr/main/main.php?categoryid=03&menuid=05&groupid=01>에서 2023. 11. 7. 인출.

한 고민(학업 및 진로, 친구관계, 가족문제, 학교폭력, 성폭력 및 성매매 등의 문제, 가출 고민 등) 등에 대해 청소년이 직접 전문상담자와 심리 상담을 나눌 수 있음. 청소년기 자녀를 둔 부모 및 보호자가 직접 청소년의 건강한 심리적 지도·지원에 필요한 내용을 전문상담자와 상담할 수 있음.”²⁷⁾으로 상담내용을 제시하고 있어, 청소년이 임신과 출산에 대해 상담 받을 수 있을지 분명하지 않은 한계가 있다. 상담 내용과 범위에 ‘청소년의 임신과 출산’을 분명하게 포함하는 것을 제안한다.

청소년부모의 심리적 지원을 책임지는 기관으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특히 청소년상담전화(1388)와 위(Wee) 클래스, 위(Wee) 센터를 추천하고자 한다. 이 두 기관은 이전부터 청소년을 대상으로 심리 상담을 진행해왔기 때문에 청소년부모를 포괄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다. 특히 임신한 청소년부모가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위(Wee) 클래스와 위(Wee) 센터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부모 다음으로 이들과 가까이 생활하고 있는 사람이 담임교사인데, 이들이 청소년부모의 임신을 인지했을 때 위(Wee) 클래스를 통해 심리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제대로 할 필요가 있다. 학교에 알려지는 것이 꺼려져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면, 지역의 위(Wee) 센터에 직접 연락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널리 알려야 할 것이다.

청소년의 임신·출산 지원에 대한 정보는 보건복지상담센터를 통해 얻는 것이 효과적으로 보인다. 청소년부모에게 보건복지상담센터 번호인 129를 통해 임신·출산 의료비지원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1차적으로 안내하는 역할을 하고, 추가적인 지원을 가족상담전화와 가족센터에서 관리하는 것을 제안한다.

청소년부모의 학업과 취업에 관련된 상담과 지원은 청소년대상 심리 상담에 특화되어 있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위(Wee) 클래스, 위(Wee) 센터에서 담당하는 것을 제안한다. 학업과 취업은 부모로서가 아닌 청소년으로서의 과업이므로 기존에 청소년을 지원하는 기관에서 담당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인다.

위에서 제시한 내용을 종합하여 영역별 지원 주체를 제안하면 다음 표와 같다.

27)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 (n.d.). 청소년상담 1388(전화·온라인 상담).
http://www.cyber1388.kr/new/_helpcall/helpcall_n_01.asp?id=top_simter에서 2023. 11. 7. 인출.

〈표 V-2-13〉 영역별 지원 주체 제안

지원 영역	지원 주체 제안
임신·출산 관련 지원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가족상담전화(☎1644-6621) • 가족센터
심리 상담	• 청소년상담복지센터(☎1388) • 위(Wee) 클래스(담임교사 통해 의뢰) • 위(Wee) 센터(센터 직접 컨택)
사례관리, 지원 연결	• 가족상담전화(☎1644-6621) • 가족센터
자녀 돌봄 지원	• 아이돌봄서비스
양육역량 강화 지원	• 가족센터 • 육아종합지원센터
학업/취업 지원	• 청소년상담복지센터(☎1388) • 위(Wee) 클래스(담임교사 통해 의뢰) • 위(Wee) 센터(센터 직접 컨택)

4) 가족센터

다양한 유형의 가족을 지원하는 정부 기관으로 ‘가족센터’가 있다. 시·도 가족센터, 시·군·구 가족센터가 이미 전국에 있고 가족돌봄서비스, 가족문제 예방 및 역량 강화 관련 사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부모 지원 역시 다양한 가족 지원 중 하나로 가족센터에서 실시할 수 있다 판단된다.

현재 가족센터에서 지원하고 있는 다양한 가족의 유형은 가족센터 홈페이지에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맞벌이가족, 장애를 둔 가족, 북한이탈주민가족, 군인가족, 1인 가구, 재혼가족으로 명시되어 있다. 여기서 청소년부모는 사업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한부모인 청소년부모만 사업의 범위로 분류될 수 있는 상황이다. 다시 말해 청소년한부모가 아닌 청소년부모(부부)는 현재 가족센터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그림 V-2-1]에서와 같이 가족센터의 사업 대상 가족에 ‘청소년부모’를 포함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제안한다.

[그림 V-2-1] 가족센터 사업운영 및 사업영역 확대 제안



자료: 가족센터. (n.d). 사업운영 및 사업영역.

<https://www.familynet.or.kr/web/lay1/S1T309C339/contents.do>에서 2023. 11. 6. 인출. 본 연구진이 수정 제안하는 내용은 빨간색으로 표기함.

가족센터에 연결되기 전에 청소년부모가 이용할 수 있는 전화상담 서비스로 가족상담전화(1644-6621)가 있다. 기존에 운영 중이던 가족상담전화에서 청소년부모가 상담요청을 할 수 있는 내용으로 ‘임신출산갈등상담’ 부분과 ‘한부모상담’ 부분이 있지만, 웹에서 검색 시 가족상담전화가 미혼모부나 한부모들을 위한 서비스로 국한되어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안내된 지원 내용을 보았을 때 청소년부부가 가족상담전화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한정적이라 인식할 수 있다. 또한 상담 중 심층 상담이 필요한 경우 지역의 가족센터로 연계하는 것이 절차이지만, 본 연구에서 자신의 신분이 드러나는 것을 꺼리는 청소년부모는 이러한 후속 절차에 부담을 느끼고 상담을 제대로 받지 않는 경우가 많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상황의 청소년부모가 가족상담전화를 이용

할 수 있도록 지원 내용 중 청소년부모를 위한 지원을 포함하여 적극적인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에 앞서 현재 활동하고 있는 가족상담전화 운영 인력이 청소년부모를 잘 응대할 수 있도록 이들의 특성에 대해 안내하는 보수교육을 시행하는 것을 제안한다.

[그림 V-2-2] 가족상담전화 운영 범위 확대 제안

가족상담전화(1644-6621) 운영



자료: 여성가족부. (n.d). 가족상담전화(1644-6621) 운영. https://www.mogef.go.kr/sp/fam/sp_fam_f014.do에서 2023. 11. 6. 인출. 본 연구진이 수정 제안하는 내용은 빨간색으로 표기함.

5) 드림스타트²⁸⁾

가족센터가 취약계층 가정을 지원하는 경험이 있고, 가족상담전화를 운영하는 등 소통창구가 열려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부모를 지원하는데 우려되는 부분은 각 지역의 가족센터가 시·도 및 시·군·구의 위탁을 받아 각기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시·도, 시·군·구와 위탁수행중인 기관 사이에 원활한 정보 소통과 전달이 지역별로 균등하게 이루어지기 어려운 한계를 지남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가족센터의 인지도와 이용경험은 다른 서비스 및 지원 기관에 비해 상당히 낮은 편에 속해 지속가능한 전달체계로서의 한계를

28) 해당 부분은 본 연구의 일환으로 개최한 「KICCE 정책토론회(2023. 11. 28)」에서 이상정 연구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토론문을 바탕으로 작성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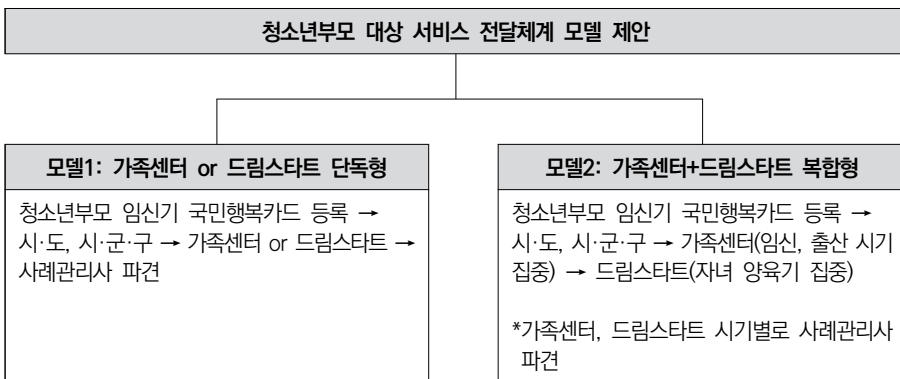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가족센터가 갖는 한계점을 보완하는 대안으로 ‘드림스타트’를 추천하고자 한다. 드림스타트가 청소년부모 지원 주체로 갖는 강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시·군·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드림스타트는 시·도, 시·군·구의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가족센터와 비교해볼 때 접근성과 운영 효율성에서 강점을 지닌다. 둘째, 드림스타트는 아동의 연령(임신기부터 12세)을 기준으로 지원을 제공하고 있어 가족센터보다 장기간 지속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셋째, 드림스타트는 찾아가는 사례관리 서비스에 대한 경험이 풍부하다. 구체적으로 가정방문을 통해 아동을 둘러싼 환경을 파악하고, 아동의 신체·건강, 인지·언어, 정서·행동, 부모·가족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점에 이점이 있다. 넷째, 드림스타트는 보건복지부의 사업인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 긴급복지지원 등과 연계 지원의 용이하다는 장점을 가진다.

6) 청소년부모 대상 서비스 전달체계 모델 및 운영 방식 제안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부모 대상 서비스 전달체계 모델로 ‘가족센터/드림스타트 단독형’과 ‘가족센터+드림스타트 복합형’의 두 가지 형태로 제안하고자 한다.

[그림 V-2-3] 청소년부모 대상 서비스 전달체계 모델 제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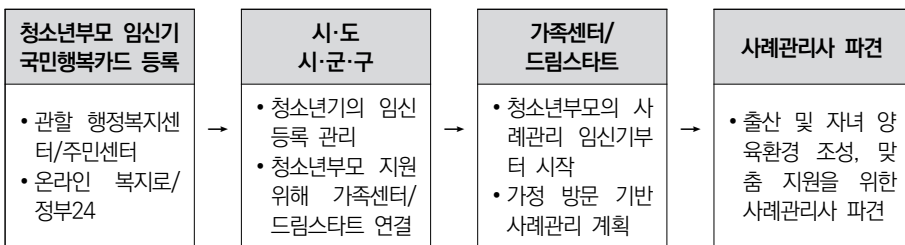
가) 모델1: 가족센터 단독형 또는 드림스타트 단독형

앞서 제시한 여러 서비스와 지원 기관 중에서 청소년부모의 지원 주체로서 추천하고자 하는 전달체계는 가족센터와 드림스타트이다. 첫 번째로 제안하고자 하는

모델은 가족센터 또는 드림스타트 단독형으로 통합사례관리의 주체를 가족센터나 드림스타트 중 한 개의 기관으로 지정하는 방식이다.

청소년부모는 임신기에 국민행복카드를 만들기 위해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나 온라인 복지로/정부24를 방문하게 된다. 이를 통해 임신 당시 연령이 24세 이하이면서 임신 중인 사람을 파악할 수 있게 되는데, 이때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지역의 가족센터/드림스타트로 청소년부모의 정보가 자동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가족센터/드림스타트에는 이미 다양한 가족을 지원하는 사례관리사들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이들을 활용하여 청소년부모의 사례관리를 임신기부터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제안한다. 이러한 서비스 지원체계 경로를 도식화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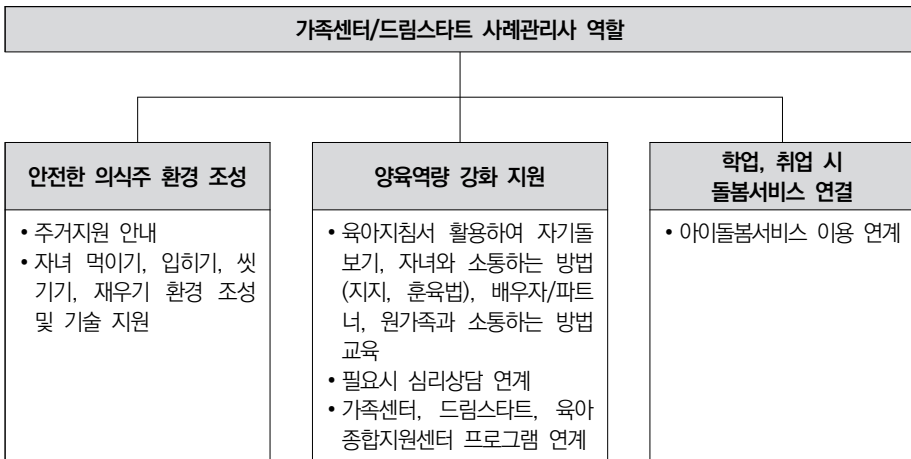
[그림 V-2-4] 가족센터/드림스타트 단독형 모델 운영 방식



나) 모델2: 가족센터+드림스타트 복합형

두 번째로 제안하는 모델은 가족센터와 드림스타트 복합형이다. 복합형은 청소년부모 임신기 국민행복카드 등록 이후, 시·도, 시·군·구의 정보 전달까지의 과정은 가족센터/드림스타트 단독형과 일치한다. 하지만 그 이후에 임신·출산 시기에 대한 통합사례관리는 가족센터에서 담당하고, 자녀 출산 후 자녀 양육기는 드림스타트가 담당하는 구조로 단독형과 달리 두 기관이 함께 기능한다는 점에 차이를 보인다. 두 개의 주체가 서로의 기능에 집중하고, 시기별로 촘촘한 지원을 제공하여 청소년부모 가족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도록 한다. 이러한 복합형 모델은 청소년부모에게 여성가족부 사업과 보건복지부 지원을 모두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집중적으로 제공한다는 점에서 강점을 가진다.

[그림 V-2-6] 가족센터/드림스타트의 청소년부모 대상 사례관리사 역할 제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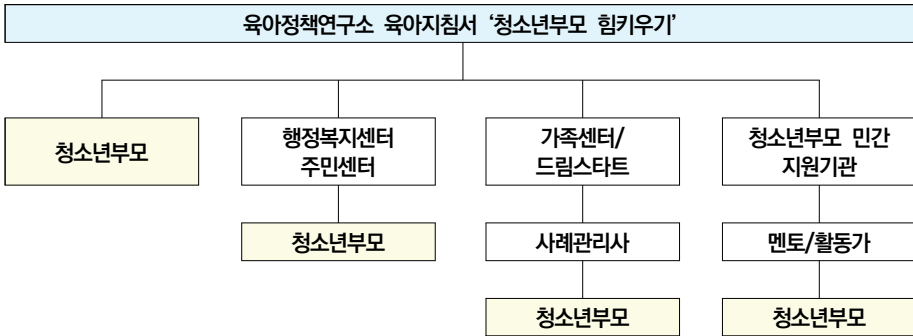
3. 육아지침서 활용 방안

4장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청소년부모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제작한 본 연구의 육아지침서는 청소년부모의 양육역량 강화를 위한 기초 자료로 지속해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절에서는 육아지침서를 배포하는 경로, 방식 등에 대한 제안을 정리하였다.

1) 배포 경로

배포 경로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육아지침서 콘텐츠를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청소년부모에게 직접 전달하는 경로, 둘째,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을 하러 온 청소년부모에게 전달하는 경로, 셋째, 가족센터, 드림스타트의 사례관리사를 통해 전달하는 경로, 넷째, 현재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청소년부모 민간 지원기관(예: 청소년부모지원 키페이커, 비투비, 한국미혼모가족협회, 미혼모협회인트리,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등)의 멘토나 활동가 선생님을 통해 전달하는 경로이다.

[그림 V-3-1] 청소년부모 육아지침서 배포 경로



가장 먼저 육아정책연구소에서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육아지침서 발간에 대한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홈페이지에 자료를 공개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독려할 것이다. 카드뉴스, 쇼츠 영상을 통해 육아지침서 내용에서 중요시하는 내용들을 뽑아 육아지침서 내용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한다.

앞서 국민행복카드 신청을 위해 청소년부모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는 경우 육아지침서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 카드 신청자들에게 QR로 육아지침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비용을 절약하고 더 효과적으로 다가갈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가족센터/드림스타트의 경우 청소년부모 가정에 사례관리사를 파견할 때 사례관리사가 육아지침서 내용을 숙지하고 청소년부모에게 교육하는 것과 동시에 청소년부모에게 육아지침서 자체를 전달할 수 있도록 계획하는 것을 제안한다.

청소년부모지원 킴메이커, 비투비, 한국미혼모가족협회, 미혼모협회인트리,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등과 같은 청소년부모 민간 지원기관은 청소년부모와 가장 가까이 접촉하여 직접적인 도움을 주고 있는 중요한 지지체계이다. 따라서 청소년부모 민간 지원기관에 육아지침서를 배포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은 청소년부모들에게 가장 가까이 본 지침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2) 배포 방식: 디지털, 만화

육아지침서의 독자가 청소년부모라는 점을 고려하여 청소년들의 주의를 환기시

키고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배포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현재 청소년부모는 디지털 세대로 휴대전화, 태블릿 등 다양한 디바이스를 이용하여 인터넷 검색, 커뮤니티, 유튜브 등을 통해 자녀 양육에 대한 정보를 얻고 있다. 따라서 지면으로 만들어진 현재의 육아지침서를 청소년부모가 손쉽게 볼 수 있도록 온라인 자료로 제작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유튜브에 영상을 만들어 올리거나, 콘텐츠 내용 중 중요한 부분을 잘라서 쇼츠로 제공하는 등 짧은 시간에 필요한 기술을 전달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온라인에서 고려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으로 웹툰 제작이 있다. 청소년의 임신, 출산, 양육을 주제로 하는 웹툰에서 본 육아지침서의 내용을 전달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3) 교육 이수 시 이수증 및 인센티브 지급

청소년부모의 긍정적 경험을 축적하는 하나의 방안으로 육아지침서를 활용한 교육 이수 시 이수증을 부여하고 관련하여 자녀와 관련된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정부의 부모교육 강사 풀을 활용하고, 육아지침서 내용을 근거로 하여 청소년 부모 대상으로 상호작용 증진을 위한 교육을 제공하거나 교육 영상을 제작하여 온라인 교육을 제공하는 것을 제안한다. 제공된 대면교육을 완료하거나 온라인 교육 영상 시청을 완료하면 이수증을 제공하고, 이러한 이수증을 가진 경우 가족센터나 육아종합지원센터의 프로그램 참여비를 감면해주거나 주말에 청소년부모의 여가 시간을 지원해주는 각종 문화 혜택(예: 국가에서 운영하는 문화시설 무료 이용권 등)을 제공하는 것을 제안한다.



참고문헌

- 김은지, 김동식, 최인희, 선보영, 김나연, 정다은. (2013). 청소년 한부모가족 종합대책 연구Ⅱ: 청소년 한부모가족 지역사회 지원체계 모형 개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지연, 황여정, 이준일, 방은령, 강현철, 곽종민, 박민영. (2013). 청소년 한부모가족 종합대책 연구Ⅱ: 청소년 한부모 유형 및 생활주기별 대응방안.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혜영, 이미정, 이택면, 김은지, 선보영, 장연진, 박은정, 이재경. (2010). 미혼모의 양육 및 자립실태조사. 여성가족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남미애, 홍봉선. (2011). 청소년양육미혼모의 부모됨의 경험과 의미: 시간체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청소년복지연구, 13(3), 141-170.
- 류정희, 이상정, 전진아, 박세경, 여유진, 이주연, 김지민, 송현종, 유민상, 이봉주. (2018). 아동종합실태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박미진, 김은지, 송효진, 배호중, 정수연, 유창민, 은주희, 이상정, 허미숙, 채영은. (2022). 2022년 청소년부모 현황 및 아동양육비 지원 실증연구. 여성가족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배보은. (2022). 청소년부모 정책소의 실태와 개선방안. 청소년부모지원 킷메이커.
- 배윤진, 이정림, 김아름, 이혜민, 양성은, 장혜림, 차유림. (2022). 취약·위기가정 양육역량 지원 방안 연구(I). 위탁가정 양육역량 지원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 보건복지부. (2023). 2023년 부모급여 사업안내.
- 송효진, 배호중, 선보영, 김수진. (2020). 청소년부모 지원정책 개발 연구. 여성가족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안경천, 김현진. (2018). 미혼 한부모에 대한 사회적지지가 자립의지에 미치는 영향: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23(1), 101-118.
- 여성가족부. (2023). 여성가족부 제공 자료(비공개).
- 은주희, 임고운. (2019). 2019 청소년부모 생활실태 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아름다운재단(사)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 이상정, 류정희, 변수정, 하태정. (2022). 청소년부모의 정책소의 실태 및 정책개

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상정. (2023). 청소년부모 현황과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 통권 제319호, 47-58.

이선희, 김수지, 서해인. (2021). 청소년 미혼모의 부모 역할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26(2), 229-251.

이영호, 박지윤, 장명선. (2020). 청소년 부모의 초기양육에 관한 연구: 10대에 첫 자녀를 임신한 미혼 한부모를 중심으로. 2020년도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181-190.

이현주. (2011). 10대 미혼부모의 아기 양육 결정 과정 및 양육 경험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6(1), 63-93.

임고운, 은주희. (2022). 청소년부모의 주거지원 경험에 관한 합의적 질적연구. 청소년복지연구, 24(2), 1-24.

장혜림, 차유림, 요채민, 박형빈, 조혜진, 배윤진, 이정림, 김아름, 이혜민. (2022). 위탁부모 힘 키우기 육아지침서. 육아정책연구소.

전아름. (2021. 3. 17). '사고 친 것이 아니라 부모 된 것', 청소년부모 어떻게 지원할까. 베이비뉴스.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3731>에서 2023. 2. 28. 인출.

정가원, 송효진, 선보영, 최진희. (2021). 2021년 청소년한부모가족 실태조사 연구. 여성가족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Sarkadi, A., Kristiansson, R., Oberklaid, F., & Bremberg, S. (2008). Fathers' involvement and children's developmental outcomes: a systematic review of longitudinal studies. *Acta Paediatrica*, 97(2), 153-158.

【보도자료】

관계부처 합동. (2021. 11). 만 24세 이하 청소년 부모·한부모 양육·자립 지원 강화. 보도자료.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8217에서 2023. 3. 2. 인출.

보건복지부. (2023. 10. 6).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대한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보도참고자료. <https://www.korea.kr/briefing/policyBriefingView.do?newsId=156593472>에서 2023. 11. 1. 인출.

- 여성가족부. (2021. 2. 26). 청소년부모 지원 근거 최초로 마련.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438973>에서 2023. 2. 17. 인출.
- 여성가족부. (2022. 6. 21).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 실시. 보도자료.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8612에서 2023. 3. 2. 인출.

【통계자료】

- 통계청. (2021a). 「인구동향조사」, 시도/연령(5세)별 혼인.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3A33&conn_path=I2에서 2023. 3. 2. 인출.
- 통계청. (2021b). 「인구동향조사」, 시도/출산순위별 모의 평균 출산연령,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1A20에서 2023. 6. 15. 인출.
- 통계청. (2021c). 「인구총조사」, 연령별 미혼모, 미혼부 - 시도.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SI1601&conn_path=I2에서 2023. 3. 2. 인출.
- 통계청. (2022). 「경제활동인구조사」 연령별 경제활동인구 총괄, 연령별 경제활동 참가율.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DA7002S에서 2023. 6. 15. 인출.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2021). 「차상위및한부모가족수급자현황」,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현황 - 가족유형별.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452&tblId=DT_452001_C015&conn_path=I2에서 2023. 3. 2. 인출.

【법령】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n.d.).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 2023. 6. 28.] [법률 제19131호, 2022. 12. 27., 일부개정]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20421&lsiSeq=231693#0000>에서 2023. 2. 27. 인출.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n.d.).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 2021. 4. 21.] [법률 제17540호, 2020. 10. 20., 일부개정] <https://www.law.go.kr/LSW/lsInf>

oP.do?efYd=20210421&lsiSeq=222505#0000에서 2023. 3. 6. 인출.

【홈페이지】

가족센터. (n.d.). 사업운영 및 사업영역. <https://www.familynet.or.kr/web/lay1/S1T309C339/contents.do>에서 2023. 11. 6. 인출.

고용노동부. (n.d.). 청년, 일할 기회 늘리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https://www.moel.go.kr/policy/policyinfo/young/list17.do>에서 2023. 12. 6. 인출.

국가바우처통합카드 국민행복카드. (n.d.).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http://www.voucher.go.kr/voucher/pregnancy.do?p_sn=56에서 2023. 3. 3. 인출.

국가바우처통합카드 국민행복카드. (n.d.).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http://www.voucher.go.kr/voucher/diaper.do?p_sn=59에서 2023. 3. 3. 인출.

국가바우처통합카드 국민행복카드. (n.d.). 첫만남 이용권 지원. http://www.voucher.go.kr/voucher/firstEncounter.do?p_sn=70에서 2023. 3. 3. 인출.

복지로. (n.d.). 가정양육수당 지원.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3253&wlfareInfoReldBztpCd=01>에서 2023. 3. 3. 인출.

복지로. (n.d.). 아동수당 지급.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1171&wlfareInfoReldBztpCd=01>에서 2023. 3. 3. 인출.

복지로. (n.d.).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5023&wlfareInfoReldBztpCd=01>에서 2023. 3. 3. 인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n.d.).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원사업. https://www.socialservice.or.kr:444/user/htmlEditor/view2.do?p_sn=7에서 2023. 3. 3. 인출.

서울주거포털. (n.d.).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 https://housing.seoul.go.kr/site/main/content/sh01_061023에서 2023. 12. 6. 인출.

아이돌봄서비스, 여성가족부. (n.d.). 정부지원 신청안내. <https://www.idolbom.go.kr/front/srvUtztnGuide/govApply>에서 2023. 11. 3. 인출.

여성가족부. (n.d.).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http://www.mogef.go.kr/sp/fam/sp_fam_f007.do에서 2023. 2. 28. 인출.

여성가족부. (n.d.). 가족상담전화(1644-6621) 운영. https://www.mogef.go.kr/sp/fam/sp_fam_f014.do에서 2023. 11. 6. 인출.

인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 (n.d.). 찾아가는 아이사랑 플래너. <http://bumo.iccic.or.kr/main/main.php?categoryid=03&menuid=05&groupid=01>에서 2023. 11. 7. 인출.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 (n.d.). 청소년상담 1388(전화·온라인 상담). http://www.cyber1388.kr/new_/helpcall/helpcall_n_01.asp?id=top_simter에서 2023. 11. 7. 인출.

한국토지주택공사. (n.d.). 청년전세임대. <https://apply.lh.or.kr/lhapply/cm/cntnts/cntntsView.do?mi=1240&cntntsId=1040>에서 2023. 10. 17. 인출.



Abstract

A study on supporting parental competence in vulnerable families (II): for adolescent parents

Sook In Cho · Yun-Jin Bae · Jungah Lee · Keng-Hie Song · Hee Sue Kim

This study is the second installment in a five-year research series focusing on supporting parenting competence in vulnerable families. The target population for this research includes adolescent couples and single adolescent parents, encompassing individuals below the age of 24 who are raising young children.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enhance the parenting competence of adolescent parents, addressing both internal and external dimensions, and to explore avenues for improving parenting support. The ultimate goal is to develop and disseminate a parenting guidebook specifically tailored for adolescent parents raising children.

The research methodology encompasses literature review, surveys, in-depth interviews, expert consultations, expert advisory meetings, policy implementation workshops, development, and promotion of parenting guidebook, as well as policy seminars. A total of 285 adolescent parents (160 adolescent couples and 125 adolescent single parents raising children) participated in the survey to explore not only their experiences during pregnancy and the child-rearing period but also their policy demands.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15 adolescent parents who have children (7 adolescent couples and 8 adolescent single parents).

Adolescent parents faced economic burdens during pregnancy and reported a lack of support (10.2% to 18.6%). Postpartum depression was prevalent (84.4%), with 25.3% seeking counseling. Economic strain was

highest during pregnancy and the child-rearing period, but parents generally assessed their parenting positively. Interactive competence was considered crucial for effective parenting. 70.9% of adolescent parents graduated high school; 30.9% were working. Monthly household income (excluding government support of overall adolescent parents) was around 1.52 million won, higher than for single parents (approximately 610,000 won) but lower than for couples (approximately 2.24 million won). Monthly government support of overall adolescent parents was approximately 800,000 won, higher for single parents (approximately 1.06 million won) than for couples (approximately 600,000 won).

The top priority support for adolescent parents was childcare assistance (38.9%), followed by pregnancy and childbirth support (21.4%), family housing support (19.3%), and parental employment support (16.1%). According to the combined results of the top two preferences, childcare assistance (74.7%) and family housing support (53.0%) emerged as the most critical, followed by parental employment support (28.4%) and pregnancy and childbirth support (25.6%). Despite variations, it was evident that the foremost support desired by adolescent parents narrowed down to childcare assistance and family housing support.

The parenting guidebook developed in this study for adolescent parents focuses on acquiring skills to manage their emotions and practicing healthy 'interaction' methods to maintain positive relationships with their children, spouses, parents and families of origin. While maintaining the format (e.g., overall title, design) of the parenting guidebook created for foster parents in the first year, the content has been tailored to reflect the characteristics of adolescent parents. The parenting guidebook for adolescent parents is structured into three main sections. Firstly, it provides ways for adolescent parents to understand and take care of themselves ('Self-Care'). Secondly, it offers guidance on how adolescent parents can engage in appropriate interactions with their children and provide the necessary care ('Child Care'). Thirdly, it provides methods for forming positive relationships with partners,

spouses, parents and families of origin ('Relationship Care').

Based on the research findings, the suggested foundational direction for policies regarding adolescent parents includes the need for flexible and inclusive approaches that consider the diversity of adolescent parenting. To enhance the parenting competence of adolescent parents, it is crucial to establish a direction that provides support for adolescents (promoting independence) and support for parents (strengthening support during pregnancy and the early postpartum period), along with the establishment of a sustainable delivery system for integrated case management.

Keyword: Adolescent parents, Adolescent couples, Adolescent single couples, Parenting competence, Children, Parenting guidebook, Interactive competence, Support for adolescents and parents, Sustainable delivery system, Integrated case management



부록

부록1. 설문조사 질문지

청소년부모 양육실태 및 정책지원 요구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육아정책연구소는 육아지원 정책에 관한 연구를 보다 체계적이며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입니다.

육아정책연구소는 청소년부모를 대상으로 청소년부모의 양육 실태 및 정책 지원 요구를 알아보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부모님께서 응답해주시는 내용은 향후 청소년부모 관련 정책에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오니 바쁘시더라도 잠시 틈을 내시어 질문에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응답하신 내용은 연구 윤리 및 통계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비밀이 보장되며, 연구 목적 이외는 절대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2023년 8월 육아정책연구소장 박 상 희

SQ1. 배우자/파트너 유무: 귀하는 현재 배우자/파트너가 있습니까?

혼인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응답해주십시오.

- ① 배우자/파트너 있음
- ② 배우자/파트너 없음

[로직: SQ1=1인 경우만 응답, 청소년부모]

SQ1-1. 혼인신고 여부: 귀하는 현재 배우자/파트너와 혼인신고를 하셨습니까?

- ① 혼인신고 했음
- ② 혼인신고 하지 않음

[로직: SQ1=1인 경우만 응답, 청소년부모]

SQ1-2. 배우자/파트너와 동거 여부: 귀하는 배우자/파트너와 같이 살고 계십니까?

※ 주말부부인 경우에도 '① 예'에 응답해주시면 됩니다.

- ① 예
- ② 아니오

SQ2. 본인 연령: 귀하의 출생연월은 어떻게 되십니까?

()년 ()월

※ 1999년도 1월 이전 출생 (☞ 조사중단)

[로직: SQ1=1인 경우만 응답, 청소년부모]

SQ2-1. 배우자/파트너 연령: 귀하의 배우자/파트너의 출생연월은 어떻게 되십니까?

()년 ()월

※ 1999년 1월을 포함하여 이후 출생 (☞ 부모 모두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부모)

※ 1999년도 1월 이전 출생 (☞ 부모 중 한 명만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부모)

SQ3. 자녀유무: 귀하는 자녀가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 조사중단)

[로직: SQ3=1인 경우만 응답]

SQ3-1. 자녀 동거 여부: 귀하는 자녀와 같이 살고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 조사중단)

A. 자녀 정보

A1. 자녀수: 귀 닥의 자녀는 총 몇 명입니까?

()명

A2. 자녀정보: 각 자녀의 출생연월과, 성별, 기관재원 여부를 응답해주시시오.

	자녀 생년월	성별	재원 기관
첫째 자녀	()년 ()월	① 남자 ② 여자	☐ 가정양육 ☐ 어린이집 ☐ 유치원 ☐ 초등학교
둘째 자녀	()년 ()월	① 남자 ② 여자	☐ 가정양육 ☐ 어린이집 ☐ 유치원 ☐ 초등학교
셋째 자녀	()년 ()월	① 남자 ② 여자	☐ 가정양육 ☐ 어린이집 ☐ 유치원 ☐ 초등학교
넷째 자녀	()년 ()월	① 남자 ② 여자	☐ 가정양육 ☐ 어린이집 ☐ 유치원 ☐ 초등학교

A2-1. 기관 첫 이용 시기: (첫째 자녀가 어린이집, 유치원 재원 중이라 응답한 경우) 언제 처음 첫째 자녀를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에 보내셨습니까?

※ 유치원에 현재 재원중이고 이전에 어린이집에 다닌 경험이 있는 경우, 어린이집을 가장 처음 간 때가 언제인지 알려주시시오.

첫째 자녀가 만()세 ()개월일 때

B. 출산 경험

B1. 본인 성별: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 ① 남자
- ② 여자

B2. 첫 자녀 출산 연령: 첫 자녀가 태어났을 때, 당시 몇 세였습니까?

자녀를 낳았을 때, 아이 엄마의 나이	자녀를 낳았을 때, 아이 아빠의 나이
만 _____세	만 _____세

[로직: SQ1=1인 경우만 응답, 청소년부모]

B2-1. 배우자/파트너의 자녀 친부/친모 여부:

(B1=2 여성인 경우) 귀하는 현재 아이 아빠와 함께 살고 있습니까?

(B1=1 남성인 경우) 귀하는 현재 아이 엄마와 함께 살고 있습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B3. 첫 자녀 임신 시기 부담 정도: 첫 아이를 임신했을 때, 귀하가 당시 느끼는 부담은 어느 정도였는지 문항별로 해당하는 칸에 표시해주세요.

문항	전혀 부담스럽지 않다	대체로 부담스럽지 않다	약간 부담스럽다	매우 부담스럽다
1) 신체적 부담	①	②	③	④
2) 정서적 부담 (예: 임신으로 인한 스트레스 등)	①	②	③	④
3) 사회적 고립 (예: 임신을 주변에 알리기 어려운 상황, 사회의 부정적 시선과 참견 등)	①	②	③	④
4) 경제적 부담 (예: 생활비 및 병원비 부담 등)	①	②	③	④
5) 가족관계의 어려움 (예: 임신으로 가족과의 관계 변화 등)	①	②	③	④

B4. 첫 자녀 출산 시 도움: 첫 자녀 출산 시 아래 영역에서 가장 도움을 준 사람은 누구 입니까?

영역	응답
1) 병원비, 생활비 등의 경제적 도움	
2) 의논, 위로, 푸념 상대 등 정서적 도움	
3) 간병, 육아, 가사 등 생활의 도움	
4) 출산, 돌봄 관련 정보 제공	

- ① 배우자/파트너
- ② 내 가족
- ③ 배우자/파트너의 가족
- ④ 학교 선생님(담임, 보건, 상담교사)
- ⑤ 학교 외 시설/기관 사회복지사, 상담사
- ⑥ 청소년부모(한부모) 단체 관련 선생님(활동가)
- ⑦ 또래친구
- ⑧ 다른 청소년부모
- ⑨ 없음
- ⑩ 기타()

[로직: B1=2, 여성인 경우만 응답]

B5. 귀하는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경험이 있습니까?

※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은 미혼 여성의 출산을 돕고, 출산 후 양육 지원을 위하여 일정 기간 동안 주거와 생계를 지원하는 시설을 의미합니다.

- ① 예
- ② 아니오

[로직: B1=2, 여성인 경우만 응답]

B6. 귀하는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경험이 있습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C. 건강

[로직: B1=2, 여성인 경우만 응답]

C1. 산후 우울: 귀하는 출산 후 산후우울감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 ① 있다.
- ② 없다.

C2. 건강 상태: 귀하의 현재 건강상태는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전혀 건강하지 않음	건강하지 않은 편임	건강한 편임	매우 건강함
1) 신체건강	①	②	③	④
2) 정신건강	①	②	③	④

C3. 일상 우울: 다음 문항을 읽고 지난 1주 동안 어떻게 느끼고 행동하셨는지 해당하는 칸에 표시해주세요.

문항	극히 드물다 (일주일 동안 1일 이하)	가끔 있었다 (일주일 동안 1~2일간)	종종 있었다 (일주일 동안 3~4일간)	대부분 그랬다 (일주일 동안 5일 이상)
1)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던 일들이 귀찮게 느껴졌다.	①	②	③	④
2) 무슨 일을 하던 정신을 집중하기가 힘들었다.	①	②	③	④
3) 상당히 우울했다.	①	②	③	④
4) 모든 일들이 힘들게 느껴졌다.	①	②	③	④
5) 비교적 잘 지냈다.	①	②	③	④
6) 두려움을 느꼈다.	①	②	③	④
7) 잠을 잘 이루지 못했다.	①	②	③	④
8) 큰 불만 없이 생활했다.	①	②	③	④
9) 세상에 홀로 있는 듯한 외로움을 느꼈다.	①	②	③	④
10) 도무지 무엇을 시작할 기운이 나지 않았다.	①	②	③	④

C4. 심리적 어려움 대처: 귀하는 부모가 된 이후에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느껴 의료기관 또는 전문 상담센터에서 진단을 받거나 전문 상담을 받아본 경험이 있습니까?

의료기관 및 전문상담센터	보건의료원(보건소), 정신건강의학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 위(Wee)센터 등
------------------	--

① 있다.

② 없다.

D. 자녀 양육/돌봄, 역량

D1. 주양육자: 현재 첫째 자녀의 주 양육자는 누구입니까?

① 자녀의 어머니

② 자녀의 아버지

D5. 부모-자녀 상호작용: 다음 문항을 읽고 평소 첫째 자녀의 모습을 잘 설명한다고 생각하는 칸에 표시해주세요.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아이는 나의 말이나 웃음 등에 반응을 보인다.	①	②	③	④
2) 아이는 나와 의 신체접촉을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3) 아이와 나는 서로 눈 맞춤을 한다.	①	②	③	④
4) 아이와 나는 상호작용하는 동안 함께 웃는다.	①	②	③	④

D6. 부모-자녀 관계 만족도: 전반적으로 귀하는 첫째 자녀와의 관계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 ① 매우 불만족함
- ② 불만족함
- ③ 보통임
- ④ 만족함
- ⑤ 매우 만족함

D7. 양육 어려움: 다음은 자녀 양육 시 겪을 수 있는 부담입니다. 현재 첫째 자녀를 양육하면서 느끼는 부담은 어느 정도인지 각 문항별로 해당하는 칸에 표시해주세요.

문항	전혀 부담스럽지 않다	대체로 부담스럽지 않다	약간 부담스럽다	매우 부담스럽다
1) 신체적 부담 (예: 육체적 피로, 휴식시간 없음 등)	①	②	③	④
2) 정서적 부담 (예: 양육스트레스 등)	①	②	③	④
3) 사회적 고립 (예: 친구·지인·이웃과 소통기회 부족 등)	①	②	③	④
4) 경제적 부담 (예: 교육비, 의료비 등)	①	②	③	④
5) 가족관계의 어려움 (예: 가족과의 단절, 양육에 도움을 주는 가족과의 갈등 등)	①	②	③	④

D8. 사회적지지: 귀하는 배우자 이외의 다른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도움을 어느 정도 받으시는지, 해당하는 칸에 표시해주세요.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용돈, 생활비 등의 경제적 도움	①	②	③	④
2) 의논, 위로, 꾸민 상대 등 정서적 도움	①	②	③	④
3) 가사, 육아, 간병 등 생활의 도움	①	②	③	④
4) 자녀 양육, 교육 등에 관한 정보 제공	①	②	③	④

D9. 양육 시 도움: 현재 자녀를 양육하면서 아래 영역에서 가장 도움을 주는 사람/기관은 누구입니까?

영역	응답
1) 용돈, 생활비 등의 경제적 도움	
2) 의논, 위로, 푸념 상대 등 정서적 도움	
3) 가사, 육아, 간병 등 생활의 도움	
4) 자녀 양육, 교육 등에 관한 정보 제공	

- ① 배우자/파트너
 ② 내 가족
 ③ 배우자/파트너의 가족
 ④ 학교 선생님(담임, 보건, 상담교사)
 ⑤ 학교 외 시설/기관 사회복지사, 상담사
 ⑥ 청소년부모(한부모) 단체 관련 선생님(활동가)
 ⑦ 또래친구
 ⑧ 다른 청소년부모
 ⑨ 없음
 ⑩ 기타()

D10. 양육역량: 다음 문항을 읽고, 첫째 자녀에 대한 평소 자신의 행동이나 태도에 해당하는 칸에 표시해주세요.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에게 “너는 소중하다. 특별하다.”와 같은 표현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의 입장에서 그의 관심사에 대해 생각해보고 이해해주며, 의견을 존중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친절하고 다정하게 ○○와 이야기를 나눈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따뜻하게 위로해준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아무리 바빠도 ○○의 말을 끝까지 들어준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를 자주 안아주고 좋아한다는 표현도 자주 한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의 자존감을 해치는 말이나 행동을 삼간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가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도와준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의 의견과 내 의견이 다르더라도 중간에 가로막지 않고 ○○의 의견을 끝까지 들어준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가 나와 이야기할 때 내가 정말로 ○○를 사랑한다는 것을 ○○가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1) 나는 어떤 장난감이 ○○의 연령에 적절한지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는 ○○의 언어발달을 촉진시키는 방법을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3) 나는 ○○의 소근육 발달을 돕는 여러 가지 활동(예: 손가락 사용, 블록 쌓기 등)을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4) 나는 ○○의 대근육 발달을 돕는 여러 가지 활동(예: 공놀이, 계단 오르기 등)을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5) 나는 ○○의 일반적인 식단과 식사방법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6) 나는 ○○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7) 나는 ○○의 연령에 따른 발달단계와 행동을 이해한다.	①	②	③	④	⑤
18) 나는 ○○의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 발달 등의 균형있게 이루어질 수 활동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9) 나는 ○○의 발달 정보를 얻기 위해 관련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다.	①	②	③	④	⑤
20) 지역사회에서 나와 ○○에게 도움이 되는 서비스나 사람들(예: 또래 아이 부모들, 보육지원서비스, 어린이집, 치료실, 문화센터 프로그램 등)을 찾을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1) 나는 ○○를 돌보는데 있어 유능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22)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부모 역할을 보여주는 관찰은 모델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23) 나는 ○○와의 관계에서 생기는 문제(예: 아이의 짜증, 아이와 규칙변경 등)를 잘 다룬다.	①	②	③	④	⑤
24) 나는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한 필요한 지식과 방법을 잘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5) 나는 유능한 부모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26) 나는 부모로의 능력에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7) 부모로서 겪게 되는 좌절과 스트레스에 잘 대처해나간다.	①	②	③	④	⑤
28) 나는 화가 나면 화가 난 이유를 생각해본다.	①	②	③	④	⑤
29) 나는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잘 받아들일 수 있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30) 나는 어려움을 겪더라도 그것을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객관성을 유지하려고 한다.	①	②	③	④	⑤
31) 나는 잘 안되리라 생각하는 상황에서도 적어도 무엇인가를 해보기로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32) 나는 스트레스가 있어도 어느 정도 참고 견딜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D11. 양육정보 습득 경로: 귀하는 자녀 양육 정보를 주로 어디서 얻습니까? 가장 많이 이용하는 순서대로 2가지만 응답해주시요.

1순위	2순위

- ① 가족 및 친지
- ② 친구/지인
- ③ 인터넷 블로그/사이트 (예: 맘카페)
- ④ 소셜 미디어 플랫폼 (예: YouTube, 인스타그램)
- ⑤ 양육 관련 앱/소프트웨어
- ⑥ 도서/출판물
- ⑦ 자녀 재원 기관 (예: 어린이집, 유치원)
- ⑧ 전문가 상담
- ⑨ 기타()

D12. 양육정보 도움 정도: 앞서 여러 경로로 얻은 양육정보가 실제 아이를 키우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되었습니까?

- ① 전혀 도움 안 됨
- ② 도움 안 됨
- ③ 보통임
- ④ 도움 됨
- ⑤ 매우 도움 됨

D13. 선호하는 전달 방식: 귀하가 자녀 양육 관련 정보를 얻고자 할 때 가장 선호하는 방식은 무엇입니까? 선호하는 순서대로 2가지만 응답해주시요.

1순위	2순위

- ① 소셜미디어 플랫폼 (예: YouTube, 인스타그램)
- ② 인터넷 블로그/사이트 (예: 맘카페)
- ③ 모바일 앱 (예: 품(Puum))
- ④ 서적/출판물
- ⑤ 전화 상담 (예: 가족상담전화)
- ⑥ 1:1 대면 상담
- ⑦ 가정 방문
- ⑧ 워크숍/세미나/부모교육 참석
- ⑨ 기타()

D14. 자녀 양육 역량 강화를 원하는 영역: 귀하가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양육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영역은 무엇입니까? 우선순위로 2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	-----

- ① 상호작용 역량 (예: 아이와 건강하게 놀이하고, 이야기 나누고 안아주기)
- ② 인지적 역량 (예: 아이 발달을 잘 이해하고 아이를 위한 활동을 알기)
- ③ 양육효능감 (예: 부모로서 잘 할 수 있다는 자신감 갖기)
- ④ 정서적 역량 (예: 나 자신의 감정 다스리기)
- ⑤ 아이 돌보기 역량 (예: 먹이기, 재우기, 씻기기 등)
- ⑥ 문제·갈등 해결 역량 (예: 아이/가족 간 관계에서 문제/갈등 원만히 해결하기)
- ⑦ 기타()

D15. 나 자신 vs. 자녀: 현재 ‘나 자신을 위한 삶’과 ‘자녀를 위한 삶’ 중 어느 쪽에 더 집중하고 계십니까?

나 자신을 위한 삶	《《 ----- 》》》					자녀를 위한 삶
①	②	③	④	⑤	⑥	⑦

E. 가족관계

E1. 본인 부모 동거 여부: 귀하는 본인 부모님(자녀의 조부모)과 같이 살고 있습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 E1-1)

[로직: E1=2인 경우만 응답]

E1-1. 본인 부모와 연락 여부: 귀하는 본인 부모님과 연락하고 지내십니까?

- ① 예 (☞ E1-1-1)
- ② 아니오

[로직: E1-1=1인 경우만 응답]

E1-1-1. 본인 부모와 연락 정도: 귀하는 본인 부모님과 얼마나 자주 연락하고 지내십니까?

- ① 매주 한 번 이상 연락하며 주말에 함께 시간을 보냄.
- ② 한 달에 2-3번 정도 연락하고 가끔 주말에 만나기도 함.
- ③ 몇 달에 한 번 정도 연락하며 만나지 않는 경우가 많음.

E2. 본인 부모와의 관계 만족도: 전반적으로 귀하는 본인 부모님과의 관계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 ① 매우 불만족
- ② 불만족
- ③ 보통
- ④ 만족
- ⑤ 매우 만족
- ⑥ 해당 없음

[로직: SQ1=1인 경우만 응답, 청소년부모]

E3. 본인 배우자/파트너와의 관계 만족도: 전반적으로 귀하는 귀하의 배우자/파트너와의 관계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 ① 매우 불만족
- ② 불만족
- ③ 보통
- ④ 만족
- ⑤ 매우 만족

F. 지출 부담

F1. 최대 소비 영역: 소비지출 항목 가운데 가장 많이 소비하는 항목은 무엇입니까?
순서대로 2가지만 응답해주시요.

1순위	2순위
-----	-----

- ① 아이 식료품(분유, 우유, 이유식 등), 기저귀 구입비
- ② 자녀 양육비(어린이집유치원 이용료, 학원비, 베이비시터아이돌보미 비용, 학교과년 비용 등)
- ③ 식비(주식비, 부식비, 외식비 등)
- ④ 의료비(병원비, 약품구입비 등) 및 의료 보험료
- ⑤ 문화생활비(책값, 영화관, 문화시설이용료 등)
- ⑥ 의류구입비(옷, 신발, 악세사리 등)
- ⑦ 주거 및 관리비(집세, 난방비, 전기세, 수도세, 관리비)
- ⑧ 교통·통신비(대중교통 이용료, 차량유지비, 휴대폰 사용료, 인터넷 이용료 등)
- ⑨ 부채(채무) 상환, 이자비용 등
- ⑩ 기타 ()

- ③ 부모 취업 지원 (예: 국민취업제도, 국민내일배움카드 등)
- ④ 자녀 양육 지원 (예: 아동수당, 가정양육수당,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등)
- ⑤ 가족 주거 지원 (예: LH 임대지원, 공공주택지원 등)
- ⑥ 부모 양육역량 강화 지원 (예: 부모교육, 코칭, 심리상담, 전문가 상담 등)

G5. 임신·출산 지원에서 필요한 부분: 정부에서 임신·출산 관련 지원을 확대한다면, 귀하께서는 어떤 것이 가장 필요하십니까?

- ① 출산·육아 교육 프로그램 확대
- ② 임신 중 건강 지원 강화
- ③ 출산 후 산후조리 관련 지원 확대
- ④ 산후 우울 관리 등 심리적 지원 강화
- ⑤ 신생아 돌봄 지원 확대
- ⑥ 병원비 지원 확대
- ⑦ 기타()

G6. 부모 학업 지원에서 필요한 부분: 정부에서 청소년부모를 위한 학업 관련 지원을 확대한다면, 귀하께서는 어떤 것이 가장 필요하십니까?

- ① 임신 및 자녀 양육 중에도 계속해서 학교에 다닐 수 있는 지원
- ② 학습 프로그램 지원
- ③ 학업을 지원해주는 멘토 제공
- ④ 학업 중 자녀 돌봄 서비스 지원
- ⑤ 등록금 등 학업 비용 지원
- ⑥ 기타()

G7. 부모 취업 지원에서 필요한 부분: 정부에서 청소년부모를 위한 취업 관련 지원을 확대한다면, 귀하께서는 어떤 것이 가장 필요하십니까?

- ① 취업 관련 상담 서비스 지원
- ② 취업에 필요한 기술 교육과 자격증 지원
- ③ 안정적인 일자리 보장 지원
- ④ 취업 및 근무 중 자녀 돌봄 서비스 지원
- ⑤ 기타()

G8. 자녀 양육 지원에서 필요한 부분: 정부에서 청소년부모가 자녀를 키우는 데 필요한 지원을 확대한다면, 귀하께서는 어떤 것이 가장 필요하십니까?

- ① 자녀 양육에 관한 믿을만한 자료 제공
- ② 맞춤형 사례관리, 1:1 양육코칭 기회 제공

- ③ 어린이집/유치원 등 기관 우선 이용권 지원
- ④ 가정 방문형 자녀 돌봄 서비스 지원
- ⑤ 양육비용 지원
- ⑥ 기타()

G9. 가족 주거 지원에서 필요한 부분: 정부에서 청소년부모의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위해 지원을 확대한다면, 귀하께서는 어떤 것이 가장 필요하십니까?

- ① 주거 관련 1:1 상담 서비스 지원
- ② 청소년부모지원시설(복지시설)/임시 거주지 확대
- ③ 청소년부모가 이용할 수 있는 임대주택 공급 확대
- ④ 주거비 지원 확대
- ⑤ 기타()

G10. 부모 양육 역량 강화 지원에서 필요한 부분: 정부에서 청소년부모가 자녀를 키우는데 필요한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한다면, 귀하께서는 어떤 것이 가장 필요하십니까?

- ① 온라인으로 자녀 양육 관련 정보 제공
- ② 다양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지원
- ③ 양육 역량 검사 및 1:1 양육 상담 지원
- ④ 청소년부모의 심리적 지원 강화
- ⑤ 비슷한 고민을 가진 청소년부모 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
- ⑥ 기타()

G11. 선호하는 지원 방향: 청소년부모가 자립하여 자녀를 잘 돌보기 위해서 ‘자녀를 부모가 직접 돌볼 수 있도록 돕는 지원’과 ‘부모 대신 자녀를 맡아주는 자녀 돌봄 서비스 지원’ 중 어떤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자녀를 부모가 직접 돌볼 수 있도록 돕는 지원	《 ----- 》						부모 대신 자녀를 맡아주는 자녀 돌봄 서비스 지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H. 일반적 특성

H1. 거주지역: 현재 거주하고 계신 지역은 어디입니까?

()시/도 ()시/군/구

H2. 월평균 소득; H3. 정부지원금: 귀댁의 월평균 정부지원금 및 소득은 얼마입니까?

항목	금액
월평균 정부지원금 (예: 아동수당, 양육수당, 부모급여 등)	()만원
그 외 월평균 가구소득 ※ 아동수당, 양육수당, 재난지원금 등 정부지원금으로 받는 금액을 제외하고, 세후(실수령) 기준으로 응답	()만원

H4. 총 가구원 수: 귀 댁에 현재 같이 살고 있는 가구원 수는 총 몇 명(자녀, 본인 포함)입니까?
()명

[로직: SQ1=1인 경우 본인 + 배우자 칸 생성, SQ1=2인 경우 본인 칸만 생성]

H5. 본인 + 배우자/파트너 최종학력: 귀하(와 귀하 배우자/파트너)의 최종학력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최종 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고등학교 졸업	전문대 (2,3년제) 졸업	4년제 대학 졸업	대학원 졸업 이상
본인	①	②	③	④	⑤
배우자	①	②	③	④	⑤

H6. 본인 + 배우자/파트너 학업 여부: 귀하(와 귀하 배우자/파트너)는 현재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까?

	학교 재학 여부	
	학교를 다니고 있음	학교를 다니고 있지 않음
본인	①	②
배우자	①	②

H7. 본인 + 배우자/파트너 학업 중단 경험: 귀하(와 귀하 배우자/파트너)는 임신, 출산으로 인해 학교를 그만둔 경험이 있습니까?

	학교를 그만둔 경험	
	있음	없음
본인	①	②
배우자	①	②

H8. 본인 + 배우자/파트너 취업 여부; H9. 본인 + 배우자/파트너 취업 계획: 귀하(와 귀하 배우자/파트너)는 현재 일을 하고 있습니까? 일을 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일 할 계획이 있습니까?

	일을 하는지 여부		(일을 하지 않는 경우만 응답) 일 할 계획	
	일을 한다	일을 하지 않는다	구직/취업 준비 중	준비 하지 않음
본인	①	②	①	②
배우자	①	②	①	②

[로직: 본인 또는 배우자가 일을 한다고 응답한 경우]

H8-1. 본인 + 배우자/파트너 고용형태: 귀하(와 귀하 배우자/파트너)의 고용형태는 무엇입니까?

	(일을 한다는 경우만 응답) 고용형태		
	계약직	정규직	그 외 (프리랜서, 자영업 등)
본인	①	②	③
배우자	①	②	③

H8-2. 본인 + 배우자/파트너 근무 시간대: 귀하(와 귀하 배우자/파트너)는 주로 어떤 시간에 일하시나요?

	(일을 한다는 경우만 응답) 일 하는 시간이		
	주로 낮 시간이다.(9~18시)	주로 밤 시간이다. (18시 이후)	정해져있지 않다.
본인	①	②	③
배우자	①	②	③

부록2. 심층면담지

면담조사 질문지

안녕하십니까? 육아정책연구소는 육아정책 관련 연구를 체계적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국책 연구기관입니다.

본 면담조사를 통해 출산 및 자녀 양육 경험, 어려움, 지원요구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부모님의 의견을 바탕으로 청소년부모 육아지침서를 개발하고 향후 청소년부모 정책 방향에 대한 제언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질문에는 정답이 있지 않으므로 평소에 경험하고 느끼신 그대로를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응답해 주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통계자료 작성 및 연구의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될 것이며, 개인 정보 및 비밀이 보장되며, 조사결과 는 연구목적 이외에 어떤 용도로도 이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본 연구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솔직하고 성실하게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7월

1. 응답자의 일반 특성

성 별	☐ 남자 ☐ 여자	
배우자/ 파트너 유무	① 배우자 있고 혼인신고 함. ② 파트너 있고 사실혼, 동거 중 ③ 배우자/파트너 없음.	
출생년도	응답자 본인 ()년	(파트너 있는 경우) 배우자/파트너 ()년
가족 구성	※ 함께 사는 가족을 모두 선택하고 명수도 응답해 주십시오. ① 배우자 ② 자녀(명) ③ 본인 또는 배우자의 아버지/어머니 ④ 본인 또는 배우자의 할머니/할아버지 ⑤ 본인 또는 배우자의 친척(명) ⑥ 친구, 동료 및 지인(명) ⑦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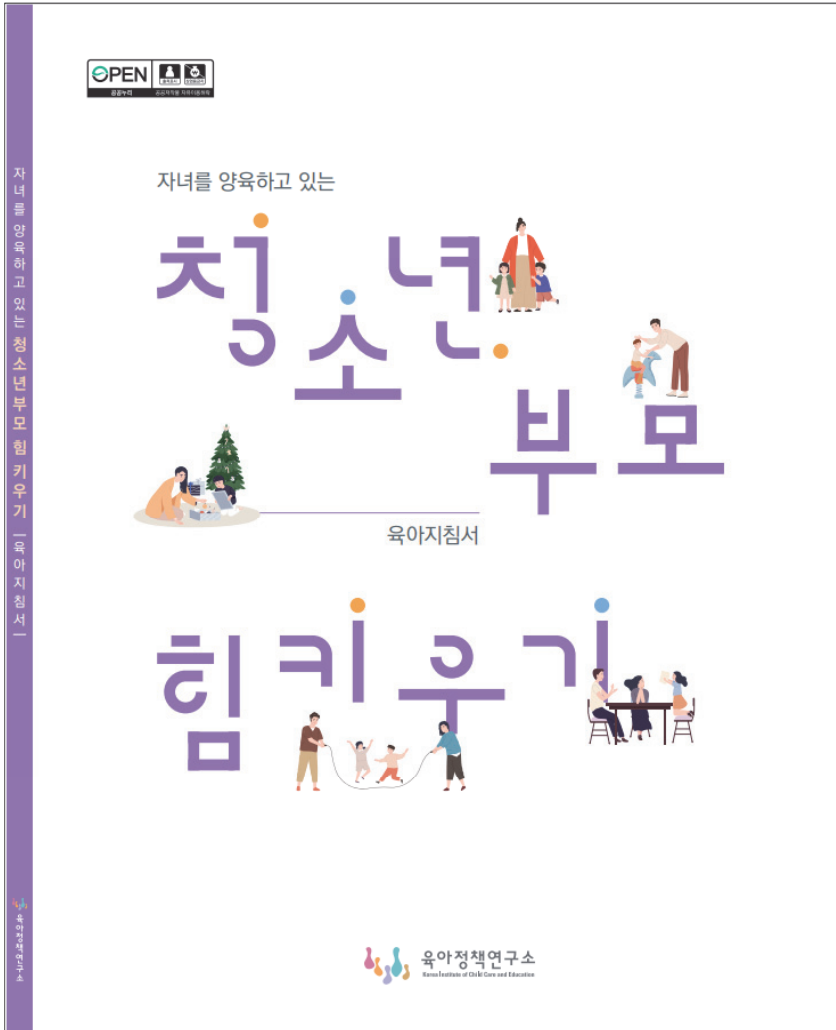
취업/ 학업상태	☐ 미취업 ☐ 취업(직종: _____) ☐ 학업 중 (현재: ① 중학교 재학 ② 고등학교 재학 ③ 대학교 재학 ④ 대학원 재학)	
최종학력	☐ 중학교 졸업 ☐ 고등학교 졸업 ☐ 대학 졸업(2~3년) ☐ 대학교 졸업(4년)	
지역 규모	☐ 대도시 ☐ 중소도시 ☐ 읍면지역	
월평균 가구소득 (재난지원금, 아동수당, 양육수당 등 공적 이전 소득 제외)	☐ 100만원 미만 ☐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 4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 600만원 이상~700만원 미만	☐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 500만원 이상~600만원 미만 ☐ 700만원 이상

II. 주요 질문 내용

임신·출산 경험 및 지원 요구
1. 임신·출산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무엇인가? (경제적, 심리적, 신체적, 관계적, 자기 개발/미래 관련 측면 등) 2. 임신·출산과 관련된 정보를 어디서 얻었는가? 2-1. 가장 도움이 된 방법은 무엇인가? 3. 임신·출산 기간에 가장 필요했던 지원은 무엇인가?
자녀 양육 경험 및 지원 요구
4. (현재 아동 연령에 맞춰 질문) 4-1. 자녀 양육을 주로 누가 담당하고 있나(주양육자, 양육분담 정도)? 4-2. 자녀 양육 시 가장 도움을 주는 사람(기관 포함)은 누구인가? 4-3. 자녀 양육에 유용하였던 정보(발달지식, 육아tip 등)는 무엇인가? 4-4. 자녀 양육과 관련하여 더 배우기를 원하는 정보나 교육 내용은 무엇인가? 5. 자녀를 양육하는 데 가장 필요한 정부 지원/지역사회 지원은 무엇인가? 5-1. 현재 어떤 (정부나 단체의) 지원을 받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필요한 지원은 무엇인가?
자녀와 나 자신에 대한 생각
6. 내 아이가 어떤 사람으로 성장하면 좋겠는가? 7. 나는 어떤 부모가 되고 싶은가? 7-1. 그런 부모가 되기 위해서 양육과 관련하여 개발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 8. 나 자신을 위해서(예: 취업, 학업, 자기개발, 취미 등) 무엇을 하고 있는가? 8-1. 나 자신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싶은가?

관계
9. 현재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이 있는가? 9-1. 나의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는 어떠한가? 10. (배우자/파트너가 있다면) 현재 배우자/파트너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이 있는가? 10-1. 배우자/파트너와 자녀의 관계는 어떠한가?

부록3. 청소년부모 육아지침서 ‘청소년부모 힘 키우기’ 표지



〈육아지침서 ‘청소년부모 힘 키우기’ 다운로드 QR코드〉



취약·위기가정 양육역량 지원 방안 연구(II)
: 청소년부모 양육역량 지원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